2021 KATE SIG (SPECIAL INTEREST GROUPS) CONFERENCE

'ENGLISH LANGUAGE TEACHINGBEYOND THE CLASSROOM'

기간: 2021 년 2월 1일(월) ~ 2월 6일(토)

장소: 전주대학교

주최: 전주대학교, 전주대학교 교육연수원, 전주대학교 인문과학종합연구소

주관: 한국영어교육학회

후원: 국제교류진흥회, 대교, LG CNS, 청담러닝, E*PUBLIC, (주)투판즈, 케임브리지



















2021 KATE SIG 조직위원회

Conference Chair: 최선희(전주대학교)

Site & Technology Chair: 이제영(전주대학교)

Program Chair: 장은영(서울교육대학교)
Proceedings Chair: 장소영(군산대학교)
Registration Chair: 배지영(공주대학교)

Budget Chiar: 박정연(동아대학교)

General Affairs Chair: 홍광희(영남대학교)

2021 KATE SIG 학술대회 장소 - 전주대학교



찾아오시는 길

1. 승용차 이용 시:

서해안 고속도로 \rightarrow 서김제 IC(좌회전 후 전주방면) \rightarrow 전주대학교 정문(약 30분)

호남 고속도로 \rightarrow 서전주 IC \rightarrow 전주대학교(약 5분)

호남 고속도로 → 전주 IC → 월트컵경기장 → 서부우회도로 → 서곡교(우회전) → 마전교(우회전)

→ 전주대학교(약 20분)

2. 대중교통 이용 시:

서울-전주 고속버스터미널: 2시간 10분 소요 → 전주대학교(택시 이용시 약 15분)

서울-전주역: KTX 1시간 40분 소요 → 전주대학교(택시 이용시 약20 분)

[전체 프로그램]

일시: 20201년 2월 6일(토) 10:00 - 13:00

진행방식: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접속(단, 기조연설은 동영상 발표 사이트에 업로드 예정)

시간	주제	발표자
		김갑룡(전주대학교 부총장)
10:00 ~ 10:15	개회식	강후동(한국영어교육학회 회장)
		최선희(KATE SIG 학술대회 회장)
10:15~11:00	포스트 코로나 영어교육, 방향과 해법을	김혜영
10.13 *11.00	찾아서	(중앙대학교 교수)
11:00~11:10	'포스트 코로나 영어교육, 방향과 해법을 찾아서' Q&A	
	북한의 영어 교육과정 및 영어교육	이 철
11:10~11:40	체험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11:40~11:50	'북한의 영어 교육과정 및 영어교육 체험기' Q&A	
11:50~12:00	연구 윤리 교육	허근
11.30 12.00		(한국영어교육학회 편집/출판 부회장)
12:00~12:40	SIG Round Table	각 SIG 좌장
12:40~13:00	경품 추첨 및 폐회식	
분과별 발표(온라인 동영상 발표): 2월 1일(월) ~ 2월 6일(토)		

분과별 발표(온라인 동영상 발표): 2월 1일(월) ~ 2월 6일(토)

동영상은 KATE 홈페이지 내 2021 SIG Conference Site에서 시청 가능

[분과별 발표 내용]

제2언어 습득(Second Language Acquisition: SLA)

분과장: 임자연(서울시립대)

분과주제: Current Perspectiv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발표 제목	발표자
Sentence processing and the L2 acquisition of tense and aspect	Hyun-Jin Kim (Ajou University)
Knowledge gaps as resources for learning and negotiating identities in online ELF interaction	Sun-Hee Kim (University of Seoul)
언어 학습에 있어서 반응 시간의 활용: 길이 효과를 중심으로	강은수 (University of Maryland)
The learnability of unaccusative verbs for Korean EFL learners: An account based on textbook input frequency and bias	Ji-Yung Jung (SungKyunKwan University)
Investigating L2 multimodal writing processes and performance	Jungmin Lim (Dankook University)

특수 목적 영어교육(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ESP)

분과장: 백경숙(한양여대)

분과주제: ESP 수업 구축과 운영의 실제

발표 제목	발표자
특수목적영어 연구에서 코퍼스 구축과 분석의 실제	김동영(해군사관학교)
A longitudinal study of a Korean ESP teacher's identity transformation	Myonghee Kim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취업 연계형 이공계, IT 융합 ESP 교과목 성공 사례 연구	정성희(숭실대)
비대면 원격수업에서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수업활동	오선주(이화여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영어교육(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ICT)

분과장: 이제영(전주대)

분과주제: 스마트 도구/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영어 수업 전문성 향상

발표 제목	발표자
음성대화처리 기반 InClass를 활용한 초등영어학습자들의 반응 연구	홍선호(서울교대) 윤택남(춘천교대) 이삭(서울교대 부설초) 오은진(서울 신석초)
온라인 영어 수업과 스마트 도구/기술	황현우(조선대학교)

교사 교육(Teacher Development)

분과장: 이상기(한국교원대)

분과주제: 함께 하는 영어교육 - 읽기 지도

발표 제목	발표자
함께 하는 영어교육: 읽기지도	이상기(한국교원대)
Matching appropriate texts to readers	Jiyoung Bae (Kongju National University)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읽기 지도	박현민(화성 동학중)
창의성을 기르는 협동 수업 읽기 지도	한신실(대전 대덕고)
문학적 감수성을 기르는 읽기	조명연(대전 관저고)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주는 정보추출 목적의 글 읽기	안혜선(대전 둔산여고)
수업시간을 200% 활용하는 읽기의 거꾸로 학습	민채령 (한국교원대 부설 미호중)

영어교육 방법(ELT Methodology)

분과장: 권은영(육군사관학교)

분과주제: Innovations in Learning Technologies for English Language Teaching

발표 제목	발표자
Technology-integrated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classrooms	Eun-Young Kwon (Korea Military Academy)
A practice-based exploration of technology enhanced assessment for English language teaching	Jeongwan Lim (Daegu University)
Technology-integrated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lessons: Real-life language, tasks, and tools for professionals	Hyung-ji Chang (Sun Moon University)
Using ICT tools in the EFL classroom	Youn-Kyoung Le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조기 영어교육(Teaching Young Learners)

분과장: 심창용(경인교대)

분과주제: How to use AI-based Chatbots and Translators

발표 제목	발표자
Session Overview: Teaching English to Young Learners	심창용(경인교대)
인공지능 기반 번역기 사용 초등영어 교육	심창용(경인교대) 박지현(경인교대)
초등영어학습자를 위한 Negotiating Chatbot	황필아(경인교대) 성민창(경인교대)
초등영어교육용 챗봇 개발 사례	정세진(충남 서정초) 김영순(경기 서해초) 조규희(안산 원곡초)
목적지향형 AI 챗봇 활용 초등 영어 말하기 학습 및 평가	추성엽(서울 천호초)

코퍼스(Corpus)

분과장: 홍신철(부산외대)

분과주제: Trinity Learner corpus and BUFS Learner corpus

발표 제목	발표자
Session Overview	홍신철(부산외대)
트리니티 학습자 코퍼스와 부산외국어 대학교 학습자 코퍼스	홍신철(부산외대)
Data compiling criteria for BUFS learner corpus	Heajin Suh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rinity Lancaster corpus 내용 및 사용방법	황현미(부산대)

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Material & Curriculum Development)

분과장: 정채관(인천대)

분과주제: Material & Curriculum Development Beyond the Classroom

발표 제목	발표자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영어과 최소성취수준 진술문 개발	주형미(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핵심역량-영어 교과 역량-성취기준연계를 통한 영어과 핵심역량 평가방안: 컴퓨터 기반 영어과 핵심역량 평가도구 개발 및 시범적용	이문복(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실행 모니터링 및 영어과 결과 분석	배주경(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영어 평가(English Testing)

분과장: 배정옥(경북대)

분과주제: 대학영어교육·영어평가 분야의 최근 변화 추이와 쟁점:

수능영어 절대평가 도입 효과와 영어시험 간 점수 환산을 중심으로

발표 제목	발표자
Session overview: Recent trends and issues in English education and testing in South Korea	Yong-Wo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Jungok Ba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수능영어 정책의 실패, 과연 해결방법은 있는가?	황종배(건국대)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 이후의 공대 신입생들의 영어능력 추이와 영어교육 상황 분석	윤도현(백석대) 이용원(서울대) 이종우(홍익대)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절대평가 전후의 대학영어교육의 변화 추이와 주요 특성: 대학(교양)영어 교원의 인식 설문 조사	이용원(서울대) 이종우(홍익대) 배현(목포대)
대학영어교육의 최근 동향: 그룹 인터뷰 참여자들의 관점	정한별(서울대) 이용원(서울대)
TOEIC-신 TEPS 점수 환산의 공정성: 예비 연구	임의진(진주교대) 전희성(서울대) 최지원(서울대)

비판적 교수법(Critical Pedagogy)

분과장: 안성호(한양대)

분과주제: 트랜스링궐리즘 이론과 실천의 가능성

발표 제목	발표자
"멀티링궐 행아웃": 중국 출생 탈북청소년과 함께 한 트랜스랭귀징 프로그램	장은영(서울교대) 김은영(한국성서대)
트랜스링구얼 관점에서의 NEST/NNEST 담론 고찰	이정아(대구경북과학기술원) 오경애(한국외대)
트랜스랭귀징 기반 영어 학습 지원 프로그램 과제와 방향	강현주(수원 천천초)
Li Wei 의 트랜스랭귀징 이론과 적용	장인철(건국대)

영상 영어(Screen English)

분과장: 정한기(육군3사관학교) 분과주제: Digital literacy & me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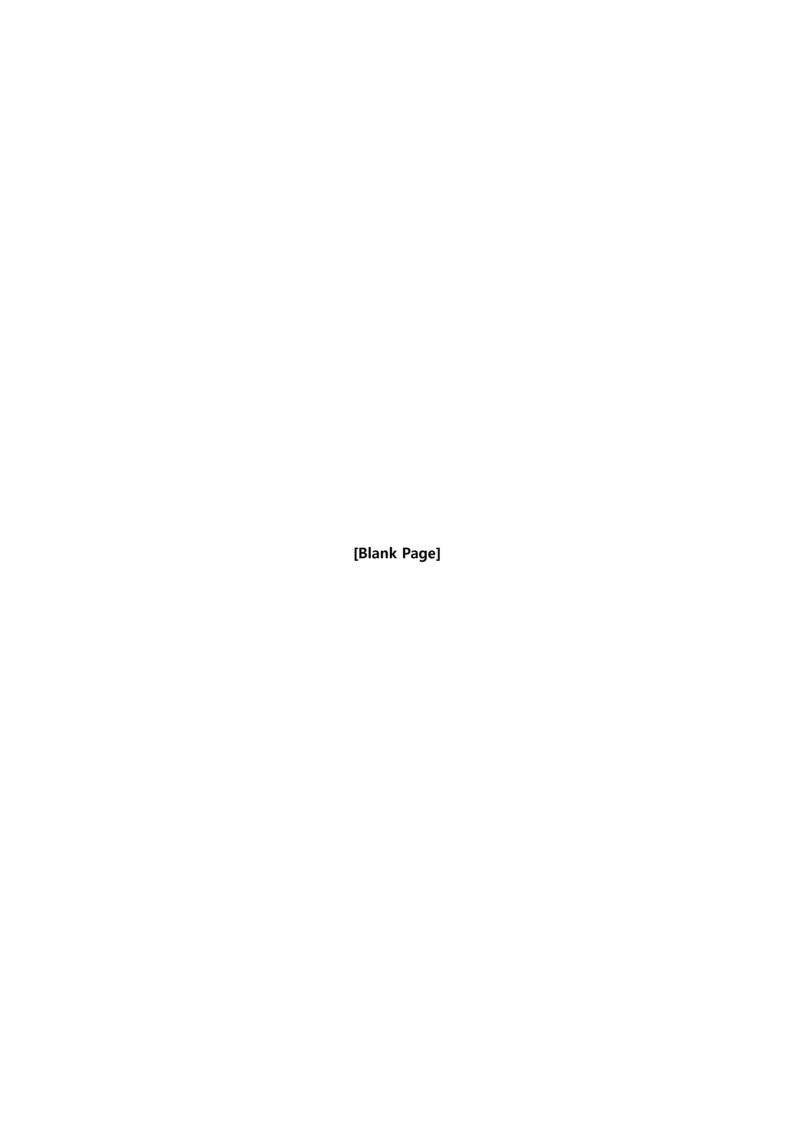
발표 제목	발표자
Session Overview	편무태(용인송담대)
Postmortem review on gamification in education: Creating a cognitive and language development tool	Joo-Hyun Park (NeuroLanguageLab Inc., Hanyang University) Hongoak Yun (Jeju National University)
게이미피케이션을 접목한 블렌디드러닝 설계	최정혜(고려사이버대)
영어교육분야 VR 기술 활용방안 및 적용	박성만(단국대)
온라인수업에서 교수자 인식 및 수업전략: 교양대학을 중심으로	임희주(단국대)
Examining the effects of online class for middle school students	Yurim Han (Godeok Middle School) Leah Anderson (Jinjeop Middle School)

북한 영어교육(English Education in North Korea)

분과장: 김정렬(한국교원대)

분과주제: 북한의 영어교육 현황 및 분석

발표 제목	발표자
Session Overview	김정렬(한국교원대)
A diachronic look at North Korean English education	Jeong-ryeol, Kim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북한 영어 교과서 어휘의 통시적 분석	김지영(인천 도담초) 이제영(전주대) 김정렬(한국교원대)
북한 2013 개정 전후 고급중학교 영어교과서의 어휘 비교	황서연(서울 미동초)
북한 중학교 6학년 영어교과서에 나타난 교과 통합 어휘 분석	박선인(전주 신성초)



[목 차]

죽 사	1
환영사	2
기조 발표 I	3
기조 발표 ॥	8
제2언어습득	10
특수목적영어교육	30
ICT	76
교사교육	108
영어교육방법	128
조기영어교육	140
코퍼스	176
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	190
영어평가	232
비판적 교수법	260
영상영어	296
북한영어교육	326
연구 윤리 교육	341

축 사

김갑룡 (전주대학교 교육부총장)

존경하는 한국영어교육학회 회원 여러분.

영성·인성·지성의 전인교육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교육을 실현하여 창의적 실용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수퍼스타를 키우는 곳' 우리 전주대학교에서 한국영어 교육학회가 "English Language Teaching Beyond the Classroom"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는 코로나라는 고난과 역경을 뚫고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갑작스러운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경험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교육계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좀 더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비대면 수업 환경 조성과 교수법 개발에 힘썼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여러 교수님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대학원생 여러분들이 모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영어학습과 교육방법을 논하는 자리에 축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하며,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학술대회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학술대회장님과 모든 학회 임원들께도 진심으로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전주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1964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개교 57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50여년 동안 지역사회의 아낌없는 지지와 대학 구성원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국가와 지역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전문 인력과 지도자를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을 둘러 싼 교육환경이 급변하는 현실속에서도 학생들의 교육가치 향상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우리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 그리고 꿈이 실현되는 최고의 대학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 가치 창출 1위, 기독교 명문사학'을 대학의 비전으로 선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대학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정신의 구현은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가장 최우선의 사명이며,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주대학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예수그리스도를 닮은 진정한 SUPERSTAR를 양성하는 교육의 요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우리 대학이 지향하는 교육 비전을 실현하는 데 하나의 씨앗이 되고, 한국의 영어교육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술대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환영과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한국영어교육학회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여,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 영 사

강후동 (한국영어교학육회장)

먼저 이 학술대회를 위해 훌륭한 장소를 제공해 주신 전주대학교를 대표하시는 전 주대학교 부총장님, 이 학술대회를 다른 학술대회와 차별되게 해 주시고 특별하게 해 주신 기조발표자 김혜영교수님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 철 책임위원님, 많은 훌륭한 SIG(Special Interest Group)좌장님들과 발표자님들, 그리고 시대에 맞는 영어교육의 이론을 현장에서 적용하고자 열정을 갖고 자신의 값진 시간을 내어 학술대회에 참여해 주시는 많은 교수님, 연구자 분들, 회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초·중등 선생님들께 진심어린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학술대회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전례 없이 전 세계를 바이러스로 고통에 빠지게 하고 있는 COVID-19 시기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가며, 이 변동이 많고, 험난한 시기에 더욱 학습자들에게 교육적 영 감과 비전을 심어주고자 삶을 바치고 계시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적 사명과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자 저희 한국영어교육학회에서는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를 'English Language Teaching Beyond the Classroom'로 하고, 어느 때보다도 많은, 다양한 12개의 분과를 열어 영어교육의 분야를 심화하며,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영어교육, 방향과 해법'을 기조발표로, 또한 겨레의 염원인 남북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북한영어교육' 분과를 신설하여, 기조발표자도 모시는 열의를 보이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위기상황을 맞이하면서 한 차례 학술대회 일정을 연기하기도 하며, 이번 학술대회를 총괄하신 학술대회장 최선희 전주대학교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회장님의 헌신과 세심한 준비로 인해 이 학술대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학술대회준비팀원이신 서울교육대학교의 장은영교수님, 군산대학교의 장소영교수님, 그리고 전주대학교의 이제영교수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이 학술대회를 개최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학문적으로 매력을 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신 각 분과의 발표자 분들과 이 분들을 잘 섬기며 연합하여 분과를 의미 있고, 활기 있게 만들어주고 계시는 좌장 교수님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물질적 후원으로 이 학술대회가 가능하도록 해 주신 여러 협력업체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개회식과 온라인으로 각 발표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들 드리며, 아무쪼록 이 번 SIG학술대회가 의미있고, 새로운 영어교육에의 열정을 함께 느끼고, 영감을 공유하는 귀한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모든 분들의 건강을 빌며,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선전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조 발표 1]

포스트 코로나 영어교육, 방향과 해법을 찾아서

김혜영 (중앙대학교)

서론: 포스트 코로나,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가?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위기가 심각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지는 이미 수년이 지났다. 사교육의 주범으로서 십수년간 비난을 받아오며 초·중·고 영어 교과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이 대폭 감소되었고, 이후 영어 절대 평가제실시 등의 정책적인 영어교육 약화, 그 밖에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교원 임용 감소, 4차산업혁명 기술을 통한외국어 학습 대체 위협,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비대면 교육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사태에 이르렀다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21세기초 급성장하였던 학문으로서의 영어교육은 불과 20년만에 정체기를 맞이하고 있는 듯하다. 지난 55년간 부단하게 성장하며 중흥기를 누려왔던 한국영어교육학회의 역사(김영태, 김혜영, 2015)에 있어 가장 큰 시련기가 도래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은 비단 영어교육의 문제만은 아니다. 상당부분은 경제의 침체, 인구 문제, 인문학의 쇠퇴, 디지털 사회의 도래 등 국내·외 사회전반의 급속한 변화와 맞물려 있기도 하다. 그러나 위기를 외부 환경의 문제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영어교육의 학계와 교육계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자기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변화된 사회에 대한 인식, 현재 영어교육의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미래 사회의 도전에 대응할 장기적인 체질 변환을 위해 영어교육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지금과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 할 수 없다. 다만 영어교육의 위기를 가져다 주는 사회 변화의 속도가 급속하게 빨라지고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 가능하다. 지금도 한해가 다르게 변화해가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 미래 영어교육의 지도를 그려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처음 4차산업혁명이 화두가 될 때 이찬승(2017)은 기술과 교육의 미래를 연결하려는 세태를 다음과 같이 비판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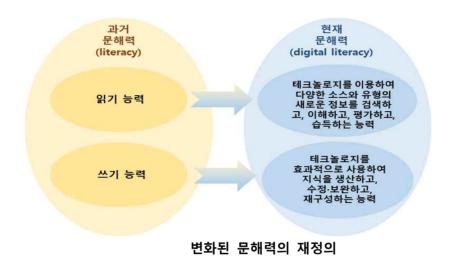
4차 산업혁명과 교육을 과도하게 연결시키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은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왔던 바람직한 교육의 상과 크게 다르고, 또 달라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현재의 교육 현안을 이대로 두고 미래 교육의 허상을 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래는 언제나 현재와 맞닿아 있고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미래 교육은 전혀 새로운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추구했지만 이루지 못한 더 나은 교육을 말한다(이찬승, 2017).

그러나 모든 사회 변화의 주요 원인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신기술에 따라 미래 교육은 전혀 다른 획기적인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개혁 방향이라는 점에서 위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교육참여자인 인간의 행동 방식과 사고체계가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사회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다. 한마디로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 2021년 현재의 학습자는 20년전 인 2001년 학습자와는 크게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먼저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변화된 인간의 언어생활과 지식의 속성, 학습 방식 등 영어교육을 둘러싼 달라진 사회 현상을 짚어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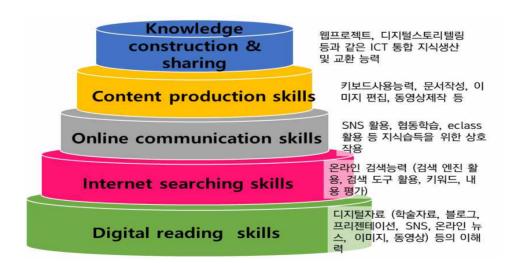
포스트 코로나 영어교육의 핵심 도전 과제들

영어교육자와 영어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이해

디지털 리터러시를 흔히 테크놀로지를 다루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디지털 리터러시는 수 백년 간 이어졌던 문해력(literacy)의 개념이 확장 변화한 것이다. 과거 문해력에서 말하는 '읽기(reading skill)'는 디지털 리터러시에 있어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다양한 소스와 포맷의 새로운 정보를 검색하고, 이해하고, 평가하고, 습득하는 능력(혹은 기술)"에 해당한다. 한편 과거의 쓰기(writing skills)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하에서는 "테크놀로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지식을 생산하고, 수정·보완하고, 재구성하는 능력"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학습활동으로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수업 원리를 정리해보면 한마디로 구성주의 (constructivism) 관점의 '학습자 중심 교육'인데 이를 영어교육에 대입하여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자료와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영어수업을 한다
- ICT 도구를 영어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스킬을 길러준다 (영어 키보드, 영어 사전, 재생 녹음, 동영상, 애플리케이션 등)

- 학습자 스스로 영어 자료를 검색하고 궁금한 내용의 답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 학습자에게 적합한 내용과 수준의 웹 교육자료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선별하여 제공한다
- 다양한 채널의 상호작용의 기회를 준다(교사 학생 간, 학생들 간, 학생과 영어커뮤니티간)
-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과제, 발표(디지털스토리텔링) 및 프로젝트를 실러버스에 포함한다
- 교사 스스로가 디지털 리터러시 학습 모델로서 역할을 한다

학습생태계의 변화

COVID-19 팬데믹을 통하여 과거 소수의 교육자에 의해서만 선택되던 온라인 교육이 전면 시행되고, 모든 교육참여자는 이를 직접 주관하며 장기간 체험하게 되었다. 이는 엄청난 사건이다. 일례로 우리나라 대학의 온라인 강의 비율은 2019년까지 전국 4년제 대학의 경우 1% 미만¹ 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기적에 가까운 변화이다. 교육부에서는 코로나 이후에도 온라인 교육을 부분적으로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으며, 정부는이를 이른바 K-에듀의 근간으로 삼겠다고 공언하였다 (이범, 2020). 미국의 교육 통계자료를 보면² 우리의 온라인 교육 및 테크놀로지 활용 실태는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일시에 따라잡는 행운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2020년에는 초중고 공교육에서는 제대로 사용한 적이 없었던 학습운영시스템 (learning management system, 즉 EBS 온라인클래스룸, e-학습터)을 일시에 대부분의 학교에 적용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방식 그대로의 강의 동영상이라면 사실상 온라인 교육 자체로 학습생태계가 크게 변화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변화는 서서히 그 수업방식과 교사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은 조사결과에서 드러났고 있다 (이범, 2020). 그러나 교사중심교육, 교과서의 틀 안의 지식전달 수업, 학습자의 영어실력 향상과는 무관한 지필 위주의 평가 등 고질적인 영어교육의 문제들을 수면위로 떠올려 개혁의 도마 위에 올려볼수 있는 기회가 또한 도래한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왜 이러한 플랫폼과 온라인 수업의 도입이 영어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학습생태계에 혁신을 가져올 또 하나의 핵심 이슈는 인공지능교육이다. 우리 정부는 2019년 12월 AI 국가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주요 골자 중에서 눈 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아래의 표와 같이, 인공지능 국가전략에서 밝힌 AI 교육 체계이다.

세계 최고의 AI 인재 양성 및 전 국민 AI 교육체계 구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³

- · AI 관련학과 신·증설 및 교수의 기업 겸직 허용('20)
- · 최고 수준의 AI 인재를 양성할 AI 대학원 프로그램 확대·다양화*
 - * (현행) 학과 개설 \rightarrow (개편) 학과 개설, 융합학과, 협동과정, 지역산업 융합 트랙, 대학 내 센터 등('20~)
- · 모든 군 장병 및 공무원 임용자 대상 AI 소양교육 필수화('20~)
- 미래 사회 필수역량인 SW·AI를 어릴 때부터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초 중등 교육시간 등 필수교육 확대(~'22)
- 교원의 양성·임용과정부터 SW·AI 과목 이수* 지원('20~)
 - *(교대) AI 관련 내용을 필수 이수토록 교사 자격 취득 기준(고시) 개정

(사범대) 교직과목 및 관련 전공과목에 SW·AI 관련 내용 포함

¹ 대학온라인 강의비율 1% 밑돌아... "정부가 지원 나서야"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450

² Campus technology https://campustechnology.com/articles/2016/10/12/55-percent-of-faculty-are-flipping-the-classroom.aspx

³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736

(교육대학원) AI 융합교육 관련 전공 신설, 참여교사 지원

- 일반 국민을 위한 온·오프라인 AI 평생교육* 기회 확대
 - * 학점은행제 내 Al과정 포함, K-MOOC 등 온라인 플랫폼 및 도서관·박물관 등 활용

이 전략에 따르면 초·중·고 코딩 교육의 의무화는 물론, 2020년도부터 사범대 교직 과목 신설 의무화 및 관련 전공과목에 SW AI 관련 내용과 융합 전공이 신설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따라서 영어 교과에 있어서도 영어학습관련 인공지능과 관련 소프트웨어 사용 및 기본 코딩프로그램에 대한 지도가 조만간 필수가 될 전망이다. 그러면 영어학습자와 영어교사의 AI 리터러시는 어느 정도여야 하며 무엇을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본격 논의가 필요하다.

영어교육의 정상화: 역량기반교육의 영어교육적 정의

교육 변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영어교육의 정상화이다. 첫째, 성취 목표와 평가방식이 불일치하는 우리나라 영어교육과정의 모순은 이제 과감히 개혁이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의 교과서와 내신 체재는 학습자의 개인적인 영어 역량을 진단하고, 강화해주고, 교육을 통한 성취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논리적인 교육 과정의 흐름이 무시되어왔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능력이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성취 기준에 도달하는 지 여부는 개별적인 학습자 영어능력 평가로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내신체재에는 반드시 보완되어야 하며, 교과서 위주의 지식 암기 학습 평가는 개인의 성취 수준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수능 읽기 평가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진정한 의미의 역량 중심의 절대 평가 체재를 마련해야한다. 역량(competency)의 개념과 영어 능력(competence)간의 관계를 영어교육 학계에서 좀 더 섬세하게 정의하고 규정하여, 진정한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의 구인을 새롭게 정의하여 교육과정과 교과서 커리큘럼의 혁신이 필요하다.

둘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skill의 분리 교육과 구조주의적 체재를 벗어나지 못한 의사소통기능 (communicative function)중심 교육과정은 이제 변화되어야 한다. 학습자 중심, 프로젝트 중심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과정 하에서 지난 25년간 유지되어온 산출 중심 교육과정(type A)인, notional-functional syllabus 는 현재의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지향점, 영어교육의 성취 목표, 효과적인 미래 교수법, 이에 부합하는 형성 평가 방식등과 배치된다. 이보다 과정 중심적 교육과정인 task-based syllabus (type B)로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능(skill)은 과제를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고, 역량(competence)은 학습한 결과를 규정된 맥락(교육, 일터, 개인 혹은 전문적의 능력 개발)에서 충분히 활용하는 능력이다. 또한 OECD 에 따르면 역량은 지식, 기능, 태도를 포함하는 좀 더 넓은 개념이다. (Cedefop, 2008)(OECD Education Working Papers No. 41, 2009 p.8, 이찬승, 2020 재인용)

앞으로의 정책변화를 위해서 이러한 역량의 개념, 영어교육과정과의 연계, 새로운 실러버스 설계 등 영어교육 자들의 연구와 관심이 절실하다.

셋째, 온라인 오프라인을 결합한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을 영어교과 내에서 제2언어습득 이론에 맞게 체계화 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플립드 러닝을 더 이상 온라인 강의의 접목이나 활동 중심 강화를 위한 우수 사례정도로만 받아들여서는 안되며, 영어학습이라는 구체적인 맥락 하에서 온라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영어의 습득이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나는 수업 모형이 무엇인지, 실제로 학생들이 전통수업에서보다 더 효과적인 습득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 방법론의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역시 교과서나 수업설계와 맞물려 있으므로 교육과정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모형 별 성취능력 비교 연구도 다각적으로 필요하다. 지금처럼 단지 교사재량으로 시도한 수업 경험의 공유에 머물러서는 본격적인 온라인 교육시대에서 영어 교과가 성공적으로 살아남기 어렵다. 본 발표에서는 Kim (2018) 의 영어교

과 플립드 러닝 수업 유형 분류와 연구방법론들을 예시로 소개한다.

결론 및 제언

개혁과 변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추진능력이나 전략에 앞서 상호이해, 설득, 신뢰, 하향식 의사결정 프로세스이다. 참여자의 합의없이 개혁은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 코로나가 기회를 준 것은 계기의 마련과 새로운 도전을 수용하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변화를 위한 신뢰는 바로 연구결과의 공유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과학적인 증거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한 설득은 영어교육연구가인 우리의 몫이며, 위기에 봉착한 영어교육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영어교육자는 좀 더 현장중심적, 현상학적인 연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정책에 반영할 만한 대규모의 거시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교수법 효과성 검증이나 현실과 괴리가 있는 연구만으로 영어교육학의 학문적 사회 기여나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비판 교육학(Critical pedagogy), 실행 연구 (action research), 현장 참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현상학 연구(phenomenology), 정책 연구의 기반이 될 전국 단위 조사연구 등으로 영어교육 이론과 실재를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 학회, 영어교육 정책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구상 되어야한다.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영어수업 운영을 구상하기 위한 연구 결과물, 데이터,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말했듯, 온라인 플랫폼 설계 역시 여기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해결을 못했던 영어교육의 문제를 예상보다 쉽게 개선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마지막으로 영어 교육자, 영어교육연구자의 생각의 전환과 각성이 필요하다. 영어교육을 변화시킬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질문의 답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을 올바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사람은 오로지 우리 영어 교육자이며, 앞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것도 전적으로 우리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각자의 책무성을 지키고 주도성을 발휘하여 긍정적인 시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받아들여야 한다.

참고문헌

- 김혜영 (2016). 한국영어교육학회 50년사. 한국영어교육학회 (Ed). *KATE 50주년 기념집: 한국영어교육학회 과거, 현재, 미래* (pp. 42-61). 서울: 한국문화사
- 이 범 (2020). 문재인 이후의 교육. 서울: 메디치
- 이찬승(2017). 4차 산업혁명이 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오해와 진실. 교육을 바꾸는사람들. [Web address] https://21erick.org/column/553/
- 이찬승(2020). '역량중심 교육과정' 추진, 근본적 수정을 촉구한다. 교육을 바꾸는사람들. [Web Address] https://21erick.org/column/5524/
- Kim (2018). The Flipped Classroom as a Paradigm Shift for Teaching EFL in Korea. In S-O. Kweon and B. Spolsky (Eds). The Asian EFL Classroom: Issues, Challenges and Future Expectations (pp. 83-102).

BIODATA

김혜영은 중앙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현재 한국멀티미디어학회 부회장, 전 한국영어교육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관심분야는 컴퓨터보조언어학습과 교사교육, 교육과정 설계, 읽기 교육 등이다. 최근에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영어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초,중,고 말하기 연습용 챗봇 ELLIE를 개발하였다. 최근 단행본 "영어학습을 위한 인공지능 챗봇활용 및 제작 (2019, 교육과학사)"를 출판하였고, 최근 논문으로는 Technology for the language teacher: Chatbot (2020, ELT Journal), Can Individual MALL Be Sustainable?: A Case Study of Korean College Students(2020, MALL) 등이 있다.

Email: englisnet@cau.ac.kr

Phone: (02) 820-5399

[기조 발표 11]

북한의 영어 교육과정 및 영어교육 체험기

이철(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차원에서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고,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는 개인의 일상과 국가의 역할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에 새로 등장하는 바이든 정권이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변화를 읽고, 지혜를 모아서 변화의 시기 미래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사변들과 영어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기점으로 그동안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는 평창올림픽 북한대표단참가, 남 북특사교환,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등 우리국민 모두가 바라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것은 2018년 6월12일 싱가포 르 북미공동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냉각 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시기 남북관계의 개선과 냉각기를 거듭한 전례들을 되돌아보게 하면서 남북은 물 론 국제사회 모두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북미회담과 하노이 북미회담은 최근 한반도문제를 둘러싸고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중대 사변이었습니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중대 사변들을 둘러싸고 외신들, 메일과 통신이 우주공간을 덮었으며 이는 영어라는 공통점을 갖고 전달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영어 수요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하기 전해인 2011년 별도로 건설유학생들을 중국에 특파하여 현대건축을 배우도록 조치한데 이어 그들이 외국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 평양에 건설프로제트를 강하게 추진하면서 그들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뿐 아니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에도 건축유학생들을 파견하였습니다.

2018년 북한을 방문한 이국관광객 수는 20만명으로 추산되고, 2019년에는 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019년 평양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까운 앞날에 한해 500만명의 관광객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김정은 시대 건설정책의 특징은 발전된 건설기법과 설계, 건설장비, 원부자재를 이용한 주민생활용 주택건설과 과학기술센터건설, 산업건설을 복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 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교육의 선행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 대학들의 교육동향

북한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적인 교육발전추세와 교육학적 요구에 맞게 교수내용과 방법을 혁신하여 사회경제발전을 떠메고 나갈 인재들을 질적으로 육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전반적 대학들의 구성과 교육강령을 현실발전과 세계적 추세에 맞게 부단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문에서 교육내용을 실용화·종합화·현대화하고 교육과 과학연구 및 생산을 밀착시키며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교육수준차이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추진하고, 재능 있는 인재들과 가치 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을 더 많이 창출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북한의 이과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이 '코드쉐프' 경연대회에서 연속 우승을 해 온데 이어 올해에도 김일성종합대학 정보과학소조 소속 대학생들이 2020년 6월부터 '코드쉐프' 경연에 참가해 매번 우승하였습니다. 이러한 북한 대학생들의 성과에는 영어를 중시하고 영어배우기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열의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남북 대학생들의 영어학습 공간에서의 협력

이제 남북의 대학생들이 세계무대에서 공동의 과제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미래 세대도 꿈꾸어 봅니다. 같은 핏줄을 이어 온 우리민족이 미래세대에 상호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벌이면서 영어학 영역에서도 우리 겨레 모두가 흐뭇해 할 좋은 모습을 그려 내기 바랍니다. 남과 북의 대학생들이 한반도 관련 긍정적 비전과 소식을 영어로 서로 번갈아 가며 세계에 소개한다면 그 이상 좋은 모습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국영어교육학회 학술대회가 미래지향적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화해협력을 적극 도모 하는 주춧돌로서 명실공이 한걸음 더 나아가는 학술대회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학술대회의 성공 을 기원합니다.

BIODATA

이철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다.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북한 대외경제부분에서 오래 근무하였으며, 북한 해외 대사관 외교관으로도 10년간 근무하였다.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박사과정을 이수하였다. 석사논문 "북한의 주택매매에 관한 연구(경제난 이후 평양을 중심으로)"가 있다. 북한의 경제, 사회, 문화, 풍습 등의 연구 를 진행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 남북교류협력, 동북아경제허브 및 관문으로써의 한반도의 위치와 역할 등에 관한 연구도 진행 하고 있다.

이메일: jon3011@naver.com 전화: +82-2-6191-1040(내선 040)

제2언어 습득(Second Language Acquisition: SLA)

분과장: 임자연(서울시립대)

분과주제: Current Perspectiv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발표 제목	발표자
Sentence processing and the L2 Acquisition of tense and aspect	Hyun-Jin Kim (Ajou University)
Knowledge gaps as resources for learning negotiating identities in online ELF interaction	Sun-Hee Kim (University of Seoul)
언어 학습에 있어서 반응 시간의 활용: 길이 효과를 중심으로	강은수 (University of Maryland)
The learnability of unaccusative verbs for Korean EFL learners: An account based on textbook input frequency and bias	Ji-Yung Jung (SungKyunKwan University)
Investigating L2 multimodal writing processes and performance	Jungmin Lim (Dankook University)

Sentence Processing and the L2 Acquisition of Tense and Aspect

Hyun-Jin Kim (Ajou University)

1

Introduction

- This study addresses the questions of the underlying processes in the second language (L2) acquisition of tense-aspect systems by adult learners of English.
- The study focuses on the recent acknowledgment of the role of real-time processing in providing information about the interlanguage grammar.
- The role of the parser in L2 acquisition (Dekydtspotter & Renaud, 2014), Parsing to Learn (Fodor, 1998)

Background of the Study (1)

- The Aspect Hypothesis (Andersen & Shirai, 1994)
 The early form-meaning association of the imperfective/progressive with atelic and the perfective with telic predicates in production
- The Discourse Hypothesis (Bardovi-Harlig, 1995)
 The interaction between tense-aspect morphology and discourse structure in L2 narratives
- Interpretation research on L2 aspectual semantics (e.g., Gabriele, 2009; Montrul & Slabakova, 2002, 2003; Slabakova & Montrul, 2002)

Background of the Study (2)

 The semantics of the PROG operator (de Swart, 1998; Moens & Steedman, 1988):

PROG: $P \cup E \rightarrow S$ (two step transitions: $E \rightarrow P, P \rightarrow S$)

STATIVE [-dynamic]	DYNAMIC		
states	processes	Events	
		culminated processes	culmination
HOMOGENEOUS		QUANTIZED (NON-HOMOGENEOUS)	

Figure 1. The categorization of eventuality types (based on de Swart, 1998)

5

Research Questions

- 1) How do Korean-speaking L2 learners of English map the progressive aspectual morphology with the semantics of the PROG operator?"
- 2) Is there any development steps observable in the semantic acquisition process?
- The study investigates the computation of tense-aspect morphology in association with activity predicates and accomplishment predicates at intermediate and advanced levels.

5

Method (1)

- 1. Participants
- · Twenty-four learners from Korean L1 background
 - · enrolled in English improvement courses, mean age: 22.8 years old
- · Eighteen native speakers of English
- 2. L2 Proficiency Division: a cloze test (Brown, 1980)
 - · Divided into two proficiency levels: Low group and High group
- 3. Judgment task
- 4. Sentence processing task

Method (2)

- 5. Details of the sentence processing task
- Objective: to examine the computation of -ing and -ed sentences in the context of [±telic] predicates
- Self-paced reading of garden-path sentences: 2 x 2 design (Morphology:-ing vs. -ed) × (Sentence Structure: garden-path vs. non garden-path)
- · Comprehension questions
- · Examples of stimuli sentences
 - a. When/ he/ baked/ the /cake/ smelled/ so/ good/. [Condition 1]
 - b. When/ he/ was/ baking/ the/ cake/ smelled/ so/ good/. [Condition 2]
 - c. When/ he/ baked/ the/ cake/ it/ smelled/ so/ good/. [Condition 3]
 - d. When/ he/ was/ baking/ the/ cake/ it/ smelled/ so/ good/. [Condition 4]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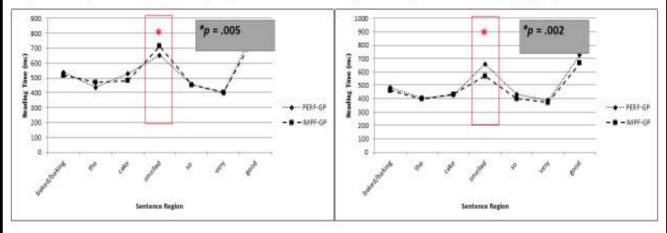
Results (1)

- A mixed model ANOVA was performed on the RTs for the main clause verbs
 - The interaction among Morphology, Proficiency, and Sentence Structure was significant.
 - The Low group: significantly longer RTs were observed for the main clause verb with -ing in IMP-GP condition versus -ed in PERF-GP condition (Figure 2).
 - The High group: significantly shorter RTs for the main clause verb with -ing in IMP-GP condition versus -ed in PERF-GP condition (Figure 3).

Results (2)

Figure 2. RT profiles for the Low group

Figure 3. RT profiles for the High group



Results (3)

- · Interpretation of the processing results
 - Results of the Low group suggests that their identification of the semantics of -ing favors [+telic] predicates
 - Results of the High group suggests that their identification of the semantics of -ing favors [-telic] predicates
 - The results seem to reflect the range of learners' ability to compute the relevant aspectual transitions for -ing with their current grammar

Discussion

- The High group's identification for the semantics of -ing favors
 [-telic] predicates, suggesting that they have the target-like PROG.
- The Low Group's pattern can be explained by their underlearned PROG semantics: PROC: E → P (de Swart, 1998)
- Processing costs affected the results.
 - The combination between [-telic] VP semantics and -ing is easier to acquire and maintain due to the lower processing costs.
- Distinct semantic computations at different stages of acquisition were observed: PROC → PROG

11

Conclusion

- This study argues that the ability of computing the full transitions in the progressive is a key to understanding the form-function mapping mechanisms of *-ing* by the learners.
- The role of the parser is crucial in the identification processes: Learning to parse (Fodor, 1998)
- Future research on the role of aspectual transitions in the L2 acquisition of aspect with different L1-L2 combinations or different types of sentence structures

Selected References

- Andersen, R. W., & Shirai, Y. (1994). Discourse motivation for some cognitive acquisition principle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6, 133-156.
- Bardovi-Harlig, K. (1995). A narrative perspective on the development of the tenselaspect system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7, 263-291.
- Brown, J. D. (1980). Relative merits of four methods for scoring cloze tests. The Modern Language Journal, 64, 311-317.
- Collins, L. (2002). The role of L1 influence and lexical aspect in the acquisition of temporal morphology. Language Learning, 52, 43-94.
- Dekydspotter, L. & Renaud, C. (2014). Parsing to learn. Special issue of Linguistic Approaches to Bilingualism, 4(2), 152-282.
- De Swart, H. (1998). Aspectual shift and coercion.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6, 347-385.
- Dowty, D.R. (1991). Thematic proto-roles and argument selection. Language, 67, 547-619.
- Jackendoff, R. (1996). The proper treatment of measuring out, telicity, and perhaps event quantification.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s Theory, 14, 305-354.
- Moens, M., & Steedman, M. (1988). Temporal ontology and temporal reference. Computational Linguistics, 14 (2), 15-28.
- Gabriele, A. (2009). Transfer and transition in the SLA of aspect.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31, 371-402.
- Montrul, S. & Slabakova, R. (2002). The L2 acquisition of morphosyntactic and semantic properties of the aspectual tenses preterite and imperfect, In A. Perez-Leroux & J. Liceras (Eds), The Acquisition of Spanish Morphosyntax: Kluwer Publishers.
- Mourul, S. & Slabakova, R. (2003). Competence Similarities between native and near-native speakers: An investigation of the Preterite-Emperfect contrast in Spanish,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5, 351-398.
- Slabakova, R., & Montrul, S. (2002). Aspectual tenses in L2 Spanish: A UG perspective. In R. Salaberry & Y. Shirai (Eds.), Tense-expect morphology in L2 ocquisition (pp. 359–391). Amsterdam: Benjamins.

13

Biodata

- Hyun-Jin Kim is a teaching professor at Ajou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2 sentence processing, and English teaching.
- · Contact information
 - Email: hjinkim@ajou.ac.kr
 - Phone: (031) 219-3044

Knowledge Gaps as Resources for Learning and Negotiating Identities in Online ELF Interaction

Sun-Hee Kim (University of Seoul)

Abstract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focused on different lingua-cultural backgrounds as attributes that accounted for miscommunication, the present study aims to provide insights into how participants publicly orient to each other's state of knowledge and how this can become resources for closing knowledge gaps when using English as a lingua franca (ELF). Through fine-grained analyses of recorded online synchronous interaction, the study investigates the process in which participants locally work together to resolve emergent knowledge gaps that can generate learning opportunities with respect to achieving mutual understanding. Findings indicate that when encountering trouble regarding a linguistic term that halts interaction, participants made use of various interactional strategies as well as assistance of others, making learning a joint effort. The study finally presents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second language research and pedagogy considering how the relevance of differential expertise can become meaningful in contributing to successful intercultural interactions.

Introduction

Globalization and the advancements in communications technology have facilitated geographically dispersed speakers of different lingua-cultural backgrounds to communicate over distances. This has brought to the fore the unprecedented opportunities to engage in intercultural interactions where English is more often than not used as a lingua franca (ELF) (Seidlhofer, 2011). Although English may be a precondition for taking part in such interaction in the first place, it also enables interactants to stretch boundaries of what they can do with language. Instead of looking into interactional failures and linguistic anomalies and viewing non-native speakers with inadequate communicative competence,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what these individuals can do as normal language users and how learning opportunities naturally arise in and through online intercultural interaction.

Review of Literature

Considering the fact that intercultural interactions are now commonplace for many individuals and that the use of ELF is spreading on an unprecedented scale among non-native speakers of English with or without the presence of native speakers, linguistic and cultural differences causing miscommunication should not be the ones being emphasized. Rather, it is important to direct our attention to what these ELF users do to bring about successful and meaningful interaction. Arguments have been put forward to challenge the native speaker-based model of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to redefine non-native speakers' competence through the dynamics of interaction (Firth & Wagner, 1997; 2007; Kaur, 2011; 2017). While communicative competence is known to be a static possession that resides within an individual, interactional competence has been noted for being established through interaction practices (Hall et al., 2011; Kramsh, 1986; Young 2008; Pekarek Doehler, 2018). To put it differently, what differentiates interactional competence from communicative competence is that "interactional competence is not what a person knows, it is what a person does together with others. (Young, 2011, p. 430). The use of various interactional resources, such as carrying out turn-taking practices (i.e., ways of constructing and allocating turns) and repair practices (i.e., ways of dealing with problems related to speaking, hearing, or understanding talk) are what constitute interactional competence (Wong & Waring, 2010). In response to recent years in witnessing increased interest in interactional competence in ELF interaction,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how ELF users deal with interactional practices of repair and how interaction affords moments of potential learning opportunities with available resources at hand to seek mutual understanding and progressivity in online synchronous interaction.

Methodology

The data used for this study are drawn from an English-mediated undergraduate content-based course, which is part of a cross-institutional learning program jointly operated by three universities located in Korea, Japan, and Taiwan. Providing a student-centered atmosphere, the purpose of the program is to afford students from different lingua-cultural backgrounds in higher education the opportunity to use ELF through online multiparty discussion (3-

07

4 participants per group), allowing them to develop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kills in English. Participants from all three universities gave their consent to be recorded. To protect their privacy, pseudonyms were used, and screen shots were blurred and converted into black and white contoured images to ensure anonymity.

Interactional repair sequences in which participants identify and resolve emergent knowledge gaps were selected for analysis. The study closely examined how participants oriented to linguistic and cultural knowledge gaps when either producing (self-initiated), understanding (other-initiated), or explaining particular lexical items. As the purpose was to collect naturally occurring online interaction and to overcome any issues related to observer's paradox (Labov, 1972), the researcher and the instructors' participation was kept to a minimum during the interaction. Instead of relying on data elicitation, interviews, or experiments, which are data sets produced for the researcher, the present study took an emic approach to the data. Inspired by sequential analysis (Sacks et al., 1974; Sidnell, 2010; tenHave, 2007), the researcher attempted to analyze the moment-by-moment unfolding real-time online interaction relevant to repair practices to see how participants displayed their interactional competence and negotiated their identities (i.e., more knowledgeable [K+], less knowledgeable [K-]) while collaboratively resolving emergent knowledge gaps and making progress in their talk (See Appendix for transcription conventions employed in the study).

Data Analysis and Discussion

Due to space reason, this section deals with one data segment which entails a repair practice (i.e., word search). The following excerpt shows a case where the speaker of the trouble source turn produces only the first syllable of the searched-for-word followed by a cut-off (i.e., an incomplete word form). Taken from a conversation between Cha (Korean), Tak (Japanese), and Eve (Indonesian), it shows a prototypical case where one of the co-participants provide a candidate solution to a word search. In response to Cha's question regarding whether there are any inequalities existing between males and females in the workplace, Tak explains how the company welfare is improving in lines 1-3.

Excerpt 1: Pregnant [Eve 20170421 0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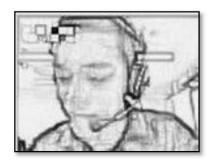




Figure 1. Excerpt 9 line 6

```
uh:: (1.0) |be °nanto° ((sniffs))

What is it
|((Tak looks down))
```



```
Figure 2. Excerpt 9 line 7

08 um:::: (1.0) pre- uh:
09 | (1.5) | ((Tak scratches his forehead))
```



Figure 3. Excerpt 9 line 9

```
10 Eve:
              Pregnant you mean?
11 Tak:
              Cuz- uh yeah pregnancy pregnancy
12 Cha:
              Ummm [umm
13 Tak:
                  [Yeah uh: (2.0) Companies um (1.2) uh:: for
14
              women uh: company be:come: (0.5) easily come backt
15 Cha:
16 Tak:
              after (0.2) uh: pregnancy and:
17
              (.)
18 Cha:
              Umm umm umm
19 Tak:
              uh:: (1.5) birth after birth
20 Cha:
21 Tak:
              Yep in Japan ((sniffs))
22 Cha:
              Uh huh
```

As Tak tries to continue his talk by offering an example of Japanese workplace culture for women, he initiates a repair by issuing multiple pauses, putting a place holder "uh" and repetition of "women" (lines 5 and 6). By assembling these perturbations with gaze aversion and thinking face he publicly displays that he is engaged in a self-directed word search. His solitary search continues in line 7 where he produces another place holder and "onanto" (roughly equivalent to *what was it* in Japanese when talking to himself) in a silent voice. Then in line 8, after another place holder "um::::", he produces the initial syllable of his search-for-word, which is soon followed by a cut-off "pre-", a place holder "uh:" and a 1.5 second pause.

However, his display of a verbal attempt to provide a phonological cue, an initial syllable of the target word, implicitly extends an invitation for co-participation. Leading to a protracted process of coming up with a target word, Eve proffers a candidate word "pregnant" in combination with "you mean?" showing her effort to seek confirmation on her guess while displaying her [K+] assistance to the word search (line 10). In response, Tak acknowledges the correctness of Eve's candidate word with an affirmative token "yeah" and saying "pregnancy" twice in line 11. The word provided by Eve is taken up by Tak. This shows that Eve's [K+] response was accepted and was made relevant, thus confirming Eve' status as a knowledgeable person.

Tak's turn in line 11 deserves further special attention. Note that Tak being able to provide the noun form "pregnancy" instead of just repeating Eve's candidate solution, the adjective form "pregnant" verbatim, can be understood as his temporary lapse of memory of the target word and not just a simple lack of linguistic knowledge. Instead of repeating the word verbatim, being able to produce a different part of speech indicates that he avoids being categorized as a linguistic novice with low language competence. In other words, although Tak may have started his word search by displaying his [K-] status, invoking a possible asymmetrical alignment of their differential linguistic expertise, there is a possibly that choosing a different part of speech may display his renegotiation of their invoked expert-novice identities. By using his target word "pregnancy" again in line 15, Tak returns to his original talk.

The excerpt presented above shows an instance where the speaker displayed verbal attempts to construct the searched-for-word, showing efforts to provide crucial hints for possible [K+] co-participant(s) to identify the target word. Findings, including the one that was examined, can be instrumental in supporting the promising benefits of describing how participants themselves collaboratively construct what the objects of learning are for them while attempting to close emergent knowledge gaps in the course of interaction.

Conclusion

The analysis showed the participants' initiatives in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interactional management with regard to co-constructing knowledge, showing evidence of displaying interactional competence. Language learning can thus be conceptualized as a social practice, which is a process that is recognizable for participants. It is a social accomplishment that naturally occurs in response to locally emergent communicative needs (Kasper & Wagner, 2011; Pekarek Doehler, 2010). Examining the participants' own undertaking of what is publicly displayed in interaction allows educators to make observations on the participants' orientation to learning as it becomes visibly manifested in interaction (Hauser, 2017; Lee, 2010). In this regard, the study contributes to the existing literature of what constitutes learning, showing how ELF users rely on different expertise to saliently negotiate and make relevant their identities while co-constructing pedagogical moments in interaction.

References

- Firth, A., & Wagner, J. (1997). On discourse, communication, and some fundamental concepts in SLA research. *The Modern Language Journal*, 81(3), 285–300.
- Firth, A., & Wagner, J. (2007). Second/Foreign language learning as a social accomplishment: Elaborations on a reconceptualized SLA. *The Modern Language Journal*, 91(1), 800–820.
- Hall, J. K., Hellermann, J., & Pekarek Doehler, S. (Eds.). (2011). *L2 interactional competence and development*. Multilingual Matters.
- Hauser, E. (2017). Learning and the immediate use(fulness) of a new vocabulary item. *The Modern Language Journal*, 101(4), 712-728.
- Kasper, G., & Wagner, J. (2011). A conversation-analytic approach to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D. Atkinson, *Altern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p. 117-142). Routledge.
- Kaur, J. (2011). Doing being a language expert: The case of the ELF speaker. In J. Jenkins & A. N. Archibald (Eds.), *Latest trends in ELF research* (pp.53-75).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 Kaur, J. (2017). Ambiguity related misunderstanding and clarity enhancing practices in ELF communication. *Intercultural Pragmatics*, 14(1), 25-47.
- Kramsch, C. (1986). From language proficiency to interactional competence.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0(4), 366–372.
- Labov, W. (1972). Some principles of linguistic methodology. Language in Society, 1(1), 97-120.
- Lee, Y-A. (2010). Learning in the contingency of talk-in-interaction. Text & Talk, 30(4), 403-422.
- Pekarek Doehler, S. (2010). Conceptual changes and methodological challenges: On language, learning and documenting learning in conversation analytic SLA research. In Seedhouse, P., Walsh, S. & Jenks, C. (Eds.), *Conceptualizing learning in applied linguistics* (pp. 105-126), Palgrave MacMillan.
- Pekarek Doehler, S. (2018). Elaborations on L2 interactional competence: the development of L2 grammar-for-interaction. *Classroom Discourse*, 9(1), 3-24.
- Sacks, H., Schegloff, E. A., & Jefferson, G. (1974). A simplest systematics for the organization of turn-taking for conversation. *Language*, *50*(4), 696-735.
- Sidnell, J. (2010). Conversation analysis: An introduction. Wiley-Blackwell.
- ten Have, P. (2007). *Doing conversation analysis*. (2nd ed.). Sage Publications.
- Wong, J., & Waring, H. Z. (2010). Conversation analysis and second language pedagogy: A guide for ESL/EFL teachers. Routledge.
- Young, R. F. (2008). Language and interaction: An advanced resource book. London, New York: Routledge.
- Young, R. F. (2011). Interactional competence in language learning, teaching, and testing. In E. Hinkel (Ed.), *Handbook of research in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Volume II.* (pp. 426-443). Routledge.

Appendix: Transcription Conventions

The transcript symbols presented below are conventions for detailed verbal and non-verbal production in interaction. The collected recordings were transcrib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notation system.

- [The beginning of overlapped utterance
- Sudden cut-off of sound
- = Latched utterance

(.)	Micro-pause
(0.8)	Length of silence
::	Noticeable lengthening sound
>	Rushed start
>word<	Speech quicker than the surrounding talk
<word></word>	Speech slower than the surrounding talk
WORD	Speech louder than the surrounding talk
°word°	Speech quieter than the surrounding talk
.hh	Audible inhalation
hh.	Audible exhalation
\uparrow	Rising shifts in intonation
\downarrow	Falling shifts in intonation
?	Rising intonation in question forms
•	Falling intonation at the end of an utterance
,	Continuing intonation
()	Unintelligible speech
((Comments by the researcher on non-vebal actions
\rightarrow	Analytical focus
	The onset of non-verbal conducts in interaction

BIODATA

Sun-Hee Kim received her Ph.D.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at Korea University. She is currently a lecturer of English in the Institute for General Education at Korea University and the Division of General English at the University of Seoul. Her research focuses on discourse studies related to moments in which speakers of different lingua-cultural backgrounds use English as a medium to display their orientations toward identity construction and interculturality.

Email: cherryjoy@korea.ac.kr, cherryjoy@uos.ac.kr

Phone: 010-6295-8225

언어 학습에 있어서 반응 시간의 활용: 길이 효과를 중심으로

강은수 (University of Maryland)

시각적 단어 인지에 있어서 (단어) 길이 효과

시각적 단어 인지(Visual word recognition)에서 (단어) 길이 효과(Word length effect)란 제시된 시각적 자극에 대해 시각적 자극이 단어임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 제시된 단어의 길이가 미치는 효과를 의미한다. 심리 언어학 관련 기술의 발달과 코퍼스 등을 사용한 대규모 실험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다양한 종류 및 다수의 어휘에 대해서 대규모 연구(mega-studies)가 가능해짐에 따라, 길이 효과에 대해 이전보다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라틴 문자를 사용하는 모국어 화자들에 있어서 길이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길이 효과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New, Ferrand, Pallier, and Brysbaert (2006) 연구로,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비선형적인(non-linear) 길이 효과가 발견되었다. 이 연구는 English Lexicon Project (Balota et al., 2007)에서 수집한 영어 모국어 화자의 어휘 판단 과제 (lexical decision task) 결과를 분석하였는데, 33,000개의 단어를 대상으로 816명의 참가자에게서 얻은 반응 시간(reaction time)을 다양한 어휘 속성(lexical properties)을 사용해서 회귀분석을 하였다. 단어 빈도수(word frequency) 등과 같이 시각적 인지에 영향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회귀분석에서 통제하였을 때, 글자 숫자에 따라 반응 시간이 비선 형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는데, 글자 숫자가 3자에서 5자인 경우에는 글자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반응 시간이 감소했던 반면, 글자 숫자가 5자에서 8자 사이인 경우에는 글자 숫자와 반응 시간이 아무런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글자 숫자가 8자 이상인 경우에는 글자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반응 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비선형적 길이 효과는 구체적인 구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고 하나, 영어 외에 프랑스어와 포르투갈어에서도 확인되었다. Ferrand et al. (2010)는 프랑스어 어휘 판단 과제를 통해 얻은 반응 시간 분석에서 글자 숫자가 2자에서 4자 사이인 경우에는 글자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반응 시간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했으며, 5자부터 8자 사이에서는 글자 숫자와 반응 시간 사이에 아무런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글자 숫자가 9자에서 13자 사이인 경우에는 글자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반응 시간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Soares et al. (2019) 또한 포르투갈어에서 비선형적 길이 효과를 확인하였는데, 3자에서 6자 사이에서는 글자 숫자와 반응 시간 사이에서 반비례 관계를 포착하였고, 6자와 8자 사이에서는 글자 숫자와 반응 시간 사이에서 전혀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던 반면, 8자와 12자 사이에서는 글자 숫자와 반응 시간 사이에서 비례 관계를 확인하였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단어(nonwords)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비선형적 길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선형적 길이 효과는 어휘 정보 처리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Yap, Sibley, Balota, Ratcliff, and Rueckl (2015)나 Ziegler, Jacobs, and Klüppel (2001) 등의 연구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단어를 대상으로 길이 효과를 측정한 결과 비선형적 효과가 아닌 단순 선형 효과가 관찰되었다. 즉, 실제 존재하지 않는 단어를 처리할 때에는 글자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반응 시간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만일 어휘 정보처리와 상관없이 단순히 망막에 한번에 맺히는 시각적 자극의 처리량의 효율성으로 인해 비선형적 길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단어에서도 비선형적 길이 효과가 관찰되어야 하나, 실제로 존재하는 단어에서만 비선형적 길이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비선형적 길이 효과는 어휘 정보 처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길이 효과에 있어서 발달 양상

언어 학습에 있어서 시각적 단어 인지의 길이 효과의 중요한 의의는 길이 효과에서 일정한 발달 양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언어가 아직 미발달된 아동의 경우 길이 효과가 언어가 더 발달된 아동이나성인보다 현저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Di Filippo, De Luca, Judica, Spinelli, and Zoccolotti (2006)의 이탈리아어사용 아동 연구에서는 8-10세의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3자-5자로 된 단어에서도 어휘 판단 과제에서 글자 숫자가 늘어날수록 반응 시간이 증가하는 길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Acha and Perea (2008)의 스페인어 사용 아동 연구에서는 6자에서 9자로 된 단어의 어휘 판단 과제에서 나이가 더 어린 아동이 나이가 더 많은 아동에 비해 글자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반응 시간이 증가하는 길이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3자에서 5자로 된 단어의 어휘 판단 과제를 조사한 Martens and de Jong (2006)의 네덜란드어 사용 아동 연구에서도 나이가 적은 아동이 나이가 많은 아동에 비해 글자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반응 시간이 크게 증가하는 길이 효과를 포착하였다. 이와 같은 아동에서의 길이 효과 변화는 어휘 판단 과제의결과 뿐만 아니라 안구 운동 추적(eye-tracking)을 통해서도 재확인되었다 (Joseph, Liversedge, Blythe, White, & Rayner, 2009).

이러한 시각적 단어 인지에서 길이 효과의 발달 양상은 나이 효과(age effect)가 아닌 언어 발달 수준에 기인한다는 것 또한 확인되었다. 언어 능력이 정상적인 8-10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 판단 과제를 수행한 Hasenäcker, Verra, and Schroeder (2019)의 연구에서 이 아동들의 독해 능력을 별도로 측정한 결과, 생물학적나이가 아닌 독해 능력이 길이 효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독해 능력이 낮은 아동이상대적으로 독해 능력이 높은 아동에 비해 글자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반응 시간이 더 크게 증가하는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한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언어 능력이 미숙한 경우에는 이러한 미숙한 능력에 기인하여 길이 효과가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나타나는 반면, 언어 능력이 충분히 발달한 경우에는 길이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언어 학습에 있어서 길이 효과의 활용 가능성

이와 같은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다음의 두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성인 모국어 화자의 시각적 단어 인지에서 길이 효과는 비선형이다. 매우 짧은 단어의 경우에는 글자 숫자가 늘어날수록 반응시간이 감소하지만 일정한 길이에 이르면 글자 숫자와 반응 시간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다가, 긴 단어의 경우 글자 숫자가 증가할수록 반응 시간이 증가한다. (2) 시각적 단어 인지에서 길이 효과를 통해 언어 발달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생물학적 나이와 별개로 언어 발달 수준이 낮은 경우 언어 발달 수준이 높은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길이 효과가 더 현저하게 드러난다.

길이 효과가 이와 같이 비선형적이고, 언어 발달 수준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에게서도 이들의 언어 습득 정도에 따라 길이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유창성이 모국어 화자의 유창성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이들의 언어 발달 수준에 비례하여 모국어 화자보다 더 현저한 길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특히, 비선형적인 길이 효과를 보이는 성인 모국어 화자에 비해 외국어 학습자는 부족한 어휘 정보 처리 능력 혹은, 어휘의 불충분한 습득으로 인해 단순 선형적인 길이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들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길이 효과는 언어 발달 수준에 따라 변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언어 발달 수준에 따른 길이 효과를 반영하여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어휘 처리를 잘 설명하는 모델이나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길이 효과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 중 하나인 New et al. (2006)에 따르면, 영어에 있어서 글자 수로 측정한 길이 효과 하나가4.5%의 고유 분산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기존에 시각적 단어 인지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단어 빈도수의 고유 분산 6.3%에 비하면 낮으나, 2.2%의 고유 분산을 가지는 이웃 크기에 비하면 큰 것이다.

외국어 학습자의 어휘 능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휘 판단 과제에 기반한 다양한 평가 방법에도 길이 효과를 도입하여 외국어 학습자의 어휘 능력을 정교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LexTALE(Lemhöfer & Broersma, 2012)과 같이 어휘 능력을 판단하는 간단한 테스트의 경우 비록 테스트 결과가 외국어 학습자의 어휘 판단에 대한 반응 시간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나, 외국어 학습자의 어휘 능력을 정밀하게 판단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반응 시간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Pérez, Izura, Stadthagen-González, and Marín (2013)가 지적하였듯이, 어휘 판단 과제에 기반한 어휘 테스트에 반응 시간을 활용할 경우에 이러한 어휘 테스트만으로는 발견하기 힘든 언어 발달 양상을 포착할 수가 있다. 길이 효과가 어휘 판단 과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관찰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매우 특정한 요소(글자수)를 통해 특정한 기준(원어민의 비선형적 반응 시간)을 통해서 언어 발달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걸 고려해 보았을 때, 길이 효과를 보완적 요소로 어휘테스트에 반영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모바일 환경의 언어 학습 프로그램(Mobile-Assisted Language Learning)에 어휘 능력 평가에서 학습자의 길이 효과를 관찰, 학습자의 어휘 능력을 판단하여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습자 개개인에 맞추어적합한 학습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학습자 본인이 간단한 어휘 판단 과제를 수행할때 보이는 반응 시간을 분석, 여기서 나타나는 길이 효과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 개인의 언어 발달정도를 파악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개인에 특화된 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 도구를하나 제공한다는 점에서 모바일 환경의 언어 학습 프로그램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f. Kim & Kwon, 2012).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시각적 단어 인지에서 길이 효과는 외국어 학습자의 언어 처리 능력 분석 및 어휘 수준 판단, 그리고 학습자 개개인의 맞춘 언어 발달 피드백을 제공하는 도구로 사용될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References

- Acha, J., & Perea, M. (2008). The effects of length and transposed-letter similarity in lexical decision: Evidence with beginning, intermediate, and adult reader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99*(2), 245–264.
- Balota, D. A., Yap, M. J., Cortese, M. J., Hutchison, K. A., Kessler, B., Loftis, B., ... Treiman, R. (2007). The English Lexicon Project. *Behavior Research Methods*, *39*(3), 445–459.
- Di Filippo, G., De Luca, M., Judica, A., Spinelli, D., & Zoccolotti, P. (2006). Lexicality and stimulus length effects in Italian dyslexics: Role of the overadditivity effect. *Child Neuropsychology*, *12*(2), 141–149.
- Ferrand, L., New, B., Brysbaert, M., Keuleers, E., Bonin, P., Méot, A., ... Pallier, C. (2010). The French Lexicon Project: Lexical decision data for 38,840 French words and 38,840 pseudowords. *Behavior Research Methods, 42*(2), 488–496.
- Hasenäcker, J., Verra, L., & Schroeder, S. (2019). Comparing length and frequency effects in children across modalities. *The Quarterl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72*(7), 1682–1691.
- Joseph, H. S. S. L., Liversedge, S.
- P., Blythe, H. I., White, S. J., & Rayner, K. (2009). Word length and landing position effects during reading in children and adults. *Vision Research*, *49*(16), 2078–2086.
- Kim, H., & Kwon, Y. (2012). Exploring Smartphone Applications for Effective Mobile-Assisted Language Learning.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15*(1), 31–57.
- Lemhöfer, K., & Broersma, M. (2012). Introducing LexTALE: A quick and valid Lexical Test for Advanced Learners of English. *Behavior Research Methods*, *44*(2), 325–343.

- Martens, V. E. G., & de Jong, P. F. (2006). The effect of word length on lexical decision in dyslexic and normal reading children. *Brain and Language*, *98*(2), 140–149.
- New, B., Ferrand, L., Pallier, C., & Brysbaert, M. (2006). Reexamining the word length effect in visual word recognition: New evidence from the English Lexicon Project. *Psychonomic Bulletin and Review, 13*(1), 45–52.
- Pérez, M., Izura, C., Stadthagen-González, H., & Marín, J. (2013). Assessment of bilinguals' performance in lexical tasks using reaction times. *Issues in the Assessment of Bilinguals*, 130–160.
- Soares, A. P., Lages, A., Silva, A., Comesaña, M., Sousa, I., Pinheiro, A. P., & Perea, M. (2019). Psycholinguistic variables in visual word recognition and pronunciation of European Portuguese words: A mega-study approach. *Language, Cognition and Neuroscience, 34*(6), 689–719.
- Yap, M. J., Sibley, D. E., Balota, D. A., Ratcliff, R., & Rueckl, J. (2015). Responding to nonwords in the lexical decision task: Insights from the English Lexicon Project.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41*(3), 597–613.
- Ziegler, J. C., Jacobs, A. M., & Klüppel, D. (2001). Pseudohomophone effects in lexical decision: Still a challenge for current word recognition model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Human Perception and Performance*, *27*(3), 547–559.

BIODATA

Eunsoo Kang is a PhD student in the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rogram, the School of Languages, Literatures, and Cultures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His main research interests include: psycholinguistics, vocabulary learning and acquisition, cross-linguistic influence, 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Email: eskang@terpmail.umd.edu

Phone: (010) 6770-4086

The Learnability of Unaccusative Verbs for Korean EFL Learners: An Account Based on Textbook Input Frequency and Bias

Ji-Yung Jung (SungKyunKwan University)

Research Background

Learning the passive construction represents one of the thorniest problems in second language (L2) acquisition. In particular, many L2 learners are prone to the passive overuse errors by overpassivizing unaccusative verbs that inherently do not involve a semantic agent. There are two types of unaccusative verbs: alternating unaccusative verbs that can participate in both active and passive constructions (e.g., *break, change, freeze*) and non-alternating unaccusative verbs that only allow the active voice (e.g., *appear, happen, die*). Research over the past decades suggest that both types of verbs cause serious learning difficulty, but that alternating unaccusatives are particularly difficult to learn, even on the highly advanced stage of development, because learners have to make "a subtle distinction" (Lee, 2000) between the active and passive constructions depending on contexts. To date, several accounts have been proposed for the overpassivization of unaccusative verbs, such as a lack of knowledge of the semantic properties of the unaccusatives, overgeneralization of passive morphology,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conceptualizable agents on the discourse level.

The Current Study

The present study seeks to contribute to this research agenda by providing an input-based account for overpassivization and the learning of unaccusativity. For this purpose, a total of 20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in Korea, published and revised in 2017, were randomly selected and examined. The investigation focused on the main reading comprehension texts, to examine the tokens of the following categories of unaccusative verbs commonly addressed in studies including Korean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EFL) learners: 12 alternating unaccusative verbs including boil, break, burn, change, dissolve, close, dry, freeze, heat, melt, sink, and open, and nine nonalternating unaccusative verbs including appear, die, disappear, emerge, fall, happen, occur, perish, and vanish. With respect to the alternating verbs, the analysis also focused on whether each token of the verbs was presented intransitively (e.g., the door opened), transitively (e.g., he opened the door), or in a passive construction (e.g., the door was opened). Overall, three main findings were obtained. First, the reading comprehension texts included a noticeably greater number of tokens of non-alternating unaccusative verbs (N=113) than alternating unaccusative verbs (N=35), seemingly in support of the findings of previous research which suggest relatively greater learning difficulty with alternating, than with non-alternating, unaccusative verbs in the Korean EFL learners. Second, the texts also presented 60 tokens of the alternating verbs used in a transitive structure and 17 tokens of passive constructions including the verbs. It is thus speculated that, learning with the select set of textbooks, learners may be exposed more frequently to the alternating verbs used with a semantic agent, which can in turn affect the formmeaning mapping of those verbs in input processing. Third, the vast majority of the alternating and non-alternating verbs in the texts were high-frequency verbs; the texts barely included low-frequency verbs. Previous studies demonstrate that learners have relatively greater difficulty with the usage of low-frequency unaccusative verbs, with the frequency of the verbs usually decided by consulting the preexisting English corpora. The finding of the current study reveals that the Korean EFL learners may indeed have considerably fewer opportunities to be exposed to lowfrequency unaccusative verbs in the classroom, which may lead to learnability issues and thus require greater pedagogical attention from the teachers.

BIODATA

Ji-Yung Jung received her Ed.D. in Applied Linguistics from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in New York. She is an instructor at SungKyunKwan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instructe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SLA), implicit/explicit knowledge and learning, attention and awareness, linguistic interfaces, language typology, and complexity.

Email: jyjung2260@gmail.com Phone: 010-2614-6893

Investigating L2 Multimodal Writing Processes and Performance

Jungmin Lim (Dankook University)

Introduction

Researchers have recently begun a debate over the inclusion of multimodal composition in L2 classrooms. For example, in the dialogue of *Journal of Second Language Writing* (2017), some researchers acknowledged the multimodal nature of contemporary writing practice and underscored importance of multimodal composition for L2 writing (Belcher, 2017; Warschauer, 2017; Yi, 2017); while others expressed considerable concerns about the integration of multimodal writing into the L2 writing classroom (e.g., Manchón, 2017; Qu, 2017). The concerns stand on the following assumptions: (1) multimodal writing is not academic and (2) advocating multimodal writing results in less language learning. These premises, however, merit empirical research because there is no evidence of L2 research that supports such claims.

To integrate multimodal writing in an existing syllabus for L2 learners in academic contexts, it appears to be necessary to examine the potential role of multimodal writing in language development. This concurrent parallel mixed methods study aims to answer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 How do EAP students perform a traditional task and a multimodal writing task? More specifically, I investigated whether the multimodal task induced differential focus on language. Thirty-one EAP students completed a timed multimodal writing task and an essay task and participated in a stimulated recall session after completing the multimodal task. For the multimodal writing task, I designed a timed task based on the qualitative needs analysis that investigated the authentic multimodal tasks in EAP such as presentation slides, posters, and websites (see Lim & Polio for the needs analysis); for the traditional task, I chose a timed argumentative writing task. I will discuss multimodal composing processes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the quality of task performance with examples from the data. In this presentation, I will provide empirical evidence as to how a multimodal writing task, which was developed from an empirical needs analysis, could help EAP students' language learning.

References

- Belcher, D. (2017). On becoming facilitators of multimodal composing and digital design. *Journal of Second Language Writing*, 38, 80–85. https://doi.org/10.1016/j.jslw.2017.10.004
- Lim, J., & Polio, C. (2020). Multimodal assignments in higher education: Implications for multimodal writing tasks for L2 writers. Journal of Second Language Writing, 47, 100713. https://doi.org/10.1016/j.jslw.2020.100713
- Manchón, R. M. (2017). The potential impact of multimodal composition on language learning. *Journal of Second Language Writing*, *38*, 94–95. https://doi.org/10.1016/j.jslw.2017.10.008
- Qu, W. (2017). For L2 writers, it is always the problem of the language. *Journal of Second Language Writing*, 38, 92–93. https://doi.org/10.1016/j.jslw.2017.10.007
- Warschauer, M. (2017). The pitfalls and potential of multimodal composing. *Journal of Second Language Writing*, 38, 86–87. https://doi.org/10.1016/j.jslw.2017.10.005
- Yi, Y. (2017). Establishing multimodal literacy research in the field of L2 writing: Let's move the field forward. *Journal of Second Language Writing*, 38, 90–91.https://doi.org/10.1016/j.jslw.2017.10.010

BIODATA

Jungmin Lim is an assistant professor of College of Liberal Arts at Dankook University, Jukjeon. She received her Ph.D. in Second Language Studies from Michigan State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second language writing, task-based language teaching, and language assessment.

Email: jungminlim@dankook.ac.kr

Phone: (031) 8005-3946

[Blank Page]

특수 목적 영어교육(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ESP)

분과장: 백경숙(한양여대)

분과주제: ESP 수업 구축과 운영의 실제

발표 제목	발표자
특수목적영어 연구에서 코퍼스 구축과 분석의 실제	김동영(해군사관학교)
A longitudinal study of a Korean ESP teacher's identity transformation	Myonghee Kim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취업 연계형 이공계, IT 융합 ESP 교과목 성공 사례 연구	정성희(숭실대)
비대면 원격수업에서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수업활동	오선주(이화여대)

특수목적영어 연구에서 코퍼스 구축과 분석의 실제

김동영(해군사관학교)

코퍼스 개요

특수목적영어를 위한 코퍼스의 구축에서부터 연구 및 교육에 활용까지에 대하여 기본적이지만 실용적인 내용들을 다룹니다. 코퍼스(corpus)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수집된 구어(spoken language) 또는 문어(written language)의 모음이다. 코퍼스는 해당 언어를 대표할 수 있도록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을 가지도록 수집된다(Reppen, 2010). 이러한 맥락에서, 특정 상황/분야에서 사용되는 전문적인 영어(특수목적영어)를 대표적인 전문 영어의 사용 또는 장르 수집하여 코퍼스로 구축함으로써, 해당 특수목적영어의 연구 및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학술 영어의 연구와 교육을 코퍼스 형태로 구축한 학술논문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특정한 언어의 사용을 대표하는 코퍼스를 전문화된 코퍼스(specialized corpus)라고 하는데, 몇억 단어 수준의 대규모 일반목적 코퍼스(generalized corpus)⁴와 대비된다(Bennett, 2010). 이러한 전문화된 코퍼스 구축에는 맥락성(contexualization), 주제, 장르, 담화/텍스트 종류 등에 따른 방법이 있다. 본 영상에서는 구축 방법 중 다양한 장르를 이용한 구축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특수목적영어라는 접근법이 학습자의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만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학습자의 의사소통 목적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장르를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장르의 선택이 중요하며, 어떤 장르를 선택 할지는 해당 분야의 연구자 또는 교육자와 함께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

특수목적영어의 대표적인 학술영어의 경우, 많은 연구자들이 논문의 초록이나 서론, 결론 부분을 코퍼스로 구축하여, 학술영어의 특징을 연구해 왔다. 학술영어의 대표적인 연구 중의 하나인 Swales (1981)의 연구는 학술 논문의 서론을 다루고 있으며, Hopkins & Dudley-Evans (1988)은 논문의 토론부분을 연구하였으며, Lores (2004)는 언어학 논문의 초록의 수사적 구조를 분석하였습니다. 다양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술영어에 대한 교육과 연구는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학술영어를 제외한 다른 특수목적영어의 경우, 예를 들면 군사영어, 호텔영어, 해사영어의 경우에는, 이를 연구할 수 있는 전문화된 코퍼스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특수목적영어를 코퍼스를 활용하여 연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학습자에게 유익할 수 있는 장르를 선정하여 코퍼스를 구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a. 개별 텍스트 파일 구성

일단 장르가 선정되면, 코퍼스에 포함될 개별 텍스트를 디지털화하여야 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텍스트의 활용에 대해 저작권 소유자의 동의 여부이다. 다행히도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의 저작권법이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이용(fair use)을 보장⁵하고 있다. <별지>와 같이 대학 등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체크리스트

⁴ 일반목적 코퍼스는 일반적으로 몇억 단어 수준으로 다양한 언어의 사용을 포함하여, 코퍼스 분석결과를 통해 언어의 사용에 대한 일반화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코퍼스를 지칭한다(Bennett, 2010). 영국영어의 British National Corpus (BNC)와 미국영어의 American National Corpus (ANC)가 대표적인 일반목적 코퍼스이다.

⁵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와 한국의 저작권법 제35조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아래의 사항을 고려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를 활용하여, 공정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연구와 교육 목적으로 전체 텍스트의 3분의 1 또는 3,000단어를 코퍼스에 포함하는 것은 보호될 수 있다(McEnery, Xiao, & Tono, 2006).

텍스트 파일이름을 정하는 과정도 중요하다(Reppen, 2010). 파일이름을 통해 직관적으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어야, 파일을 함께 분석하거나 원하는 기준에 따라 파일을 분류하여 분석하기가 용이하다. 일반적으로, 분류 기준에 따른 구분내용을 파일이름에 반영한다. 그래서 분류기준인 장르와 구분내용(예, 작자의 특성)이 코퍼스 파일이름으로 활용된다.

파일이름으로 포함하지 못한 정보는 텍스트 파일의 헤더(header) 정보에 포함할 수 있다. 헤더는 코퍼스 파일에 포함되는 텍스트의 머리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텍스트 파일에 관한 정보(예, 작자나 독자의 인구학적 정보, 텍스트가 제작/수집된 시기)를 포함할 수 있다. 헤더 정보는 <헤더 정보>로 구분되어, 코퍼스의 단어 빈도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필요시 헤더 정보를 이용하여, 코퍼스 분석도 가능하다(예, 동일 장르에서작자의 성별에 따른 언어적 차이 연구). 따라서 헤더 정보에 문서정보를 최대한 포함해야 향후 여러 가지 기준에 따른 분석에 활용이 용이하다(Reppen, 2010).

또 하나 고려할 사항은, 서로 다른 텍스트를 하나의 텍스트 파일로 통합하기 보다는 텍스트별 파일로 분할하여 유지하는 것이 코퍼스의 분석에 용이하다는 것이다(Reppen, 2010). 하나의 긴 텍스트 파일에 통합된 텍스트는 텍스트간의 양적 분석에 어려움이 있으며, 양적 분석을 위해 여러 개의 텍스트 파일로 다시 구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야기할 수 있다.

텍스트내 문자의 인코딩(encoding)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유니코드(Unicode)는 전 세계 문자를 모든 컴퓨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문자세트이며, 일반적으로 UTF-8, UTF-16, UTF-32⁶와 같은 인코딩 방식(Unicode Transformation Format)을 사용한다. 영문자의 경우에는 UTF-8는 UTF-16 보다 작은 용량을 이용하여 문자를 표현할 수 있으며, ASCII와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코퍼스 구축에 활용될 수 있다(McEnery & Xiao, 2004). 그러나연구자가 사용하는 코퍼스 분석도구의 특징에 따라 다르다. WordSmith Tools는 UTF-16을 권장하고 있다(Scott, 2020). 참고로 ASCII(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나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라는 인코딩 방식도 있는데 모두 미국에서 영문자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식으로 ASCII는 영문자만 표현할 수 있다.

인코딩 방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코딩에 따른 코퍼스 분석도구의 문자인식 차이를 제시하겠습니다. 워드프로세서인 한글과 WordSmith Tools를 이용하겠습니다. 워드나 한글과 같은 워드프로세서 파일의 경우에는 텍스트 파일로 변환이 필요한데, 같은 내용이더라도 인코딩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저장됩니다. 영문자의 경우에는 인코딩 방식의 영향이 크지 않으며, 코퍼스내 텍스트간의 인코딩 방식만 통일시켜주면 코퍼스 텍스트내 문자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글의 경우에는 그림1과 같이 UTF-7의 경우에는 한글문자가 표현되지 않습니다. UTF-8의 경우에는 한글이 표현되나, WordSmith Tools에서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자신의 코퍼스 분석도구의 특징을 고려하여, 코퍼스 인코딩 방식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⁶ UTF-8, UTF-16, UTF-32의 인코딩 방식은 각각 한글자당 8, 16, 32비트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한글자당 할당된 비트가 클수록 용량을 크게 차지한다. Unicode의 인코딩은 일반적으로 UTF-16 방식을 의미한다.

그림 오류! 책갈피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림 오류! 책갈피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ile	Edit	⊻iew	Compute	Settings	<u>W</u> indows	Help						
	N			Word	Fr	eq.	%	Texts	%	Dispersion	Lemmas	Set
	. 1			WENT		1	14.29%	1	100.00%	0.00		
	2			то		1	14.29%	1	100.00%	0.00		
	3			SJIYLA		1	14.29%	1	100.00%	0.00		
	4.		S	CHOOL		1	14.29%	1	100.00%	0.00		
	- 5			1		1	14.29%	1	100.00%	0.00		
	6			#		2	28.57%	1	100.00%	0.35		
γv	Nord li	st (uns	aved)									
ile	<u>E</u> dit	⊻iew	<u>C</u> ompute	<u>S</u> ettings	<u>W</u> indows	Help						
	N			Word	F	req.	%	Texts	%	Dispersion	Lemmas	Set
	1			WENT		-1	11.11%	1	100.00%	0.00		
	2			?		1	11.11%	1	100.00%	0.00		
	3			TO		1	11.11%	1	100.00%	0.00		
	- 4		8	CHOOL		1	11.11%	1	100.00%	0.00		
	5			1		1	11.11%	1	100.00%	0.00		
	6			학		1	11.11%	1	100.00%	0.00		
	7			?		1	11.11%	1	100.00%	0.00		
	8			#		2	22.22%	1	100.00%	0.35		
w \	Vord li	st (uns	aved)									
170			0.00	<u>S</u> ettings	<u>W</u> indows	<u>H</u> elp						
	N			Word	F	req.	%	Texts	%	Dispersion	Lemmas	Set
	1			학교에		1	14.29%	1	100.00%	0.00		
	2			나는		1	14.29%	1	100.00%	0.00		
	3			갔다		1	14.29%	-1	100.00%	0.00		
	- 4			WENT		1	14.29%	1	100.00%	0.00		
	5			то		1	14.29%	1	100.00%	0.00		
	6		S	CHOOL		1	14.29%	1	100.00%	0.00		
	7			1		1	14.29%	1	100.00%	0.00		

텍스트 파일내 관련 정보를 주석을 달아, 활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장르의 수사적 구조내 무브(move)를 주석으로 달 수도 있으며, 단어의 품사를 표현할 수도 있다. 주석정보는 헤더정보와 마찬가지로 괄호로 표현되고, 코퍼스의 빈도분석에서는 제외되지만, 주석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예, 장르내 특정무브를 포함하는 텍스트를 분류 가능). 대표적인 주석정보는 품사가 있으며, 여러가지의 품사를 태그(tag)다는 프로그램 CLAWS⁷이 있으며, 대부분 96-97%의 정확성을 보인다.

b. 전체 텍스트 파일 구성 / 비율

위와 같은 방식으로 코퍼스를 구축하다보면, 코퍼스의 크기를 고민하게 된다. 코퍼스의 크기는 두 가지 요소 (대표성, 실행가능성)에 의해 결정된다(Reppen, 2010). 중요한 것은 코퍼스의 정의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코퍼

⁷ CLAWS는 랭캐스터대에서 개발된 품사 태거로 BNC와 COCA 등을 태깅하는데 사용되었다.

스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크기이다. 대표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Biber(1993)는 대표성을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모든 변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 하였다. 고려해야하는 다른 요소는 실행가능성 (practicality)이다. 대표성을 갖추기 위해 수많은 텍스트를 포함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시간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실행불가능하다면 가능한 수준에서 텍스트를 포함하는 것이다. 각 장르내 언어의 변이가 충분하게 반영될수 있는 장르의 크기가 20,000단어 수준이라는 Nelson (2010)의 연구와 장르별 5개 이상의 서로 다른 텍스트가 필요하다는 Koester (2010)의 연구 그리고 특정 장르의 과대 및 과소 대표(over/under-represent)를 방지해야 한다는 연구(Clancy, 2010; Koester, 2010)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진행되면 원하시는 특수목적영어의 코퍼스가 구축된다. 대표성을 충분하게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 코퍼스를 통한 특수목적영어의 연구와 교육이 가능하게 된다.

c. 군사영어(해군영어) 코퍼스 구축 사례

코퍼스란 실제로 사용되는 언어 및 텍스트의 모음으로써, 이를 분석함으로써 언어의 특징적인 사용과 이러한 사용에 대한 양적 근거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군사영어 코퍼스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하면 빈번하게 사용되는 군사영어의 표현이나 패턴, 연어관계와 함께 양적 근거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군사영어 교육을 계획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 학습자들이 실제 사용되는 군사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군사영어내 장르를 포함하여 군사영어 코퍼스를 구축하였다. 미국 해군에서 사용된 8개 장르의 텍스트를 바탕으로 하는 40여만 단어의 군 사영어 코퍼스를 구축하였다. 군사영어 코퍼스의 구성은 표1과 같다.

장 르	내 용	텍스트 수	단어 수	비 중	비고
Biography	군 경력 소개	86	28,034	7.1%	
Navy News	군내 주요 뉴스	54	23,173	5.9%	
Notice	군내 공지사항	106	45,034	11.5%	문어
Manual	군내 지침서	25	115,871	29.5%	(Written)
Journal Articles	군사 저널 논문	13	72,968	18.6%	
Mission Statement	부대 임무 소개	118	15,763	4.0%	
Ceremonial Speech	군내 행사중 연설	48	80,252	20.4%	구어
Statement at Hearings	청문회 진술내용	17	12,138	3.1%	(Spoken)
종 합			393,233	100%	

표 1. 군사영어 코퍼스내 장르

군의 특성에 따라 있을 수 있는 언어 사용의 차이를 고려하여, 코퍼스에 포함하는 텍스트는 미국 해군에서 사용된 텍스트로 한정하였으며, 구어와 문어 장르를 모두 포함하여, 군사영어의 구어와 문어적 특징을 반영할수 있도록 하였다. 포함된 장르에는 전기(biography), 군사저널 논문, 교범/지침서(manual), 부대 임무소개 (mission statement), 군 뉴스, 공지/공고(notice)와 같은 문어(written) 장르가 있으며, 구두(spoken) 장르에는 고위 장교들의 청문회 진술, 연설문이 있다.

코퍼스 구축에 관한 각종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군사영어 코퍼스를 구축하였다. 각 장르내 언어의 변이가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는 장르의 크기가 20,000단어 수준이라는 연구(Nelson, 2010)와 장르별 5개 이상의 서로다른 텍스트가 필요하다는 연구(Koester, 2010)를 참고하여, 코퍼스내 각 장르의 크기와 텍스트 수를 결정하였다. 텍스트의 수집이 곤란한 일부 장르를 제외한, 나머지 장르는 최소 20,000단어 이상을 포함하였다. 또한, 장르별 텍스트의 포함과정에서 일부 긴 텍스트가 언어 사용의 대표성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텍스

트의 일부분만을 포함하였으며, 특정 장르의 과대 및 과소 대표(over/under-represent)를 방지하기 위해 장르의 크기를 통제하여 장르 간의 균형을 갖도록 하였다(Clancy, 2010; Koester, 2010). 마지막으로, 코퍼스 내에서 빈 번하게 사용되고, 학습자들에게 유용할 수 있는 단어를 선정하여, 해당 단어에 한국어 태깅(tagging)을 포함하였다. 해군 헌병(Master-at-arms)을 포함한 약 100여 단어에 태깅을 추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어 단어를 검색함으로써 관련된 영어표현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구축한 코퍼스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와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먼저, 코퍼스를 통해 대표된 전문 영어의 특징적인 언어의 사용을 빈도와 코퍼스분석프로그램들이 제공하는 키워드리스트를 통해, 연구할 수 있다. 교육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데이터기반 학습(Data-Driven Learning)이 그것이다.

d. 코퍼스를 활용한 군사영어의 연구

코퍼스 분석도구를 이용하여, 코퍼스내 사용되는 단어를 빈도수로 정리하거나(워드리스트 기능), 구축한 코퍼스를 BNC나 COCA와 같은 참조 코퍼스와 비교하여 키워드를 얻을 수 있다(키워드리스트 기능). 이러한 양적 근거를 가지고, 코퍼스내 특징적인 언어의 사용을 식별할 수 있다.

그림 3

<u>E</u> dit	<u>V</u> iew	Compute Setting	s <u>W</u> indows	<u>H</u> elp						
	N	Word	Fr	req.	%	Texts	%	Dispersion	Lemmas	1
	1	THE	27,2	284	5.63%	467	98.11%	0.93		H
	2	AND	17,5		3.63%	474	99.58%	0.92		
	3	#	16,1		3.33%	401	84.24%	0.69		
	4	OF	14,6		3.02%	470	98.74%	0.93		
	5	то	13,0		2.69%	464	97.48%	0.92		
	6	IN		375	1.83%	443	93.07%	0.89		
	7	A		373	1.73%	414	86.97%	0.93		
	8	is		114	1.05%	373	78.36%	0.90		
	9	FOR		925	1.02%	402	84.45%	0.92		
	0	THAT		921	1.02%	216	45.38%	0.73		
	1	AS		511	0.72%	351	73.74%	0.86		
	2	OR		150	0.65%	230	48.32%	0.70		
	3									
	4	ARE BE		088	0.64%	218	45.80%	0.89		
	5			15	0.62%	268	56.30%	0.87		
		WE		934	0.61%	157	32.98%	0.56		
	7	NAVY		343	0.59%	379	79.62%	0.84		
		WITH		333	0.54%	332	69.75%	0.91		
	8	ON		14	0.54%	293	61.55%	0.89		
	9	WILL		514	0.52%	276	57.98%	0.84		
	0	IT		254	0.46%	160	33.61%	0.73		
	1	BY		202	0.45%	292	61.34%	0.85		
	2	YOU		159	0.45%	93	19.54%	0.52		
	3			148	0.44%	160	33.61%	0.55		
	4	THIS		104	0.43%	288	60.50%	0.80		
	:5	NAVAL		969	0.41%	342	71.85%	0.74		
	6	OUR		911	0.39%	185	38.87%	0.63		
	7	HAVE		338	0.38%	158	33.19%	0.70		
	8	AT		735	0.36%	284	59.66%	0.86		
	9	FROM		703	0.35%	303	63.66%	0.92		
	0	INFORMATION		579	0.35%	137	28.78%	0.52		
	1	COMMAND		572	0.34%	287	60.29%	0.77		
	2	AN		520	0.33%	233	48.95%	0.87		
	3	NOT		137	0.30%	117	24.58%	0.82		
	4	OPERATIONS		374	0.28%	317	66.60%	0.82		
	5	WAS		357	0.28%	191	40.13%	0.69		
	6	OFFICER		355	0.28%	230	48.32%	0.67		
	7	ALL		289	0.27%	196	41.18%	0.82		
	8	S		276	0.26%	249	52.31%	0.85		
	9	HE	1,2	221	0.25%	155	32.56%	0.53		
	0	SECURITY		156	0.24%	143	30.04%	0.54		
	1	U	1,0)79	0.22%	229	48.11%	0.82		
	2	ONE	9	952	0.20%	189	39.71%	0.85		
	3	THEY		947	0.20%	136	28.57%	0.76		
	4	FLEET		946	0.20%	283	59.45%	0.75		
	5	BUT		945	0.19%	110	23.11%	0.69		
	6	MARINE	9	944	0.19%	152	31.93%	0.69		
	7	HAS		941	0.19%	167	35.08%	0.80		
	8	SUPPORT	9	939	0.19%	297	62.39%	0.78		
	9	THEIR	9	927	0.19%	153	32.14%	0.85		
	0	COMMANDER	9	917	0.19%	250	52.52%	0.60		
	1	TRAINING	9	900	0.19%	189	39.71%	0.80		
-	2	WHEN	8	391	0.18%	112	23.53%	0.87		
	3	FORCES	0	356	0.18%	215	45.17%	0.78		

그림과 같이 단어를 빈도수 측면에서 정리한 워드리스트는 일반적인 문법어(grammatical words)가 리스트의 상위권을 차지하지만, 코퍼스내 특징적인 의미어(navy, command, operations)를 식별할 수 있다.

그림 4 KeyWords × File Edit View Compute Settings Windows Help RC. Freq Log L Log R 379 6 801 48 6 8 1 5 8 4 7.50 0 NAVY 2843 0.59% 40 NAVAL 1 969 0.41% 342 17 4 795 39 4 809 75 8 21 0 COMMAND 1672 0 34% 287 47 3 826 56 3 840 92 6.51 0 OFFICER 1 355 0.28% 230 75 288387 2 898 23 5 53 0 OPERATIONS 1374 0.28% 317 86 287361 288797 5 35 0 INFORMATION 1.679 0.35% 137 273 0.02% 2844.72 2859 08 3 97 0 1,156 SECURITY 0.24% 143 121 2 197 28 2 211 64 461 0 FLEET 946 0.20% 283 24 2.176.00 2.190.36 6.65 0 MARINE 944 0.19% 152 45 2.043.74 2 058 10 574 0 COMMANDER 917 0.19% 250 35 2.034.75 2 0 4 9 1 1 6.06 0 1,640.41 WILL 2.514 0.52% 276 1,846 0.15% 1.654.77 1.80 0 11 1,631.28 1,645.64 CORPS 748 0.15% 154 33 5.86 0 13 FORCES 856 0.18% 215 1,544.54 1,558.90 4.31 0 110 1,546.92 1,911 0.39% 0.09% 1,532.56 2.08 0 OUR 185 1,156 15 WARFARE 581 1,396.33 0 0.12% 187 1,410.69 7.95 PERSONNEL 677 0.14% 123 56 1,344.16 1,358,51 4.95 0 0 17 541 0.11% 145 1.332.76 1.347.12 9.43 COMBAT 0 18 554 0.11% 176 15 1,262.06 1,276.42 6.56 SUPPORT 0.02% 939 0.19% 272 1,256.92 1,271,28 3.14 0 TRAINING 900 0.19% 189 1.256.05 1.270.41 3.27 0 MISSION 650 0.13% 175 1.225.32 1.239.68 4.59 0 683 0 14% 167 98 1 192 80 1 207 16 4 15 0 DON 603 0.12% 53 1.181.85 1.196.21 4.86 0 31 **OPERATIONAL** 514 0.11% 138 13 1.176.02 1.190.38 6.66 0 25 CHIEF 654 0.13% 95 1,137.50 1,151.86 0 233 4.14 FORCE 769 0.01% 0 26 0.16% 212 183 1.125.18 1.139.54 3.42 27 SHIPS 1,119.27 542 0.11% 109 38 1,104.91 5.19 0 SERVICE 771 199 199 0.02% 1.088.23 0 28 0.16% 1,102.59 3.31 29 1.276 0.26% 722 0.06% 1.084.99 1.099.35 2.17 0 249 REFERENCE 1.053.82 536 0.11% 121 46 1.068.18 4.90 0 0.09% 1.045 11 1.059.47 10 08 0 PLA 423 94 U 527 0.04% 1.079 229 1.037.91 0 0.22% 1.052.27 2.39 236 0.02% 1.028.65 0 В 785 0.16% 142 1.043.01 3.09 34 SHIP 527 0.11% 108 47 1.028 12 1.042.48 484 0 COMMANDING 0.09% 447 131 11 1 022 92 1 037 28 670 0 426 36 MARITIME 0.09% 109 999 15 1.013.51 7 28 0 JOINT 487 0.10% 218 54 905.26 919.62 4.53 0 38 PACIFIC 467 0.10% 143 56 851 14 865 50 4 41 0 39 DOD 339 0.07% 31 832 50 846 86 976 0 REQUIREMENTS 40 443 0.09% 101 49 822 65 837.01 453 0 41 SNDL 322 0.07% 96 0 802 37 816.73 138.44 0 42 MARINES 343 0.07% 53 6 798.94 813.30 7.19 0 43 UIC 320 0.07% 94 n 797.30 811.66 138.43 0 44 MANAGEMENT 550 0.11% 171 133 0.01% 795 10 809 46 3 40 0 45 DEFENSE 604 0.12% 177 179 0.01% 794.05 808.41 3.11 0 46 MILITARY 643 0.13% 132 223 0.02% 775.92 790.28 2.88 0 47 SECNAV 307 0.06% 23 764.32 778.68 138.38 0 0 48 442 0.09% 99 754.53 0 **AIRCRAFT** 67 768.89 4.07 CAPABILITIES 353 0.07% 101 17 0 49 754.30 768.66 5.73 **EXPEDITIONARY** 300 0.06% 142 733.82 748.18 9.58 0 323 0.07% 9 728.16 742.52 0 SAILORS 104 6.52 0 4 **EFFECTIVE** 467 0.10% 696.85 711.21 <

코퍼스내 단어의 사용을 참조 코퍼스와 비교하는 키워드리스트는 워드리스트보다는 더욱 코퍼스와 관련된 (항상 많이 사용되는 문법어를 제외하고) 내용어를 제시한다. 워드리스트와 키워드리스트는 특정한 장르로 한 정하여, 코퍼스를 분석하면 더욱 자세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영어와 비교한 특수목적영어의 특징을 식별할 수 있다.

e. 코퍼스를 활용한 군사영어의 교육

clusters filenames

source text

KWs plot

links

코퍼스를 활용한 교육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코퍼스 분석을 통해 생성된 워드리스트를 이용하여 빈 도수가 높은 단어를 교육할 수도 있으며, 데이터 기반 학습(Data-Driven Learning)을 할 수도 있다. DDL은 학습 자가 데이터를 연역적 또는 귀납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언어를 학습하는 방법을 말한다(Boulton, 2009; Gilquin & Granger, 2010; Johns, 1991). 대표적인 DDL 활동은 귀납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지식을 학습해 나가는 것으로, DDL의 선구자격인 Johns(1991)의 예를 아래와 같이 들 수 있다.

그림 **오류! 책갈피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Convince와 Persuade (Johns, 1991).

```
ays that universities urgently need to convince academics that popularising research is re rviews by Professor Ian Fells ought to convince producers elsewhere that talking heads are produce literature detailed enough to convince the prospective buyer. Ivanov's major inte hbouring system will find it harder to convince their own establishment that they need new ggling sister or even the queen should convince us that behaviour can seem intelligent in prising that New Scientist should have convinced itself that the nuclear weapons policy of ed the Neolithic revolution and became convinced that it was not a matter of someone havin given. But French nuclear experts are convinced that the "reference accident" (a core mel ating how the British had determinedly convinced themselves they were enjoying themselves at the second of the service of the government to spend in of sense. Incidentally, how did you persuade different parts of the government to spend in of sense. Incidentally, how did you persuade Michael Heseltine to write it for you? Gal an early stage. Second, it is trying to persuade the British government to make some contriction, is planning a mission to India to persuade the British government to make some contriction, is planning a mission to India to persuade the government to look harder at fire rese entry to show farmers its work, and to persuade them to "get more out of muck". Scientists likely to survive. So a female who can persuade them to "get more out of muck". Scientists likely to survive. So a female who can persuade them to "get more out of muck". Scientists likely to survive. So a female who can persuade them to get more out of muck. Scientists likely to survive. So a female who can persuade them to get more out of muck. Scientists all image among many scientists has persuaded both the House and Senate that arthritis in mission that focuses on that disease, persuaded both the House and Senate that arthritis in the second community more explication.
```

동의어인 convince와 persuade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전에서도 한 단어의 정의를 위해 다른 단어를 활용할 정도로 이 단어의 의미차이는 구분이 어렵다: persuade의 정의를 위해서 convince를 활용하고, convince의 정의를 위해서 persuade를 활용하기도 한다(Brown, 1993). 그러나 각 단어의 많은 사용예를 위와 같이 분석하면, 학습자들은 그 단어의 사용형태를 학습할 수 있다(Johns, 1986, 1991): 데이터내 사용예(concordance lines)가 제시하듯이, convince는 주로 that 절과 함께 사용되는 반면, persuade는 to 부정사를 that 절보다 선호한다. 이러한 점에서 DDL은 발견의 학습(discovery learning)이라고도 불린다(Gilquin & Granger, 2010).

DDL은 이처럼 단어의 사용이나 특성에 대한 학습에 효과적이며, 특히 일반 사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전문분야내 특수한 의미나 기능을 가지고 사용되는 단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Walker, 2011). 특히, 군사영어의 경우에는, 사전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군대 내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해군 부사관과 수병들의 계급을 뜻하는 rate나, 그들의 특기(직별)를 의미하는 rating의 의미는 일반 사전을 통해서는 찾기 힘들다.

또한, 실제 사용되는 언어를 바탕으로 한 코퍼스는 학습자들이 단어를 담화의 문맥 속에서 학습할 수 있게 한다(Brown & Lee, 2015). 게다가 학습자의 인지능력 활용을 요구하는 DDL 학습활동을 통해서 학습한 내용은 학습자들이 더 오랜 기간동안 기억할 수 있다(Hunston, 2002; Laufer & Hulstijn, 2001).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군사영어내 특징적이고 필수적인 단어의 사용을 학습하기 위한 DDL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Bennett, G. R. (2010). *Using Corpora in the Language Learning Classroom: Corpus linguistics for teachers*.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Biber, D. (1993). Representativeness in Corpus Design. Literary and Linguistic Computing, 8(4): 243–57.
- Boulton, A. (2009). Data-driven learning: Reasonable fears and rational reassurance. *Indi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35(1), 81-106.
- Brown, D., & Lee, H. (2015).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4th ed. White Plains, NY: Pearson Education.
- Brown, L. (1993). New shorter Oxford English dictionary on historical principles. Oxford University Press.
- Clancy, B. (2010). Building a corpus to represent a variety of a language. In A. O'Keeffe & M. McCarthy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corpus linguistics* (pp. 108-120). Routledge.

- Gilquin, G., & Granger, S. (2010). How can data-driven learning be used in language teaching? In A. O'Keeffe & M. McCarthy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corpus linguistics* (pp. 387-398). Routledge.
- Hopkins, A., & Dudley-Evans, T. (1988). A genre-based investigation of the discussion sections in articles and dissertations.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7(2), 113-121.
- Hunston, S. (2002). Corpora in Applied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hns, T. (1986). Micro-concord: A language learner's research tool. System, 14, 151-162.
- Johns, T. (1991). Should you be persuaded: Two samples of data-driven learning materials. *English Language Research Journal*, *4*, 1-16.
- Koester, A. (2010). Building small specialised corpora. In A. O'Keeffe & M. McCarthy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corpus linguistics (pp. 94-107). Routledge.
- Laufer, B., & Hulstijn, J. (2001). Incidental vocabulary acquisition in a second language: The construct of task-induced involvement. *Applied Linguistics*, 22(1), 1-26.
- Lores, R. (2004). On RA abstracts: from rhetorical structure to thematic organisation.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23, 280-302.
- McEnery, A., & Xiao, R. (2004). Character encoding in corpus construction. In M. Wynne (Ed.), *Developing linguistic corpora: a guide to good practice* (pp. 47-58). AHDS.
- McEnery, A., Xiao, R., & Tono, Y. (2006). Corpus-based language studies: An advanced resource book. London: Routledge.
- Nelson, M. (2010). Building a written corpus: what are the basics? In A. O'Keeffe & M. McCarthy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corpus linguistics (pp. 81-93). Routledge.
- Reppen, R. (2010). Building a corpus: what are the key considerations? In A. O'Keeffe & M. McCarthy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corpus linguistics (pp. 59-65). Routledge.
- Scott, M. (2020). WordSmith Tools version 8, Stroud: Lexical Analysis Software.
- Swales, J. M. (1981). Aspects of Article Introductions.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Walker, C. (2011). How a corpus-based study of the factors which influence collocation can help in the teaching of business English.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30, 101-112.
- 정해진 (2015). 저작물의 공정이용, 그 범위는 어디까지?

 $\frac{https://www.copyright.or.kr/kcc/counsel/copyright-information/counseling-issues/view.do?pageIndex=4\&brdctsno=17849\&portalcode=02\&brdclasscode=&nationcode=&searchText=&servicecode=08\&searchTarget=ALL\&brdctsstatecode=&pageIndex=4$

Appendix

Fair Use Checklist Copyright Advisory Office Columbia University Libraries Kenneth D. Crews, Director http://copyright.columbia.edu

Nar	me:		<u> </u>
Inst	titution:		
	ject:		
Dat	e:		
Pre	pared by:		
Pui	rpose		
Fat	roring Fair Use	Opp	osing Fair Use
	Teaching (including multiple copies for classroom use)		Commercial activity
	Research		Profiting from the use
	PERSONAL PROPERTY AND ADDRESS OF THE PERSONAL PR		Entertainment
5705	Scholarship		Bad-faith behavior
П	Nonprofit educational institution		Denying credit to original author
	Criticism		
	Comment		
	News reporting		
	Transformative or productive use (changes the work for new utility)		
	Restricted access (to students or other appropriate group)		
	Parody		

Fair Use Checklist p. 2 Nature Favoring Fair Use Opposing Fair Use □ Published work ☐ Unpublished work Factual or nonfiction based Highly creative work (art, music, novels, films, plays) Important to favored educational objectives Fiction Amount Favoring Fair Use Opposing Fair Use Small quantity Large portion or whole work used Portion used is not central or significant Portion used is central to or "heart of the to entire work work" Amount is appropriate for favored educational purpose Effect Favoring Fair Use Opposing Fair Use User owns lawfully purchased or acquired Could replace sale of copyrighted work copy of original work Significantly impairs market or potential One or few copies made market for copyrighted work or derivative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market or Reasonably available licensing mechanism potential market for copyrighted work for use of the copyrighted work No similar product marketed by the Affordable permission available for using copyright holder Lack of licensing mechanism Numerous copies made

You made it accessible on the Web or in

other public forum

Repeated or long-term use

Most recent revision: 051408

BIODATA

김동영은 해군사관학교 부교수이며, 특수목적영어, 장르이론, 코퍼스언어학과 영어에 관심이 있다.

E-mail: onset4coda@navy.mil.kr

A Longitudinal Study of a Korean ESP Teacher's Identity Transformation

Myonghee Kim
Professor
Sookmyung Women's Univeristy

1

Background of the Study

- Increasing interest in ESP as an English program and as a research focus
 - Since the late 1970s and early 1980s, ESP has become a significant area in the field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Kennedy, 2012)
 - Emergence of ESP-related academic journals uniquely devoted to ESP have emerged, including the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the Asian ESP Journal, and the Taiwan International ESP Journal (Cheng & Anthony, 2013).

Background of the Study

ESP Teachers

- Assume a wider range of roles than general English language teachers
- Lack of subject content knowledge
- Experience identity struggles and tension (Tao & Gao, 2018), which deserves attention considering the critical role of teachers in educational endeavors.

3

Background of the Study

- Teacher identity
 - Draw an increasing attention from researchers in the field of education in general (Beijaard, Meijer, & Verloop, 2004; Hamilton & Clandinin, 2011), language education in particular (Duff & Uchida, 1997; Gu & Benson, 2014; Johnson & Golombek, 2011; Tsui, 2007).
 - What teachers think and value, who they are as individual persons, and how they relate to learners and other teachers are truly important as these all affect educational processes and outcomes.
 - "In order to understa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we need to understand teachers: the professional, cultural, political, and individual identities which they claim or which are assigned to them" (Varghese, Morgan, Johnston, and Johnson, 2005, p. 22).

Background of the Study

- Rationale for the Study
 - In consideration of the role of teachers as crucial players of ESP education and their identity struggles which are potentially real, there is an urgent need for studies exploring ESP teachers' identity struggles and identity formation process.
 - No longitudinal research on ESP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in relation to their teacher identity 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3

Purpose of the Study

 To explore how one ESP teacher, who was teaching English for security purposes in Korea, created and negotiated her teacher identity over time in a four-year period

Conceptual Framework of the Study

- Poststructuralist approach towards identity (Weedon, 1997)
 - · Definition of identity
 - "the conscious and unconscious thoughts and emotions of the individual, her sense of herself and her ways of understanding her relation to the world" (p. 32)
 - · Nature of identity
 - Multiple
 - · Dynamic & shifting over time and space
 - · Contradictory: identity as a site of struggles
 - · Situated in context

7

Conceptual Framework of the Study

- Agency
 - we human beings do not simply remain passive in the course of action and interaction.
 - Instead, we frequently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meaning negotiations to varying degrees by, for example, resisting unfavorable impositions, exerting influence, or making informed choices.

8

Conceptual Framework of the Study

Agency

- In relation to teachers, teacher agency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upon instructional practices and the negotiation of teacher identity (Benson, 2017).
 - By exercising their agency, teachers can thus change their access to resources and practices; make better use of their available resources; position themselves more favorably.
 - This eventually may enable teachers to reframe their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claim more powerful identities from which to teach and interact with students (Benson, 2017; Norton & Toohey, 2011).

9

Literature Review

- ESP teachers
 - Five roles: teacher, course and material developer, collaborator, researcher, and evaluator (Dudley-Evans & St. John, 1998)
 - · Importance of need analysis
 - ESP "as an approach to language teaching in which all decisions as to content and method are based on the learner's reason for learning" (Hutchinson & Waters, 1987, p. 19).
 - ESP courses aim to specify as closely as possible exactly what learners have to do with English (Robinson, 1991)

Literature Review

- How much subject content knowledge ESP teachers need to have has been a controversial issue (Lesiak-Bielawska, 2015; Master, 2005)
 - At one end of the continuum, there are views that highlight the importance of subject knowledge (e.g., Troike,1994)
 - At the other end, there are views that content knowledge does not matter a lot (Schachter, 1981; Taylor, 1994)

11

Literature Review

- Research on ESP teacher identity
 - Chang's (2017) study
 - Explored how one Taiwanese teacher developed her teacher identity while making a transition from EAP to ESP instruction
 - · Main identities:
 - a learner acquiring new subject knowledge and interactional methods
 - · a collaborator working together with students
 - · a multi-tasker
 - a problem solver meeting the expectations of trouble-shooting

Literature Review

- · Research on ESP teacher identity
 - Tao and Gao's (2018)
 - Explored the identity creation and negotiation of eight ESP teachers at a Chinese university
 - Findings
 - Experienced a sense of achievement by helping their students to acquire the ESP skills
 - Struggled to construct positive teacher identities as the disciplinary status
 of ESP was questionable and marginalized at the institution dominated by
 traditional language-teaching courses

13

Methodology

- Participant and the Setting
- Misun
 - MA holder and staff member for an in-service English teacher training program
 - started her ESP teaching career in 2014 at the age of 31 without any prior English teaching experiences

Methodology

- Setting
 - the university where Misun was working was contracted with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PSS) office of Korea for developing and implementing an ESP program, specifically English for PSS purposes
 - Researcher who was the PSS English director invited Misun to join the PSS teaching team

15

Methodology

- Data collection
 - 4-year longitudinal study between 2016 and 2020
 - · Data collection through interviews
 - · 6 face-to-face interviews
 - 6 electronic interviews

Methodology

- Data analysis
 - analyzed the data in an iterative and evolving process, following general qualitative data analysis procedures (Lincoln & Guba, 1985)

17

- Misun went through multi-faceted, evolving process of identity 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 · Four salient identities
 - · a scared, inexperienced English teacher
 - · a struggling, but hard-working collaborator and learner
 - · a novice ESP teacher growing in confidence
 - · a competent and helpful ESP teacher

- A Scared, Inexperienced English Teacher
 - "Reflecting on my earliest days of ESP teaching, I didn't have any big picture of ESP or ESP teaching, and I had no clear feeling of responsibility either. I barely managed teaching. I just hoped that my students would feel more comfortable with English learning and not fall asleep during my lesson." (Jan. 19, 2016; face-to-face interview)

19

- A Scared, Inexperienced English Teacher
 - "I knew nothing about security and my students were all experts in the field of presidential security. I was extremely overwhelmed by a recognition that I would have to learn and teach English vocabulary words and expressions about security that I had no idea of. I was struck by a strong feeling that I was entering into an unknown world." (Jan. 19, 2016; face-to-face interview)
 - "I was an English teacher, not an ESP teacher" (Jan. 19, 2016; faceto-face interview).

- A Struggling, but Hard-working Collaborator and Learner
 - "I had no idea about the details of the security field, and my confidence as a teacher was extremely low. All I could do at that time was to follow an established curriculum and use the given teaching materials. So I studied the three in-house textbooks as much as possible before the class. That was the only and the best way of preparing for my class." (Nov. 13, 2016; face-to-face interview)

21

- A Struggling, but Hard-working Collaborator and Learner
 - "Collaboration was taking place between me and my students. They
 were content experts and I was a language expert. It was as if we
 were working together for a class with different types of expertise"
 (Nov. 13, 2016; face-to-face interview)

- A Struggling, but Hard-working Collaborator and Learner
 - "I didn't know for sure what to teach and what to do. Everything
 was so unclear. I felt confused and emotionally stifled. Though I was
 in that situation, I couldn't ask any questions of my students
 because I was their teacher." (Nov. 15, 2016; email correspondence)
 - "Studying hard was my survival strategy. I had to study and prepare a lot because I didn't know what to teach." (Nov. 13, 2016; face-to-face interview)

23

- A Struggling, but Hard-working Collaborator and Learner
 - "I came to recognize that my students had a wider variety of motivations for English learning partly because of their different proficiency levels and interests. Some students desired to learn English for performing their security-related tasks more skillfully while some others hoped to enjoy casual talks with their foreign counterparts in informal contexts. To the former group of students, ESP teaching which focuses on job-related expressions was deemed more helpful, but, to the latter group of students, general English teaching with focus on everyday expressions seemed to be more appropriate and necessary. It occurred to my mind that it is most important to identify students' diverse needs and to address them in appropriate ways." (Nov. 13, 2016; face-to-face interview)

- A Struggling, but Hard-working Collaborator and Learner
 - "I was not sure whether I found the right materials or not. As I had no idea of the field, I didn't know what key words to use for searching information in the internet. There was a lot of information about security available in the internet, but much of the information that I collected for class activities proved to be useless or unreliable in class." (Nov. 13, 2016; face-to-face interview)

25

- · A Struggling, but Hard-working Collaborator and Learner
 - "I was not sure whether I found the right materials or not. As I had
 no idea of the field, I didn't know what key words to use for
 searching information in the internet. There was a lot of information
 about security available in the internet, but much of the information
 that I collected for class activities proved to be useless or unreliable
 in class." (Nov. 13, 2016; face-to-face interview)
 - "I didn't have a clear idea of security English. I was not an ESP teacher yet." (Nov. 13, 2016; face-to-face interview)

- A Novice ESP Teacher Growing in Confidence
 - "I realized that relying on the same in-house textbooks was not effective considering different proficiency levels and needs of my students. I found it necessary to use diverse external resources because they could better address my students' varying needs." (Jun. 15, 2018; SNS message)

27

- A Novice ESP Teacher Growing in Confidence
 - "I think I could find materials more skillfully because I developed much more knowledge about security. I came to know what key words to enter for searching information in the internet, and, as a result, I could access a larger amount of useful information than before. I used those materials in the class more frequently than the textbooks." (Jun. 3, 2018; face-to-face interview)

- A Novice ESP Teacher Growing in Confidence
 - "Earlier, I was afraid that if I ask my students questions about the content, I might lose my face, and it would be a serious threat to my teacher identity. Such fear stopped me from approaching students freely. However, as I gained some confidence as an ESP teacher, that fear was gradually removed, and I could ask questions to check whether my understanding was correct." (Nov. 3, 2018; face-to-face interview)

29

- A Competent, Helpful ESP Teacher
 - "As I came to know more and more about the field, I could naturally perceive myself as an ESP teacher, and my confidence grew. I think acquisition of content knowledge plays an important role in forming an ESP teacher identity. In case an ESP teacher does not have enough content knowledge, his or her teaching is not likely to be effective, and, probably, the teacher may not teach with confidence. So, an ESP teacher should make various efforts to accumulate content knowledge through communications with students and intensive study. I believe only after a teacher acquires a sufficient amount of content knowledge can the teacher become an ESP teacher." (May. 15, 2019; face-to-face interview)

- A Competent, Helpful ESP Teacher
 - "After I established my ESP corpus, I became able to explain the
 meanings and usages of security-related expressions more
 confidently on the basis of my corpus data. Before then, I regarded
 my students as the most reliable sources of information for teaching,
 but I ended up with relying on my corpus data more. Also, I started
 to consider how to use new data for what types of students. Most
 importantly, I had a feeling of empowerment as far as the ESP
 teaching was concerned." (Jan. 10, 2020; face-to-face interview)

31

- A Competent, Helpful ESP Teacher
 - "Some of my students contacted me to get various types of help from me as regards English. While helping them individually, I was very pleased and had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as a teacher. Meanwhile, I came to develop a new desire to care about my students' English need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class, and so I ended up with having another identity, that is, caregiver. I hoped that, thanks to enhanced English skills, my students could perform their jobs more skillfully in the international contexts." (Feb. 5, 2020; face-to-face interview)

Discussion and Conclusion

- Taking the lens of teacher identity,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ntribute to expanding the knowledge base of the ESP field in a couple of ways
 - Misun's construction and negotiation of identities reveal a complex process of becoming an ESP teacher, as discussed in previous studies of identity (Tao & Gao, 2018; Weedon, 1997)
 - Identified needs analysis, competence in materials development, and subject content knowledge as significant factors mediating an ESP teacher's identity construction
 - Misun's identity transformation process can be interpreted in the light of significant changes in her teacher agency (Benson, 2017; Duff, 2012; Norton & Toohey, 2011)

33

Discussion and Conclusion

- Implications for ESP education in general, and ESP teacher education in particular
- Limitation of this study

References

- Beijaard, D. Meijer, P. C., & Verloop, N. (2004). Reconsidering research on teachers' professional identity.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0, 107-128.
- Benson, P. (2017). Teacher autonomy and teacher agency. In G. Barkhuizen (Ed.), Reflections on language teacher identity research (pp.18-23). New York: Routledge.
- Chang, K. C. (2017). From EAP to ESP: A teacher's identity development. Taiwan Journal of TESOL, 14(2), 71-100.
- Cheng, A., & Anthony, L. (2013). ESP research in Asia.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33, 1-3.
- Dudley-Evans, T. (1993). Subject specificity in ESP: How much does the teacher need to know of the subject? Asp. La Revue Du GERAS, (1), 1-9.
- Dudley-Evans, T., & St John, M. (1998). Developments in ESP: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uff, P. A., & Uchida, Y. (1997). The negotiation of teachers' sociocultural identities and practice in postsecondary EFL classrooms. TESOL Quarterly, 31, 451-486.
- Hamilton, M. L. & Clandinin, J. (2011). Becoming researchers in the field of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7, 681-682.
- Hutchinson, T., & Waters, A. (1987).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hnson, K. E., & Golombek, P. R. (2011). The transformative power of narrative in second language teacher education. TESOL Quarterly, 45, 486-509.
- Johnston, B. (2003). Values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Mahwah, NJ: Lawrence Erlbaum.

35

- Kennedy, C. (2012), ESP projects, English as a global language, and the challenge of change. Proyectos de IFE, ingles como lengua global y el desafió del cambio, 24, 43-54.
- Kennedy, K. & Bolitho, P. (1991)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London: Macmillan.
- Lesiak-Bielawska, E. D. (2015). The role of discipline-specific knowledge of ESP teaching.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World, 47, 1-15.
- Master, P. (2005)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In E. Hinkel (ed.), Handbook of research in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pp. 99-115).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Nias, J. (1989). Teaching and the self. In M. L. Holly, & C. S. McLoughlin (Eds.), Perspective on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pp. 151-171). London: Falmer Press.
- Norton, B. (2000). Identity and language learning: Gender, ethnicity and educational change. Harlow, UK: Longman.
- Norton Peirce, B. (1995). Social identity, investment, and language learning. TESOL Quarterly, 29(1), 9-31.
- Norton, B., & Toohey, K. (2011). Identity, language learning, and social change. Language Teaching, 44(4), 412-446.
- Park, G. (2012). "I am never afraid of being recognized as an NNES": One teacher's journey in claiming and embracing her nonnative-speaker identity. TESOL Quarterly, 46(1), 127-151.
- Pavlenko, A., & Blackledge, A. (2004). New theoretical approaches to the study of negotiation of identity in multilingual contexts. In A. Pavlenko & A. Blackedge (Eds.), Negotiation of identities in multilingual contexts (p. 1-33). Clevedon, UK: Multilingual Matters.

- Robinson, P. (1991). ESP today: A practitioner's guide. Hertfordshire, U.K.: Prentice Hall International (U.K.) Ltd.
- Schacter, J. (1981). Teach ESP—me? No, thanks. Paper given at the Fifteenth Annual TESOL Convention, Detroit, MI, March, 1981.
- Tao, J., & Gao, X. (2018). Identity constructions of ESP teachers in a Chinese university.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49, 1-13.
- Tsou, W., & Chen, F. (2014). ESP program evaluation framework: Description and application to a Taiwanese university ESP program.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33, 39-53.
- Taylor, M. (1994). How much content does the ESP instructor need to know? TESOL Matters 4, 14.
- Troike, R. (1994). The case for subject-matter training in ESP. TESOL Matters 3, 7.
- Tsui, A. B. M. (2007). Complexities of identity formation: A narrative inquiry of an EFL teacher. TESOL Quarterly, 41(4), 657-680.
- Varghese, M., Morgan, B., Johnston, B., & Johnson, K. A. (2005). Theorizing language teacher identity: Three perspectives and beyond. *Journal of Language, Identity, and Education, 4*(1), 21-44.
- Waters, A. (1994). ESP things fall apart. In R. Khoo (Ed.), LSP: Problems and prospects (pp. 1-14). Singapore: SEAMEO Regional English Language Center.
- · Weedon, C. (1997). Feminist practice and poststructuralist theory (2nd Ed.). Oxford: Blackwell.

37

Biodata

- · Dr. Myonghee Kim
- Myonghee Kim is a professor in the School of English a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Her current research interests include language teacher/learner identity, L2 writing, female leadership, and gender issues.
- Email: kimm@sookmyung.ac.kr
- Phone: 02) 2077-7377

취업 연계형 이공계, IT융합 ESP교과목 성공 사례 연구

정성희 (숭실대학교)

서론

2020년 이후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은 급속한 대학 수업의 변화를 유도하였고, 비대면 상황에서 조차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 대학의 생존과 직결될 정도로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IT기기의 대중화와 다양한 플랫폼의 발달이 수준별 개별화 학습의 필요성을 가속화 했음에도, 비대면 수업 상황이라는 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전면 온라인 강의 혹은 온-오프 매체를 혼합한 혼합수업(이하 블렌디드 러닝)이 과연 변화하는 수업 환경속에서 학습자 만족도를 어느 정도 충족시켰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연구가 되었다. 이에 과연 급격한 수업 플랫폼의 변화만이 학습자 개인별, 수준별 다양한 니즈에 영향을 끼친것인지, 학습자 자기주도성 및 전공역량을 향상시킨 것에 학습 환경의 변화만이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영어교육 분야는 학생들 수준 차이가 많을 수록, 한 수업당 학생 수가 많을 수록 활동 시간 부족이라는 여러 제약을 가지게 되므로, 수업 플랫폼 변화가 학습자 성취도 부족, 흥미도 저하 등으로 나타나지는 않는지(김혜미, 김정렬, 2019) 또한 고민하면서 영어교육의 성공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송고은(2019)의 연구에 따르면 졸업연령, 해외 어학연수 여부 유무, 성별, 영어조기교육 혹은 영어 공인시험 성적이나 영어교육투자 만족도 보다는 대졸자의 취업성과 및 취업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전문적, 수준높은 영어교육의 지원 여부라고 하였다. 즉 대학교육에서 학습자에게 유용한 영어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을 때 학습자 자기 주도성, 역량이 향상되어 졸업 후, 취업 역량 및 성공에 큰 영향을 끼침을 뜻한다. 이에 학습자가 원하는 전공영어, 교양영어수업은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여 과연 무엇을 가르쳐 학습자 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 블렌디드 러닝 및 학습자 중심 토론, 참여 활동을 구조화한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을 적절히 활용하여 지식 전달과 암기가 아니라 학습자가 필요한 지식을 창조, 재창조, 통합 발전시키는 역량을 키우는 (최정빈, 김은경, 2015) 교육방식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영어교육이 전공의 콘텐츠 교육과 연계하여 ESP 교육을 지향하기 위한 융합교육의 선제적인 역할을 하는 것 또한 학습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기회를 줄 수 있어(한지영, 2013) 자기 주도적, 개별 학습 및 콘텐츠 연계학습이라는 양질의 교육효과를(김정렬, 2008; 김혜미, 김정렬, 2019) 제공할 것이다.

특히 정보 및 세계화 시대에서는 세계 시민의 자질로서 국제어인 영어를 배우며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소화하며 창출해 해야 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영어교육은 학문의 경계를 뛰어넘어 인문 사회 현장과 자연과학 현장에서 각자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지식 혹은 콘텐츠를 창조하기 위해 함께 하고 공유하는 작업의 빈도가 높아지는(홍성욱, 2012) 트렌드를 반영하여야한다. 이러한 학문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 융합연구 인데, 융합연구를 간단히 정의하자면 "다른 종류의 학제에 기반한 학문이 하나로 합하여지거나그렇게 만듦"(박상우, 2012 p.21)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현 시대에 융합이 화두가 되는 이유는 아무리 기술과성능이 뛰어난 제품 혹은 콘텐츠를 생산하였다고 할지라도 예술적 감성에 의해 소비되는 디자인 요소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장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며, 이를 위해 기술 이외에 인문학, 심리학, 사회과학, 예술적 감성, 창의성이 모두 결합된(이병욱, 2011) 상품만이 선택된다는 시장 원리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이야말로 영어교육 또한 급변하는 시장 변화의 틀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찾게 해 준다. 즉 아무리 뛰어나고 좋은 콘텐츠를 갖고 있는 학습 프로그램, 교수법, 교재, 이러닝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도 학습자의 감성, 학습 동기, 학업의 즐거움, 필요성과 창의성을 깨울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하고, 교수자가 그러한 요소를 찾을 수 있는 안목과 활용 능력이 부족하면 결국 그것은 전혀 쓸모 없이

사장되고 시장의 선택에서 배제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어교육 분야가 IT, 공학 및 현재의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를 융합하여 영어교육이라는 공통의 화두 아래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융합 교과목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학습자가 만족하는 커리큘럼으로 안착 시켰는지 공동의 연구목표를 달성했는지 보고하고자 한다. 본 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영어교육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융합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급변하는 현대후기산업사회 특성을 반영하고 다양한 학습자, 연구자 요소를 고민하는 융합 연구와 융합교과목의 훌륭한사례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 배경 및 융합 커리큘럼 예시

융합 연구의 동향과 논제

사실 융합 연구 혹은 융합 교과목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존재하기도 한다. 즉 한가지 분야에서 제대로 인 정받는 전문가가 된다는 것도 힘들고, 오히려 하나의 분야를 제대로 깊이 있게 아는 전문가들이 창조해내는 결과물이과연 훨씬 우수할 것인가 혹은(홍성욱, 2012) 가르치는 영어교육 분야에서 과연 융합 연구가 필요한 가? 라는 질문에 대다수의 많은 영어교육 분야 관련 종사자들이 자신 있게 예 혹은 아니라는 대답도 하기 힘 들 것이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첫째로 영어교육 환경도 피해가지 못할 비대면 이러닝(elearning), 모바일 러닝(m-learning), 온라인 강의 등 다양한 형태의 강의와 방법론의 홍수 속에서 교과목 융합 이 최선의 대안인 지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융합이란 미명하에 사이버 공간에서 검색된 학습 컨텐츠 중 "해당 컨텐츠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은 운영자들이 그저 영리를 목 적으로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거나 구축해 놓은 사이트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이하나, 2009, p. 128)현상 으로 인해 아무리 훌륭한 목적을 갖추고 있는 컨텐츠라 할 지라도 영어교육에 활용하고자 할 때는 내용에 대 한 이해와 운영방안에 대한 확고한 시각과 안목, 학습자 중심의 컨텐츠와 디자인으로 변형 할 줄 아는 통찰력 이 더더욱 필요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홍성욱(2012)이 이야기 하였 듯 융합 연구의 목적은 "이것 저것 잡다하게 하는 르네상스 맨을 만드는 것"(p. 12)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향하여도 안된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위해 그 문제와 관련된 전문성이 필수불가결하 듯, 영어교육의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적 하에 지식 융합이라는 과정을 통해 "전문성 혹은 창의성을 창조해 나가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발전 시켜야 하는 것이며, 이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커리큘럼 및 교과 내용을 고안 하여 학습자에게 시행하여 그 성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융합 ESP 교과목 커리큘럼 예시

교과목 개요	This course is designed	This course is designed to assist the students, who are majoring in IT, Engineering Natural Sciences to		
	acquire the spoken a	acquire the spoken and written communication skills in English needed for the job searching processes		
	in their major areas. (공과대학 학생들이 유관분야 취업을 위해 필요한 (1) 전공지식 영어로 표현하기,			
	말하기, 쓰기, 발표 혀	가기 및 (2) 취업 전 필요한	자소서, 영어 인터뷰 등 모	.든 과정을 습득하고 취업
	서류를 준비하는 코스	느임. 단 비전공자도 알 만현	한 필수 공대지식을 가르치	그로 관심 있는 학생 누구
	나 수강가능)			
교과목교육목표	By the end of the course, students will be able to: create a career plan for their dream company in the			
	Engineering or related field prepare for the interview templates that highlight their aptitude and ability			
	for Engineering or related field present their special knowledge in Engineering or related field			
수업진행방법	Lecture: 40%, Activity: 40%, Feedback: 20%			
평가방법	Midterm Project 30	% Final Project & Po	ortfolio 30% Assignme	nt & Presentation 20%
	Attendance10% Class Attitude& Participation: 10			
	**Absolute Grading			
주 (Week)	핵심어	세부내용	교재 범위	비고

	(Keyword)	(Description)	(Texts)	(Note)
1	Course Introduction, Rapport	Brainstorming My Career Path & Choosing My Dream Career	Unit I: My Field, My Dream	Textbook & In-class activity
2	Listening, Speaking, and Assignment	Understanding Job Requirement & Analyzing My Qualifications	Unit I: My Field, My Dream	Textbook & In-class activity
3	Listening, Writing, Speaking, and mock test	Presenting My Idea in a Logical Manner	Unit II: Presenting My Idea in a Logical Manner	Textbook & In-class activity
4	Listening, Writing & Speaking	Creating a Paragraph about My Major Field	Unit II: Presenting My Idea in a Logical Manner	Textbook & In-class activity
5	Listening, Writing & Speaking	Conference: Practice of Writing and Feedback	Unit I~II	Textbook & In-class activity
6	Listening, Writing & Speaking	Explaining Content Knowledge	Unit III: Presenting Content Knowledge	Textbook & In-class activity
7	Speaking, Writing, Reading & Analysis	Presenting Content Knowledge: Brainstorming	Unit III: Presenting Content Knowledge	Textbook & In-class activity
8	Speaking, Writing & Presentation	Presenting Content Knowledge: Making Effective Presentation Slides	Unit III: Presenting Content Knowledge	Textbook & In-class activity
9	Speaking, Writing & Presentation	Presenting Content Knowledge: Delivering a Presentation	Unit I, II and III : Speaking, Writing, and Presentation	Textbook & In-class activity
10	Midterm Project Exam	Midterm	Unit I~III	Presentation & Peer-evaluation
11	Listening, Writing & Speaking	Application Form (1)	Unit IV: Preparing Application Document (1) - General	Textbook & In-class activity

REFERENCES

김정렬. (2008). 이러닝(e-Learning)과 영어교육. 서울: 한국문화사. 김혜미, 김정렬. (2019). 블렌디드 러닝과 플립러닝을 활용한 영어교육연구의 효과 비 교를 위한 메타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1), 241-258.

송고은. (2019). 대졸자의 취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어교육요인 분석.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19(22), 1335-1357.

이병욱. (2011). 융합의 이해: 미래 디지털 사회를 위한. 생능출판사.

최정빈, 김은경. (2015). 공과대학의 Flipped Learning 교수학습 모형 개발 및 교과 운영사례. 공학교육연구, 18(2), 77-88.

한지영. (2013). 블렌디드 이러닝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의 내재동기, 이러닝 학습전략이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9(1), 16-23.

홍성욱. (2012). 융합이란 무엇인가: 융합의 과거에서 미래를 성찰한다. 서울, 사이언스북스.

BIODATA

Sung Hui Cheong is teaching at the field of Career Track English and Major-Affiliated English program at the Baird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and have been interested in developing ESP TESOL and Early-childhood Education program in the College of Education at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She also taught at Duk Sung Women's University, Korean MinJok Leadership Academy and Hankuk Academy of Foreign Studies. After earning a M.A and a Ph.D at the Department of Foreign and Second Language Education at the Ohio State University in 2007, she has conducted various studies focusing on English for specific purpose, teaching methodology, curriculum development, L2 writing and speaking, literacy, assessment in L2 writing, teacher education, socio-cultural studies and NES vs NNES issues. She is currently serving as the Secretary General for Korea Association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and a board member of ESP Korea Association, Pan-Korea Teachers Association, and The English Teachers Association in Korea

Tel: 02-828-7211

E-mail: butigirl94@ssu.ac.kr

비대면 원격수업에서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수업활동

오선주

1

목차

- 1. Getting to Know
- 2. 그룹별 토의 및 발표
- 3. 협력적 비즈니스 레터 쓰기
- 4. Guided Reading & 퀴즈

1. Getting to Kn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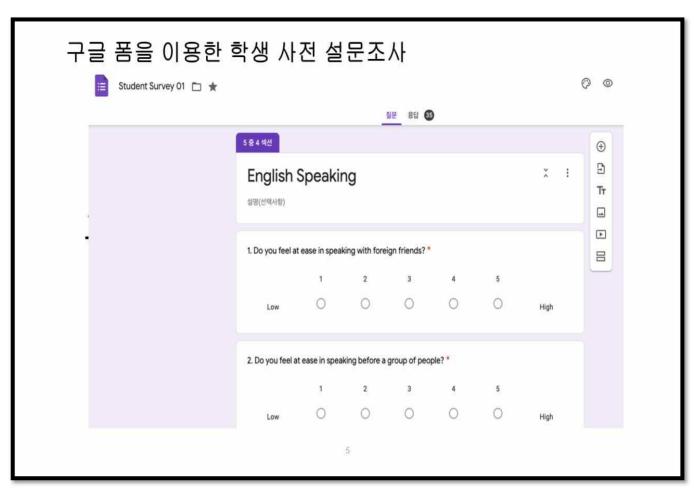
- 개강주~2주에 적합
- 학생파악 및 소그룹 형성에 용이
- 학생-학생의 상호작용
- 학생-LMS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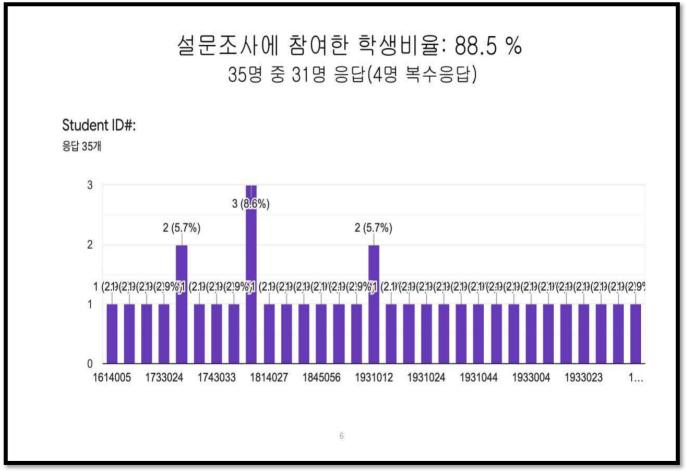
3

수업 전개 과정

- 수업개시 전 비즈니스영어 능력 자기 진단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결과에 따른 활동조 나누기
- 자기소개에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 시 청
- 소그룹내에서 그룹멤버 인터뷰하기
- LMS 토론게시판을 이용한 자기소개

1Week [01 September - 07 September] Business English Competency Survey Take 5 minutes to complete and submit it! Orientation ppt If you were absent today, don't panic. Review this material and come to Thursday Zoom session at 5 Self-introduction Watch the video Self-introduction to all September 3 PPT Summary September 3 Lecture Part 10:34 Summary





화상회의를 이용한 소그룹 인터뷰 활동에 사용된 질문

In a small group, Interview members with questions such as the follow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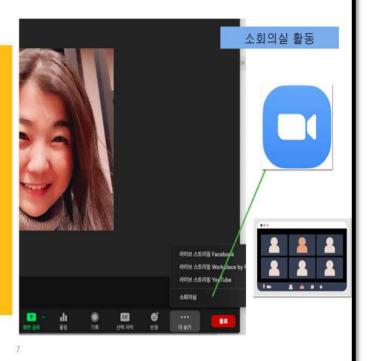
Where did you grow up?

What academic major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have you engaged in?

What have you achieved?

What are your professional and personal goals?

Where do you expect to be five years from now?



LMS 포럼게시판을 이용한 자기소개 활동

2020-09-03 18:04

Re: Self-introduction to all

Hi, my name is Gaju Shin. I'm majoring in Global Sports Industry and double majoring in International Studies. I grew up in Suncheon which is in Jeollanamdo. I have achieved of getting best score in TOEFL this year, My goal is to work in global sports industry especially in markeing or licensing. Therefore, I expect myself to be working in international industry. I feel sad that we can not meet each other in person, but I wish to have good relationship with each of you and have fun in this Global Business Communication lecture. Thank you,

Permalink | Show parent | Edit | Delete | Reply

Introduction

2020-09-03 18:04

My name is Jiwon Lee and my major is department of health convergence. My goal in the future is to be graduating the school and having a job in the hospital. Due to covid-19, it's been a hard time last semester and it's continuing. I hope Covid-19 ends fast and we could meet at school. Thank you for reading

Permalink | Show parent | Edit | Delete | Reply

Re: Self-introduction to all

2020-09-03 18:05

Hello My name is Kim Jae Won, I grew up in Incheon for 22 years. My major is sports science and I'm taking ecomic as a subsidiary subject, I want to be a police official, so I studied for the Toeic and searched about that, on my vacation. In ewha university, my goal is to learn about various sports skill and expertise. I'm not quite used to speaking, however, I will participate hard. Thank you.

by SHIN - 2020-09-03 18:04

1 - 2020-09-03 18:04

by Kim, July - 2020-09-03 18:05 by CHAE JISSIS - 2020-09-03 18:06

by KO Europe - 2020-09-03 18:05 by KIM. HIS - 2020-09-03 18:06

by Kim, Elig. - 2020-09-03 18:07 m Dohee - 2020-09-03 18:06

by KIM SULLIUN - 2020-09-03 18:07

by CHAE H. 17 SEUL - 2020-09-03 18:08 y Park et - 2020-09-03 18:07

by SEO, FIRM - 2020-09-03 18:07 by Cho Nickens - 2020-09-03 18:08

by KIM, H. - 2020-09-03 18:09

by Park H n - 2020-09-03 18:09

by Jeong, N 3000 - 2020-09-03 18:09

by Kim July - 2020-09-03 18:12

by YANG: JIMP - 2020-09-03 18:09 by RUCHIRAWANITCHAKORN, CHARLES A + 2020-09-03 18:11

by CHOI, SUJUNG - 2020-09-03 18:14

THOI HIMMIN - 2020-09-03 18:13 by CHOE, Julian - 2020-09-03 18:13

by JANG H. - 2020-09-03 18:14 by Choi slim - 2020-09-03 18:21

by Lim F - 2020-09-04 01:39 by lim young youn - 2020-09-04 13:56 by Kang Bollinson - 2020-09-07 04:55

by ji a - 2020-09-08 00:56 by LAI, CHAIR - 2020-09-08 13:27

by kim y 2020-09-08 15:3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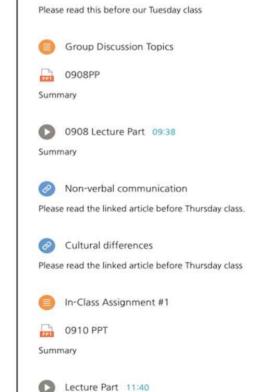
2. 그룹별 토의 및 발표

- 학생-학생 상호작용
- 학생-학습내용 상호작용
- 학생-LMS 상호작용
- 학생-교수자 상호작용

9

수업 전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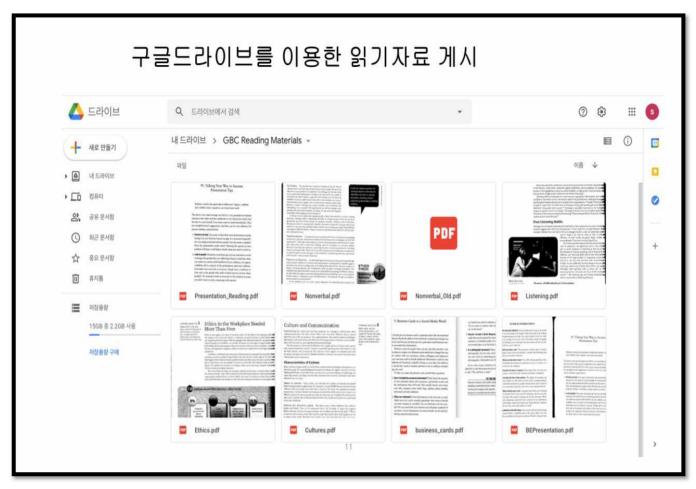
- 1차시 수업주제와 연관된 읽기자료 제공
- 소그룹별로 읽기 내용에 대한 확인: 소그 룹 토의활동 워밍업 🔃
- 2차시 수업주제와 연관된 읽기자료 제공
- 멤버의 의견을 수합할 그룹게시판을 제 공
- 토의내용을 요약하여 수업시간에 발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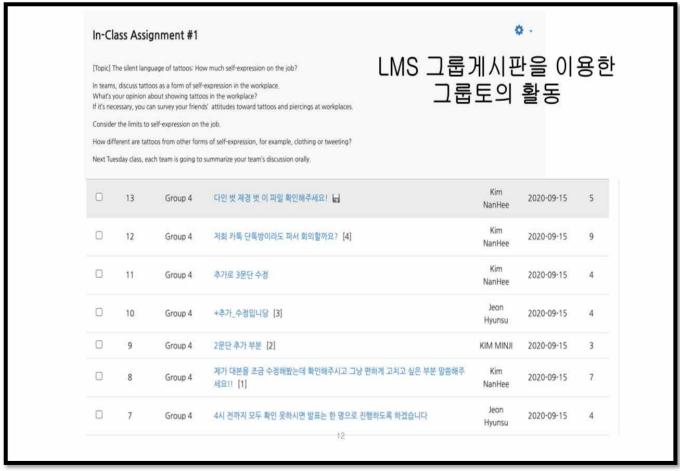


Listening in Business Communication

10

Summary





3. 협력적 비즈니스 레터 쓰기

- 학생-학습내용 상호작용
- 학생-교수자 상호작용
- 학생-학생 상호작용

13

수업 전개 과정

- 비즈니스 레터 작성에 대한 강의자료를 1차시 수업 전에 읽고, 요점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기
- 실시간 수업을 통해 중요한 점을 확인하기



- 구글 도큐먼트를 활용한 협력적 비즈니스문서 작성: 그룹별 각기 다른 조건의 비즈니스 레터 를 작성
- 2차시 수업 전에 구두점 사용에 대한 사전 녹 화동영상을 시청
- 주제 관련 유튜브 동영상의 링크
- 3차시 수업에 각 그룹별 작성된 레터 리뷰하기 🔂



5Week [29 September - 05 October]

September 29 Lecture PPT

Read this before you come to Tuesday cl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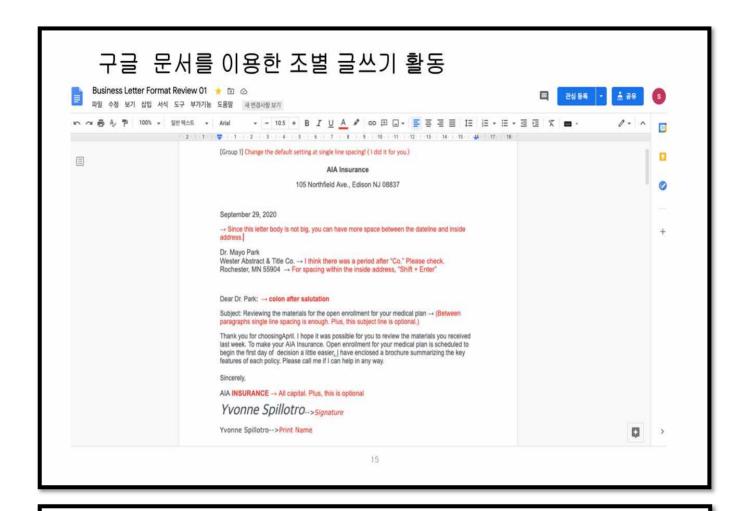
- Business Letter Exercise
- 0929 Lecture part 18:14

Summary

- October 1, Lecture PPT
- Required Video Lecture 2020-10-01 00:00:00 2020-10-08 23:59:00, I
- You MUST watch this lecture for attendance.
- Related lecture: Comma rules

Watch this related video lecture for more examples.

- Related lecture: Semi colon & colon
- Watch this video for more examples.



구글 문서를 활용한 협력적 글쓰기의 장점

- 여러 명의 학생이 동시에 같은 문서를 작성하고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 작성된 문서를 실시간으로 공동으로 수정할 수 있다.
- 화상회의 수업을 함께 진행할 때. 리뷰가 수월하고 피드백이 즉시적이다.
- 공동작업된 그룹별 문서를 각기 다른 페이지에 배치하면 여러 장의 문서를 한꺼번에 비교해 보기가 쉽다.

4. Guided Reading & 퀴즈

- 학생-학습내용 상호작용
- 학생-LMS 상호작용
- 학생-교수자 상호작용

17

수업 전개 과정

- 비실시간으로 진행
- 읽기 가이드 사전 녹화 동영상 시청
- 구글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읽기 자료
- 읽은 내용을 확인하는 LMS 퀴즈활

11Week [10 November - 16 November]

Lecture PPT

November 10 Video Lecture (Required) 2020-11-09 00:00:00 - 2020-11-22 23:5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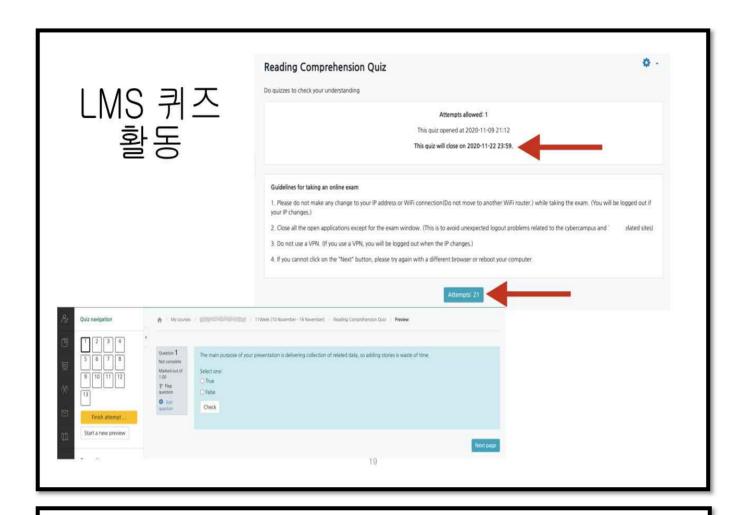
Please watch the video lecture for attendance.

Reading Material

Please read to do guizzes

Reading Comprehension Quiz

Do quizzes to check your understanding



Summary

- 구글폼을 활용한 학생 자기 평가 설문: 소그룹나누기에 유용
- 소그룹내 인터뷰활동: 실시간 화상수업에 적합, 조별 친밀도 상승
- LMS 게시판을 이용한 자기소개하기
- LMS 그룹게시판을 활용한 토론활동
- 소그룹별 발표활동: 실시간 화상수업에 적합
- 구글드라이브를 활용한 읽기 자료 링크하기
- 구글문서를 활용한 협력적 영문서 작성하기
- 사전녹화 동영상을 이용한 읽기 가이드 제시
- LMS 퀴즈활동을 활용한 읽기내용 확인하기

참고문헌

• 이정화, 김주혜, 조수근 (2010) 이러닝 영어회화 수업의 상호작용적 교수-학습 전략.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26(2), 51-83.

21

- 발표자: 오선주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주요 관심분야는 영어 교수-학습 동기이다.
- Email: sunoh91@gmail.com
- Phone: (010) 5596-0500

[Blank Page]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영어교육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ICT)

분과장: 이제영(전주대)

분과주제: 스마트 도구/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영어 수업 전문성 향상

발표 제목	발표자
음성대화처리 기반 InClass를 활용한 초등영어학습자들의	홍선호(서울교대) 윤택남(춘천교대)
반응 연구 	이삭(서울교대 부설초) 오은진(서울 신석초)
온라인 영어 수업과 스마트 도구/기술	황현우(조선대학교)

음성대화처리 기반 InClass를 활용한 초등영어학습자들의 반응 연구

홍선호(서울교육대학교) 윤택남(춘천교육대학교) 이삭(서울교대부설초등학교) 오은진(서울신석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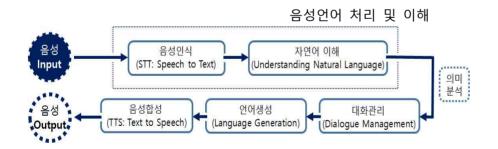
서론

음성대화 처리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 적합한 교수·학습법의 부재로 외국어 말하기 학습 서비스가 제공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적절한 교수·학습법의 개발이 필요하며 검증을 통해 실효성이 입증되면, 교육현장에 다양한 음성대화처리 기술 기반 외국어(영어) 교수·학습법을 제공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인공지능 챗봇에 텍스트 이해 기반 대화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 연구는 학습자가 음성언어와 문자언어 그리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언어의 네 기능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론적 배경

1) 음성대화처리 개요

음성대화처리기술은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학습자와의 음성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음성언어처리 과정과 음성형 및 대화형 언어 처리과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음성형 및 대화형 언어 처리과정



음성대화처리 기술 주요 발달과정과 음성대화처리 기술의 현재를 살펴보면서 외국어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구현 방안 등을 고려 해 보았다.

2) 음성대화처리기술 기반 외국어 교수·학습 관련 선행연구

음성인식 기술 기반 국내 연구 사례와 대화인식 기반 국내 연구 사례를 제시하였다. 대화인식 처리 기술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비교 제시하였다.

유형	장점	단점
패턴 매치형	 시작용이 재사용용이 모듈식 통제용이 	 제한적인 대화 대화능력 향상의 어려움 어려운 디버깅 어려운 규칙
지식 베이스형	논리적인 질문에도 사용가능 통제용이	 인위적이며 기계적인 응답 언어의 중의성 이해 못함 제한된 자료에 의존 대규모 정보 필요 인간의 과도한 개입 필요
대화 데이터 베이스형	간단한 작동원리 훈련용이 인간의 대화 흉내 가능	규모 확장의 어려움 문맥 인식률 저하
언어 생성형	창의적 대화 가능노력과 수고가 덜함문맥 인식	대화 방향 조절의 어려움훈련의 어려움방대한 자료 필요

연구방법

1) 연구내용

r			
	• 음성대화처리 기술을 활용한 외국어 교육 방법 고찰		
	• 음성대화처리 기술에 부합하는 영어 교수·학습법에 대한 방법론적 정립		
	• 목적지향 대화 및 음성대화처리 기반 주요		
교수-학습법 분석	교수·학습 방법 정립		
	• 텍스트 이해 기반 영어 학습 대화 구축 방법론		
	탐구 및 대화 시스템 구축 시나리오 제시		
	• 시범수업을 통한 교수·학습의 교실수업 적용		
	가능성 조사(전문가 협의 및 자문)		
	• 영어 수업 모델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구조 정립		
	• 교과서 텍스트 기반 게임 및 활동에서 초등학생 대화 분석		
수업모델 분석 	• 시범수업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한 목적지향 대화 및 음성대화처리 기반		
	수업모델의 실증 및 검증		

2) 연구대상

연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설문조사와 방문연구의 대상을 연구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학교 와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오프라인 수업	온라인 자기주도학습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
학교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강원도 춘천시	서울시 마포구
참여 학생 수	12	8	22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도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InClass를 활용하였다.



4) 연구 절차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은 4 단계로 진행되었다.

연구 절치	
1단계	사전평가
2단계	연구실행
3단계	사후평가
4단계	효과검증 및 결과도출

5)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과정은 아래와 같다.

역		내용	도구
	기초실태조사	영어학습(학)/지도경험(교) 파악	설문지
양적분석	학습영역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 평가	평가 문항
	정의적 영역	음성인식기반 영어학습	설문지
	수업 소감	학습 소감/학습에서 좋았던 점/학습에서 어려웠던 점(학/교)	면담
질적분석	학습결과물	수업 활동 장면	녹음/녹화 자료
	교수일지	수업 반성 및 계획(교)	문서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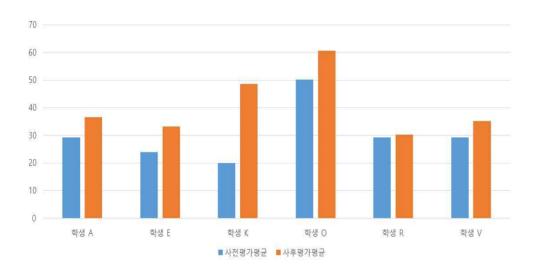
1) 음성대화처리 기술을 활용한 외국어(영어) 교수·학습방법 유형

3개 학교에서 각각 시도한 음성대화처리 기술을 활용한 외국어(영어) 교육 유형별 적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오프라인 수업	온라인 자기주도학습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
학교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강원도 춘천시	서울시 마포구
참여 학생 수	12	8	22
1차시	앱 활용 개별 활동	앱 활용 말하기 연습	<온라인> 앱 활용 개별 활동
2차시	프로젝트 활동에 앱을 도구로 활용	다양한 말하기 연습(문장 따라 말하 기, 자유발화)	<온라인> 텍스트 입력 활동 후 앱 활용 수업
3차시	사전 언어 입력 활동 및 연습 후 앱 활용 개별 활동	다양한 말하기 연습(문장 따라 말하 기, 자유발화)	<온라인>입력 및 출력 활동과 연계한 앱 활용 수업
4차시	입력 활동과 출력 활동과 연계한 앱 활용	프로젝트 활동: 캠페인, 발표, 광고, 브이로그 등	<오프라인>입력 및 출력 활동 과 연계한 앱 활용 수업

2) 음성대화처리 기술을 활용한 외국어(영어) 교육의 효과와 시사점

음성대화처리 기술 자체의 활용으로 인해 상위 학습자의 학습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학습자 개별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하위 수준 학습자들의 대부분 향상이 있었다.



해당 학습자들은 평소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부족하고 영어 학습에 대한 노출이 대단히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음성대화처리 기술을 활용한 영어교수 방법이 하위 학습자의 경우 이런 부분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와 학습자가 느끼는 음성대화처리 기술을 활용한 영어 수업에 관한 인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교사 인식

(앱의 성격 규정)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

(기술적 한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프로그램의 기술적 한계 인정 및 활용의 극대화 방안 마련 필요, 교수학습에 필요한 보조 자료(학습지 등) 활용을 통한 학습 극대화

(효과적인 피드백)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피드백 정보의 효용성에 대한 고민, 학습자 맞춤형 개별(대면) 피드백 제공 필요

(활동 설계 및 운영) 앱 활동에 이어지는 학습자 간 상호작용 활동으로의 연계성 마련

교사 인식

(긍정적 인식) 음성대화처리 기술에 대한 신기효과 및 흥미 유발, 수업 방법적 측면에 대한 만족감이 높으며 자기주 도성이 높아짐

(부정적 인식) 앱의 기술적 오류로 인한 부정적 정서 표출 및 문제해결 요구, 기술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자체는 높지 않음

3) 음성대화처리 기술을 활용한 외국어(영어) 교수·학습 모델 제안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음성대화처리 기술을 활용한 외국어(영어) 교수·학습 모델을 크게 오프라인 수업 중심의 차시 모형과, 온라인 자기주도학습 및 온·오프라인 혼합 수업 중심의 단원 모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오프라인 수업 중심 차시 모형

온라인 자기주도학습 및 온 오프라인 혼합 수업 중심 단원모형



결론 및 제언

1) 음성대화처리 기술 기반 교수·학습 모델 활용

본 연구 과제를 통해 도출된 음성대화처리 기술 기반의 교수-학습 모델은 인공지능과 소통하고 인공지능기술을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활용 할 수 있는 'Al+X' 역량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영어학습자는 InClass와 같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음성대화처리 기반 학습을 통해 선생님 또는 스터디 친구로 활용하여 학습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으며 스마트 환경에서 시간과 공간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다. 교사의 관점에서는 수업 기획과 운영, 수업자료 조합과 구성, 평가의 다변화, 수업 보조교사로 서의 활용 등 교수-학습에 대한 자유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존재한다. 더불어 다양한 변인(교실 및 교육환경, 학습자의 수준, 학생 수, 인프라 구축 등) 가운데도 교수자가 교수-학습 모델을 취사선택하여 수업목표 달성에 적극 활용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한국 영어학습자의 영어의사소통능력 증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의 인지·자연어 처리 기술 등의 발전은 학습자들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 형 학습과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학습자들의 성취도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맞춤형 학습계획과 1:1 개인지 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음성대화처리 기술을 탑재한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나라 영어학습 자들의 인지적 능력의 향상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영어 학습에 대한 정의적 영역(흥미, 자신감, 몰입, 자긍 심, 감정이입, 동기 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

3) 학습자 중심의 교육체계 정립

인공지능 챗봇, 컴퓨터자동번역,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인공지능스피커, 증강현실, 시뮬레이션, 인공지능 활용 평가 도구, 플랫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인공지능 문자 생성기, 디지털교과서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활용된 InClass와 같은 교육용 앱은 미래 학습자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강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비대면 온라인 교육의 문제는 교육 형평성과 학습자별 교육격차를 더욱더 크게 벌릴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음성대화처리 기반의 교육용 앱은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여기에 맞추어 맞춤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특징이 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는 외국어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기가 될 수 있으며 음성대화처리 기술을 탑재한 InClass와 같은 앱의 활용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교육 형평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BIODATA

Sun-Ho Hong is a Professor at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MAIL: shong@snue.ac.kr

Tecnam Yoon is an Associate professor at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i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MAIL: yoon@cnue.ac.kr

Sak Lee is a Teacher at Elementary School Affiliated with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nd Ed.D Candidate of English Education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MAIL: leesak06@gmail.com

Eun-Jin Oh is a Teacher at Seoul Sinseok Elementary School and M.A. of English Education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MAIL: oheunjin3227@gmail.com



HELLO! 황현우

現) 에듀메이커스 대표

現) GEG 광주 리더 (Google Educator Group)

現) ㈜ 생각나무교육그룹 이사

前) ㈜ 폴앤마크 광주 - 전라지사 지사장

前) 조선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 교육공학 석사

Edmakers.kr



Smart App 활용





대주제	소주제	세부내용
게임형 퀴즈 제작 및 활용	Kahoot	 가입하기 퀴즈 관리 (객관식/영상) 퀴즈 풀기 결과 기록가입
음성을 활용한 기록/피드백	구글 문서 & Mote	 구글 문서 음성 기록 피드백 시스템 부가기능 설치 및 활용
온라인 상황에서 팀별 실시간 발표	구글 미트 BR + 구글 슬라이드	1. 구글 미트 기본 사용법 2. 부가기능 설치 및 활용 3. 구글 슬라이드 사용
영상 과제 플랫폼 활용	Edpuzzle	1. 가입/Class 만들기 2. 영상 관리 (편집/쿼즈) 3. 과제 출제 (Class 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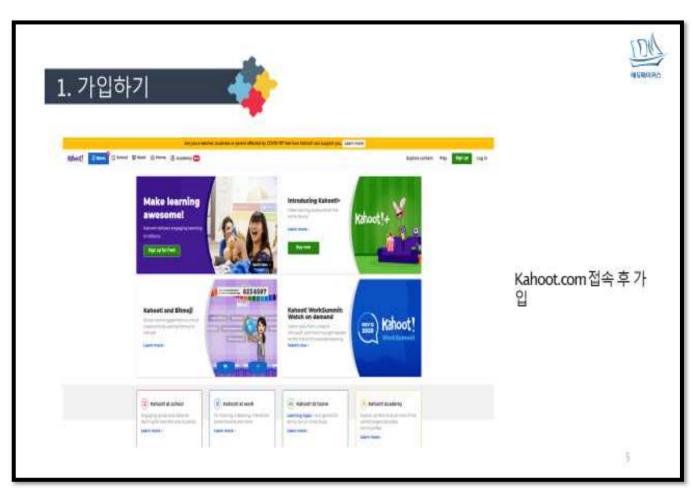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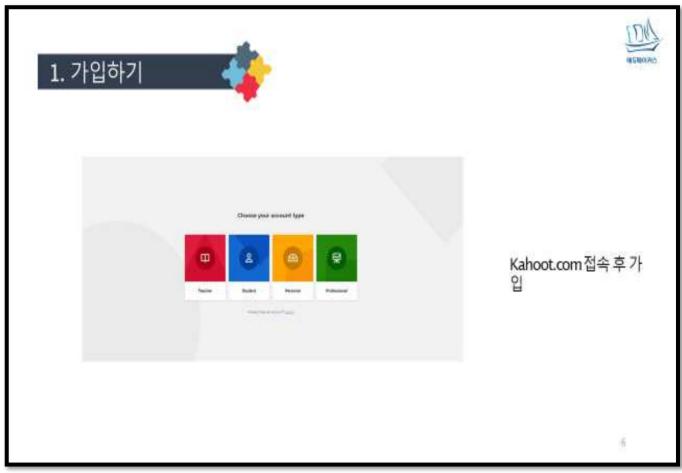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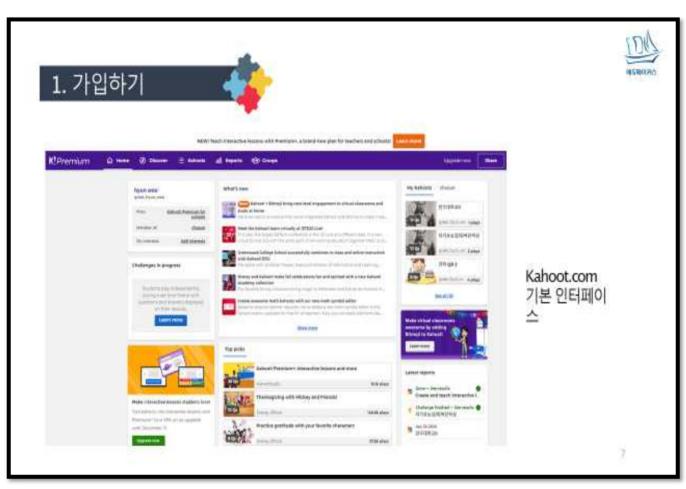
카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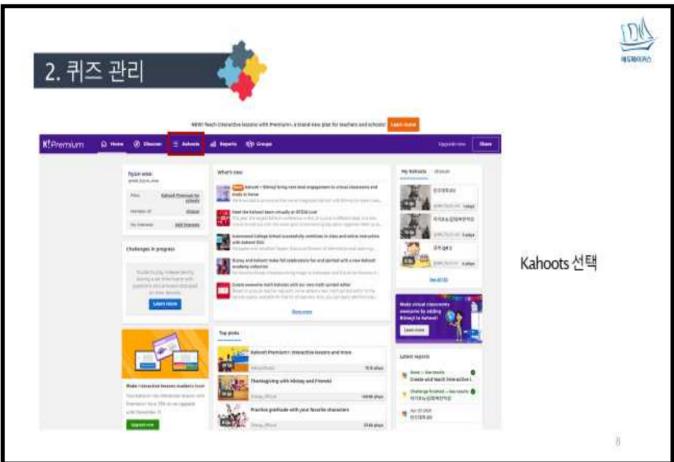
퀴즈, 토론, 설문을 생성하는 게임 기반 반응 플랫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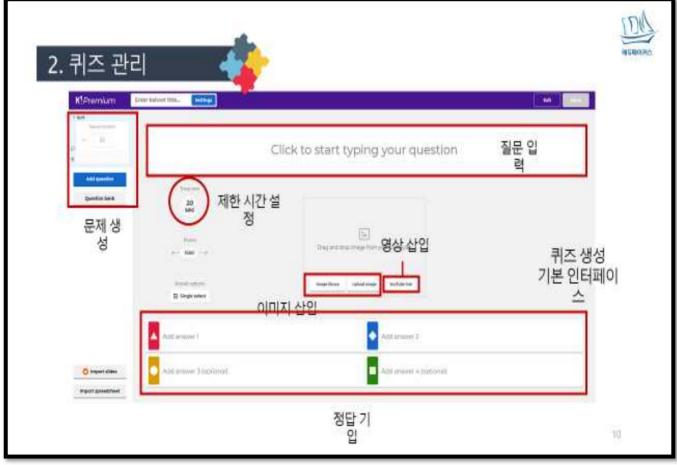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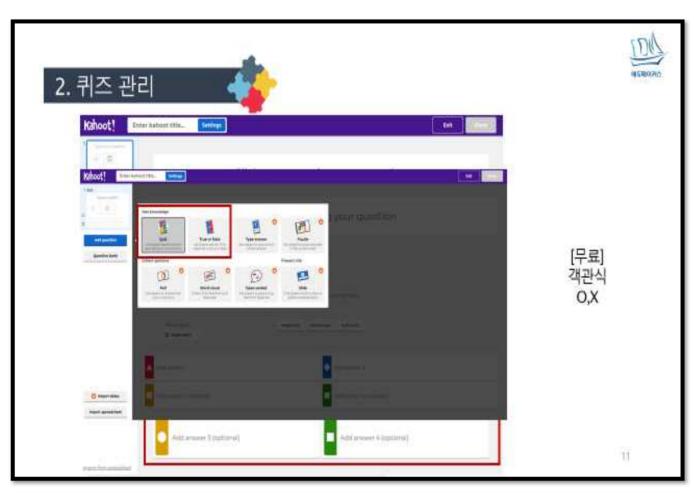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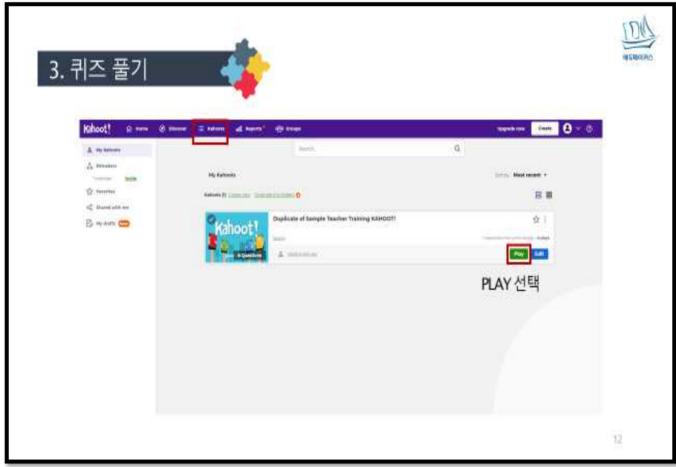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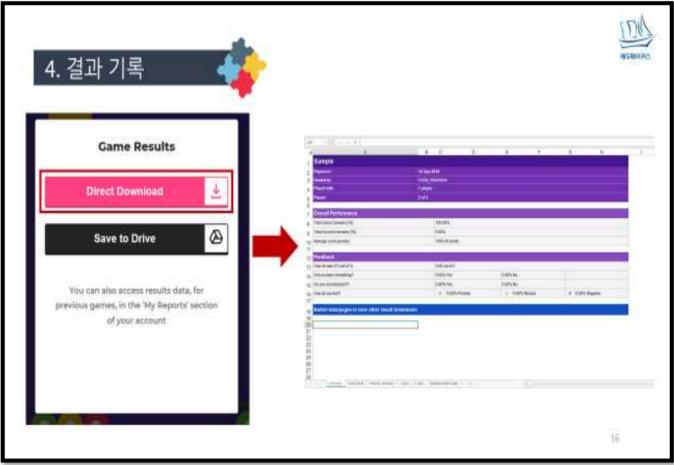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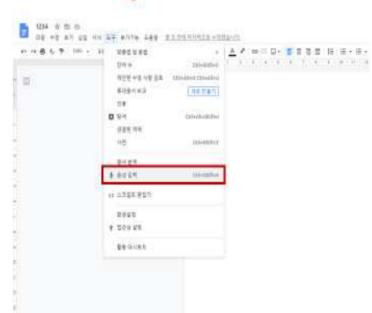
구글 문서 & MOTE

음성을 활용한 기록/피드 백

17

1. 구글 문서 음성 기 🔷





구글 문서 접속 [도구-음성 입력]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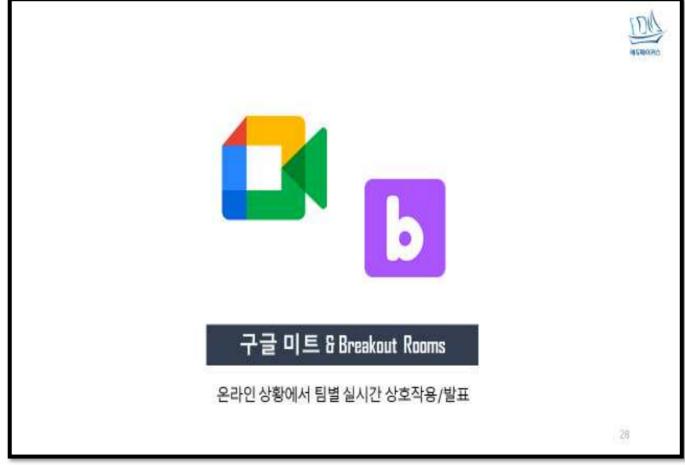














1. 구글 미트 사용법 회의 시작 또는 참여 회의 코드 또는 낙네임을 입력하세요 회의를 취합시작하려면 낙비임을 입력하거나 비의 두세요 회의 코드 또는 닉네임은 비워놓고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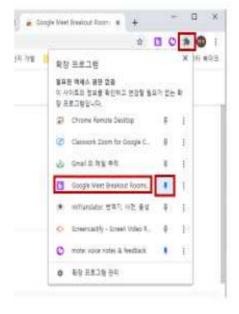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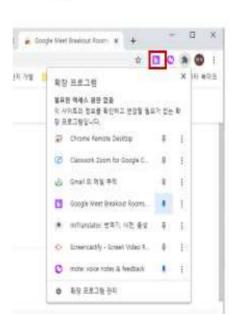
크롬 오른쪽 상단 [퍼즐 아이콘] 클릭

- Meet Breaout Rooms 압정 쿡

35

2. 부가기능 활용







크롬 오른쪽 상단 [b]아이콘 클릭

36

2. 부가기능 활용





- 1. Courses 선택
- 2. (+) 눌러 클래스 개설
- 3. Courses 이름 입력
- 4. 저장 버튼 꾹

37

2. 부가기능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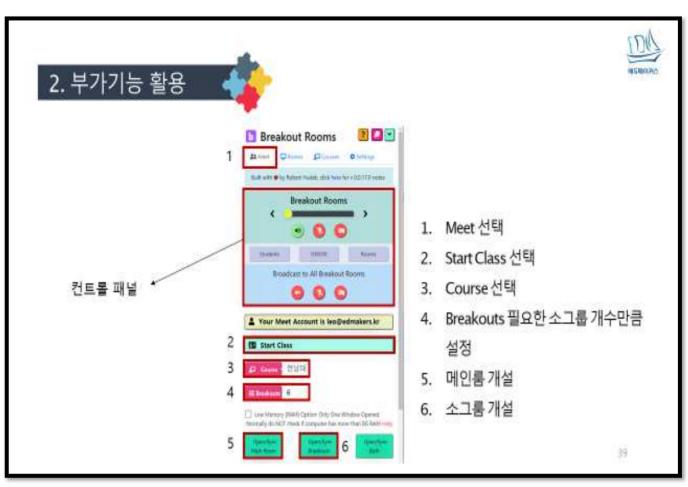






- 1. Rooms 선택
- 2. Course 선택
- (+) 눌러 원하는 만큼 소그룹
 개설
- 4. Rooms에 그룹 이름만 입력
- 5. 저장 버튼 꾹 링크 개설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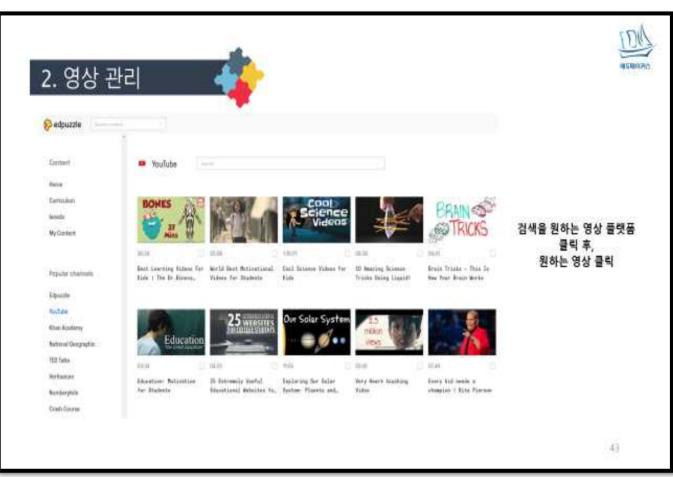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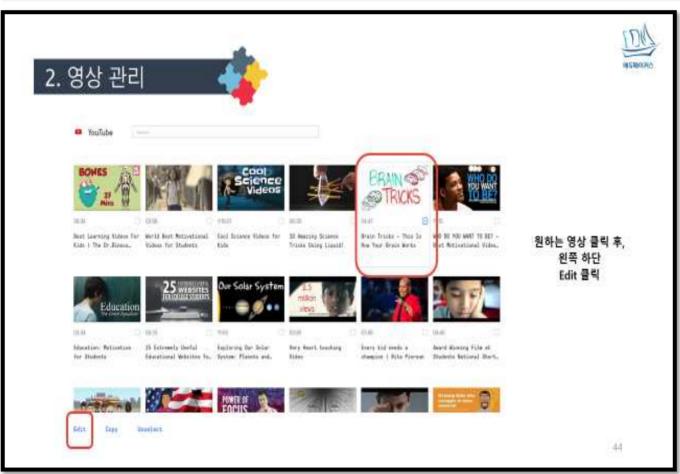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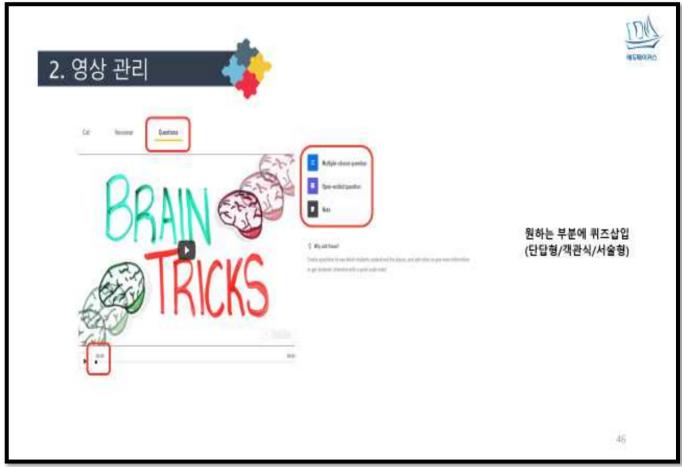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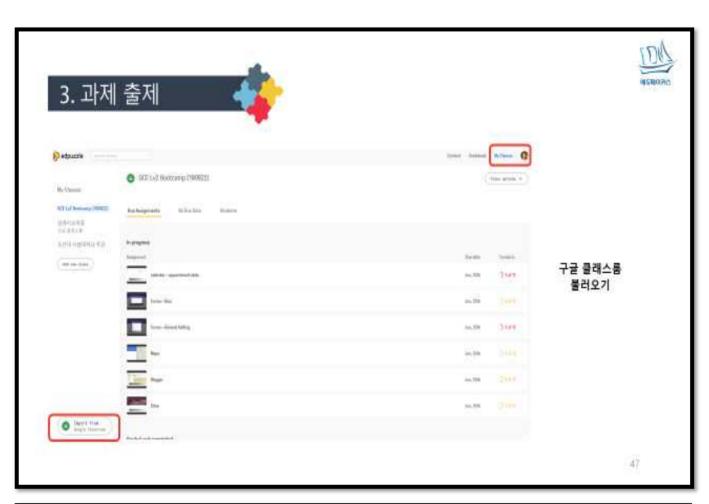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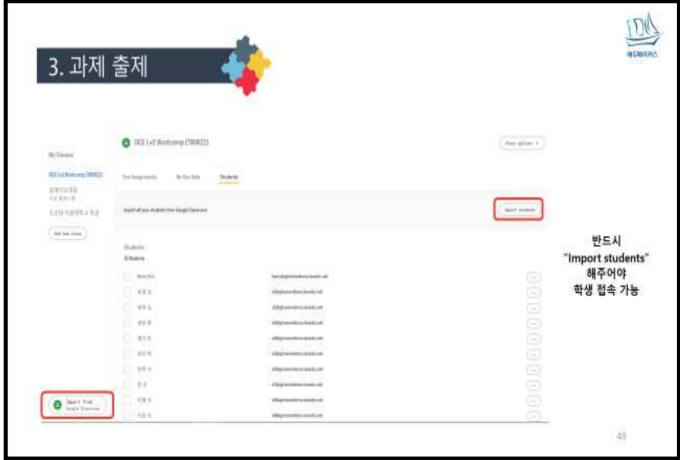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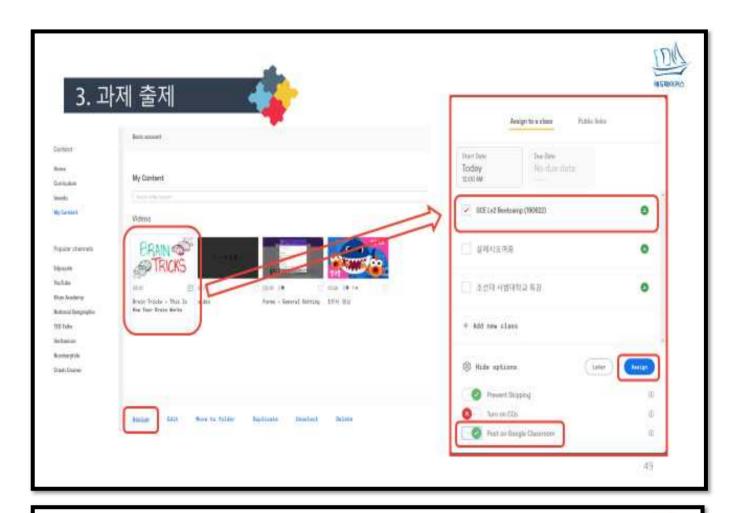
















황현우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육공학 전공 박사과정에 재학중이고, 교육컨설팅 회사 에듀 메이커스 대표로 재직하고 있음. 에듀테크를 반영한 교수설계, 디자인씽킹을 활용한 도시재생, 창의적 문제해결, 창업자를 위한 경영전략시물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교사 교육(Teacher Development)

분과장: 이상기(한국교원대)

분과주제: 함께 하는 영어교육 - 읽기 지도

발표 제목	발표자
함께 하는 영어교육: 읽기지도	이상기(한국교원대)
Matching appropriate texts to readers	Jiyoung Bae (Kongju National University)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읽기 지도	박현민(화성 동학중)
창의성을 기르는 협동 수업 읽기 지도	한신실(대전 대덕고)
문학적 감수성을 기르는 읽기	조명연(대전 관저고)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주는 정보추출 목적의 글 읽기	안혜선(대전 둔산여고)
수업시간을 200% 활용하는 읽기의 거꾸로 학습	민채령 (한국교원대 부설 미호중)

함께하는 영어교육: 읽기 지도

이상기(한국교원대학교)

우리 교사교육 분과에서는 한국영어교과교육학회에서 발간하는 총서 시리즈 제6권 (가제) *함께하는 영어교* 육: 읽기 지도의 집필을 위해 현장의 여러 선생님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제 막 초고가 나온 시점으로(학술대회 일 시점에는 한참 편집 작업이 진행 중일 것이라 기대된다), 책은 총 아홉 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은 읽 기의 기본 개념과 효율적인 읽기 수업을 위한 제언을 담았고, 2장에서는 읽기 자료 선정을 위해 고려해야 하 는 사항들을 논의하였다. 전체적으로 이론보다는 실제적 측면에 방점을 두고 책이 기획된 가운데, 1장과 2장은 상대적으로 이론의 냄새가 조금 더 짙다. 그에 비해 3장부터는 각 저자들이 영어교사로서 읽기 지도와 관련하 여 현장에서 고민하는 내용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뤘다. 3장은 읽기를 통해 세상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비판 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4장은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근래의 교육적 화두에 주목하여 학습자들의 창의성을 키워내는 방안으로서 협동 수업 읽기 지도를 제안한다. 5장은 다독을 주제로 다룬다. 효과적인 다독 수업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과 함께 수업 설계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 실제적인 제언을 담는다. 시나 단편소설 등의 문학적 재료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문학적 감수성을 일깨 우는 읽기 수업을 고안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6장의 내용이다. 7장은 정보를 추출하는 목적을 두고 진행하는 읽기 수업의 실제에 대해 다룬다. 8장은 읽기 수업에 있어 목적을 분명히 하여 그에 걸맞은 수업을 진행해야 함을 말한다. 특히 읽기와 쓰기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나눈다. 마지막의 9 장은 거꾸로 학습에 대해 소개한다. 거꾸로 학습을 적용한 읽기 수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필요한 노하우가 담겼다. 교사분과의 발표에서는 2장, 3장, 4장, 6장, 7장, 9장의 총 여섯 개 장의 저자들이 각 장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직접 소개를 하게 된다.

BIODATA

이상기는 한국교원대학교 영어교육과의 교수이다.

Email: slee@knue.ac.kr
Phone: (043) 230-3513

Matching Appropriate Texts to Readers

Jiyoung Bae (Kongju National University)

Why Is Matching Appropriate Texts to Readers So Important?

Matching right texts to readers is critical for students, especially younger students, who are beginning to build a reading process; and it is also important to use leveled texts to be sure that older readers have the support and challenge they need to expand their reading abilities as they engage with more complex texts over time. The young children are building a network of strategic actions that make up an early reading process. They develop successful processing strategies as they learn to read for meaning and use the language and print of texts. When children are reading a book that they can read with success, they are able to use many different sources of information in a smoothly operating processing system. On the other hand, older students continue to expand their network of strategy uses as texts become more challenging. They need to broaden their experience with texts, becoming more sophisticated in reading a wide range of informational texts. As they do so, they will acquire content knowledge; but the goal of reading lesson is to help students learn how to read more complex nonfiction texts that require integration of information from increasingly complex graphics as well as using readers' tools such as indexes, pronunciation guides, glossaries, and many different kinds of headings.

To help readers build an effective network of reading strategies, you will want to select texts that allow individuals to read for meaning, draw on the skills they already control, and expand their current processing strategies. In other words, the text used for learning "how to read" must have the right mixture of support and challenge. The texts teachers choose for new learning must both support and challenge for their students because both younger and older students must learn best when the task is achievable. By matching texts to readers, teachers make it possible for students to use their strengths in reading. Therefore, matching appropriate texts to readers depends on two interrelated sets of understandings about the readers and texts, 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readers' variables and text characteristics.

Knowing the Readers and Their Reading Process

Knowledge of the reader requires understanding their cognitive capabilities, motivation, background knowledge, and experiences. In addition, knowledge of the reading process is a critical element in matching texts to readers for reading lessons. This knowledge helps teachers examine texts from two perspectives: teachers note the demands of the text on the reader or what the reader will need to be able to do to process the text well, and teachers consider what the particular reader knows how to do with a text.

There are five characteristics of readers (Fountas & Pinnell, 2006). First, emergent readers rely on language and meaning as they read simple texts with only one or two lines of print. They are just beginning to control early reading behaviors such as matching spoken words one by one with written words on the page, recognizing how print is arranged on pages, and moving left to right in reading. Secondly, early readers have achieved control of early reading behaviors such as directionality and word-by-word matching. They have acquired a small core of high frequency words that they can read and write, and they use these words to monitor their reading. Thirdly, transitional readers have early reading behaviors well under control, and they can read a variety of texts with many lines of print. They have a large core of frequently used words that they can recognize quickly and easily. Lastly, self-expanding readers and advanced readers moved well beyond the early learning to read phases of literacy learning. Self-extending readers have developed systems for learning more about the process as they read so that they build skills simply by encountering many different kinds of texts with a variety of new words. Moreover, through using reading for many different purposes, advanced readers can read almost all texts, but using prior knowledge, sophisticated word-solving strategies, and understanding the nuances of a complex text are still under development.

Understanding the Texts: Text Difficulty

There are various factors related to difficulty in texts. Above all, text accessibility or readability has been a topic for discussion over many years of reading instruction. Effective teaching begins with matching texts to readers, intentionally selecting texts that will be accessible to the readers with teachers' help. A number of terms are used to describe the relationship between text difficulty and readers: manageability, readability, and accessibility. Accessibility means that a reader can process the text well, reads most of the time at a good rate with phrasing, appropriate stress, pausing, and intonation, and can interpret the full meaning of the text. In addition, manageability refers to the individual's ability to read the print, use the organizational features or structure, and construct meaning

from a given text. Finally, readability is calculated using a formula, and primarily analyzes the surface levels of the text

Teachers and researchers have developed ways to order or level text through quantitative measures of readability (Fisher, Frey, & Lapp, 2016). Conventional readability formulas have been utilized extensively as a means to replace outdated grade-level formulas for rating text difficulty: Fry Readability Formula, Flesch-Kincaid Grade-Level Score, Lexile, and TextEvaluator, etc. An advantage of these readability formulas is that teachers can easily compute them using any reading material. These formulas vary somewhat, but primarily measure surface-level features of a text especially focusing on word and sentence length and frequency of word occurrence on a generated list. However, using readability formulas and procedures to assess a text and match it to a reader's level is not guarantee for readers' comprehension. Therefore, a number of researchers have concluded that readability formulas must be either replaced by or supplemented with qualitative information such as levels of meaning or purpose, structure, language conventionality and clarity, and knowledge demands, and genres, and so on.

In conclusion, text characteristics of difficulty, especially readability, should be considered when matching appropriate texts to readers. Teachers can measure the readability of texts in a number of ways, including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ways, but no one formula or method will be perfect for readers.

References

Fisher, D., Frey, N., & Lapp, D. (2016). *Text complexity: Stretching readers with texts and tasks* (2nd ed). Corwin. Fountas, I. C., & Pinnell, G. S. (2006). *Leveled books: Matching texts to readers for effective teaching.* Heinemann.

BIODATA

Jiyoung Bae is an associat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at Kongju National University in Korea. Her main research interests include L2 literacy education, literature-based instruction, and digital literacy.

Email: jybae423@kongju.ac.kr Phone: (041) 850-8194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읽기 지도

박현민(화성 동학중학교)

비판적 읽기의 필요성

미래 사회는 주관을 갖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며 타인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한다. 영어 교육에서도 영어 의사소통 능력뿐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 창의성, 소통 능력 등 소프트 스킬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정채관 외, 2019).

비판적 교육을 주장한 Freire(1970)는 교육이 갖는 문제점은 교사가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은 이를 어떠한 비판도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구조에 있다고 하였다. 그는 바람직한 문해교육은 그 내용이 학생의 삶의 장면과 연관되어 있어야 하며 방법 면에서는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대해 말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반영할 때, 비판적 읽기는 독자가 텍스트를 표면적으로 읽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 속으로 들여와 성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 읽기에서 비판적 읽기를 시도할 때 학생들은 글에 숨겨진 저자의의도를 찾고 글에 녹아 있는 가치관을 비판적 관점으로 바라보며 영어 학습자에서 한발 나아가 영어 사용자로서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비판적 읽기 수업의 실제

- 1) 참여학생: 경기도 중학교 3 학년 학생들로 이들은 중간 정도의 영어 능숙도를 가진 학생들이었다. 학기 초 설문조사 결과 이들은 대체로 영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 2) 수업 자료: A Priceless Gift (2015 개정 교육과정 천재교육(이) 중학교 3 학년 영어 교과서 수록) 및 연계도서 Sleeping Beauty, The Paper Bag Princess 와 관련 자료
- 3) 수업 방법: 2020 년 4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중 온라인, 오프라인을 오가며 블렌디드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하였다. 온라인 수업에서는 읽기 내용 소개, 관련 영상 시청, 자신의 생각 쓰기 등 개별 활동을 하였으며,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읽은 내용 요약, 토론하기, 질의 응답, 비평문 개요 쓰기와 피드백, 비평문 쓰기 등을 실시하였다. 수업 개요 및 주요 활동을 <표 1>과 <표 2>에 정리하였다.

<표 1> 수업 개요 및 주요 활동 1: A Priceless Gift

ro Class account 비 회에 기취 지나의 이것이나 기자의 교리회 A 이다

성취기준	[9영02-02]일상생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감성을 표현할 수 있다. [9영03-09]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의 글을 읽고 문맥을 통해 낱말, 어구 또는 문장의 함축적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9영04-05] 자신이나 주변 사람, 일상생활에 관해 짧고 간단한 글을 쓸 수 있다.
단계	활동 내용
읽기 전	크로스워드 퍼즐, 단어 영어 뜻풀이, 나의 성격은? 설문조사 하기
읽기 중	그림자 읽기, 녹음하며 읽기, 주고받은 물건 짚어가며 읽기
읽기 후	이야기 문법 작성하기, 인물의 성격 분석하기, 패러디하기

<표 2> 수업 개요 및 주요 활동 2: Sleeping Beauty vs. The Paper Bag Princess

성취기준	[9영03-09]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의 글을 읽고 문맥을 통해 낱말, 어구 또는 문장의 함축적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9영04-05] 자신이나 주변 사람, 일상생활에 관해 짧고 간단한 글을 쓸 수 있다.
단계	활동 내용
읽기 전	연상어 말하기, 타이포그래피 작성하기, 영상 시청하기
읽기 중	역할 나눠 읽기, 공간 이동 파악하며 읽기, 두 이야기의 주인공 비교하기
읽기 후	구문 활용 내용 이해, 또 다른 이야기와 비교하기, 비평문 쓰기

결론 및 제언

수업 후, 학생들은 동화 속에서 고정관념과 편견을 발견하고 자신이 평소 갖고 있던 생각과 견주어 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학생들은 이후 다른 책을 읽을 때에도 정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으로 읽으면서 자신의 주관을 확립해나갈 수 있었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읽기 지도가 효과적이었으며 이후의 독서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비판적 읽기 수업을 위해 비판적 사고를 자극하는 질문을 하는 것, 학생들 상호간의 대화가 풍부히 일어나도록 이끄는 것, 그리고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수용하고 환영하는 교사의 노력도 필요하다. 학교에서의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읽기를 통해 학생들은 영어 읽기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독서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정채관, 안계명(성호), 홍선호, 이완기, 심창용, 이재희, 김해동, 이명희, 김선웅. (2018).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영 어교육*. 서울: 한국문화사.

Freire, P. (1970). Pedagogy of the oppressed. New York: Continuum.

BIODATA

Hyun-Min Park is a Ph.D. student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nd has been teaching at secondary schools.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instructed SLA and individual learner differences.

Email: hmpark79kr@gmail.com Phone: (031) 204-6227

창의성을 기르는 협동 수업 읽기 지도

한신실(대전 대덕고등학교)

'4 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창의성의 함양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재 양성의 산실인 교육 현장은 시대가 부여한 사명에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움직여야 한다. 특히 '세계의 매개어'로 널리 활용되는 영어의 위상을 고려했을 때 영어교육의 혁신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창의적인재 양성을 위해 영어교육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본 발표는 학생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정서적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산출해 내는 역량을 키워 주기 위한 협동 수업 읽기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수업의 주도권을 교사에서 학생으로 이양하고 학생 간 상호작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내적 동기와 학습 참여도를 높이며 결국에는 다양하고 확장적인 사고를 촉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협동 수업 읽기 활동은 크게 1) 직소 활동을 통한 또래 교수, 2) 과제기반 학습 활동, 3) 모둠별 스크랩북 제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소 활동을 통한 또래 교수는 전문가 모둠 활동과 원 모둠 활동으로 진행이 된다. 전문가 모둠에서는 영어 읽기 능숙도가 유사한 수준의 학생들이 모여 함께 읽기 텍스트를 공부하고 또래 교수를 준비하는 활동이며, 원 모둠 활동은 영어 읽기 능숙도가 서로 다른 학생들이 모여 각기 학습한 내용을 차례대로 가르치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과제기반 학습 활동은 학습자들이 영어를 의사소통의 도구로 활용하여 새로운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활동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의 주제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끌어내는 '활성화', 과업 달성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탐색',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과업을 수행하는 '적용', 서로의 학습 과정에 대해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학습에 대해 성찰해 보는 '평가'의 네 단계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모둠별 스크랩북 제작은 매 단원이 끝난 후 모둠별로 흥미로운 주제를 추출하여 자유로운 형태로 스크랩북에 표현해 보도록 하는 활동이다. 이활동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개입하고 모든 과정을 학생이 전적으로 주도하게 함으로써 창의성이 마음껏 발휘되도록 한다.

이와 같은 협동 수업 읽기 모형을 실제 고등학교 현장 수업에 도입해 본 결과, 영어를 대학 입시 과목 중하나로만 생각하고 수동적으로 수업에 임하던 학생들이 학습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과업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창의성을 발휘하였다. 읽기 활동을 통해학습한 내용을 말하기와 쓰기 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었던 점 역시 본 수업의 의의라 할 수 있겠다. 수업의변화를 향한 작은 발걸음이 학생들의 잠재력을 한껏 끌어올릴 자양분이 될 뿐만 아니라 영어 학습의 본질을향해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 본다.

BIODATA

한신실은 현재 대전광역시 소재의 대덕고등학교 영어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Email: <u>hans5432@hanmail.net</u> Phone: (010) 7367-2052

문학적 감수성을 기르는 읽기

조명연(대전관저고등학교)

영미 문학 수업 자료의 필요성

영미 문학의 교육적 효용성

영미 문학 작품은 영어 학습 자료로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Povey(1972)는 영어 수업에서 문학 작품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정확하게 사용된 어휘와 구문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며, 학습자들은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언어적 지식 및 기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은 문학의 구조적인 체계와 다양한 문체에 반응하며 읽는 과정에서 언어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Littlewood, 1975).

문학 작품은 언어적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Lazar, 1996). Collie와 Slater(1987)에 따르면 문학 작품 속 배경, 인물 등은 작가에 의해 창조되었으나 그 나라의 실제 문화를 반영한다고 하였으며, Carter와 Long(1991)은 인간이 살아오면서 만든 문화 양식과 지혜가 포함된 문학 작품을 통해 학습자들은 다른 시공간에 존재하는 이념 및 문화를 이해하고 감상할수 있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문학 작품은 학습의 영어 읽기에 대한 동기를 높일 수 있고, 그 결과 전반적인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McKay, 1987). Lazar(1996)에 따르면 문학 작품의 텍스트는 인간의 삶을 반영하고 있는 주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로 하여금 개인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작품 속의 상황을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받아들이게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는 목표 언어를 학습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얻게 되며, 그 결과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영미문학 읽기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공통 과목을 필수로 이수한 후에 학생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교육부, 2017).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뉘며, 학생들은 진로 선택 과목 중 영미 문학 읽기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영미 문학 읽기과목은 검인정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교육과정 목표, 내용 체계, 성취기준 등을 반영한수업 자료를 직접 제작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직접 교실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자료를 제작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문학적 감수성의 개념

문학적 감수성의 정의

문학적 감수성을 기르는 읽기 수업 자료를 제작하기 전 문학적 감수성의 의미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국립 국어원 표준 국어사전에 따르면 '문학적'이란 '문학과 관련이 있거나 그 특성을 지닌'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감수성'이란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는 구성주의의 학습 원리 와 관련성이 있다.

구성주의는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얻은 인지적 틀을 토대로 주위의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지식의 학습으로 본다. 이상구(2002)에 따르면 학습자가 텍스트와 상호작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인지적 틀 또는 배경지식을 기르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구성주의 학습자 중심 문학 교육의 원리라고 하였다.

문학적 감수성의 사전적 의미, 구성주의 학습자 중심 문학 교육의 원리를 종합해 보면 문학적 감수성이란 문학 작품을 읽고 관련 요소들에 대해 인지적 틀과 다양한 배경지식을 토대로 텍스트에 반응하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으며, 이를 길러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에 반영하였으며, 이를 핵심역량이라는 개념으로 표면화 하였다(김경자 외 8인, 2015). 교육부(2015)는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①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 ②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 ③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 ④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 ⑤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
- ⑥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본 수업 자료는 문학적 감수성의 정의에 따라 문학 작품과 관련된 학습자의 반응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을 토대로 설정하였다. 임유나와 장소영(2016)이 핵심역량과 교과의 관계성을 분석하기 위해 제시한 키워드 범주 체계를 활용하여 활동을 제작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키워드	범주의 하위 요소
자기관리 역량	(자아를) 인식하다, (자기·자아를) 이해하다, (자기) 성찰하다, 탐색하다, (자아를) 존중하다, (정체성을) 확립하다, (흥미·관심을) 갖다,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다, (목표를) 달성하다, (삶을) 반성하다, 책임(의식)을 갖다, 자율성을 지니다, (습관을) 갖다, 태도를 함양하다, 기르다, 실천하다, 관리하다, (환경에) 적응하다, 수련하다, (건강을) 유지하다, 자기주도적으로 하다, (평생) 학습하다, (진로를) 탐색하다, (잠재력·재능을) 계발하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다 등
지식 정보처리 역량	(지식·자료·정보 등을) 알다, 인식하다, 생각하다, 사고하다, 이해하다, 수집하다, 처리하다, 탐구하다, 탐색하다, 구성하다, 분석하다, 조직하다, 조작하다, 추론하다, 해석하다, 비판하다, 고찰하다, 논증하다, 정교화하다, 평가하다, 적용하다, 활용하다, (문제) 해결하다 등
창의적 사고 역량	창의적으로 ~하다, 독창적으로 ~하다, (문화) 창조하다, (새로이) 얻다, 발견하다, (창의적으로· 독창적으로) 산출하다, 창출하다, 생산하다, 제작하다, 발전시키다, (상상력을) 발휘하다, 통합하다, 융합하다, 연계하다 등
심미적 감성 역량	(문화를) 이해하다, (문화를) 향유하다, (문화를) 계승하다, 전승하다, 발전시키다, 문화적 감성을 갖다, 감수성을 갖다, 상상력을 발휘하다, (정서를) 함양하다, 공감하다, 반응하다, (감성·감수성·아름다움·가치 등) 내면화하다, 수용하다, 감상하다, (감각·사상을) 표현하다 등

의사소통	(의사) 소통하다, (생각·경험 등을) 표현하다, (언어·비언어 등을) 사용하다, (생각을) 주장하
역량	다, (타인의 말과 생각을) 이해한다, (의견이나 생각을) 조정하다, 공유하다 등
공동체 역량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다, 행동하다, (사회·국가·인류 등의) 발전을 추구하다, (개방적) 태도를 지니다, 인권 존중하다, (규범·도덕성을) 갖다, (사회성을) 갖다, 참여하다, (사회) 정의 를 실현하다, 책임(가치를) 내면화하다, 협동·협업·협력하다, 상호작용하다, (공동체 의식을) 갖다, (공동체 일원으로) 행동하다, (관계나 갈등을) 조정하다, 배려하다, (다양성·다원적 가치 를) 이해하다, 존중하다, (관용·타협의 태도를) 갖다 등

키워드 분석체계에서 키워드는 핵심역량이며 범주의 하위 요소는 핵심역량과의 관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진술이다. 문학 작품 읽기 전, 중, 후 활동을 제작할 때 활동 진술에 핵심역량의 하위 요소를 반영하여 해당하위 요소와 관련된 학생의 반응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문학 작품과 관련된 수업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다양한 영역에서 핵심역량의 하위 요소와 관련된 반응을 하도록 돕고, 최종적으로는 학습자가 문학 작품을 접한후 수업 활동을 통해 경험했던 반응들을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것이 본 수업 자료의 목표이다. 따라서 문학적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것은 학생이 문학 작품을 읽고 핵심역량의 하위 요소들의 방향으로 다양한 반응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수업 자료 개발 방안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공하는 과목 중 영미문학 읽기 과목은 검정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교사 스스로 수업 자료를 제작해야 한다. 수업 자료를 만드는 과정은 배두본(1999)의 영어 교과서 개발의 단계를 따랐으며 구체적인 과정은 아래와 같다.

교과서 개발 단계	과정
요구 분석	교사, 학습자, 서평 분석
교육 과정의 분석 ♪	목표, 내용, 방법 선정 ↑
교수 요목의 적용 1	언어 자료 및 매체 선정 ↑
교과서 집필과 제작	어형, 과업, 활동 선정, 제시 순서 결정
1	- ↑
교과서 심의 및 평가	교과서 평가 및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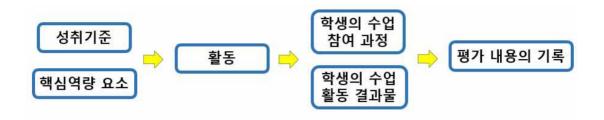
요구 분석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언어적 수준에 맞는 문학 작품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문학 작품을 선정할 때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관심이 있는 작가 또는 작품에 대해 조사한 후 텍스트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언어적 수준을 고려하였다. 개발 대상 학년 검인정 교과서의 언어적 수준을 렉사일 지수(Lexile text measure)를 기반으로 수업 자료 분석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비슷한 언어적 수준을 가진 텍스트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교육 과정을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수업 자료 제작에 필요한 목표, 성취기준 등을 분석하였다. 영어과 교육 과정의 진로선택 교육과정이 제공하는 영미 문학 읽기 과목의 목표, 내용 체계, 성취기준, 교수 학습의 방향 등을 반영하여 수업 자료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교과서 집필과 제작의 단계에서는 선정됨 문학 작품에 어떠한 활동을 제시할 것인지를 결정한 후 관련 활동을 제작하였다. 수업 활동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반응을 이끌기 위한 기준이 되는 핵심역량 및 하위요소, 감수성 증진 방향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표를 제작하였다.

활동	키워드 분석	핵심역량	문학적 감수성

위의 표를 토대로 학생들이 수업에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구 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다.



제언

문학적 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영미 문학 읽기 수업 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수업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다음 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다.

첫째, 문학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문학 작품들은 언어적 수준, 작품을 이해하는데 필 요한 문화적 배경지식, 작가 등 다양한 요소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기 어려웠다. 작품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과 선정된 작품을 통해 수업을 할 때에 학생들의 요구 수준에 맞게 텍스트의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어휘 및 구문의 측면에서 검정교과서의 언어적 수준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현장에서 영미 문학 작품을 수업에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문학 작품과 연계할 수 있는 활동이 부족했다. 2015 영어과 교육과정의 영어표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모든 기능의 성취 기준에 근거하여 활동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영미 문학 읽기 과 목은 성취 기준이 읽기, 쓰기 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차시와 분량일 경우에 영어표 과목보다 다양한 읽기, 쓰 기 활동이 필요하다. 더욱이 문학 작품 중 단편소설, 희곡 같은 경우 교과서에서 제공하는 텍스트보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더 다양하게 제공해야 한다.

참고문헌

교육부.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 서울: 교육부.

교육부. (2017).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고등학교. 서울: 교육부.

김경자, 곽상훈, 백남진, 송호현, 온정덕, 이승미, 한혜정, 허병훈, 홍은숙.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총 론 시안. 서울: 교육부.

배두본. (1999). *영어 교재론 개관: 이론과 개발*. 서울: 한국문화사.

이상구. (2002). 구성주의적 학습자 중심 문학교육의 원리와 방법. *문학교육학*, 10, 169-196.

임유나, 장소영. (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과 교과의 관계성 분석: 언어 네트워크 분석 활용하여. *학습* 자 중심 교과 교육 연구, 16(10), 749-771.

Povey, J. (1972). Literature in TESL Programs: The language and the culture. In H. Allen & R. Cambell (Eds.),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pp. 185-195). Kingsport, TN: Kingsport Press.

Littlewood, W. T. (1975). Literature in the School Foreign Language Course. *Modern Languages*, 56(3), 127-131.

Lazar, G. (1996). Literature and Language Teaching: Exploring literary texts with the language learner. TESOL

Quarterly, 30(4), 773-776.

Collie, J., & Slater, S. (1987). *Literature in the Language Classroom*: A Resource Book of Ideas and Activi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rter, R., & Long, M. N. (1991). Teaching literature. New York: Longman.

McKay, S. (1987). Literature in the ESL classroom. C. Brumfit & R. Carter(Eds.), *Literature and Language Teaching*(pp. 191-198).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BIODATA

Myeong-Yeon Cho is an English teacher of Daejeon Gwanjeo high school. He received his master's degree in English education at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2020. Major areas of academic interest are literature education, culture education, and corpus.

Email: chomy007@hanmail.net

Phone: (042) 540-2823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주는 정보추출 목적의 글 읽기

안혜선(대전 둔산여자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의 정보추출 목적의 글 읽기

고등학교 영어 수업시간에 다루어지는 교재들의 수많은 영어 지문들을 보고 있노라면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혹은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이 떠오른다. EFL환경에서 학습자들이 만나는 글들은 대부분 교과서나 EBS교재 등으로 대부분 정보를 전달하는 텍스트들이다. 학습자들이 사회, 과학, 경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설명문체 정보 텍스트를 읽고 문제가 요구하는 정보를 찾거나 우리 삶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정보추출 목적의 글 읽기 전략들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와 동료 선생님들의 수업시간을 생각해보면 다양한 활동을 할 기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영어 교사들은 시험과 관련된 진도를 나가기 위해 주어진 지문들을 '끊어 읽히고', 문법을 설명하는 영어 수업들이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시험에 나오는 텍스트들을 통째로 외워버리거나 시험에 나오는 문법에만 치중하여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에게 정보추출 목적의 글 읽기 수업이 의미 있는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학생들에게 영어로 된 정보를 읽고 정확한 내용을 이해해야만 하는 실제적인 이유가 주어져야한다. 이를 위해 실생활과 연관된 다양한 과업들을 부과한다면 학습자들이 조금 더 능동적이고 재미있게 영어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사는 학습자들이 자신들이 읽은 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독해 전략을 기르도록 도와야한다. 교사는 다양한 질문들과 글 읽기 전략 적용 활동들을 마련하여 학습자들이 글을 읽으며 필요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전략을 배우고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보추출 목적의 글 읽기와 관련된 읽기 수업활동을 계획하고 적용해 보며 앞으로 더욱 더 학습자들의 영어를 배우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길 바래본다.

BIODATA

안혜선은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영어교육학과 석사과정 중에 있으며, 현재 대전 둔산여자고등학교에 서 2년째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Email: carrieahn@naver.com
Phone: (010) 4425-0120

수업 시간을 200% 활용하는 읽기의 거꾸로 학습

민채령(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거꾸로 학습의 개념

Flipped Learning(거꾸로 학습)은 전통적인 수업에서 주를 이루던 교과의 핵심 내용 설명을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온라인에서 개별적으로 학습하고, 오프라인 교실에서는 문제해결, 토의 및 토론, 팀 프로젝트 등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영어 읽기 수업에 거꾸로 학습을 적용하면 교사의 긴 설명 대신 학생 스스로 글을 읽고, 질문하고, 자신의 감상을 동료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확보된다. 또한 어휘와 문법을 수업 전 미리 동영상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교실에서는 일방적인 강의 대신 전이와 파지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학습 활동 수행이 가능하다. 거꾸로 학습을 활용한 영어 읽기 수업은 <표 1>의 순서로 진행된다.

<표 1> 거꾸로 학습의 과정

학습 자료 제작 및 제공
<수업 전>
·학습자료제작
(동영상,
텍스트)
·자료 업로드
·평가기준 제시

	온라 동영상	
	<수업	전>
	·수업	전
⇨	동영상	(디딤
	영상)	시청
	하기	
	·디딤	영상
	학습	일지
	작성하기	

	질의·응답
	<수업 중>
>	·사전 학습 내용 관련 학생 질문
	·교사의 답변

학습 활동
<수업 중>
·학습과제 부여
·다양한
읽기전략
·조별학습
·교사의 순회
·개인별
보충학습

평가
<수업 후>
·지필/서술형평가
·토론
·발표
·인터뷰
·과제 제출

거꾸로 학습을 적용한 중학교 1학년 영어 읽기 수업의 실제

1) 수업 자료

비상교육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Lesson 3. Helping Hands는 숲 속 동물들이 서로 선행을 베푸는 우화이다. 위험에 처한 동물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도와준다. 목숨을 구한 동물은 "How can I thank you?" 이라고 묻고, 도와준 동물은 "No need. Pass it on."이라고 대답한다. 살아난 동물은 위기에 처한 또다른 동물을 만났을 때 자신이 도움을 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기꺼이 도와준다. 대가를 바라지않고 베푼 선행이 후일 자신에게 도움의 손길로 되돌아온다는 교훈을 주며 이야기가 끝난다. 글의 구조는 시간순서로 흐르는 서사적 구조이며, 상황을 묘사하는 내레이션과 각 동물이 주고받는 대화문으로 이루어진다.

2) 수업 개요

단계	활동 내용			
읽기 전 활동	디딤 영상 시청하기 - Narrative(서사 구조)를 읽을 때 필요한 읽기 전략 알아보기			
	Picture Walks Activity(그림과 제목 보고 내용 추측하기)			
읽기 중 활동	오디오 파일 들으며 소리 내어 읽기			
	Q&A 세부 내용 파악하기			
	Graphic organizer(도식 조직자)로 내용 요약하기			
읽기 후 활동	릴레이 영어 연극하기			

3) 수업의 세부 내용

[읽기 전 활동]

○ Narrative(서사구조)를 읽을 때 필요한 읽기 전략 알아보기

거꾸로 학습 디딤 영상을 시청한다. 교사는 디딤 영상에서 읽기 전략을 설명한 후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본문을 직접 읽으며 자신이 학습한 읽기 전략을 적용하도록 지도한다. 본문이 서사 구조로 이루어진 이야기 글이므로 묘사와 서사의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글의 장르적 특징을 이해하게 한다. 서사 구조의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므로 본문에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등장한다. 시간의 흐름 또는 장소의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을 찾고, 이러한 표현을 기점으로 글의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유의 깊게 살펴보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실시한다.

○ Picture Walks Activity(그림과 제목 보고 내용 예측하기)

Picture Walks Activity는 학생들이 글을 읽기 전에 앞으로 읽을 글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학습 활동이다. 학생들은 글을 읽기 전 우선 글의 제목과 그림만을 유심히 본다. 제목과 그림을 통해 이 글이 다루는 소재가 무엇일지,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지, 반복되어 사용되는 어휘가 무엇일지, 글의 교훈이 무엇일지에 대해 예측하고 이야기 나눈다. 토론 후 학생들은 짝끼리 또는 각 조별로 <표2>를 완성한다. 이후 본격적인 읽기 과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내용을 첨삭하고, 읽기를 마친 후 처음 자신의 예측과 글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 지 비교한다.

이 활동의 가장 큰 장점은 적극적인 읽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누구나 글을 읽기 전 내용 예측을 할수 있지만, 기록해두지 않으면 내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글을 읽었는지 또는 나의 예측이 맞았는지 다 읽은 후에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Picture Walks 활동은 읽기 전후 생각의 흐름을 기록하므로 글을 마칠 때까지 기대감을 가지고 읽기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

<표 2> Picture Walks Worksheet

Vocabulary	Understandings	Connections
Words that might be in	What we know about	What the story reminds
the story	the story	us of
	Words that might be in	Words that might be in What we know about

[읽기 중 활동]

○ 오디오 파일 들으며 소리 내어 읽기

읽기 중 활동 첫 번째 순서는 교과서 본문 오디오 파일 들으며 소리 내어 읽기이다. 본문의 구성이 상황을

묘사하는 내레이션 부분과 여러 종류의 동물이 대화를 나누는 부분으로 나뉘는데, 서술문과 대화문이 음성으로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는지 유의 깊게 듣는다. 듣기와 읽기를 동시에 진행하면 긴 지문을 읽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초보 학습자가 문자와 소리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듣기를 하면서 내용을 읽으면 억양과 어조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내용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하면 4인 1조로 앉아 등장인물 별로 역할을 나누어 소리 내어 읽는다. 읽기 후 활동에서 본문의 내용을 기반으로 영어연극을 할 예정이므로 이 단계에서 억양과 어조를 살려 읽기 연습을 충분히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디오 파일 듣기와 읽기 연습이 끝나면 읽기 전 활동으로 실시한 Picture Walks에서 본인이 예측한 내용이 얼마만큼 적중하였는지 확인한다. 자신이 예측한대로 내용이 전개되었는지, 만약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생각과 달랐는지 짝과 비교하며 이야기 나눈다.

○ Q&A 세부 내용 파악하기

<그림 1>의 학습 활동지를 활용하여 각 동물이 처한 문제 상황과 해결 방법을 제시된 질문에 답하면서 스스로 요약 정리해본다. 또한 각 사건의 연결 고리에 대해 생각해 본 후 이야기의 결말과 교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 우화는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이 명확하게 문장으로 제시되지 않으므로 학생들 스스로 자신만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는 적재적소에 질문을 던져 학생 스스로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Graphic organizer(도식조직자)로 내용 요약하기

전반적인 내용 파악이 끝나면 Graphic organizer(도식조직자)를 활용하여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숲 속에서 동물들이 지나가다가 위험한 상황을 목격하면 앞에서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떠올려 도움을 주는 상황이 글 안에서 반복되므로, 마지막 상황이 처음 상황과 서로 이어지도록 원형 화살표 형태로 구성한다. 학생들은 읽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동시에 이 글의 주제가 '선행의 선순환' 임을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 Q&A 세부내용 파악하기 학습 활동지

Q&A 세부 내용 파악하기					
제목: Helping Han	ds	1 호	각년 반 박	번호 이름:	
<who></who>					
Name:_	Name:_	Nam	ne:_	Name:_	
<story></story>					
[Scene #1] One Su	ınny day in the lake		[Scene #2] The next day in the pond		
■ Where was Mr. Mouse going to?			■ What was	Mrs. Duck doing?	
■ Why did Mrs. Duck cry?			■ Why did Mr. Elephant look sad?		
■ How did Mr. Mouse help Mrs. Duck?		\longrightarrow	■ How did M	frs. Duck help Mr. Elephant?	
■ Who helps whom?			■ Who helps	whom?	
				\downarrow	
[Scene #4] The ne	xt day in the lake		[Scene #3] Tha	at after noon in the forest	
■ Where id Mrs. Bird see Mr. Mouse?			■ What did N	Mr. Elephant hear in the forest?	
■ Why did Mr. N	Mouse fall into the lake?		■ Why was Mrs. Bird crying?		
	Bird help Mr. Mouse?	←	← How did Mr. Elephant help Mrs. Bird?		
What is Mrs. Bird going to do?			■ Who helps	whom?	
■ Who helps wh →				→	

[읽기 후 활동]

○ 릴레이 영어 연극하기

위기 후 확장 활동으로 위기와 연계하여 쓰기와 말하기 연습이 동시에 가능한 릴레이 영어 연극을 실시한다. 교과서 본문은 총 4개의 장면(scene)으로 구성되어 있고, 4인의 인물이 등장하므로 이를 연극으로 만들기 위해 4인 1조로 편성한다. 각 조별로 원하는 장면을 선택하고, 서로 협의하여 구성원별로 어울리는 배역을 선택한다. 학생들은 본문을 충분히 읽고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상황을 묘사하는 내레이션과 대화문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영어 연극 대본을 재구성(rewriting) 한다. 교과서 본문을 기본으로 하되, 상황을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대사와 동작 등을 첨가할 수 있다. 대사가 완성되면 억양과 어조를 살려 말하기 연습을 하고 표정과 동선, 소품 준비까지 조별로 함께 한다.

이 활동을 릴레이 연극이라 부른 까닭은 4개의 조가 순차적으로 연기를 해야 한 편의 연극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즉 각 등장인물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인물이 아니라 장면이 바뀔 때마다 역할은 같지만 연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준비할 때 나의 대사 연습은 물론 내 역할을 이어받을 다음 조의 연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직소 활동처럼 배역을 담당한 사람끼리 따로

모여 최종적으로 대사의 톤과 연기를 맞추어 본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릴레이 영어 연극을 시행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담당한 장면에서는 배우로 무대에 서고, 다른 조가 연기를 할 때에는 관객이 되어 무대를 감상한다. <그림2>에서 볼 수 있듯 등장인물 표시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표시하는 동물의 그림을 이마 또는 옷에 붙이고 연기를 하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때에는 배턴 터치 하 듯 그림을 떼어 다음 연기자에게 붙여주고 퇴장한다. 영어연극이 끝나면 영어 대사 표현력, 연기 능력, 무대 장악력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학생과 교사가 피드백을 주고받고 베스트 연기자를 선정한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의 영어연극을 녹화 후 거꾸로 학습 동영상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온라인에서도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2> 릴레이 영어 연극(배역, 배경, 연극 사진)

4) 평가

○ Sentence Strip(문장 재배열 활동)

본문의 모든 읽기 활동이 끝난 후 내용 이해 점검을 위해 Sentence Strip(문장 재배열 활동)을 한다. 한 줄에 본문의 문장을 1개 또는 2개를 적어 길게 자른다. 학생들은 개별 문장을 읽고 시간의 순서에 따라 논리적으로 배열하여 이야기를 완성해야 한다. 이 때 완성된 문장이 정답인지 여부를 교사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각 문장의 맨 앞에 대문자를 하나씩 적어 놓는다. 문장이 알맞게 배열되면 단원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표현인 'HELP A FRIEND IN NEED', 'JOIN VOLUNTEER WORK' 등이 완성된다. 문장 배열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이유로 문장의 순서를 정하였는지 학생에게 물어본다. 간혹 오류가 있더라도 이야기의 논리적 흐름을 설명하다 보면 스스로 자신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 교사는 <표3>의 평가 기준을 활용한다. 또한 단원 전체의학습활동이 끝나면 학생들에게 <표4>를 제시하여 학생 스스로 자신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표3> 평가 기준

평가					
관점	상	중	하	율 (%)	
정확성	문장 배열이 90% 정확한 경우	문장 배열의 정확도가 70~90% 인 경우	문장 배열의 정확도가 70% 미만인 경우	70	
논리력	이야기의 논리적 흐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함	문장 배열의 일부가 틀렸으나, 비 교적 논리적으로 이야기의 흐름을 설명함	문장 배열이 잘못되어 이야기 가 완성되지 않고, 글의 흐름 을 이해하지 못함	30	

<표4> 자기 평가 기준

		매				매
		우	부	보	잘	우
내용	평가 항목	부	족	통	함	잘
		족				함
		1	2	3	4	5
	각 등장인물의 특징과 상황의 전개를 설명할 수 있다.					
Reading	본문에 나온 주요 어휘 및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					
	이야기의 주제와 교훈을 설명할 수 있다.					
	릴레이 영어연극에서 맥락에 맞게 알맞은 대사를 말할 수 있다.					
Speaking	발음과 억양을 정확하게 구사하고 목소리를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					

결론

영어 읽기 수업에 거꾸로 학습을 적용하면서 학생들의 능동적인 학습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글을 읽고 자신의 언어로 이해한 바를 표현하였다. 영어를 좋아하고 잘하는 학생들은 읽기와 연계한 말하기 및 쓰기 확장 활동에서 두각을 드러냈고, 영어에 어려움을 느꼈던 학생들은 동영상으로 반복학습을 하고 수업에서 교사와 개별 학습을 실시하여 영어 읽기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교사의 설명에 의존하기보다는 학생들끼리 서로 묻고 가르치는 방식에 익숙해진 게 가장 큰 수확이었다. 영어 읽기 수업에서 학생들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읽고 쓰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끝으로 거꾸로 학습을 영어 읽기 수업에 도입하고자 하는 선생님들께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학생들이 눈에 보이는 학습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거꾸로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 스스로 배움을 느끼고 무엇인가를 이루어 내는 과정이다. 학생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단순한 지식을 아는 것보다 무엇인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흥미와 관심을 갖는다. 특히 읽기 학습이 글을 읽는 것에서만 끝나면 학습이 종료한 후 학생들이 내가 무엇을 배웠고 성취하였는지 체감하기 어렵다. 따라서 독후 활동, 마인드맵 또는 비주얼 싱킹과 같은 시각화 활동, 토론과 발표 등 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 결과물을 만들 수 있으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둘째, 디딤 영상 제작에 너무 많은 공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화질과 음향과 같은 형식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완성이 어려울 수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학습 내용이다. 가르칠 내용을 간결하고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별도의 장비 없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해도 좋다. 촬영이 마땅치 않다면 저작권이 문제되지 않는 한 다양한 자료로 디딤 영상을 대체할 수 있다.

셋째, 학생을 믿고 기다려주어야 한다. 처음부터 모든 학생들이 거꾸로 학습에 적응하지 않을 수 있다. 동영 상을 미리 학습하고 오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수업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학습 활동을 단순히 노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교사는 수업의 목표와 학습 활동의 목적을 학생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교실 수업에서 작지만 다양한 성취의 경험들이 쌓여 영어에 대한 자신감 을 얻을 수 있도록 교사가 부단히 격려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미래교실네트워크. (2015). 거꾸로 교실 프로젝트. 서울: 에듀니티

박상준. (2016). 거꾸로 학습을 넘어 거꾸로 학습으로: 수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서울: 교육과학사

Bergmann, J., & Sams, A. (2012). Flip your classroom: Reach every student in every class every day. Portland, OR: International Society for Technology in Education.

BIODATA

민채령은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영어교육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현재 한국교원대학교 부설미호중학교 교사로 재직중이다. 거꾸로 학습, 영어 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에 관심이 있다

Email: min_eugene@naver.com

Phone: (043) 233-0073

영어교육 방법(ELT Methodology)

분과장: 권은영(육군사관학교)

분과주제: Innovations in Learning Technologies for English Language Teaching

발표 제목	발표자
Technology-integrated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classrooms	Eun-Young Kwon (Korea Military Academy)
A practice-based exploration of technology enhanced assessment for English language teaching	Jeongwan Lim (Daegu University)
Technology-integrated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lessons: Real-life language, tasks, and tools for professionals	Hyung-ji Chang (Sun Moon University)
Using ICT tools in the EFL classroom	Youn-Kyoung Le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echnology-integrated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Classrooms⁸

Eun-Young Kwon (Korea Military Academy)

Introduction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EAP) is distinct due to its focus on teaching English with the prime goal of preparing non-native speaking (NNS) for the demands of academic study in an English language environment (Hamp-Lyons, 2011; Hyland and Hamp-Lyons, 2002). According to Strevens (1988, cited in Flowerdew and Peacock, 2001), crucial characteristics of ESP/EAP are design which intended to meet specific needs of the learner; teaching content (themes/topics) concerning specific disciplines; a focus on discipline-specific language use; teaching English with a specific purpose, in contrast with 'general English.'

Dual purposes in EAP

Preparing NNS learners for academic study and research in English-medium courses and institutions requires a dual focus of helping students to develop both the language competency and study skill. Hyland and Hamp-Lyons (2002) refer to this duality as 'general English' and 'study sills,' including tasks like listening to lectures, giving presentations and academic writing. This approach can be called English for General Academic Purposes (EGAP), with an aim of preparing students for general academic studies across disciplines.

Needs analysis

Approaches to needs analysis differ by context, and data can be collected by means of testing, questionnaires, interviews, focus groups, and direct observation of post-secondary classroom lectures or activities.

Technology and EAP

In conjunction with linguistic demands, current needs analysis in EAP finds that, numerous academic tasks require the use of technology. For instance, students and faculty are asked to produce word-processed reports and documents, create digital slides to enhance presentations, use email to communicate and collaborate, access and participate in online learning platforms, and conduct research using online electronic databases and the internet.

Some types of technology use in EAP teaching are as follows:

- 1) Concordancing and corpus analysis: developing linguistic knowledge
- 2) Web-based research: the internet as information source in EAP courses
- 3) Understanding researching on the web
- 4) Online learning environments: collaboration and project-based learning
- 5) Learning management systems: additional opportunities to engage in learning

Each type of technology use in EAP teaching is rooted in learner needs as recognized by researchers and classroom instructors, and the classroom illustrations of technology use are inextricably linked to the EAP teaching contexts they are embedded in.

Case study (Using a wiki to provide additional cultural support to EAP learners)

In a review of research concerning Web 2.0 technology for language teaching, Wang and Vasquez (2012) stated that wikis have been the second most commonly researched Web 2.0 tools. The following is a case study regarding an ESL teacher's experience of using a wiki.

⁸ This is a summary of the article by Gilbert, J. (2013).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In G. Motteram (Eds.) *Innovations in learning technologies for English language teaching* (pp. 119-144). London, UK: British Council.

The students: In the given ESL program at a comprehensive, mainly undergraduate, university in Canada, almost all ESL students proceed to study undergraduate courses at the university as they finish the ESL program. The program, therefore, highly focuses on EAP due to the link with the university. In general, students in the program are recent high school graduates.

The context: Beth, an ESL teacher of the program, was interested in the associations between cultural integration and achievement in language learning for her final project for the TESOL diploma program. She noticed that despite high levels of academic language knowledge, lots of ESL students lacked the ability to use language successfully in sociocultural contexts outside the class. Beth was most interested in taking students' perspective as a starting point, and basing her approach on their own experiences. She initially planned to survey her students on paper, asking about the biggest perceived differences between their home country cultures and Canadian culture, in common categories such as transportation, greetings, and mealtimes, etc., but changed her plan and moved the project online, using a wiki.

Experience of using wikis: Beth had no experience with wikis at the outset of the project, and she even had limited experience with educational technology. These are what she noticed after experiencing wikis:

- 1) By sharing one wiki account, students could have the opportunity to express their views on Canada anonymously, and feel good about writing on the internet to a wider audience.
- 2) Beth could also respond to student input and post links to further information, and there was potential for other teachers in the program to participate as well.
- 3) Although the project was not the single solution to the problem of limited cultural integration, Beth felt that students could use the wiki to learn more about cultural differences either before they arrived or while they were studying.
- 4) Beth discovered the wiki was easy to create and was impressed by the technology.
- 5) Beth finds that the wiki work is most productive when she has students in the lab.
- 6) Beth also finds that as the wiki evolves, student input is becoming more interesting and varied.

Conclusion

The intensive nature of EAP courses and institutional demands to 'get through' the curriculum with learners means that instructors can have difficulty finding the time needed to judiciously investigate and integrate technology in their teaching. One approach is to integrate technology with programming during the process of curriculum design, rather than leaving technology as an 'add-on' to the curriculum. This involves more fundamental discussions of EAP program values and teacher beliefs surrounding the role and relevance of technology in the academic lives of EAP students. On the other hand, limitations on classroom time can serve as motivation for teachers to use technology, leading instructors to develop self-access online study materials, which allow students more flexibility in choosing how and when to study. As introduced earlier, various technologies are available to utilize in EAP programs with different purposes. For example, whereas some technologies like concordancing are directly aimed at supporting language acquisition, others are more often used to develop study skills and offer opportunities for language use in typical academic tasks. Integration of tools like the internet for web-based research, a variety of Web 2.0 platforms, and LMSs can encourage students to use language collaboratively in technologically-mediated learning environments. Technology has become a normal part of the learning experience these days. However, as often stated in the CALL literature, we should not forget that technology is not a method and that "how" technology is used can be directly effective in learning.

Reference

Flowerdew, J and Peacock, M (2001) 'Issues in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in Flowerdew, J and Peacock, M (eds) Research Perspectives on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8–24.

Hamp-Lyons, L (2011)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in Hinkel, E (ed) Handbook of Research in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Volume 2. New York: Routledge, 89–105.

Hyland, K and Hamp-Lyons, L (2002) EAP: issues and directions. Journal of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1/1: 1–12.

Strevens, P (1988) 'ESP after twenty years: A re-appraisal' in Tickoo, M (ed) ESP: State of the Art. Singapore: SEAMEO Regional Language Centre: 1–13.

Wang, S and Vasquez, C (2012) Web 2.0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What Does the Research Tell Us? CALICO Journal 29/3: 412–430.

BIODATA

Eun-Young Kwon is currently an Assistant Professor of the English Department at Korea Military Academ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TESOL, Applied Linguistics (specializing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Big data analysis,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AI chat bots for language learning, Mobile Assisted Language Learning (MALL), Problem-Based Learning, and Bilingualism.

Email: eykwon@mnd.go.kr Phone: (02) 2197-2641

A Practice-based Exploration of Technology Enhanced Assessment for English Language Teaching⁹

Jeongwan Lim (Daegu University)

Introduction

In this paper the writers take a practice-based look at how technology can be used in assessing English language teaching (ELT). They begin with a brief overview of th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the area of assessment over the last 50 years. This paper is in two parts. The first presents the key factors that have influenced the way assessment has changed. It breaks down the influences into four areas which in reality often merge. Firstly, the changes in language teaching; secondly, the changes in our understanding of assessment; thirdly, the impact technology has had; and finally, other drivers from mainstream education that have also influenced our views on assessment. The paper includes a series of short case studies which provide real examples of the types of assessments that teachers are currently experimenting with using ICT. It is hoped that the practical examples set in the real lives of teachers in their contexts will offer you some useful ideas for adaptation for your own assessment practices.

Assessment

Assessment is a very broad term that can cover formal exams and tests, both external and internal, which are structured and built into the fabric of the academic year, as well as more informal types of assessment that teachers undertake as a part of their day-to-day practice. They recognize that tests and exams set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by organizations such as UCLES have changed in major ways over the past 50 years; however, most teachers have little say in the exams offered by an institution since exams are generally set at institutional level or run by external exam bodies. Their focus, then, is on the types of assessments that the teacher can set while teaching a course. These are often less formal and may not even be part of the official evaluation of a student but because the teacher has control over these and has a much clearer idea of learners' needs at any point in a course of study, it is our view that these types of assessments have an important impact on a student's learning.

Summative and formative assessments

'Summative assessments' often take place at the end of a unit, module, or a whole course. The focus tends to be on the mark and the idea is to evaluate how well the student has learned what has been presented. Formative assessments take place during a course, module or unit. The focus is more on gathering data about the student's progress and using this data to help them improve. One of the biggest and most obvious changes that has happened to assessment is that there is now much more interest in the area of formative assessment. In other words, they assess students at different stages and provide feedback that they can use to improve, re-draft or change what they are currently working on, but also to help them into their future learning (often referred to as feed-forward). Key to this change is an understanding that assessment is part of the learning cycle.

Washback (backwash) effect

The washback (backwash) effect is the impact that an assessment will have on the teaching and learning. This impact can be very broad. A certain assessment might impact on what a teacher teaches, what the students revise, how motivated the student feels, what skills the students focus on. If an assessment correctly reflects the skills a student needs to be a good language learner then it is likely that any work the students does in preparation for the assessment, or as part of the assessment,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ir learning.

Peer evaluation/self evaluation

Davison and Leung (2009) offer a four-stage process to guide teachers in organizing classroom assessments:

⁹ This is a summary of Ch. 6 from the book, *Innovations of learning technologies for English language teaching* edited by Gary Motteram (2013).

- 1. Planning assessments.
- 2. Collecting information on student learning through the assessment.
- 3. Making judgements about performance.
- 4. Providing appropriate feedback.

As views on assessment have changed this whole process has become much more inclusive (Bullock, 2011). There is considerable interest in the idea of students self evaluating and in getting the students to build up a picture of their own learning. You hear terms like reflection, peer evaluation, self-evaluation and self-assessment. All these procedures are attempting to make students better learners, to get them to think more about their own learning, to be aware of their own shortfalls and strengths. The ultimate goal is to make the students more independent learners and hopefully more motivated too. These processes are at the heart of assessment since one of the key goals of assessment is to provide information that will help students in their learning.

A historical review of ELT assessment

A literature review of ELT publications over the past 50 years reveals the shift away from a grammar-focused tradition to real engagement with language in real-world settings (Bachman, online). Until the 1970s, a general pedagogy for language teaching was based on learning lists of vocabulary, grammatical use, reading comprehension and short essay writing. The learning objectives of many courses centered on the mastery of language structures. In the 1960s language teaching and assessment began to shift. Prominent authors such as Hymes (1972) began to consider language learning in terms of communicative competence. This stage is often referred to in ELT assessment development as the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CLT)' approach. This paradigm shift led to changes in the skills we recognized as being important to learn a language and therefore in the skills we needed to assess and test (Morrow, 1979; Fulcher, 2000). This shift has continued and recent reviews of the changing approaches to language teaching have seen an increased acceptance of the key role of communication in learning a language (Waters, 2012).

The paradigm shift in teaching and learning a language led to a paradigm shift in what we assessed too. By the beginning of the 1970s assessment had moved towards communication. We learn language so that we can communicate better with others. We stopped just focusing on grammar and developed a wider perspective that viewed language learning in terms of ability to communicate and use the language. Perhaps one way of seeing how far assessment has come is to look at the idea of a language portfolio. We believe that language portfolios are perhaps one of the most serious attempts to provide a modern day assessment method that incorporates much of the current thinking on assessment of language learning. At the other extreme is perhaps the e-Portfolio, where the student collects together a whole range of digital artefacts that together provide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a student's language ability. These might include video recordings, audio recordings, examples of mind maps, wiki entries, example of articles read, online tests etc., all accessible from one central repository.

What is a language portfolio?

The basic idea of a portfolio is to provide a much wider range of evidence of the language skills of a student. The roots of the idea probably go back as far as the work of Dewey (1916). Portfolios offer students the opportunity to demonstrate what they have learned and experienced with the target language. It can include a whole range of language evidence reflecting a much wider range of skills. It might include tests, readings, written work, essay plans, feedback and reflections.

Case Study 6.1: Recorded group discussions

Antonio is an ELT teacher in Peru. He uses VoiceThread with his students to get them working in groups and discussing certain points. These are high level students and he tries to link what the students do in the class with what he wants to get them to do in their assessments.

Case Study 6.2: Using a virtual learning environment

Yrma G teaches in Turkey. She uses Moodle to support her students' writing skills. She particularly likes this tool as it allows a simple way of getting the students to upload their written work in stages, which she can then quickly provide feedback on.

Case Study 6.3: Edmodo is a free powerful VLE

Mouna works in Tunisia with groups of secondary school children learning English. She likes to get them to discuss and share ideas on different topics each week. Mouna uses Edmodo. She sets a discussion topic and each student is

obliged to make a minimum of three contributions. The students do this at home. She reviews the discussion and takes notes. In class she often highlights some of the best contributions and explains why she likes them. Each week she chooses the student who has made the best contribution.

Case Study 6.4: Using myBrainShark

I have been making use of myBrainShark over the last three years and it has been a really successful tool to work with. Students can produce their own PowerPoint slides, load them up onto myBrainShark and then add their voice to their slides. myBrainShark then packs the PowerPoint presentation with the audio and creates a link to a file that can easily be shared with the teacher. So students can create PowerPoints on a given topic, record and re-record their voice until they are happy with their recording, and then share their work at the click of a button. Students and teachers can listen to the recordings and add notes/comments as feedback.

Case Study 6.5: Making simple audio recordings

Vocaroo is a very simple tool that allows students to record their voice for up to five minutes and then send the resulting recording as an email. It is perhaps one of the easiest audio recording tools on the internet and works literally at the click of just one button. The students don't even need to open an email client to send the recordings. They simply record, play back the recording and then write in the email address of the person they want to send the recording to. The receiver can then click on the link and listen to the recording. The recordings can also be downloaded onto the students' computer or embedded into a blog by copying the code that is provided and then pasting it into a blog, virtual learning environment, or website.

Case Study 6.6: Blogging

Russell's students on his BA Education course are learning to be teachers, but also developing their own level of English. Each week Russell presents different technologies and the students talk about them and how they might use them in their classes. The students usually get a chance to try out the technologies in class and for homework they write about the technologies in their blogs.

Conclusion

Testing and assessment has changed enormously over the last 50 years and we believe that most of the changes have been very positive. Technology has played a role in assessment for a long time but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internet, of Web 2.0 technologies and now mobile technologies, the role technology can play is greater than ever.

Our view is that ICT can offer great affordances to assessment and we encourage you to make use of it, and in doing so hopefully broaden your assessment base. Try it on informal assessments with your class and gather plenty of feedback from your students. Remember, most teachers tend to introduce it step by step. You will certainly change and adapt your assessments as you learn more from using them. Most of the teachers we spoke to said their students were very supportive. It will be a step-by-step process but one that both you and your teachers will find very rewarding.

References

Bullock, D. (2011). Learning self assessment: an investigation into teachers' beliefs. *English Language Teaching Journal*, 65(2), 114–125.

Davison, C. & Leung, C. (2009). Current Issues in English Language Teacher-Based Assessment. *TESOL Quarterly*, 43, 393–415.

Dewey, J. (1916). Democracy and Education. New York: Free Press.

Fulcher, G. (2000). The 'communicative' legacy in language testing. System, 28(4), 483-497.

Hymes, D. H. (1972). 'On communicative competence', in Pride, J. B. & Holmes, J. (eds)., *Sociolinguistics*, Harmondsworth: Penguin.

Morrow, K. (1979). 'Communicative language testing: revolution of evolution?' in Brumfit, C. K. & Johnson, K. (eds)., *The Communicative Approach to Language Teaching*. Oxford: OUP.

Waters, A. (2012). Trends and issues in ELT methods and methodology. English Language Teaching Journal, 66(4), 440-449.

BIODATA

Jeongwan Lim is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Daegu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are teacher training, literacy education, and 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Email: jwlim@daegu.ac.kr Phone: (053) 850-4125

Technology-integrated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Lessons: Real-life Language, Tasks, and Tools for Professionals¹⁰

Hyung-ji Chang (Sun Moon University)

What is ESP?

According to Anthony (1997: online), 'some people described ESP as simply being the teaching of English for any purpose that could be specified. Others, however, were more precise, describing it as the teaching of English used in academic studies or the teaching of English for vocational or professional purposes.' Dudley-Evans and St John (1998) offer an extended and flexible definition based on Streven's (1988 in Dudley-Evans & St John, 1998: 3):

Absolute characteristics of ESP

- ESP is defined to meet specific needs of the learners
- ESP makes use of underlying methodology and activities of the discipline it serves
- ESP is centered on the language (grammar, lexis, register), study skills, discourse and genre appropriate for these activities.

Variable characteristics of ESP

- ESP may be related to, or designed for, specific disciplines
- ESP may use, in specific teaching situations, a different methodology from that of general English
- ESP is likely to be designed for adult learners, either at a tertiary level institution or in a professional work situation; it could, however, be for learners at secondary school level
- ESP is generally designed for intermediate or advanced students; most ESP courses assume some basic knowledge of the language systems.

Technology use in ESP

Past: Teachers had to book computer rooms or language labs to go with their learners and allow them to use CALL software with mostly drill-type exercises (Arnó, Soler & Rueda, 2006a).

Today: Technology has become integrated into the classroom physically and pedagogically rather than being an add on. Computers particularly have come to be seen and used as a tool to accomplish certain tasks or to communicate (Warschauer & Healey, 1998; Warschauer & Kern, 2000). Therefore, as learners' needs and authentic tasks are paramount in business English and other ESP courses, many language teachers have integrated the same kinds of technology into their courses which their learners use in their profession, whether it is the word processor and email, the internet as a source for authentic material and place for authentic communication, virtual conferencing platforms, simulation software, or, in recent years, mobile technologies.

Benefits of technology in ESP:

Butler-Pascoe (2009: 2–3) lists 14 advantages of technology for ESP

- 1. Provides interaction and communicative activities representative of specific professional or academic environments.
- 2. Fosters understanding of the socio-cultural aspects of the language as practiced in various fields and professions.
- 3. Provides comprehensible field-specific input and facilitates student production.
- 4. Provides sheltering strategies for language development and content-specific understanding (modelling, bridging to students' background experiences, contextualizing, metacognitive activities, etc.)
- 5. Uses task-based and inquiry-based strategies reflective of tasks in discipline specific settings and situations.
- 6. Uses authentic materials from specific disciplines and occupations.
- 7. Supplies authentic audiences, including outside experts in specific fields.

¹⁰ This is the summary of the article. Kern, N. (2013). Technology-integrated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lessons: real-life language, tasks, and tools for professionals. In G. Mtteram (Eds.) *Innovations in learning technologies for English language teaching* (pp. 89-114). London, UK: British Council.

- 8. Supports cognitive abilities and critical thinking skills required in the disciplines.
- 9. Uses collaborative learning.
- 10. Facilitates focused practice for the development of reading, writing, listening, and speaking skills across the curriculum and disciplines.
- 11. Is student-centered and addresses specific needs of students.
- 12. Uses multiple modalities to support different learning styles.
- 13. Meets affective needs of students: motivation, self-esteem, and autonomy.
- 14. Provides appropriate feedback and assessment of content knowledge and English skills.

Technologies for ESP:

There are many different technologies that are successfully used in ESP courses from the traditional tape recorder or CD player, to interactive whiteboards, ICT, Web 2.0 tools, mobile technologies and 3D virtual environments.

Case study (Business English)

The students: In this particular course, there are three students aged 40 to 55, who are managers in a 'learning organization' which has its focus on 'knowledge production and management' and which provides its services to international customers. The company is working on transforming its work environment into a 'powerful learning environment.' Given the organization's focus, the managers participating in the course need to 'generate new knowledge' by 'exchanging' and 'enriching' existing knowledge. This takes place primarily in English. The learners, being busy managers, it is important for the teacher to develop activities 'that help them make the most of the time they can devote to English, to enjoy the experience,' and 'to get positive outcomes.' The learners' motivation is higher when the activities and the content are relevant to their lives. Being familiar with the content additionally helps them to focus more on details.

The context: It is a blend of a face-to-face component, which takes place at the organization, and an online component. It is not compulsory but employees are encouraged to participate.

Materials and Technologies Used: The majority of the audio and written texts are authentic materials from the organization itself. A mix of technologies such as an educational platform, Skype, email, and virtual conferencing rooms are used. The internet is also used to introduce the students to tools such as online dictionaries.

Types of activities the technologies (and materials) are used for, and their relevance for the learner: The activities and technology are based on the real-life needs of the learners and are used to simulate situations in which they have to use English. For example, if the managers need to give presentations in English, they prepare and give one in the lesson, which is recorded in order to be watched together later to give feedback on language use and other presentation skills. Conference call simulations are held using Skype, as this is the tool which is used by the company for the same purpose. The procedure is similar to the one in Case Study 4.1. Feedback is provided while listening to the recording. To simulate webinars and online meetings, the same virtual room is used which the students use for work. To practice email writing and do other types of activities, the educational platform is used. Students are also shown what kind of tools are available to them online (for example, dictionaries) and how they can use them, in order to help them become more autonomous learners.

Usability and constraints of the technology: Most of the tools, services and platforms that are used in this course ask for an account creation at the beginning and signing in whenever they are used. The online educational platform asks for a fee per student per month. Teachers can either use ready-made material made available on the platform or create their own. Most of the other tools do not charge any fees. The managers participating in this course are relatively adept at using the technologies in this course because they use technology at work and some of the tools are the same as they use at work. Firewalls can sometimes be an issue, which is why technologies which are used by the organization are chosen whenever possible. Permission from the IT department had to be sought to install Skype and some other tools.

Attitudes of students and institution towards the technology: As the way the technology is used in class is very similar to how it is used by the students at work, and as they, therefore, understand the purpose and see how it can help them with their real-life tasks, they accept using it. Having said that, these particular learners do 'value human interaction' and would therefore not want a fully online course. The online component is used to 'reinforce' what was learned in class and to simulate work situations in which they have to operate in English on the internet. Most teachers

at the language institution are ready to learn how to use technology in class, and even the more hesitant ones have had some experience with using it for teaching and learning purposes.

Conclusion

Teachers and institutions that integrate technology into their ESP courses can face multiple other challenges (Felix, 2005; Krajka, 2003; White, 2007) such as:

- issues of accessibility, availability and reliability of the technology
- the need for one-off and ongoing teacher and learner training
- varying levels of tech-savviness of teachers and learners
- time and resources needed to create technology-integrated courses
- the need for new ways of managing classes in which technology is used, including how to deal with technical problems during lessons
- having to adapt to the changing roles of teachers as well as learners, particularly in online courses, etc.

These issues need to be thought through carefully to enable a smooth and successful integration of technology and ensure that teachers as well as students will accept the use of the technology as a valuable addition to their ESP course, rather than a distraction from the real purpose, which is learning the target language.

Whether they like technology or not, ESP teachers today cannot afford not to integrate technology into their courses, because technology plays an essential role in their learners' everyday professional lives, in which they need digital and electronic literacy skills to communicate internationally across cultural borders using different media, and to become autonomous learners who can keep up with the fast-paced professional world. ESP teachers might be less prone to this because they generally focus more on their learners' needs and are more aware of the limited time and busy schedules they have. Even if they were not, their students would most probably be reluctant to use technologies they would see as a waste of time or too difficult to use. Therefore, ESP teachers will mostly practice what Chapelle (2003: 9) suggests: a 'critical, technologically-informed pragmatism.' In ESP, as we can see from the case studies, the reason for using technology is not only or always because it makes learning the language more effective or efficient, but also because it can offer tools that simulate real life work situations, while giving students the opportunity to acquire and practice essential 21st century professional skills.

References

Anthony, L (1997)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What does it mean? Why is it different? On-CUE 5/3: 9–10. Available online at: www.antlab.sci.waseda.ac.jp/ abstracts/ESParticle.html

Arnó-Macià, E (2012) The Role of Technology in Teaching Languages for Specific Purposes Courses. The *Modern Language Journal 96*, 89–104.

Dudley-Evans, T & Johns, AM (1991)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International in Scope, Specific in Purpose. *TESOL Quarterly* 25(2), 297–314.

Evans, S (2012) Designing email tasks for the Business English classroom: Implications from a study of Hong Kong's key industries.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31*, 202–212.

Luzón-Marco, MJ (2002) Internet Content-based Activities for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English Teaching Forum 40*(3). Available online at: http://eca.state.gov/ forum/vols/vol40/no3/p20.htm

Warschauer, M and Kern, R (eds) (2000) Network-based language teaching: Concepts and practi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BIODATA

Hyung-ji Chang is a professor of Sun Moon University. She teaches at the department of Global Tourism and published several researches on the development of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for EFL learners, tertiary level of English reading and designing culture-based teaching materials.

Email: maria5576@hanmail.net

Phone: (041) 530-2488

Using ICT Tool in the EFL classroom

Youn-Kyoung Le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Using ICT in the classroom is a new method of teaching technique which provides more interaction, and makes students' learning more effectively (2008). The aim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English vocabulary learning, using an ICT tool in an EFL classroom. During the 18 week lecture, the 74 Taiwanese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For the experimental group, "Learning British English WordPower App" using iPad was used to teach English vocabulary and the traditional semantic map method was used for the control group. The students, using the iPad App were able to see the target words, word pictures, and example sentences through the classroom projector.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students under the iPad App vocabulary instruction performed better on the post-test and the test resul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findings of the survey also revealed that using an ICT tool in an EFL classroom not only enhanced students' learning outcomes, also increased their learning motivation.

REFERECES

- Belmont I., & Ramirez, D. (2007). Using digital stories to improve listening comprehension with Spanish young learners of English. *Language learning & Technology* 11, 87-101.
- Wang, B. T., Teng, C. W., & Chen, H.T. (2015). Using iPad to facilitate English vocabulary lear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and Education Technology* 5, 100-104.
- Wong, L. L., & Looi, C. K. (2010). Vocabulary learning by mobile-assisted authentic content creation and social meaning-making: two case studies. *Journal of Computer Assisted-Learning* 26, 421-433.

BIODATA

Youn-Kyoung Lee is a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applied linguistics focusing on semantic concepts of epistemic modals, corpus linguistics, English teaching methodology,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EFL learners' sound perception and production.

Email: <u>yklee0805@knu.ac.kr</u> Phone: (053)950-7816 [Blank Page]

조기 영어교육(Teaching Young Learners)

분과장: 심창용(경인교대)

분과주제: How to use AI-based Chatbots and Translators

발표 제목	발표자
인공지능 기반 번역기 사용 초등영어 교육	심창용(경인교대) 박지현(경인교대)
초등영어학습자를 위한 Negotiating Chatbot	황필아(경인교대) 성민창(경인교대)
초등영어교육용 챗봇 개발 사례	정세진(충남 서정초) 김영순(경기 서해초) 조규희(안산 원곡초)
목적지향형 AI 챗봇 활용 초등 영어 말하기 학습 및 평가	추성엽(서울 천호초)

인공지능 기반 번역기 사용 초등영어 교육

심창용 (경인교육대학교) 박지현 (경인교육대학교)

1. AI 기반 번역기

- · Google Translate
- · Bing Translator
- · Papago
- · Kakao 번역
- · Amazon Translate

. . .

2. 번역기의 문제

ㆍ 번역 결과물의 질

일반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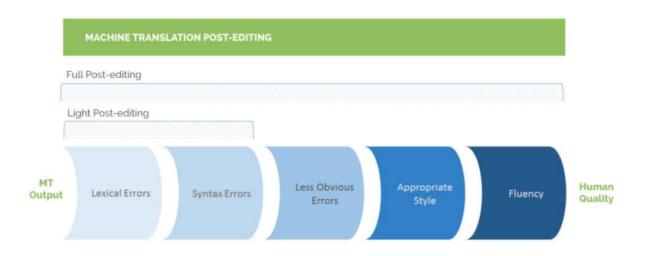
과학적인 글, 논리적인 글의 번역 결과는 우수함 개인적인, 사적인, 혹은 신변 잡기적인 글의 번역 결과는 개선이 필요함 시 같은 글은 번역 결과가 조잡함

3. 번역기를 받아들여야만 함!

- · 이미 상용화된 인공지능 기반 번역기
- 학생들도 번역기 사용에 점점 익숙해져감
- · 핸드폰처럼 사용금지만 강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님
- 교실에서 번역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할 때임

4. Post-Editing

• 번역될 결과물에 대한 교정



Melby, Fields & Housley (2014)

Accuracy	Terminology Mistranslation Omission Addition Untranslated	
	Content	Register Style Inconsistency
Fluency	Mechanical	Spelling Typography Grammar Locale violation
	Unintelligible	
Verity	Completeness Legal requirements Locale applicability	

활용

-어휘 교육

동음이의어, 동의어, 연어 교육이 번역기 내에서 가능함

-문법 교육

유의미한 맥락 속에서 문법 교육이 가능함

-스타일 등

상급 수준의 학생을 대상으로 가능함

5. Pre-Editing!

Natural Korean sentences are not machine friendly.

Missing arguments: 봤어요?

Lengthy sentences: 요다가 먹다 남긴 사과를 먹은 루크는 배탈이 났다.

Ambiguity: 다리가 길어요.

Machine-friendly Korean is required.

- 발표용 자료 준비 등
- 한국어 교육에 활용
- 한영 비교 교육에 활용

이미 있는 것을 무시하기 보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References

Ministry of Electronics & Information Technology, Government of India (2016). Standard on Machine Translation Acceptance.http://tdil-dc.in/undertaking/article/262568Machine%20Translation%20Acceptance%20Ver4.0. pdf

Melby, A.; Fields, P.J. & Housley, J. (2014). Assessment of Post-Editing via Structured Translation Specifications. In M. Carl, S. O'Brien, M. Simard, L. Specia, & L. Winther-Balling (Eds.), *Post-editing of Machine Translation: Processes and Applications*. Cambridge: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Mercader-Alarcon, Julia & Felipe Sanchez-Martinez (2016). Analysis of translation errors and evaluation of preediting rules for the translation of English news texts into Spanish with Lucy LT. *Traduccio i dispositius mobils Revista Tradumatica: tecnologies de la traduccio* 14. 172-186.

Costa, Âgela., Wang Ling, Tiago Luís, Rui Correia, Luísa Coheur. (2015). A linguistically motivated taxonomy for Machine Translation error analysis. *Machine Translation* 29. 127-161.

BIO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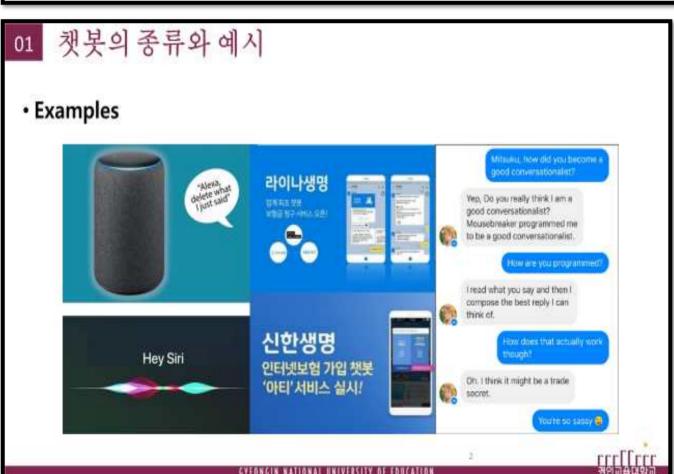
Sim, Chang-Yong: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i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main research interests are in the area of language acquisition, methodologies, interlanguage and linguistics.

Email: simyong@ginue.ac.kr Phone: (032) 540-1332

Park, Ji-Hyun: Assistant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i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er research interests involve second language writing,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corpus linguistics.

Email: jhpark21@ginue.ac.kr Phone: (032) 540-1430





02 대화형 챗봇과 초등영어교육

Redefinition

Tech allows for the creation of new tasks, previously inconceivable

Modification

Tech allows for significant task redesign

Augmentation

Tech acts as a direct tool substitute, with functional improvement

Substitution

Tech acts as a direct tool substitute, with no functional change

Puentedura (2013, p. 2)

- 1. 대체 : S-S 상호작용 🛮 C-S 상호작용 불안감 감소 (김재상, 2017)
- 증강: 단일한 대화문 → 난이도별 챗봇
 (이동한, 박상인, 2019)
- 3. 수정 : 초등학생 모둠 ⇔ 챗봇 다양한 형태의 학생 간 협력 (양혜진 외, 2019)
- 4. 재정의 ?

C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TTTTTTT

河巴加州(49)

03 재정의:초등학생에게 필요한 대화 경험?

NS

Negotiation of Meaning = 의미 협상 (Pica et al., 1984, p. 740)

NNS

	And right on the roof of the truck place the duck. The duck.	I to take it? Dog?*
	Duck.	Duck.
negota (10)	It's yellow and it's a small animal. It has two feet.	I put where it?**
	You take the duck and put it on top of the truck. Do you see the duck****	Duck?*
5.7.05	Year. Quack, quack, quack. That one. The one that makes that sound.	Ah yes, I see in the – in the head
	OK. See?***	Put what?** of him.
	OK. Put him on top of the truck.	Truck?*
	The bus. Where the boy is.	Ah ye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confirmation checks; ** clarification requests; ***, comprehension checks

재정의:초등학생에게 필요한 대화 경험? 03 Negotiation of Form (형태 협상) = Corrective feedback 피드백 유형 5: He runs fastly 병시작수정 학생의 밥짜 중 잘못된 형태 (explicit comec-나 오위를 교사가 병환하게 피 T: Fastly isn't right. You should say, 시하고 교생 tion) "He runs fast." 5: Where you go tomorrow? T: Where will you go tomorrow? 제수정 학생의 호사를 세우강하여 명 5: I go to my grandmother's house. (Recist) T: Yes, you will go to your grandmother's boose. S: My father cleans the dish. 학생 스스로 오류를 찾아 교 杂生物片 T: He cleans the ... ? (Elicitation) 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5: Dishes? 배타전이션 5: I go to the park yesterday. 학생의 발화와 관련된 해설. (Metalinguistic S: Well, okay. But remember we talked 장보를 제공하거나 결문하기 feedback) about the past tense. 5: He go to school. T: Excuse me. 되문기 학생에게 다시 방화하도록 유 [박박후회 도하거나 학생의 말을 방목하 (Clarification S: He go to school. 2015 p. 1685 request) 이 오취를 깨닫게 하기 T: He what?

S: He goes to school



05 학년군별 협상 챗봇

3-4 학년군의미협상

- 순서도 기반 : 질문 답변 해결책 구조
- 학생이 챗봇의 질문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 챗봇이 더 쉬운 질문으로 재발화

3-4 학년군 형태협상

- 카드 선택 후 대화 상황
- 명사구 수 형태 오류 : two *apple
- 챗봇의 다양한 교정적 피드백



5-6 학년군 의미협상

- 학습자의 표현 오류 → 의미협상 챗봇
- 언어간 전이로 인한 어휘 발음 오류: p vs. f
- 그림 속 어휘에 대한 질의응답: 예. coffee

5-6 학년군 형태협상

- 친구 소개 대화: 과거, 3 인칭 단수 현재
- 동사 시제 형태 오류: I first *meet him ...
- 2 단계 명료화 요청 : Excuse me? You what?

TTTTTTT

C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05-1 3-4 학년군 의미협상 챗봇

3-4 학년군의미협상

- 소서도 기반 : 질문 답변 해결책 구조
- 학생이 챗봇의 질문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 갯봇이 더 쉬운 질문으로 재발화

The cost of poor sleep goes beyond simply feeling tiered in the morning. Follow our chart to find quick-fix solutions.



- C: Do you wake up in the middle of night?
- S: I'm sorry . Could you say that again?
- C: Lmean, do you wake up at night?
- S: Oh, yes, I do.
- C: What about te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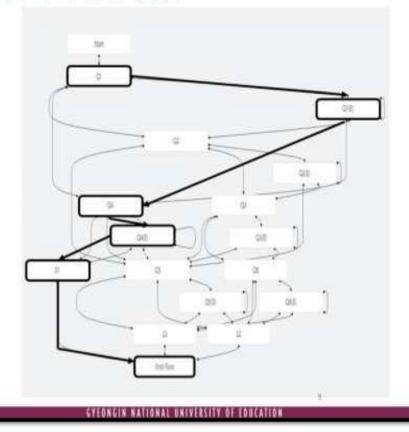
Do you watch TV or your phone in bed?

- S: Excuse me?
- C: Um, do you use phone in bed?
- S: Yes, I do.
- C: I see. Keep tech out of the bedroom.

TTTTTTTT

C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

05-1 3-4 학년군의미협상 챗봇



05-2 5-6 학년군의미협상챗봇

5-6 학년군 의미협상

- 학습자의 표현 오류 → 챗봇의 이해 오류
- 언어간 전이로 인한 어휘 발음 오류: p vs. f
- 그림 속 어휘에 대한 질의응답: 예. coffee
- 1 C: What is in the cup?
- 2 S: There is copy in the cup.
- 3 C: I'm sorry, but I can't see any copy.
- 4 S: Oh, there is coffee in the c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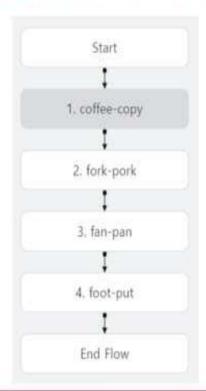
목표어취와예상오류

/f/-/p/: fork-pork fan-pan foot-put face-pace coffee-copy



C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05-2 **5-6** 학년군 의미협상 챗봇



- C: Do you see a table?
- S: Yes, I do.
- C: What's in the cup?
- S: There is copy in the cup. (오류 entity)
- C: I'm sorry, but I can't see the copy.

What's in there?

- S: Oh. There is coffee in the cup. (정답 entity)
- C: Ok. Is there anything next to the coffee?
- S: Yes, there is a fork.
- C: I see.

C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TTTTTTT

05-3 3-4 학년군 형태협상 챗봇

3-4 학년군 형태협상

- 카드 선택 후 대화 상황
- 명사구 수 형태 오류 : two *apple
- 챗봇의 다양한 교정적 피드백

수형태오류유형

- a. 단수 한정사 복수형 명사 : one *apples
- b. 복수 한정사 단수형 명사 : three *apple
- c. 단수 한정사 오류 단수형 명사: *an pear
- d. 복수 한정사 오류 복수형 명사: *much cars

- C: Hi. Pick a card. What do you see?
- S: I see *a apple. (하나 > 모음초성명사 >a?)
- C: Oh, you see an apple. Pick another card.

What do you see?

S: I see a *pears . (하나 > 명사복수형태?)

C: Oh, you see a pear.

Pick another card. What do you see?

S: I see three *orange .(여럿 > 명사단수형태?)

C: Three what? Pick another card.

What do you see?

S: I see *little apples. (가산 >little?)

C: Oh, you see some app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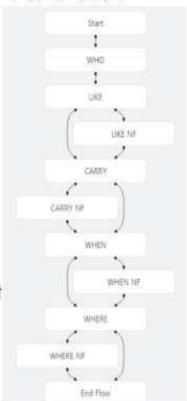
TTTTTTTT

CYFORGIN NATIONAL UNIVERSITY OF FOUCATION

05-4 5-6 학년군 형태협상 챗봇

5-6 학년군 형태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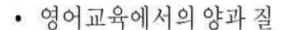
- 친구 소개 대화: 과거, 현재
- 동사 시제 형태 오류:
 - I first *meet him ...
- 2 단계 명료화 요청 :
 - Excuse me?
 - You what?
- 고빈도 학습자 오류 반영
 - 과잉 be 동사
 - 3 인칭 단수 현재형 s 누락
 - 과거 형태 누락



- C: Who is your best male friend?
- U: My best male friend is Kim.
- C: I see. What does he like?
- U: He likes football.
- C: Good. What does he always carry?
- U: He is carry the ball. (오류 entity)
- C: Excuse me?
- U: He carries the ball.
- C: I see. When did you first meet him?
- U: I first meet him three years ago.
- C: Excuse me? (1 Ft 2 CF)
- U: I first meet him three years ago.
- C: Again, I first what? (2 단계 CF)
- U: I first met him three years ago. (하략)

OTTADBOT TO YTIZSTVINU JANOITAN NIDNOTY

06 결론



- 양적 개선책으로서의 챗봇
- 질적 개선책으로서의 챗봇
- 영어 학습, 즉 제 2 언어 습득을 촉진하는 챗봇



07 참고문헌

김재상. (2017). 인간과 인공지능 기기의 상호작용이 EFL 환경에서 초등학생들의 협업적 언어습득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광주교육대학교.

박약우 외 10 인. (2015). 초*통영어교육*, 경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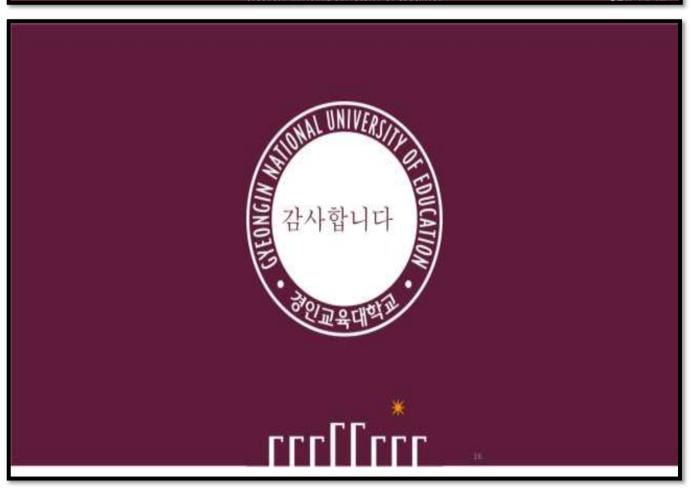
성민장. (2019). 우리나라 초등학교 영어학습자를 위한 순서도 기반 의미협상 잿봇 개발 연구. 초등영어교육, 25 (4), 101-122.

양혜진, 김혜영, 신동광, 이장호. (2019). 인공지능 음성챗봇기반 초등학교 영어 말하기 수업 연구. *말* 티미디어 언어교육, 22(4), 184-205.

이동한, 박상인. (2019). 초등영어교과서를 활용한 영어말하기 학습용 잿봇 제작 방안. 초*등영어교육*, 25(4), 79-100.

r

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troduction

- 정보통신기술(ICT) 용함에 따른 4차 산업혁명은 경제, 문화, 교육 등 사회 모든 영역의 변화를 이끌고 있음.
- . 인공지능(Al: Artificial Intelligence)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이며, 변화의 핵심 구인임.
- . 최근 초등영어교육에서도AI를 활용한 연구 및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AI 첫봇(Chatbot)을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영역에서 활용하기위한 다양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실규남의, 2020, 양체진의, 2019, 윤여점&박미애, 2020, 이용한 &박상인, 2019, 이삭, 2019, 추성업&민리기, 2020, 회원정, 2020, Jeon, 2020).

Introduction

- 현재의 연구들은 초등영어 학습자 대상 말하기 활동을 중심으로 Google 잿봇 플랫폼 Dialog Flow를 주로 활용하고 있음.
- 한편, Al 및 첫봇 관련 기술의 발전 및 확장에 따라 Google Dialog Flow 이외에도 다양한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음(예: Saltlux社 첫봇 빌리)
- · 각각의 첫봇 플랫폼은 그 기능면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함께 갖고 있으며, 특정 플랫폼의 기능에 따라 첫봇 대화 유형 및 구조는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음.
- 이를 기반으로, 본연구에서는 기존 AI 첫봇 연구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첫봇 빌더(by Saltlux)를 활용하여 초등영어 교육용 챗봇을 개발하였음.

Theoretical Back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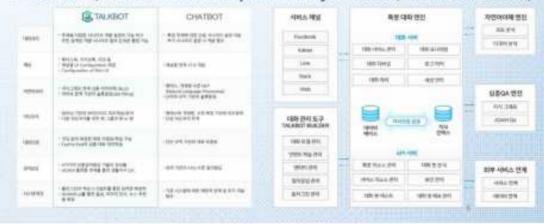
- AI 젯봇을 활용한초등영어교육
- 한생 말하기 활동가 학생 평가 영역에서의 활용이 주로 탐색된.
- 성민창(2019): 의미협상(negotiation of meaning) 과 같은 초등영어 학습차 중요 대화 패턴에서의 첫봇 대화문 개발.
- 이동한 & 박상인(2019): 초등영어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교과서 대화문 기반 쩟봇 제작 방향성 제안,
- 이 삭(2019): 게임활동 기반 잿봇 활용 말하기 과업이 6학년 학습자의 영어 말하기 능력과 정의적 영역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밝힌.

Theoretical Back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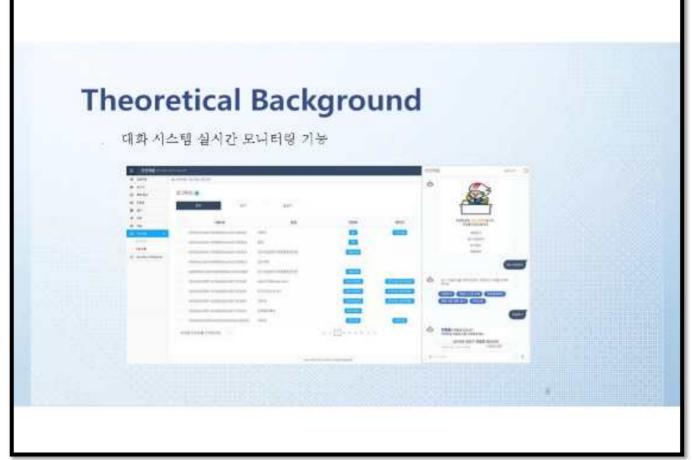
- Al 잿봇을 활용한초등영어교육
- 추성엽 & 민덕기(2019): Al 잿봇을 활용 짧은 대화, 정보차 활동, 문제 해결 학습에서의 초등 6학년 학습자 지속적인 영어 발화 관찰
- 최원경(2020): 초등 3학년 학습자 대상 퉷봇 활용 말하기 과정중심 평가를 적용하여 가능성과 한계점 탐색
- 심규남의(2020): 5개 과업 중심의 초등학생 대상 영어 과정중심 평가 도구를 젯果으로 개발하여 향후 일반화 가능성과 한계점 탐색
- 학습자학년 및 영어 수준에 따른 세분화된 첫봇 개발의 필요성이 공통적으로 제안됨: 기존 연구의 제안점을 반영한본 연구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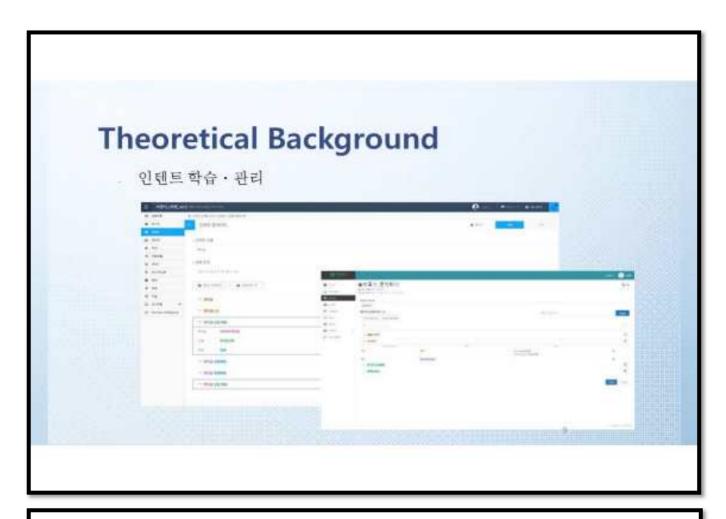
Theoretical Back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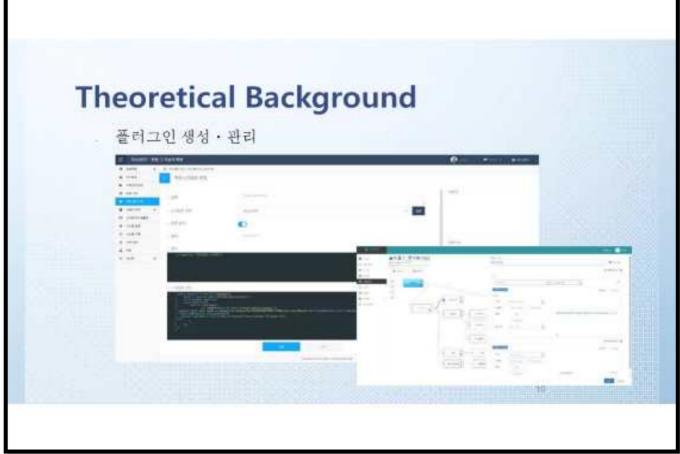
- Saltlux 잿봇 빌더의기능 및 초등영어 적용 가능성 (Al as a Service(AlaaS)
- ADAM.ai(Architecture development analysis model, 구조발전분석모델)











Methods

- . 연구 참여자: 현직 교사 3명
- . 연구기간:2개월
- 4개 출판사 5종 교과서 3-6학년 교과서 담화 코피스 구축 및 주제 분류
- 3-6학년 교과서 담화 기반 주제에 따른 말하기 5개 대화 형태 유형화
- . Saltlux 잿봇 빌디 구축 가능성 파악을 위한 퐛봇 설계 방안 검토(대화 알고리즘 개발 및 대화 시나리오 구축, 잿봇 단위 테스트 등)
- . 주제, 어휘, 해심문장 고려 모든 교과서에서 공통 사용 가능한 대화문 개발(예: 3학년-좋아하는 것 묻고 답하기-5개 유형-새로운 대화문 개발)
- 잿봇 구축 매뉴얼 작업 및 개별 잿봇 제작 사용자 사용 방안 검토(진행중)

12

Results and Discussions

3-6학년 교과서 담화 코퍼스구축 및 주제 분류 결과



<그림 1> 3 학년 천재 (함) 대학문 코퍼스





< 그림 2> 5 학년 YBM(화) 대화분 코퍼스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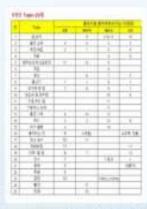
3-6학년 교과서 담화 코퍼스구축 및 주제 분류 결과

| Section | Sect

<그림 3> 5 등 교과서 기반 3-4 학년 대화 주체 추출 결과

Results and Discussions

3-6학년교과서담화 코퍼스구축 및 주제분류결과



		WHITE BRIDE					
		-			-		
	THE RESERVE	. 16		. 19		- 14	
	82	185	-	/年末	100	#5	
	811	76	-00	1.0%	- 10	- 18	
-	8.04945	.10	-86-1	.16	. 10	180	
	4411		20	19	3/0	14	
+	4.6	100	-	100	178		
	44.81977	18	75.	39.78	55.55	_11	
	10181201	100	-	188	10.1	15	
1	100 40		-		-		
Ξ	49.61955	- 0-			-	-00-	
7	40 \$1000	- m	17				
-	1985	11.1		- 8		- 14	
	22.6100-1		34		10.00	18.7	
	\$100° \$100°		-		-	-	
÷	01.46	110			-		
	91.11	145	7.		7		
-	456.60	44	44				
8	Anna Anna			20.16			
ŝ	STICKIST		-75	118			
_	200 B T 12 B 1			Adm			
	\$1 6mm #1	-					
×	8.0	140 160					
	9.7	1.0					
	45	1.0	-				
						-	

< 그림 4> 5 중 교과서 기반 5-6 확년 대화 주제 추출 결과

선정된 5개 대화 유형에 따른 잿봇 개발 결과

프로젝트디	도리 세팅
디렉토리	목봇생성
Prototyping	프로토타이핑 폭봇 입력
3학년	3학년등 특美
4박년	4吋巴带 粤美
5박년	5학년등록분
6학년	(取证金 馬萊
목봇 명명균칙	
규칙	TB_학년[2자리숫자]_레슨(2자리숫자]_타입(2자리숫자]_임련변호(3자리숫자)
메시	TB_06_01_01_001

Results and Discussions

3-6학년 교과서 담화 기반 5개 대화 유형

유령	특징
Type 1	- 모범 용장 때리 말하기 (1) 체하다가 교계의 대표 운장을 먼저 무시 (2) 문제가 대부팅으로 따라 말하면, 씨당 문장의 합학도를 판단 (3) 문제의 대한 말하면 (A) (4) 한번의 새건당 R-제에 문장으로 구성
Туре 2	- 모면 대학 1년 합하기 에시분 대화 안승 (1) 개혁대가 대한 시작 (2) 용권기 대답할 적립한 예약을 2가지 까지 (3) 동권기 때 잘 해가의 예약을 따라 합하면, 해당 변합의 철확도를 전단 (4) 결작점 할테거나 목초 인쇄표/현대리가 적합하면 CK (6) 한편의 세건은 1~4개 환경으로 구설
Туре 3	- 오병 대화 1단 남하기 대화 연습 (1) 계획대가 대화 시작 (2) 용제가 중당, 배상 보답의 호박비를 받당 (4) 원병료/캐리리가 학화하면 아니 (5) 환점의 세상당 2-4개 문화으로 구설
Type 4	- 모병 대회 1번 이미지 제시 대회 안습 (1) 개박(대기 변자 대회 시작을 <u>이미지의 함께 모부</u> (2) 목사가 높당, 해당 변강의 경화되를 만당 (4) <u>인제로 개막(대) 기</u> 기계 전 (5) 원전의 제안된 구·4개 원장으로 구성
Туре 5	- 주제별 3-4인 대학 만습 (1) 폭보의 주체에 받는 일본 제시 (2) 독자가 1년째 종말 (2) 독자 중말에 기만한 제 호텔(포트 서로운) 전병 (4) 독자 전쟁 종말에 경망한 대한 (5) 전투인 항상

3-6학년교과서 담화기반5개 대화유형개발기준

유형	기준
Type 1	- 주제가 들어간 교과서 단원에 나오는 문장 중, 모범문장 - 6문장(3, 4학년) - 8운장(5, 6학년)
Type 2	 주제가 들어간 교과서 단원의 정문과 대답의 3개 대화 세트선별 질문에 맞는 교과서 기반 유전 3개 선택 답변 추출 3세트 6분장(3, 4학년) - 4세트 8분장(5, 6학년)
Type 3	 주제가 들어간 교육서 단원의 질문과 대답의 3개 대학 세트선별 유격 답변 미제공 3세호 3문장 질문(3, 4학년) - 4세호 4문장 질문(5, 6학년)
Type 4	 주제가 들어간 교과서 단원의 질문과 대답의 3개 대학 새트선별 대학 상황에 맞는 자세한 이미지 구현 3세로 3문장 질문(3, 4학년) - 4세로 4문장 질문(5, 6학년)
Type 5	 주제에 맞는 작언스러운 대화 유도를 위한 대화 세트선별 Type 1~4에 나온 문장 최대 반영한 질문과 대답 추출 3세트 6분장(3, 4학년) ~ 4세트 8분정(5, 6학년)

Results and Discussions

름)

1	Minute that AN GIR \$45/1 - Minute that	Translet (EA 60) \$450 • Translet	Wentief (\$4.50 \$4.7) + Work half	The clock (\$10 mit \$157) > Fixe texts	Male the Table (E-P) Table (Self) (1 Halls (to Table)	Most Yeard. (\$4) N/L STATE + Worl Yeards.
	Minute Wast	What's mart	Phillip, Fon Tubes			
2	おりで味音形 + 1. ff x A redort + 2. ff x x redort dog + 2. ff x x redort dog	計号 世明 遊覧) × 1. Uh a beg → Z Us a book. × 3. H's a top.	## htt 2018 205 + 1, Peelle, Fre Toles: + 2, 16, Fre Deeld, - 3, 65, Fre Dolos.			
	What's this?	Wark this?	Helis //w Toba.			
	+ 용자 자유 일반	- 유지 자유 당선	+ 유제 작유 답변			
1	Sent and other sets (set that sets and only	\$500 NOT 2500 920 HAX REPORT \$60	Mile to Max to All to deligate party has			
	195,76.55	C RPL 10 R TOT	- 具有有异型的			
5	Name 1 to Color The Color Color Shart Service The Color Color The Color Color The Color Color The Color					u

선정된 5개 대화 유형에 따른 잿봇 대화문 개발 - 4학년 샘플(주제: 위치)



1	Miles are plu from? (2.15 Note (2.657) - Where are pos from?	in from Gree. 信用 电子 留下行 > Tre from Kores	What is your name! (百年年年 第年刊) >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falls. 提利 時代 雷斯門 -My spine is falls.	The is just get your specif (CN 100 NNC) - No is you gif you seed	How sid are you? 信书 符音 集饰行; + How old are you?	Wer to meet you. [유리 다른 함께 구] - New to meet you	Pare a good by: 클릭 따른 중인기: > Have a good da
2	Where we you tree! (2.5) 25% \$10; 1.5 the force China 1.5 the force for LS, 2.5 the force forces.	What is poor name? (\$71 (197 \$50) • 1. Ny name is foods • 2. My name is food. • 3. Ny name is food.	The State and parties." \$45.2% \$10. -1.35.65568 -2.35.6521 -1.35.6531	Non-still are year? yilding the bigs; > 3, for han year still > 2.75 disease years still > 3.76 for large years still				
3	Where are you from? + 유지 자유 장면	What is your name! + 유저 자유 답변	How do you spell your mete? > 유지 자유 답변	How did are you? > 유리 자유 답변				
4	Menorycle/ (0078.8255-5353a - 58.9255	Male you beneft show TESB & FLE Do List Eq. - ER TES 22	The SE yes said year named from T-BIHS # PLA SS; 1400 BINS - BIN T-BIHS	12 1 1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5	146			The state of the s				

선정된 5개 대화 유형에 따른 잿봇 대화문 개발-6학년 샘플(주제:새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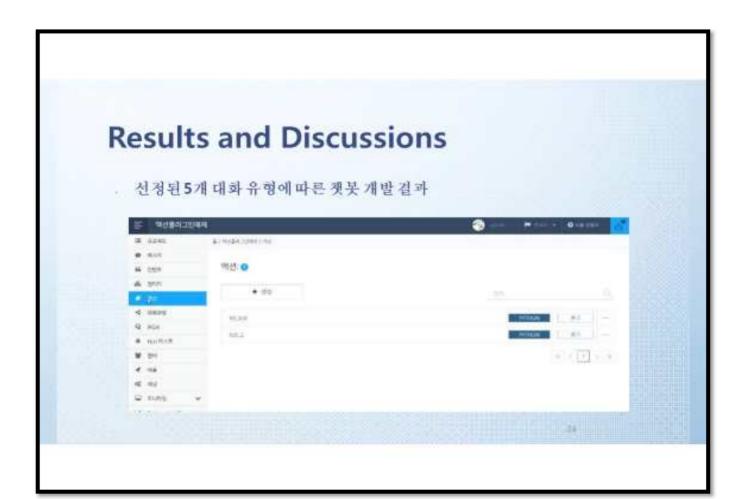
T1	Wat gails are you of gift Gib \$1076. I What gails are you in?	no in the self-grade. (\$16.100 \$20.7) a fine of the self-grade.	Were is your classocard (\$10,000 \$167); • Where is your classicant	Fit on the third floor. (\$4.60; \$10.7); • Its on the final floor.	Wat data proper in (62 Styl State) • What data proper in	In the proper (BR GB \$17); • In in fer at (M)	Felts Territor Territorion. SERT RESIDENT A religion of the colour.	N in Repr. In North 公 信任 名為 董有河 + K in Waye. In har No ()
T2	What you as one of give you green a filter the bank years a filter the self-years but a filter the self-years but	Miles & son - Security (Sec.) 5.11 on the sound flow 5.17 on the Bod flow 5.17 on the Rich Ed.		Adding the Technological plainty \$250 or 1 of the Page 10 for the \$1 or 1 of the Bage 10 for the \$1 or 1 of the Bage 10 for the Sales of the Technological Addings.				
ТЗ	What gade are you in? • BR RB DB	West is your classicism? - 용격 귀를 답변	स्मित्र (his at you're' + होते में के डिस	ers for participations = 8.8 kB SE				
T4	## pat er year #2004 # \$1000 \$40 # \$1000 \$2	Remopulational RESINERSPENSES + RESINERSPENSES	May 200 pp. 17 m; pay 304 pp. 10 last Sout 80 58 109 last 3 0210 60 7 EU 02 24	NOTE OF THE ORIGINAL PROPERTY OF THE PROPERTY				
T5	of Well and comment of the property of the pro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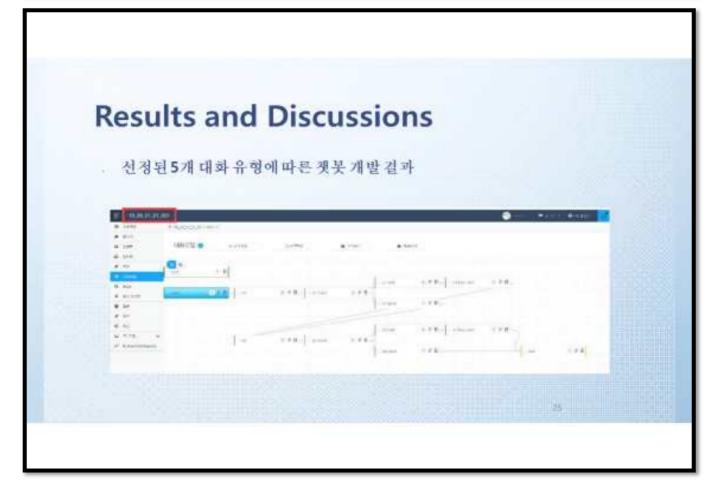
Results and Discuss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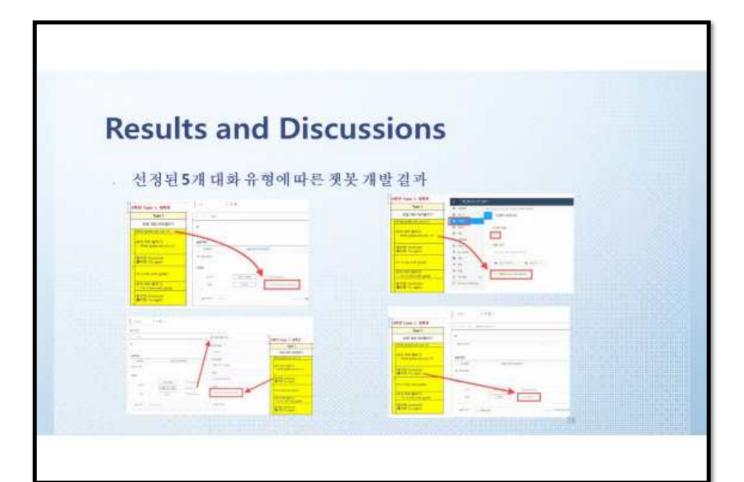
선정된 5개 대화 유형에 따른 잿봇 개발 결과



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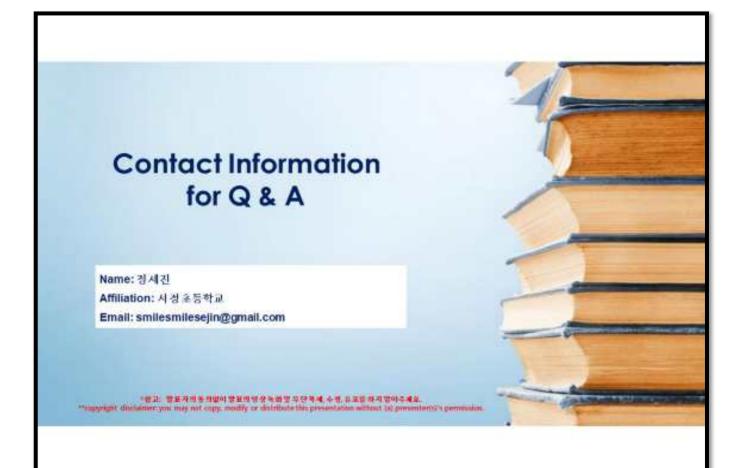
Conclusion

- 3-6학년 교육과정 및 교과서 기반 언어 기초 데이터 베이스 구축으로 다양한 접근에 따른 연구 • 개발에 활용 가능
- . 개별 교과서에 기반한 잿봇 구축의 경우 생기는 양척 작업량의 증가와 개인에게 부여되는 작업 부담을 대폭 축소함
- 인공지능 잿붓과 콘텍스트 기반 멀티 턴 대화 단계에 이르도록 사전 말하기 학습 단계를 기초부터 화자 선택 확장도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구현
- 2000개의 개별 대화 잿붓 구축으로 학습자 수준에 따라 최적화된 쯧붓 학습 설계를 다양하게 책용 가능
- 구축된 첫봇을 사용하여 인공지능이 장확된 다양한 4차산업혁명 기술 척용 영어 말하기 학습 프로그램에 연동 사용 가능
- 이후 첫봇 구축을 위한 입력 작업과 구축된 잿봇에 대한 사용자 레스트 전행 예정

References

성민장. (2019). 우리나라 초등학교 영어력습자를 위한 순서도 기반 의미협상 켓봉 포발 연구, 초*등영어교육, 25* (4), 101-122. 임규남, 외, (2020). 시 켓봉 매계 초등영어 과정중심 평가 과업의 개발 및 적음. *일어필기, 15* (3), 41-61. 양해간 외, (2019). 인공지능 음성켓봉기반 초등학교 영어 말하기 수업 연구. *범리미디어 언어교육, 22* (4), 184-205. 용어댐, 막미애. (2020). 인공지능과 초등영어교육, 켓봉의 현황과 발간 방향을 중심으로, 한국초를교육, 37 (4), 77-90. 이동한, 박상인. (2019). 초등영어교과서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학습을 첫불 제작 방안. 초등명식교육, 25 (4), 79-100. 이삭, (2019). 게미피케이션, 기반 시 켓봉 활용 수업이 초등학생의 영어 말하기 수행 및 정의적 행의에 미치는 영향. 초등영어교육, 25 (3), 75-96.

최원경, (2020), AI 첫분을 필요한 초등당이 과정중심 말하기 평가: 가능성과 한제, 고등향약교육, 26 (3), 131-152. 추성업, 인덕기, (2019), 영어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과접 기반 AI 첫봇 활동 및 학생 발회 문석, *초등양약교육*, 25 (2), 27-52. 추성업, 민덕기, (2020), 자연어 물짓 및 AI 첫봇을 활동한 호등당이 어휘병기 자동화 달고리를 개발 연구, *초문양약교육*, 26 (2), 55-80.



목적지향형 AI 챗봇 활용 초등 영어 말하기 학습 및 평가

추 성 엽 (서울천호초등학교)

Agenda

- 01 AI 활용 영어 말하기 학습 및 평가 소개
- 02 영어교육에 활용되는 AI 기술
- 03 AI 챗봇을 활용한 영어 말하기 학습 및 평가 사례

Al 활용 영어 말하기 학습 및 평가 소개

교사 VS 인공지능

충북 사직조등학교, AKA 영어학습 AI 로봇 '뮤지오' 도입

CREATIVE CHARLESTON CONTRACTOR

1 경건 학안 사람으로 이를 되었다. 교육 공항 도로, 중검에 영어 중인는 제기가 된 것



DESCRIPTION PROVIDES

에 가르네이데(MA)가 중요 아이프트학교의 유지로 약을 교리자에는 처음하여 가나 교육 시점 에서 집지를 보여지고 있다.

전공자(SAN) 학습으로 역자(Albania) 개발시한 구성보다 여자에(GOO)에서 여자가 지구 구 등 또, 숙합교에 GOO HIZ 중앙에도 서학주관학교(GO) 제품 공급계약 개발 소식을 받다면 역 내 교육 사회에서 학교를 낳아지고 있다.

출처: 정한영 기자, 인공지능신문

(http://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6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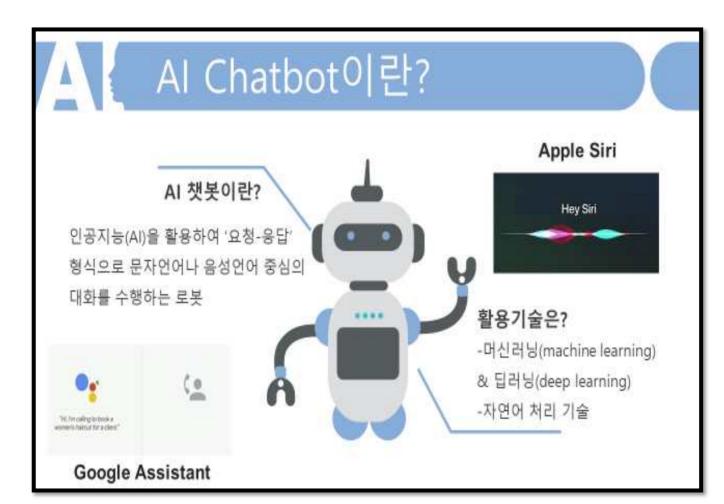


제주 금악초도 아카 영어교육용 AI 로봇 '뮤지오' 도입



물저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2063700848?input=119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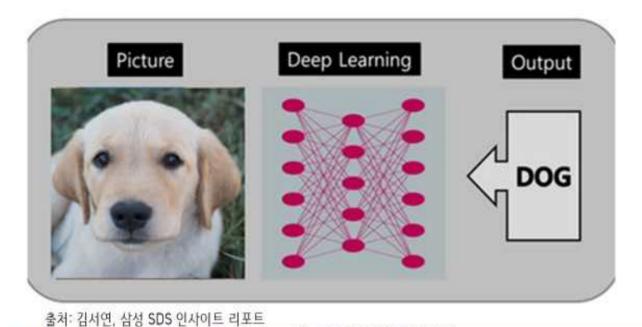


A AI와 교사의 협업 잿봇: Hi, what grade are you in? 잿봇: Can you say that again?(fallback) 잿봇: You're in what?(prompt) 사람: I'm in the 6th grade.

영어교육에 활용되는 Al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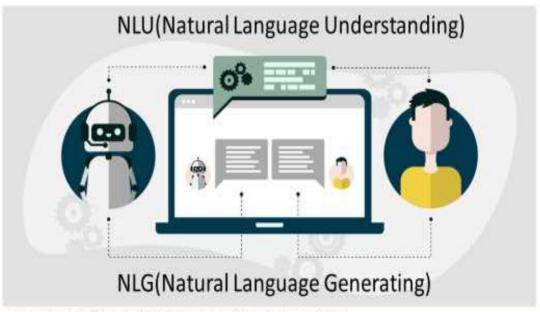


머신러닝? 딥러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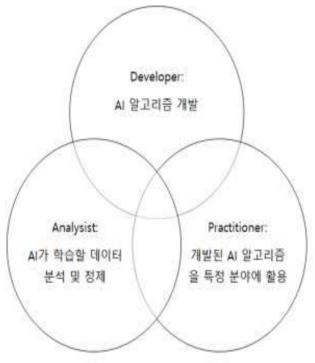
(https://www.samsungsds.com/global/ko/support/insights/1196843_2284.html)

자연어 처리?



자료 제공: https://aliz.ai/natural-language-processing-a-short-introduction-to-get-you-started/

AI 전문가의 3가지 분야



△ AI와 교사의 협업

Al

-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 가능
- -단순 반복형 작업의 정확한 수행 가능
- -데이터를 능동적으로 구축하지 않음





- -개방형 환경에서 축적된 경험
- -복합적인 영역에서 간학문적으로 유연한 판단 가능
- -데이터를 능동적으로 구축함.



Al 챗봇을 활용한 영어 말하기 학습 및 평가 사례

A

AI 챗봇 활용 학습 과업 계획서

		활동 1							
	받의	પાક		스제폰딩(scaffolding)					
	표현 주제	표현 사례	막생	활동지	시작자료	설명	예 시	신체표현	
	물건 찾기	a cup/a bag 통							
	물건의 위치	on/under/in							
학습 과정 정권	설명하기	the bed/the							
	물건 주인 찾기	Brian's/John's							
	스처를당 에서: 활동지: 학습활동자의 그림을 자세히 관찰하도록 지도 시각자료: 날말 카드 또는 그램 자료 제시 설명: 지시대명사자 없을 때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의미의 모호성 설명 에서: 묘사하는 표현과 관련된 다양한 에서 제공 ex) He has short curby bair, and he is wearing a blue parts 등 신재표현: 포현과 관련된 몸짓을 교사가 표현								

A

AI 챗봇 활용 평가 계획서

평가 목표	• 식당에서 좋아하는 음식을 묻고 답하며, 음식 주문에 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영 역	듣기	말하기	기 읽기 조기		평가 방법	관찰 평가	
8 4	0	0		0	평가 대상		재인
준비물	* A[A]	되게, 학습기	학습지(상황그림) 과업 유형 역활높이			역활높이	
평가 관점	100000000	용아하는 음식을 묻고 당할 수 있는가? 식당에서 음식 주문에 관한 역할을 맡아 수행할 수 있는가?					
		평가기준					
	中意	ž	Pallback intent 제공 횟수		Prompt 제공 횟수		과제 해결
	관* (성	75.00	2회 이하 제공		28	이하 제공	4개 이상
맹가 기준	보:	500	3회"5회 제공		3회"5회 제공		27374
	노력: (8	1000	6회 이상 제공		6회 이상 제공		1개 이하
	4.4 (2.17.11)	네: 6~9점, 보통 기술 추가	5~8점, 노	-력요함:	4점 이하		

△ : 언택트 영어 말하기 학습 절차









- 이 4 학습 안내
 - 목표표현과 학습활동 안내
- 03 AI 챗봇 접속 방법 및 대화 시범 영상 탑재
 - 온라인상으로 AI 챗봇으로 접속할 수 있는 방법(QR 코드, URL)과 AI 챗봇과 대화하는 전체적인 시범을 보이는 영상을 탑재하여 학생이 참고 가능

- 🕦 🤿 해당 단원 목표표현 학습
 - E학습터를 활용해 동영상 콘텐츠로 교과서 내 영어 목표표현 학습
- ↑ / AI 챗봇과 영어 말하기 학습

목표표현을 활용하여 교과서에 있는 영어 말하기 짝활동을 AI 챗봇과 수행하고 교사는 E학습터 진도율 확인과 Dialogflow API의 History에 기록되는 전사자료를 통해 학생의 학습수행 양상 파악



코퍼스(Corpus)

분과장: 홍신철(부산외대)

분과주제: Trinity Learner corpus and BUFS Learner corpus

발표 제목	발표자
트리니티 학습자 코퍼스와 부산외국어 대학교 학습자 코퍼스	홍신철(부산외대)
Data compiling criteria for BUFS learner corpus	Heajin Suh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rinity Lancaster Corpus 내용 및 사용방법	황현미(부산대)

트리니티 학습자 코퍼스와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습자 코퍼스

홍신철(부산외국어대학교)

서론

부산외국어대학은 2019년에 시작한 "대학혁신지원 사업"을 일환으로 Language Pathfinder (LP)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부산외국어대학의 외국어 교육 혁신을 위해 Common European Frame of Reference (CEFR) 모텔을 학생들의 외국어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외국어 표준학습주기 모델 개발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으 로 부산외국어대학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습자 언어 데이터를 수집하여 학습자 코퍼스(BUFS Learner Corpus) 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존의 TOEIC들과 같은 평가 체계를 대학의 외국어 교육에 적용하는데 현실적인 한계와 영어 중심의 외국어 교육을 벗어나 중국어 일본어와 같은 다양한 외국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표준화 된 평가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LP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LP 프로그램의 핵심은 외국어 평가에 적용되고 있는 서로 다른 체계를 국제적으로 공인된 체계로 표준화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원화된 평가 체계 의 도입과 더불어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코퍼스로 구축하여 다양한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에 활용 할 수 있어 2020년 LP 프로그램에 BUFS Learner Corpus(BLC) 구축이 도입되었다. 1차 년도(2020년) 계획 은 영어를 중심으로 개발 되고 2차 년도(2021년)는 일본어 중국어가 추가로 도입될 예정이다. 기존의 학습자 코퍼스의 경우 다양한 모국어를 기반으로 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영어(English as Foreign Language) 를 ICLE (International Corpus of Learner English)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구축되었다(Granger, 1997). 한국에서도 ICLE에 한국인 학습자 코퍼스¹¹를 구축하여 참여하고 있다. ICLE 코퍼스가 학습자 언어 연구에 공헌 한 것은 사 실이지만 논쟁적인 에세이중심의 문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구어 중심의 학습자 언어를 연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현실적인 한계를 Lancaster 대학을 중심으로 학습자들의 구어를 기반으로 Trinity Lancaster Corpus (TLC)를 구축하므로 다양한 모국어를 가진 학습자들이 어떻게 언어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지 분석하는데 의미 있는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다(Gablasova, Bresina, & McEnery, 2019). 코퍼스 관련 연구에서 주로 문어 기반으로 언어데이터가 구축되고 구어 기반이 어려웠던 이유는 대화를 통해 전달 하는 정보를 문어 와 같이 문자 정보만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다양한 주위 상황이나 정보를 반영해야 했고 특히 소리를 높낮이 나 억양들을 통해서도 교환하는 정보를 코퍼스로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외국인 학습자 들의 경우 원어민들의 대화와 달리 Interlanguage로써의 특징인 에러나 언어구사 능력에 따른 언어의 변화 등 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구어 중심의 대화내용을 코퍼스로 구축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이러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외국인 학습자의 구어를 연구하는 것은 이들의 언어사용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할 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의미 있게 활용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Gries, 2015). 기존의 학습자 코퍼스 구축에서 자장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진 것이 바로 학습자들의 언어 구사능력 수준인데 가장 많이 인용되고 사용되는 ICLE의 하위 코퍼스들의 경우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학습자 수준을 적용하여 구축되지 않아 분명한 한계로 지적 된다. 더욱이 ICLE에서 학습자들의 구어를 기반으로 구축된 Louvain International Database of Spoken English Interlanguage (LINDSEI)의 경우도 "Advanced" 학습자들을 중심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 이들의 언어구사능력에 따른 언어사용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Aijmer, 2009; Brand & Susanne, 2006). 반면, TLC의 경우는 CEFR 기준을 적용하여 학습자들의 언어구사능력을 표준화 하고 있어 기존의 ICLE 계열의

11 ICLE 한국인 학습자 코퍼스: https://uclouvain.be/en/research-institutes/ilc/cecl/learner-corpora-around-the-world.html

LINDSEI 보다 학습자들의 언어 구사 능력에 따른 언어사용의 변화를 표준화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는 BLC 를 구축하는데 TLC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므로 구어 기반의 학습자 코퍼스들 간의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는 지속적으로 표준화하고 동일한 학습자 코퍼스 구축 기준을 적용하여 다양한 학습자 코퍼스를 비교 분석할 수 있고 효과적인 관련 연구가 가능하게 된다(Leech, 1998). 따라서 이번 2000 KATE_sig를 통해 코퍼스 분과에서는 부산외국어대학에서 구축하고 있는 구어 학습자 코퍼스 (BLC)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TLC과 어떠한 유사성과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소개 하고자 한다. 더불어 온라인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는 TLC Hub¹²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용법과 특징도 소개하고자 한다.

Trinity Lancaster Corpus (TLC)

TLC는 2012년부터 2018년도 까지 Graded Examinations in Spoken English (GESE)를 기반으로 구축 되었는데 영국의 Lancaster University 의 Centre for Corpus Approaches to Social Science (CASS) 와 Trinity College London의 International Examination Board의 협업으로 이루어 졌다.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의 구어를 기반으로 약 4.2 백만 단어 규모의 크기로 구축이 되어 있으며 원어민 교사와 외국인 학습자들 사이의 대화를 중심으로 되어있다. TLC에 참여한 학생들은 11개의 주요국가와 다양한 모국어를 사용하는 약 20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 하였다. 특징적인 부분은 학습자들의 수준에 따라 각각 다른 과업을 제시하여 이들이 구사하는 언어를 데이터로 구축 하였다(Table 1).

학생 수준 과업 종류
상급 (C1~C2) Presentation, Discussion, Interactive task, Conversation
중급 (B1~B2) Discussion, Interactive task, Conversation
초급 (A1~A2) Discussion, Conversation

Table 1. 학생수준에 따른 과업 종류 (TLC)

이와 관련해서 LINDSEI의 경우를 보면 자유토론과 사진 설명 등과 같은 과업 종류를 사용하고 학생들의 수준은 전체적으로 상급(Advanced)자를 중심으로 구축하였다. 학습자들의 언어구사능력을 파악하여 이들이 외국 어를 습득하고 사용하는 유의미한 정보를 얻기 위함이라면 구어를 사용하는 과업이나 상황 그리고 구어의 언어학적인 특징을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구어 코퍼스를 사용하는 핵심적인 이유이다(Leech, 2000).

TLC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구어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업의 대표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 이외에 다양한 학습자 및 대화 상황에 관한 다양한 정보(Meta data)를 제공하고 있다. 참여한 외국인 학습자들의 정보를 12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고 이들을 인터뷰하고 대화에 참여하는 원어민들에 관한 정보도 같이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의 학습자 구어 코퍼스가 한계로 지적을 받던 대표성과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학습자들의 표면적인 특징인 모국어 이외에 사회언어적인 특성(교육수준), 학습경험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기존의 구어 학습자 코퍼스에 비해 학습자들의 언어사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므로 실질적인 구어사용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효과적이다.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TLC의 경우는 온라인 기반의 플랫폼에 8가지 영역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Concordance, gender, age, proficiency, country L1, speakers, summary, resources. 자세한 사용 설명과 개별 특징은 이후 황현미 교수님의 발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_

¹² TLC Hub: http://corpora.lancs.ac.uk/trinity/search

BUFS Learner Corpus (BLC)

부산외국어대학의 학습자 코퍼스는 학생들의 언어수준을 표준화(CEFR)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언어교육 프로그램(Language Pathfinder: LP)의 개발과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문어 기반의학습자 코퍼스의 경우는 ICLE의 한국인 학습자코퍼스 구축에 부산외국어대학의 상급수준의 학생들이 참여했고이를 활용하고 연구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들의 구어 기반의 연구는 이번에 개발 하는 LP의 일환으로 약1,000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약 1백만 단어 규모의 학습자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코퍼스구축 기준(Corpus Building Criteria)은 TLC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한다. 현재의 TLC의 기준은 GESE 시험에참여한 한국인 학습자 혹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들의 구어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규모와 다양성의 측면에서 부족 할 수 도 있어 이번 BLC 의 데이터와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되어 데이터가 TLC와 어떻게 공유 될 수 있는지는 추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동일한 기준으로 구축된 데이터는 상호 보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현재의 영어 중심의 학습자 데이터 구축을 중국어와 일본어로 확산 시킬 수 있어 학습자들의 실제 언어사용을 기반으로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 학생들의 언어수준은 TLC 의 경우 CEFR B1~C2 수준의 학생들의 중심으로 했다면 이번 BLC 의 경우는 A1~B1 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2020년 3월부터 12월 까지 College English I, II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BLC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과업의 종류는 TLC의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일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이후 발표할 서혜진 연구원께서 설명할 예정이다. BLC의 활용방안은 TLC의 것과 유사한데 우선 개별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컴퓨터 앱을 이용하는 빙식이 아니라 온라인 기반의 플랫폼을 중심으로 제공할 예정으로 LP의 플랫폼과 공유할 예정이다. 따라서 부산외국어대학교의 교수들과 연구자들은 LP에 접속하여 자신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언어사용 패턴이나 특징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수업 설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특히 LP는 단순히학습자 코퍼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아니아 학생들이 CEFR 기반의 수준을 평가 할 수 있는 Proficiency test의 성격과 Placement test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학습자 언어 데이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론

2020년에 시작한 부산외국어대학의 학습자 코퍼스 구축 사업은 기존의 많은 대학에서 학습자 중심의 외국어 교육과 자기주도적인 교육을 표방했지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적용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코퍼스 언어학을 기반으로 언어 데이터를 활용한 교수법 개발과 연구를 활용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현실은 문어중심의 학습자 코퍼스가 주를 이루고 있어한국인 학습자들이 대상이 되는 외국어 (Target Language)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분석하고 연구하여 환류 체계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LP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BLC 구축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실적인 데이터 기반의 학습인 DDL (Date-driven Learning)를 적용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각 대학 중심의 외국어교육으로 학생들의 언어 구사능력과 수준이 달라표준화된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제한적 이었지만 국제공용기준인 CEFR 기준을 적용하므로 학생들의 수준을 표준화하고 다양한 언어 외적인 요인을 제공하므로 학습자들의 실질적인 언어구사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TLC와 같은 구어 학습자 프로그램과 공유할 수 있어 그 활용범위가 넓다. 지금은 1차년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향후 다양한 외국어 구어 학습자 코퍼스를 구축하게 되면 데이터 기반의 실질적인 외국어 교육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Aijmer, K. (2009) "'So er I just sort I dunno I think it's just because...': A corpus study of I don't know and dunno in learners' spoken English". In Andreas H. Jucker, Daniel Schreier & Marianne Hundt (eds) *Corpora: Pragmatics and Discourse. Papers from the 2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glish Language Research on Computerized Corpora* (ICAME 29), Ascona, Switzerland, 14-18 May 2008 (pp. 151-168). Amsterdam: Rodopi.
- Brand, C. & Susanne K. (2006) "The Louvain International Database of Spoken English Interlanguage (LINDSEI): Compiling the German component". In Sabine Braun, Kurt Kohn & Joybrato Mukherjee (eds) *Corpus Technology and Language Pedagogy: New Resources, New Tools, New Methods* (pp. 127-140).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 Gablasova, D., Brenzina, V. & McEnery, T. (2019). The Trinity Lancaster corpus. *International Journal of Learner Corpus Research*, 5(2), pp. 126-158.
- Granger. S. (1997). Learner English on computer(ed.). London: Longman.
- Gries, S. Th. 2015. "Some current quantitative problems in corpus linguistics and a sketch of some solutions". *Language and Linguistics* 16(1), 93–117
- Leech, G. 1998. "Preface. Learner corpora: what they are and what can be done with them". In S. Granger (Ed.), Learner English on Computer. London: Longman, xiv–xx.
- Leech, G. 2000. "Grammars of spoken English: New outcomes of corpus-oriented research". Language Learning 50(4), 675-724.

BIODATA

Shinchul Hong is an associated professor of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BUFS). He earned his Ph.D. in Linguistics from Lancaster University in UK. His research areas are Corpus Linguistics, Applied Linguistics, and web-base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program development. He is a director of Dept. Foreign Language Education at BUFS and in charge of developing Language Pathfinder Program at the moment.

Email: garstangZ@bufs.ac.kr Phone: (051) 509-5565

Data Compiling Criteria for BUFS Learner Corpus

Heajin Suh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ata Collection

(1) Recording 1: Cambridge exam sample test

• How : BUFS e-class 시험 기능

• When: 2019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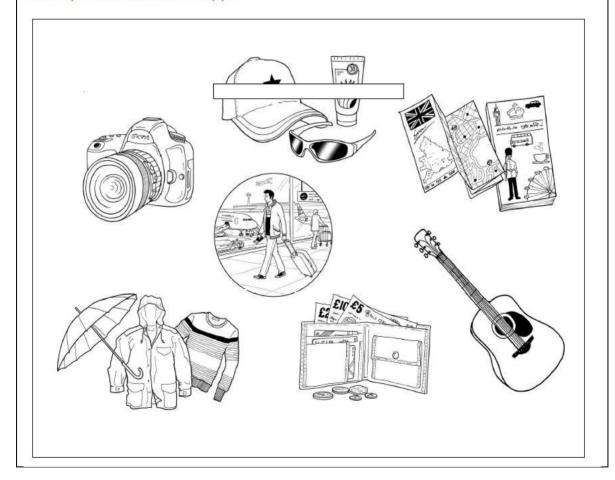
• Who: 부산외국어대학교 1학년 교양영어 수강생 • What: Cambridge exam에서 제공하는 sample exam

Cambridge exam speaking test for B1

Question 1

A young man is going to visit a **city** for the **weekend**, but he **doesn't** enjoy **sightseeing**. Talk about the different things he could do in the city and say which would be most **fun** for him.

Here is a picture with some ideas to help you.



(2) Recording 2: 영어 교수자와 학생의 1대1 인터뷰

• How: face to face interview or zoom interview

• When: 2019년 12월

• Who: 부산외국어대학교 1학년 교양영어 수강생

• What : TLC task

Speaking task	Description	timing				
	Presentation: 스스로 선택한 주제에 대한 학생의 발표					
	The presentation task is based on a topic freely chosen and prepared by the L2 speakers in advance, allowing them to select a topic they are familiar with and interested in. The task represents formal to semi-formal monologic speech, with the examiner providing back-channelling throughout the task.					
1.	0 Discussion : 발표에 대한 교수 질문으로 시작					
Presentation + Discussion	The presentation is followed by the discussion task, in which the examiner begins by asking about ideas and information expressed in the presentation In the lower grades (B1 and B2), which do not include the presentation, the candidates introduce their topic briefly and the discussion proceeds from there.	5분 이내				
	The task is highly interactive with both speakers actively contributing to the conversation and with the L2 speaker usually being in the position of an expert on the topic.					
	① 일반적인 주제에 대한 학생과 교수의 상호작용 : 교수의 Prompt 제시로 시작					
2. Interactive task	This task starts with a prompt from the examiner, often presented as an issue of personal relevance or interest. Examples (3) and (4) illustrate typical prompts used in this task. (3) "I haven't heard from a friend of mine who lives in Australia and I'm beginning to get a bit worried." (Grade 7, B2 level) (4) "Some people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like the people you work with. I'm not sure how necessary this is." (Grade 11, C1 level)	5분 이내				
	This task requires the L2 speaker to show initiative in maintaining the conversation by asking questions, commenting on what was said and by providing opinions and advice. The L2 speaker is proactive in leading the conversation using a range of means such as asking questions and offering their own experience as well as a broad range of pragmatic devices for managing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this interaction (e.g. discourse markers such as <i>I think</i>).					
	0 일반적인 주제에 대한 학생과 교수의 대화 : 교수의 질문 으로 시작					
3. Conversation	The L2 speaker is invited to engage in a conversation about a topic of general interest. The examiner introduces the topic by asking a more specific question, such as "Let us talk about some issues in education. Do you believe education is important for young people nowadays?".	5분 이내				
	Both speakers co-manage the flow of discourse and contribute their opinions as well as seek the opinion of the other interlocutor.					
	The meaning is co-developed through their contributions, which show a range of discursive patterns such backchannelling ("uhu okay"), interruptions as well as a co-constructed sentence.					

• Topic : TLC task

Topics	Examples
Social & Political issues	 What is your opinion on bilateralization? What can be a solution of prejudice about sexual minorities? How will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ffect our future? What is the most serious matter in our society and why?
Historical issues	 What is the most brutal war in our history and why? Do you think the history can help us solve current issues? Why?/Why not? What is the most historical event? What was the greatest invention in history?
Current affairs	 What do you think about global climate changes? What do you think of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How will the current pandemic situation affect you? What is your urgent issue in your life?

(3) Metadata collection

• Speaker metadata

- 1. 이름을 적어주세요.
- 2. 학번을 적어주세요.
- 3. 본인의 성별을 선택해주세요.
- 4. 나이를 선택해주세요.
- 5. 전공을 선택해주세요.
- 6. 학년을 선택해주세요.
- 7. 현재 수강하고 있는 College English 수준을 선택해주세요.
- 8. 지난 5월 23일 or 30일 College English 과목에서 실시한 CEFR 기반 시험에서 받은 레벨을 선택해주세요.
- 9. 영어권 국가 해외체류 경험이 있습니까?
- 10. 부산외국어대학교 재학생들의 수준별 영어 구사능력 분석을 위해 인터뷰 자료 및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도이치시니까?

• Text metadata

[HEADER]

- < File name = 2005B0165.m4a >
- Speaker = male, 20 years, business major, basic, B1, 0>
- Activity = B1 Speaking question 1>
- < Recorded = May 2020 >
- < Recording length = 0:27
- < Transcribed = H.Suh November 2020 >
- $\langle Point = 4 \rangle$
- < Note = strong foreign accent with mispronounced stops and fricatives, insertion of vowel>

Transcription

(1) TLC transcription guideline

Appendix C. Lancaster Spoken Language Transcription Guidelines

Feature	Transcription guideline	Example
ID info	Do not put ID info at the top of the transcript.	
Speaker identification	Speaker labels are followed by a colon, then a tab, then continuous text until the end of the utterance (indicated by a line break). Use 'E' for the examiner and 'S' for the candidate.	E: what's your name? S: it is <name></name>
Time stamp	Every 10th line on a separate line enter a timestamp using a keyboard shortcut	0:03:43.4
Segmentation	Indicate beginnings of the individual parts of the exam	<greet> <present> <disc> <task> <listen> <conv></conv></listen></task></disc></present></greet>

Pronunciation, spelling and contracted forms	Use normal British spelling if word is clear, otherwise use unclear feature. Non-standard forms that appear in the dictionary are transcribed orthographically in their dictionary accepted way: cos, dunno, gonna, gotta, kinda, lotta, sorta, wanna and yeah.	
	Where the intended word is mispronounced resulting in a different word form being produced transcribe in brackets: <misp=original, target=""></misp=original,>	<misp=liquorice, lyrics=""></misp=liquorice,>

Learner language features	PRONUNCIATION: Do not attempt to transcribe different accents or non-standard pronunciation. Use standard (dictionary) forms of words.	
	WRONG WORD: If an incorrect word is produced, record it.	this people; mine husband; this was very loud er low
	NON-WORD: Transcribe as produced, if possible; otherwise mark as unclear.	discoverments

(2) BUFS Learner corpus transcription

```
[HEADER]

< File name = 2005B0165.m4a >
< Speaker = male, 20 years, business major, basic, B1, 0>
< Activity = B1 Speaking question 1>
< Recorded = May 2020 >
< Recording length = 0:27
< Transcribed = H.Suh November 2020 >
< Point = 4>
< Note = strong foreign accent with mispronounced stops and fricatives, insertion of vowel>

[TEXT]
```

S: When you arrived a city why don't you try to eat traditional food enjoy the food is a part of a sightseeing there's a culture and history in a food so enjoy the food is enjoy the culture there are many <unclear=tourist> <unclear=19> in a city let's have a fun in here we couldn't go and let's take a picture and leave a memory

BIODATA

Heajin Suh is a researcher in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mail: wisepearl3@bufs.ac.kr Phone: 010-2895-0615

Trinity Lancaster Corpus 내용 및 사용방법

황현미(부산대학교)

Trinity Lancaster Corpus 내용

(1) 영어능력평가

- TLC는 GESE(Graded Examination in Spoken English)를 토대로 L2 학습자의 영어능력을 평가한다.
- TLC의 L2 speaker는 CEFR의 B1-C2 수준이다.

(2) 언어적•문화적 배경

- TLC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 언어적 배경은 주로 Argentina(Spanish), China(Mandarin, Cantonese), Italy(Italian), India(Hindi, Bengali, Gujarati, Marathi, Tamil), Mexico(Spanish), Russia(Russian), Spain(Spanish), Sri Lanka(Sinhala, Tamil)이다.
- 그 외에도 Arabic, Bulgarian, Czech, Danish, French, German, Japanese, Kannada, Konkani, Korean, Lithuanian, Malayalam, Marwari, Persian, Polish, Portuguese, Romanian, Sindhi, Slovak, Telugu, Turkish, Ukrainian가 있다.
- 문화적 배경은 L2 의사소통 전략에 영향에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Spanish L2 speaker들은 Spain, Mexico, Argentina의 문화적 배경을 가질 수 있다.
- 문화적 배경에 대한 정의(definition)는 다양하지만 TLC는 national affiliation으로 한다.

(3) 사회언어적 특성: 나이, 성별, 교육

- 보다 나은 체계성을 갖추기 위해서 TLC는 L2 speaker의 나이와 교육적 배경을 포함한다.
- 나이 어린 L2 speaker와 성인을 비교할 수 있고, 그들의 어휘선택, 문법적 복잡성, 그리고 화용적 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Age band: 0-15, 16-19, 20-35, 36-50, 51+

(4) 학습경험: age of exposure, learning history and patterns of L2 use

• TLC에서는 영어에 첫 번째 노출되었을 때의 나이, 노출의 유형과 같은 L2학습 경험의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한다.

(5) Speaking tasks

- 한 명의 L2 speaker와 한 명의 L1 speaker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 네 가지 speaking task(presentation, interactive task, discussion, conversation)를 수행한다.
- •L2 speaker는 영어능력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이상의 과업을 수행한다.
- 과업은 하나의 독백형식(monologic)의 presentation과 세 가지의 discussion, conversation, interactive task의 대화형식(dialogic)의 과업으로 이루어진다.
- Presentation은 L2 speaker가 관심 있는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여 과업 전에 미리 준비한다.
- Discussion은 평가자가 presentation에서 언급된 내용중에서 질문한다.
- Interactive은 평가자의 prompt로 시작되며 개인적인 관련성과 관심에 대한 issue가 주로 제시된다.
- Conversation은 L2 speaker가 2개의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대화에 참여한다.

	CEFR proficiency band					
speaking task	B1: Threshold	B2: Intermidiate	C1 & C2: Advanced			
Presentation			√			
Interactive task		√	√			
Discussion	√	√	√			
Conversation	√	√	√			

(6) TLC 활용 연구들

• light verb constructions(Gilquin), verb-argument constructions(Romer and Garner), phrasal verbs(Marin Cervantes and Gablasova, 2017), lexical back-channelling(Castello and Gesuato), filled pauses(Gotz), disagreements(Gablasova and Brezina, 2017), epistemic stance(Gablasova et al., 2017), the effect of speaker roles(Gablasova and Brezina, 2015) 등 어휘, 문법, 화용적 특성 등의 다양한 범위의 연구들이 있다.

Trinity Lancaster Corpus 사용법

1) Access: http://corpora.lancs.ac.uk/trinity. 아래 그림은 메인화면이다.



- Trinity Lancaster Corpus Hub는 Trinity Lancaster Corpus-Conversation and discussion(이하 TLC-C&D)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 주어진 어휘(lexical item) 또는 구(phrase)를 검색하여 빈도수, 성별, 나이, 영어능력 등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검색한 자료는 .csv file로 저장하여 오프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 TLC-C&D는2000명의 영어 학습자를 포함하고 speaker의 성별, 나이, 출생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성별

Candidates	B1	B2	C1/C2	Total
Female	451	416	185	1052
male	398	318	115	831
Total	849	734	300	1883

•나이

Candidates	B1	B2	C1/C2	Total
0-15	447	342	21	810
16-19	122	160	122	404
20-35	197	147	104	448
36-50	63	75	48	186
51+	19	10	4	33
NA	1	0	1	2
Total	849	734	300	1883

•출생지

Candidates	B1	B2	C1/C2	Total
Argentina	49	61	3	113
Brazil	9	2	5	16
China	111	86	28	225
Hong Kong	7	7	5	19
India	154	138	37	329
Italy	145	130	68	343
Mexico	174	76	61	311
Moldova	7	9	0	16
Russia	25	28	2	55
Spain	131	157	78	366
Sri Lanka	37	40	13	90
Total	849	734	300	1883

2) 검색방법

Lexical term search
 어휘 또는 구(phrase)로 검색한다.

Part-of-speech search

NOUN, VERB, ADVERB 또는 N*, V* 등으로 검색한다. 태그 목록은 사이트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 Semantic search

PEOPLE, MALE, FEMALE, SUPERNATURAL, EMOTION, TIME, PLANET, COLOUR, BODY, FOOD, TECHNOLOGY, MEDIO 등의 범위로 검색

• Combined search

lexical item과 part-of-speech를 동시에 검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walk VERB) (PREPOSTION)' 의 검색어를 입력하면 'walk into'와 같이 동사 walk와 뒤따르는 전치사를 검색할 수 있다.

BIODATA

Hyunmi Hwang is a post-doctoral associate in Pusan National University

Email: <u>s005hwag@nate.com</u> Phone: 010-5342-9471 [Blank Page]

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Material & Curriculum Development)

분과장: 정채관(인천대)

분과주제: Material & Curriculum Development Beyond the Classroom

발표 제목	발표자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영어과 최소성취수준 진술문 개발	주형미(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핵심역량-영어 교과 역량-성취기준연계를 통한 영어과 핵심역량 평가방안: 컴퓨터 기반 영어과 핵심역량 평가도구 개발 및 시범적용	이문복(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실행 모니터링 및 영어과 결과 분석	배주경(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발표자 : 주 형 미 (교육과정교과서본부, 연구위원)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영어과 최소 성취수준 진술문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01 고교학점제에서의 교과 이수 기준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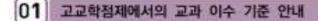


▶ 교자 이수 기준의 되어

WE NOT YOU AD BY HE WAS THE OWNER.

 교육 이어 기준은 병당 요작되지 아이라 지어수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으로, 교문하는 생각시는 이러한 교육 이수 기준에 다른 이수로 관객이 되면 병당 교육교실의 학원을 취임할 수 있습.

교과 미수 기준(안)





- ▶ 교과 이수 기준 설정에 따른 교과 성취율 및 성취도(안)
 - 현행 성취평가제를 토대로 할 때, 현행 60% 미만인 E 수준에서 하한선을 40%로 무어 40% 이상~60% 미만으로 재설정하여 이 수준까지 최소 학업 성취수준을 달성한 '이수'로 판정함.

ACM PRO	F(MO)0)) atal-b
电压 机拉一板车 0 数	원칙소 형밥 정화하셨다	10(0
60% 0168 - 70% 0825	D	
70% 01ts ~ 80% TREE	0	
80% 0165 90% EREE	10	
90% 0558	A	
STR	信利压	

화업 성취율 판단 근거로서 최소 확업 성취수준 개발

- 최소 학업 성취수준은 교육 목표에 비추어 학생이 일어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의 내용과 병위를 최소한으로 제시한 성취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말함.
- 최소 학업 성취수준은 크게 성취을 범위와 이에 대용하는 성취수준 진술문으로 구성되는데, 성취을 범위는 40% 이상~60% 미만으로 교과 공통으로 설정한 바, 이에 해당하는 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진술한 성취수준 진술문을 개발하여 교사에게 안내해 출 필요가 있음.

▶ 교과 공통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 개발 방향

- 교과(목)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근거한다. 성취기준은 자 교과(목)에서 한정들이 학습을 통해 성취하여 할 지식, 가능, 태도의 농世과 특성을 진술한 것으로, 교수·한습 및 평가의 실질적인 근거로 교사가 무엇을 가르치고 평가해야 하는지, 학생이 무엇을 공부하고 성취하여 하는지에 관한 실질적인 지칭이 된다. 또한 2015 개성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택성약량을 기반으로 지식, 기능, 태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였으므로 성취기준을 근거로 할 경우 핵심역량의 성취 정도도 반영할 수 있다.
- 교과(목)에서 기대하는 최소한의 능력 정도를 담아야 한다. 다만, 최소한의 능력이더라도 학업 성취에 대한 교과 이수의 관정 근거가 되므로, 교과(목)에서 기대하는 최정한 정도의 능력은 당보할 필요가 있다.



▶ 교과 공통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뿐 개발 단계

- A DESCRIPTION OF PARTY AND
- not any other 8 may access their · 技术 研究 25年1月1日 20日 年间 40日 - 北京 安 20日 8日 安日

利表型 神動

· 京湖 古田市 新山 古 田山田 高田 市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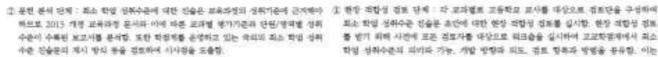
· 한 제품 하는 등 사용 제품 · 한 제품 하는 등 사용 제품 - A JOSE WILLIAM MILL

- DOMESTIC BUT HAVE BEEN - DIE MED GRAVE ENVIRE
- 24 H 99 VE 48 9 VO 24

전환자 다당의 감독

- yard the Wall

- SAN HAN ALL RES SERVER METAL don't will wait it can - pay that years name was



- 조 보다 개발 명한 수행 단계 : 보다 안 중유해야 할 공통적인 개발 원리를 개발하고 보다 별로 개발할 대상 과목을 선정함. 이래 세우적으로는 개발 단위, 진술 함복 및 표현 면식 정도 등을 보다 간 중유하고 공통적으로 원조하다 할 지원도 파편함.
- 을 되소 한경 성취수준 개압 단계 : 다 보개별로 보라 전문가 대성을 구성하여 되소 한성 성취수준 진술은 소인을 개발하면서 교과 간 공유해야 할 시안을 조율해 나갔.
- 최소 학생 성취수는 진술은 초단에 대한 현상 의합성 정보를 심시합. 현상 의합성 전보 를 받기 위해 사건에 모든 검토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여 고교학점에서 최소 학업 성취수준의 의비와 가능, 개발 방향과 되도, 경트 향육과 방향을 용유한, 이는 원도의 눈눈이를 동일하여 맞추기 위한 파생님, 워크숍 이후 원도자들은 개발된 최소 학법 설취수준 진술문이 환단 근거 자료보서 최합반가를 필요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함, 이후 보다 전문가 패성은 전로 의견을 반영하여 죄소 작업 성취수준 진술문을 수정함.
- ③ 전문가 다당성 전로 단체 : 변장 적합성 전로에 따라 수정된 최소 학생 성취수준 진술문에 대해 다시 교육 전문기들로부터 바탕성을 점점 받음
- ② 화중인 개발 단계 : 교과 전문가 태널이 교육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된 경로 약진 및 수정 방향을 반당하여 좌준적으로 최소 학생 성취수준 진술꾼들 확명함.

▶ 교과 공통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 개방 지침

교과별 개발 단위에 따른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은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위 항목', '수행 활동/판단 근기' 등으로 구성된다. 단원/영역별 성취수준이 '일반적 특성' 만을 진술한 것에 비해, 이수와 미이수를 판장하는 근거 자료로서 최소 학업 성취수준은 교사 의 판단을 도울 수 있도록, 일반적 특성을 하위 항목으로 나누고 이에 대한 '수행 활동/판단 근거'를 구체화하였다.







00



▶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 시범 개발 과목

 고교학점제의 학교 현장 적용을 목적으로, 우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5개 교과 10개 과목에 대해 시험적으로 최소 학업 성취수준을 마련함, 교과별로 공통 과목 1개와 선택 비율이 높은 일반 선택 과목 1개로 한정하여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을 개발하여 제시함.

	교과	국어	수학	양어	······································	과학
7892	공동 과목	국어	40	영어	용합사회	용한하학
개발 과목	일반 선택 과목	독서	수확기	독하와 작품	사회·문화	돌리학



02 영어과 교과 이수 기준(안) 개발

가. 공통 과목 〈영어〉

공통 과목 (영어)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총 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듣기 영역은 5개 성취기준, 말하기 영역은 4개 성취기준, 읽기 영역은 6개 성취기준, 쓰기 영역은 6개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총 21개의 성취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개정 시 이러한 영역별 복성을 고려하여 21개 성취기준의 평가기준과 영역별 성취수준을 개발하였고 이불 기반으로 성취평가제에 따른 평가를 실행하였다. 마찬가지로 고교한점제는 이러한 성취평가제에 기반하여 운영되므로, 본 연구의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도 이불 보대로 개발하였다.

(1) 듣기 영역

2015 개명 교육과장 편가기존(고등학교 영어과)에서 제시된 즐기 영역 섭취기준의 평가기 준 '항'를 재권로한 결과, 평가기준의 기술이 적정하여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리하다고 한단하였다.

2015 개정 교육부정 병가기준(고등학교 영어파)의 듣기 영역 성취수준 고'를 재원보한 절화, 성취수준이 보다 명료하게 구분될 수 있는 기준을 제집리하였다. 듣기 영역에서의 성취 수준 구분은 크게 교사가 학생에게 해서하는 글(text)의 수준, 글 제시 명석, 학생이 수행하는 절화의 생화성 정도 등 세 가지 학생으로 분류하였다. 듣기 영역에서의 성취수준별 구분 합식 을 반영하여 성취수준 돈의 진출문을 새로 수정하였다.

증기 명박에서 새로 설정한 성취수준 '눈'에 대해 다시 '하리 항목'으로 나누고 이를 만단할 수 있는 활동 도는 근거,'수행 활동/한단 근거')의 새부 내용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수행 활동 /한단 근거는 교사의 현장 점합성 검토와 전문가의 대당성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 (표 1)은 미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한 듣기 발하기 영역의 최소 학업 성취수준도, 40% 마상 60% 미만) 전승문이다.

한 대부 입고 단순한 발가나 이원을 반복 해서 용고, 보기의 상황을 때하면서 사용하나 학교를 부분학교로 보기하는 * 환자의 상징하나 학교를 되었는다.

| 三 1 | 8基 362 (996) 四月 9955 およ 192 がおを子 50余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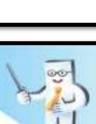
(2) 말하기 엄역

2015 개정 교육화정 평가기준(고등학교 영어화)에서 제시된 말하기 영역 설취기준의 평가 기준 '하'를 재검토한 결과, 평가기준의 기술이 적정하여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칙하다고 판단하였다.

2015 개정 교육자정 평가기관(고등학교 앱어파)의 말하기 영역 성취수준 도를 재검토한 결과, 성취수준이 보다 명료하게 구분될 수 있는 기준을 재정리하였다. 말하기 명역에서의 성취수준 진술은 수준 구분은 크게 교사가 학생에게 제시하는 글(text)의 수준, 글 제시 방식, 학생이 수행하는 어휘와 언어형식(words & structure) 수준, 학생이 수행하는 결과의 정확성 정도 등 내 가지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들기 영역에서의 수준 구분에 다하여 학생이 수행 수 있는 어휘와 언어형식(words & structure) 수준 정도를 추가하였다. 말하기 영역의 성취수준 구분 방식을 정리하여 포로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수는	Witwood 4-8	20ml) 적시 항식	아파의 전이왕의(words & structure) 수준	수행의 정확성 등도
A.	길고 목당한 대회나 글			自動物料
3	일고 복합한 대화나 광			비교학 등학하기
C	비교적 강 대화나 글			19440日
0	함고 단순한 대화나 글	반복하여 들거나 됨값	추이즈 아회의 에서문을 참고하여	부분작으로
£	매우 찾고 당신한 대회나 중	対電視体 銀78.4 製工	学の心 の取扱 (中心連集 を立かの	극히 부분적으로



00



[표 4] 공통 과목 (영어) 말하기 영역의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

알역	발맞적 특성	일반적 폭성적 따른 위의 함국	수행 활동/ 왕당 근거
		① 매우 참고 단순한 대화나 공동 반복하여 동가나 읽고 주어진 이후와 역시문을 참고하여 서 부 정의를 부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시작, 사물, 장소 등에 관한 세약 정보를 말한다 •그룹, 사진, 도쿄 등에 관한 세우 정보를 말한다
Politi	일상생활이나 천속한 일 번째 주제에 관한 때우 말 고 단순한 대화나 골을 만 목하여 동거나 읽고 주어 한 산 여류의 에서문을 참고 이 하여 서본 점도 중실 내 은 자신의 의견이나 강한 물 국회 본 정보를 부모하는 모 모고 답할 수 있다.	② 해우 필고 단순한 대화나 골을 단확하여 들어나 읽고 주어진 이화와 여시분을 참고하여 중 상 내용을 부분적으로 말할 수 있다.	• 대보니 골의 주제나 요지를 일반다.
3)		② 매우 짧고 단반한 대화나 골품 만복하여 동에나 입고 주어진 어로와 여시문을 참고하여 자 기를 소개하거나 자신의 의견 이나 강단을 부분적으로 표현 할 수 있다.	
		① 매우 짧고 당속한 대화나 골을 번복하여 즐거나 당고 주어진 어로와 에시문을 참고하여 부 문학으로 참보를 불고 답할 수 있다.	• 그림, 시진, 도요 등에 대해 불고 답한다.

(3) 읽기 영역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고등학교 영어과)에서 제시된 읽기 영역 성취기준의 평가기 준 '하'를 재진토한 결과, 평가기준의 기술이 적정하여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고등학교 영어과)의 얇기 영역 성취수준 '도를 재검토한 결과, 성취수준이 보다 명료하게 구분될 수 있는 기준을 재정리하였다. 잃기 영역에서의 성취수준 진술문 수준 구분은 크게 교사가 학생에게 제시하는 글(text)의 수준, 글 제시 방식, 학생이 수행하는 결과의 정확성 정도 등 세 가지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잃기 영역의 성취수준별 구분 방식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 표 5 Ⅱ 임기 명액의 성취수준별 구분 방식

수준	글(twid) 수준	글(text) 짜시 현식	수행의 원학당 정도
A:	집고 복장한 대한나 글		包裹的性
8	길고 복잡한 대회나 글		비교학 정확하게
C	비교적 긴 대화나 글		1990年
D.	합의 단순한 대하나 글	四萬於改 劉江	学学 な念堂
€.	매우 절고 당승한 대화나 골	반복하다 닭고	국회 부분적으로





| HE 6 | 공통 과목 (영어) 일기 영역의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

क्षा	化物料 条件	일반적 복성적 때문 하라 함복	수행 활동/ 한당 근거
			사 있 사물, 장소 등의 서부 정도를 파다한다. *그림, 사건, 도표 등의 서부 정도를 파다한다.
		② 매우 및고 당순한 교육 번째하 더 읽고 사실 정보를 바꿨으로 출시리, 주제, 요지를 부분적 으로 취약할 수 있다.	·골의 물거리, 주제, 요지를 되었었다.
	천속한 일반적 주제에 급 한 점은 쌓고 단바한 글을 반쪽하여 있고 산실 경보 를 보면으로 주부 정보, 급의 출시된 주제, 요지	대 등교 사실 정보를 비듬으로 다 등교 사실 정보를 비듬으로	◆일이나 사건의 소서를 피작한다. ◆일이나 시간의 원인, 결과를 되지한다.
\$P)	나용의 농각한 경에, 함께 의 의논, 음의 목적 등기 의 설립이나 위도, 남편 이근 등 문장의 함께의 의 대를 부분하으로 되어할	② 이유 발고 당반한 골을 반복하 이 당고 사실 장보를 바탕으로 될지의 의도나 골의 목적을 부 문적으로 의약을 수 있다.	·필지의 의도를 파악한다.
	수 있다.4	③ 매우 말고 다는한 글을 반복하 여 되고 사실 정보를 비용으로 될까의 실정이나 매도를 부분 적으로 파막할 수 있다.	·필지의 실험이다. RE를 파이었다.
		② 마루 받고 단순한 골품 반짝하 이 왕고 사실 정보를 바꿨으로 살함, 아구 또는 문장이 청축 의 의기를 부분적으로 대학을 수 있다.	·문학 속 남일, 이구, 문장의 합축적 RIN를 파작한다

(4) 쓰기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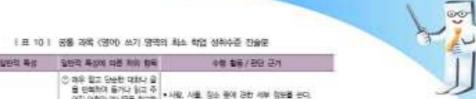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고등학교 영어자)에서 제시된 쓰기 영맥 성취기준의 평가 기준 항 를 개권또한 결과, 평가기준의 기술이 적정하여 그대로 용지하는 것이 바람의하다고 판단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원 평가가준(고등학교 영어과)의 쓰기 영역 성취수준 'E'를 채권보면 경과, 성취수준이 보다 명료하게 구분될 수 있는 기준을 재정리하였다. 쓰기 영역에서의 성취수준 진술은 수준 구분은 크게 교사가 학생에게 제시하는 급(text)의 수준, 글 제시 방식, 학생이 수행하는 어휘와 언어형식(words & structure) 수준, 학생이 수행하는 결과의 정화성 정도 등 내 가지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쓰기 영역에서의 수준별 구분은 말하기 영역과 같다. 이는 말하기, 쓰기 영역에 언어 기능 중 표현 기능으로 분류되므로 중일한 성취수준별 구분 방식을 활용하였다. 쓰기 영역에 성취수준별 구분 방식을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면 (표 8)과 같다. 쓰기 명역에서의 성취수준별 구분 방식을 방의하여 표로 제시하면 (표 8)과 같다. 쓰기 명역에서의 성취수준별 구분 방식을 반영하여 도성취수준 진술문을 새로 수정하였다.



48	글(lavf) 수준	20w0 RN 191	이유의 언어합니(worth 8 strumes) 수준	+89 000 05
Α:	길고 부장한 대회가 중			집회하게
1	길고 복합한 대하나 잘			비교학 정확하기
C	田田田 四日野山 田			DESCRIPTION OF THE PERSON OF T
D	함고 단순한 의하나 끝	한테하여 동시나 읽고	주시간 대부와 역사원을 참고하기	学是社会是
E	명우 짧고 당난한 대회나 글	방콕하다 즐거나 당고	주어진 어뢰와 에사문을 참고하여	국선 부문적으로





報当	발판적 폭설	일반각 독성에 다른 제비 함독	中報 葡萄/관단 근거
		이 매우 월고 단순한 대화나 글 글 만역하여 동기나 있고 주 어진 이화와 역사문을 참고하 의 세우 현보를 부른적으로 할 수 있다.	사회, 사회, 정소 등에 근한 세우 정도를 쓴다. 그림, 사진, 도쿄 등에 근한 세우 정도를 쓴다.
	등상생활이나 현속한 등 반약 주변이 급하여 명당	② 역우 및고 단순한 대회사 글 를 번째하여 됩시나 읽고 주 다긴 대회와 역시병을 받고하 이 요약하는 글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	• 대한나 골등 요약하여 주세나 요지를 나타보는 골든 본다.
(87)	함고 단순한 이하나 공동 단축하여 증거나 위고 주 대한 이화와 이사원들 함 고하여 선물 함께 요한다. 는 글 자신의 유현되나	이전 이후의 에시문을 참고하	· 차선속 의한다.) 결정을 쓴다.
	2천 추분의 마스시니 상 형을 바로적으로 할 수 있 고, 25번 서식, 191일, 바로 등을 바로짓으로 할 수 있고, 5억한 그림 등 는 10일 등학 그림 등 문학으로 할 수 있으기	③ 매우 월고 단순한 대하나 글 글 만박하여 동안나 닭고 주 아진 (여성의 마사관을 참고하 여 주면이 대답이나 성황철 부분적으로 모시하는 글을 알 수 있다.	· 취임의 대상이나 상황을 참시하는 결을 쓴다.
		② 주어진 어렸던 아시큐를 받고 하여 간당한 서비, 이미일, 이 의 등을 부분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 25章 사化 1983, 802 至春 803
		① 추어진 어린이 아시즌을 받고 하여 당순한 그림, 도쿄 등을 설명하는 말을 부든적으로 살 수 있다.	· 그림, 도쿄를 설명하는 글을 받다.



나. 일반 선택 과목 〈독해와 작문〉

일반 선택 과목 (독해와 작문)는 읽기, 르기의 총 2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읽 기 영역은 6개 성취기준, 쓰기 영역은 6개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총 12개의 성취기준이 마련 되어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개정 시 이러한 영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12개 성취기준의 평가기준과 영역별 성취수준을 개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성취평가제에 따른 평가를 실행하 였다. 마찬가지로 고교학점제는 이러한 성취평가제에 기반하여 운영되므로, 본 연구의 최소 막업 성취수준 진술문도 이를 토대로 개발하였다.

(1) 읽기 명약

3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고등학교 명여)관에서 제시된 읽기 영역 성취기준의 평가 기존 "바를 재건도한 필자, 평가기준의 기술이 걱정하여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리하다고 된단하였다.

2015 개정 교육파설 평가기준(고등학교 영어파)의 및기 영역 생위수는 도를 제권보한 절파, 성위수준이 보다 병료학제 구분될 수 있는 기준을 제정리하였다. 읽기 영역에서의 성위 수준 진술은 수준 구분은 크게 교사가 학생에게 제사하는 글(rext)의 수준, 글 제시 당식, 학 생이 수정하는 결과의 정확성 정도 중 세 가지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읽기 영역의 성취수준별 구분 방식을 전리하여 프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이러한 성취수준별 구분 방식을 반영하여 성취수준 E 의 진술문이 새로 수정되었다.

[프 11] 일반 선택 과목 (독재와 작문) 일기 명역의 성취수준별 구분 방식

40	副teld 中華	국가에 제시 병사	수명의 민화성 정도
A	일고 복잡한 대하고 공	Y	(MAN)
8	집표 보장한 다하나 글		1021 (861)
0	바람칙 참 대한나 끝		QMRES
D	電工 気を飲り掛い 音	で の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で	##50E
E .	이유 열고 단순한 대한다 결	5989 \$2	湖南 导进电压器



智	일반적 복성	일반적 특성에 리르 하위 함락	수행 행동/ 만단 근거
	역 일고 선부 정보 글인 출전리 주제, 요지, 내용	① 해우 합고 단순한 골을 번복하여 일교 서부 정보를 부분적으로 박 역할 수 있다.	• 사람, 사물, 장소 등학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 그림, 사진, 도로 등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② 매우 및고 단순한 골을 만족하여 일고 즐거리, 주제, 요치를 부분 적으로 파격할 수 있다.	• 글의 즐거리, 주비, 오치를 피막한다.
		② 매우 함고 당순한 골을 반복하여 읽고 내용의 논리적인 관계를 부 분적으로 라다할 수 있다.	• 및이나 사건의 순서를 파악한다. • 및이나 사건의 중인, 결과를 취약한다.
잃지	의 논리학 군계, 필지의 오브, 글의 목적, 필지의 소청이나 보도, 날말, 안 군 및 문장의 활축학 의	② 매우 및고 단순한 골을 반복하여 임교 필지의 이도나 골의 목적을 부분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	• 열자의 의료를 파악한다. • 급의 목학을 파악한다.
	<u>다른 부분적으로 파악할</u> 수 있다 [®]	② 데무 합고 타순한 골을 반복하여 읽고 잘자의 심정이나 데도를 부 문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 등자의 소중이나 역도를 되었는다.
		© 매우 립고 당순한 골을 단복하여 임고 남일, 아구 또는 혼장의 함 축적 있다를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 문학 속 남당, 아구, 문장의 활축적 의미를 되었던다



(2) 쓰기 영역

2015 개정 교육화정 평가기준(고등학교 영어화)에서 제시된 쓰기 영역 성취기준의 평가 기준 '하'를 재정로한 결과. 평가기준의 기술이 전쟁하여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리하다고 판단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고등학교 영어과)의 쓰기 영역 성취수준 'E'를 취검토한 결과. 성취수준이 보다 명료하게 구분될 수 있는 기준을 재정리하였다. 쓰기 영역에서의 성취수준 진술문 수준 구분은 크게 교사가 학생에게 제시하는 글(text)의 수준, 글 제시 방식, 학생이 수행하는 어휘와 언어행식(words & structure) 수준, 학생이 수행하는 결과의 정확성 정도 등 내 가지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쓰기 영역에서의 성취수준 구분은 말하기 영역과 같다. 이는 말하기, 쓰기 영역이 언어 기능 중 표현 기능으로 분류되므로 동일한 성취수준 구분 방식을 활용하였다. 쓰기 영역의 성취수준별 구분 방식을 참약하여 표로 제시하면 (표 14)와 같다. 쓰기 영역에서의 성취수준별 구분 방식을 반영하여 성취수준 E의 진술문을 새로 수정하였다.



φē	골(twid) 수준	교(wd) 제시 방탁	可解於 亞可斯特(worth 各 structure) 今至	수행의 전략성 정도
A	길의 독립한 대회나 글			拉斯均压
B	길과 복잡한 대화나 글			비교학 철회에서
C	비교적 긴 대회나 물			DESCRIPTION AND PROPERTY.
D	함께 당면한 대한나 글	반복하여 들거나 일곱	주아진 아회와 에시꾼들 참고하기	神器ならま
E	매우 많고 당산한 대회나 골	번복하여 돌거나 당고	주어진 어휘와 에시문을 참고하다	국하 부분적으로

[표 16] 궁통 과목 (영어) 쓰기 영역의 최소 학업 성취수준 진술문

世	S01 40	일반적 폭상에 따른 하위 등록	수행 행동/한단 근처
長7]	일반적 주세에 관한 명준 되고 당순한 대하나 일급 인복하여 동에나 일고 주 어진 이해와 역사모을 참 교하여 설보 경보 주세, 요리, 자신의 의견이나 감 성 등을 부모하으로 할 수 있다. 한성과 관련한 사 사 의명을 계를 준보 당순 한 그룹이나 도로 등을 설 보기를 수 있다.		·사람 서울 장소 등에 관한 세우 장보를 쓴다. ·그림, 서진, 요료 등에 관한 세우 장보를 쓴다.
		② 마유 및고 단순한 대하나 글 를 돌아나 번째하여 않고 주 이전 아파와 에시문을 참고하 이 골의 친벤하인 내용을 부 분하도록 요약할 수 있다.	· 대회나 골등 요약하여 주제나 요치를 나타되는 골든 본다.
		③ 애우 말고 단순한 대화나 글 을 돌아나 현목하여 당고 주 어딘 아타는 아시즌을 참고하 이 자신의 의견이나 김정을 부문적으로 을 수 있다.	• 차신의 의견이나 감항을 본다.
		용 취이진 아회와 에시문을 잡고 하여 확인과 관련된 간단한 서식 이메일, 매모 등을 부문 작으로 작성할 수 있다.	+ 간단한 사식 이에임, 예약 등을 쓴다.
		호 추어진 아파와 메시즌을 설고 하여 자신의 이에 계획하다 건물 등에 관하여 부분적으 로 글을 할 수 있다.	• 자신의 미래 계획이나 친절에 강하여 쓴다.
		중인순한 그렇이나 도쿄 등을 설명하는 글을 부끈적으로 살 수 있다.	- DN 5.58 92% 29 eq.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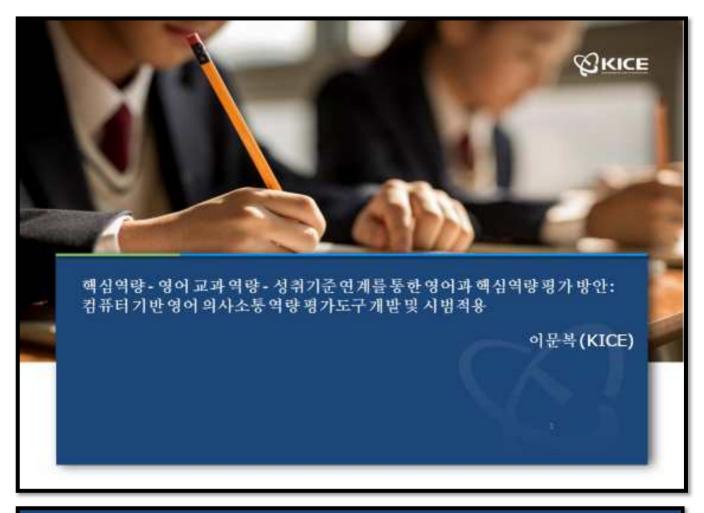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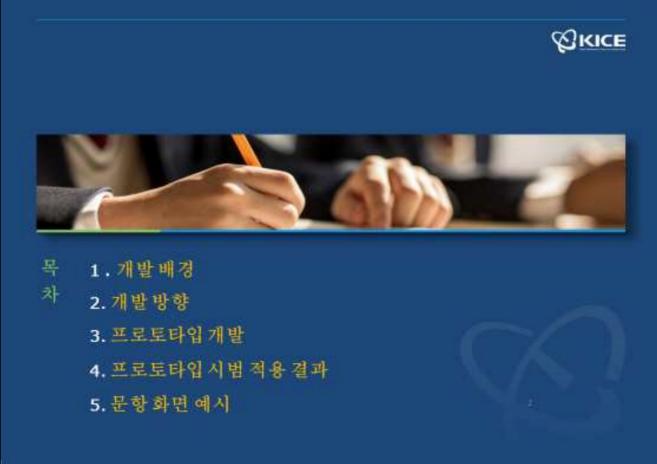
BIODATA

Joo, Hyung Mi is a researcher at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since 2006.

She has conducted various research projects related to the national curriculum development and textbook authorization in collaboration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curriculum and textbook development, and language policy.

Phone: (043) 931-0487 Email: joohm@kice.re.kr







1. 영어 교과역량 평가도구의 개발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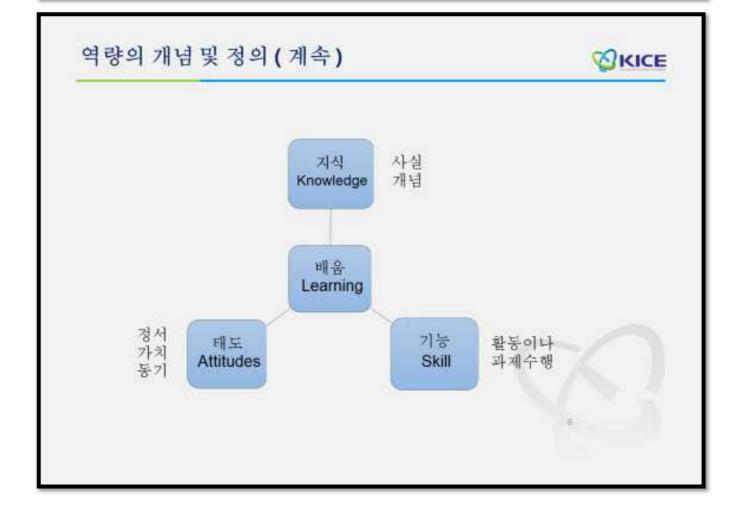
역량의 개념 및 정의



연구	역당석 기념 및 정의		
Chambersi 1993)	관련되어 있는 실제(practice)에 필요한 기능(skills)이면서 동시에 관련된 지식과 태도를 통합한 것		
Reynolds & Salters(1995)	특정 상황에서 판단하여 지식을 사용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 식으로 행동하는 것		
OECD(2003)	특정한 상황에서 기능과 태도를 포함한 사회심리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복잡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능력		
교육부(2016)	미래 사회 시민으로서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능력으로 지식, 가능, 태도 및 가치가 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현되는 능력		
소광회(2006)	특정 맥락의 복잡한 요구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		
순인호(2006)	사회 세계가 존립하도록 하는 보다 보편적인 토대로서의 실천적 지식		
윤현진 위(2007)	한 사회의 경쟁력을 지속하고 구성원들의 바람칙한 삶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지식, 기술, 태도, 경험 등을 포함한 내 외적 능력의 총체		
오현석(2007)	활동 및 적무 맥락과 통합된 지식, 기술, 태도 등 개인 속성의 특정 초합		
윤장일 의(2007)	과제나 역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행 관련 능력		

김영은, 이문북, 이정찬, 안지면 (2018, p.17)

역량의 개념 및 정의 (계속) (현기 기념 및 정의 (계속) (연기 기념 및 정의 (계속) (연기 기념 및 정의 (기계속) (연기 기념 및 정의 (기계 기념 및 정의 (기계 기념 및 정의 (기계 기념 및 정의 기념 및 정의 (기계 기념 및 정의 기념 및 정의 기념 및 정의 (기계 기념 및 정의 기념 및 정의



컴퓨터 기반 핵심역량평가 필요



대내 · 외 학생 평가 환경 패러다임 전환

-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평가 개선을 위한 컴퓨터 기반 평가 도입
- 국정과제, 교육부 업무보고, 시·도교육청 업무계획에서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교육혁신 필요성 제기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평가를 위한 평가 체제 개선 필요

핵심역량평가 구현을 위한 컴퓨터 기반평가

- PISA, TIMSS, ICILS, NAEA 등 컴퓨터 기반 평가를 활용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체계적인 평가 관리와 지필 방식의 평가에서 구현할 수 없는 평가 제공 및 피드백 제공 이 장점

교실수준핵심역량평가

- 핵심역량 함양은 교과 교육의 함양을 통해 이루어짐
- 핵심역량 평가는 수업과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

핵심역량평가시스템 개발연구추진 현황



1차면도

핵심역량평가 설계

2 차면도 (2020년)

핵심역량평가시스템개발

3 차연도 (2021년)

핵심역량 평가 시스템 현장 격용

평가도구

- 컴퓨터 기반 핵심역량 평가 설계
- •핵심역량 평가도구 설계 및 개발
- -교과 기반 문항
- •핵심역량 평가도구 설계 및 개발
- -교과 통합병 문항
- 핵심역량 평가도구 추가 개발
- -교과 기반 문항
- 핵심역량 평가를 위한 컴퓨터 기반 평가 시스템 개발
- 서스템 사범 적용 및 개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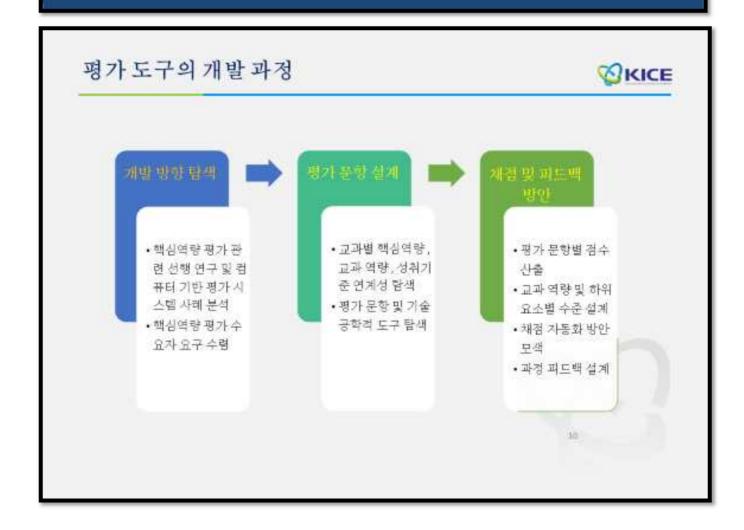
- 핵심역량 평가도구 고도화
- -교과 기반 문항
- 교과 동합형 문항

시스템

• 핵심역량 평가를 위한 컴퓨터 기반 평가 시스템 설계 및 프로토타입 개밥 핵심역량 평가를 위한 컴퓨터 기반 평가 시스템 고도화

• 시스템 활룡 방안 모색

②KICE 2. 영어 교과 역량 평가도구의 개발 방향 탐색



평가 도구 개발의 방향 탐색



핵심역량 평가 방향

- 학생 참여적인 평가
-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과정 중심 평가
- 문제의 발견과 해결을 증시하는 평가, 지식 기능 태도를 통합하는 평가
- 반성적 성찰 등력 개발 강조
- 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피므벡 제공
- 학생 학생 , 학생 교사 간 협력 강조

型有供受吸力与子加度收费

- •평가요소
- •평가방법
- •평가도구포함요소

택선역량평가지스템개발방향

- •평가문항구현
- •시스템환경
- •평가설계및기록
- •평가결과분석및피드백



평가도구의평가문항설계



핵심역량,교과 역량 및 성취기준 연계성 탐색

- 교과 역량과 핵심역량 관계 분석
- 교과 역량의 하위 요소 및 의미 탐색
- 교과 역량과 성취기준 연계성 분석

백심역량 평가 문항 및 기술공학적 도구 탐색

- 수행평가 유형
- 컴퓨터 기반 문항 유형
- 기술공학적 도구
- 매체 양식

평가도구의문항채점및피드백방안



채점기준,평가기준및진술문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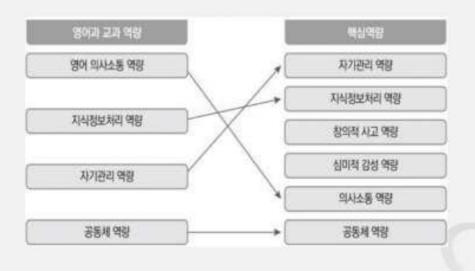
- •평가문항별채점기준개발
- •교과역량하위요소별평가기준개발
- •교과역량하위요소별수준진술문 (PLD)개발

피드백설계

- •과정및결과피드백설계
- •시기,방식,내용고려

영어 교과 역량 및 핵심역량의 관계





54

영어 교과 역량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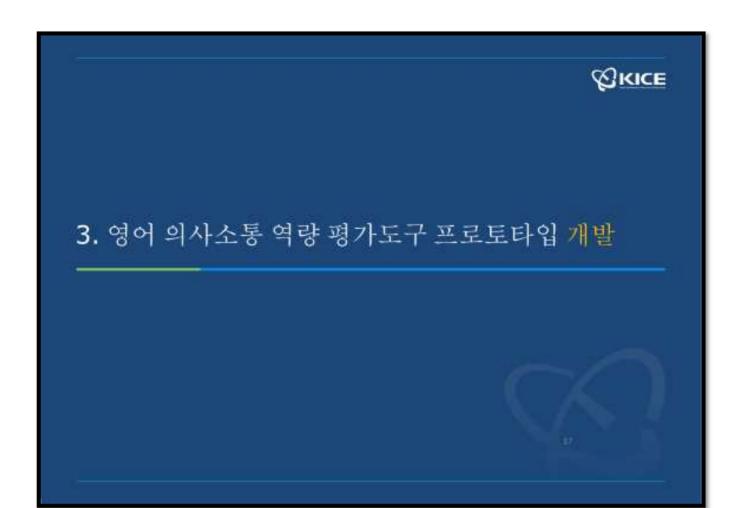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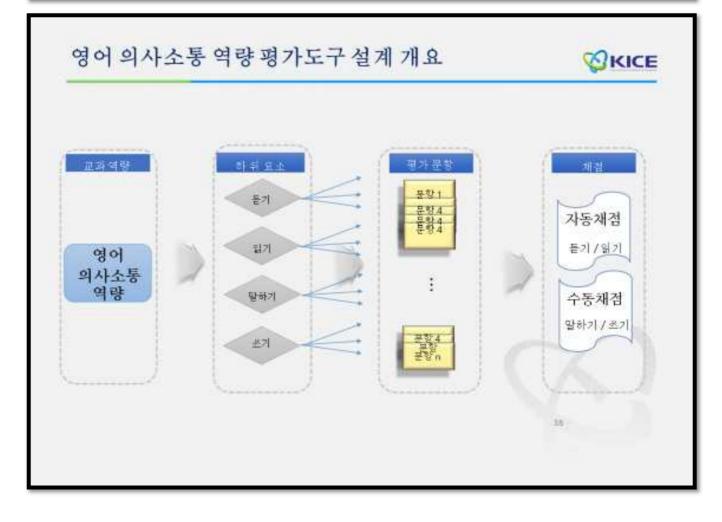
교과역량	의미
영어 의사소통 역량	일상생활 및 다양한 상황에서 영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영어로 표현된 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역량
자기관리 역량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영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
공동체 역량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가치와 태도를 공유하여 공동체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할 수 있 는 능력

영어과 교과 역량 및 하위 요소



역량	의미	하위요소		
	D. MANG. MARK. PARK.	영어에대한흥미,학습동기,자신감		
자기	영어에대한흥미와관심물바탕으로학 습자가자기주도적으로영어학습들지	학습건략		
관리역량	속할수있는역량	자기관리및평가		
		정보수집능력		
	자식정보화사회에서영어로표현된정보	정보분석능력		
		정보활용능력		
지식정보처리		매체활용능력		
역량	물적절하게활용하는역량	정보문리		
12412122		(이해)듣기,읽기		
명어의사 소통역량	일상생활및다양한상황에서영어로의 사소통할수있는역량	(표현)말하기,쓰기		
	지역,국가,세계공동체의구성원으로서	배려와관용,대인관계능력,협업		
	의가치와태도를공유하여공동체의삶	언어및문화적다양성이해몣포용능력		
공동체역량	에관심을갖고공동체의당면문제해결 예참여할수있는역량	문화정체성		





영어 의사소통 역량 역량 평가도구 프로토타입문항 개요



차시별평가과제		교과역량		문항정5
		하위묘소	문항유형	기술공학적도구
12시	관심및가입화망동아리관련질문 듣고용답하기	말하기	•답지선택형 •구술형	•실시간투표 •음성녹음및재생
2차시	동아리가입산청안내문읽고중요 내용및세부정보파악하기	임기	•답자선택형 •정보연결·대입형 •문자입력형	•하이퍼텍스트 •실시간투표 •드래그앤드톱 •텍스트맨집기 •메신저
3차시	읽기에서습득된정보를활용하여 동아리가입신청이메일쓰기	쓰기	•텍 <u>스트</u> 서술형	•음성녹음및재생 •텍스트편집기 •메신져

영어 의사소통역량하위 요소수준 진술문 예시 (말하기)



ěİ	하위요소 수준		수준건술문
		상	일상생활에서접할수있는친숙한주제에대해주어진과제를모두칙결하게 수행하고맥락에맞는표현을정확하게사용한다.또한발음이명확하고 발화가망설임없이자연스럽게표현할수있다.
		40	일상생활에서접할수있는한숙한주제에대해주어진과제를대부분 적절하게수행하고대체로맥락에맞는표현을정확하게사용한다.또한 발음이이해가능하며발화가대체로망설임없이자연스럽게표현할수있다.
명어 의사 소통 역량	말하기	하	일상생활에서접할수있는친숙한주제에대해주어진과제를부분적으로만 수행하고매우제한적으로맥락에맞는표현을정확하게사용한다.또한 발음이이해가능하나발화에망설임이잦아부자연스럽게표현할수있다.

영어 의사소통 역량 수준 진술문



교과역 량	수준	수준진술문
	А	일상생활에서접할수있는친숙한주제에대해주어진자료나정보에대한내용을 정확하게이해할수있으며맥락에맞는다양한표현물사용하여자신의생각이나 의견물정확하게표현할수있다.
	В	일상생활에서접할수있는친숙한주제에대해주어진자료나정보에대한내용을 대체로정확하게이해할수있으며맥락에맞는표현을사용하여자신의생각이나 외견을대체로정확하게표현할수있다.
	c	일상생활에서접할수있는천숙한주제에대해주어진자료나정보에대한내용을 큰무리없이이해할수있으며때때로맥락에맞는않은표현율다소부정확하게 사용하지만자산의생각이나의견율부분적으로표현할수있다.
	D	일상생활에서접할수있는진숙한주제에대해반복적이고정형화된자료나정보에 대한내용물부분적으로이해할수있으며자주맥락에맞지않은표현을 부정확하게사용하여자신의생각이나의견율암기한단어나여구름나열하는 수준에서표현할수있다.
영어의사 소통역량	E	일상생활에서접할수있는천숙한주제에대해반복적이고정형화된자료나정보에 대한내용을매우부분적으로이해할수있으며자주맥락에맞지않은표현을 부정확하게사용하여자선의생각이나의견을매우제한적으로표현할수있다.



4. 영어 의사소통 역량 평가도구 프로토타입 시범 적용 결과



5개 교과의 핵심역량평가도구프로토타입시범적용개요



시범책용

-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교과별 평가도구 프로토타일 시범 적용
- •학생설문조사
- •교사 설문 조사

温料	外面	시범적용일	폐제종류	학년	담당교사 수(명)	참이락생 수(명)	차사
국어	성A중	9.17.(針)~18.(今)	上且等	-31	.1	24	-3
사회	창용품	9.20.(금)~27.(금)	上里等	3	1	47	3
수학	금C분	9.9.(월)~10.(약)	태블릿PC	2	1	16	3
과학	508	9.19.(号)	노트북	1	1	23	2
영어	성E중	9.20.(計)	노토복,모바일기기	2	.1	21	3

5 개교과의 핵심역량평가도구프로토타입시범적용결과(학생)



하세선부격교

- 교과 공통 문항은 시스템 사용에 관한 문항으로 개발하여 사용
- 교과별 문항은 과제 수행의 이해 , 만족 , 흥미 , 개선점 등을 질문
-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으며 특히 가폭성, 디자인, 메뉴의 만족도 높음

ED	영교 (교준 변세)	7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많다	이다 보통	250	3(P 3(S)	무용단	
- MINION CATARON THAT AND AND THAT	452	加左	0	1,	8	42	76	0	127
1, 화면의 글자들이 읽기 쉬웠습니까?	(,65)	비용	0.0	.8	6.3	33.1	59.8	0.0	100.0
o major priviolat pum a minute toro	4.43	변도	0	0	13	46	68	0	127
2. 화면의 디자인이 만족스러월습니까?	(.67)	비용	0.0	0.0	10.2	362	53.5	0.0	100:0
O MONTH ADDRESS ASSESSED AND THE	441 (70)	였도	0	11	12	47	66	1.	127
3. 회면의 메뉴들이 이배하기 쉬웠습니까?		비용	0.0	.8	9.4	37.0	52.0	0.8	100.0
4. 문제품이를 위해 화면이 잘 진행되었습	4.18	995	0	В	19	:41	58	1.	127
L(n)7	(.925	비용	0.0	6.3	15.0	32.3	45.7	0.8	100.0
5 문제품이를 위해 필요한 도구(계산기,	422	변도	-1	6	20	37	63	0	127
편집기 등록 사용하는 것이 편리했습니까?	(.93)	비율	В	4.7	15.7	29.1	49.6	0.0	100.0
6. 전반적으로 시스템의 사용하기에 편리	444	변도	0	0	11	49	67	0	127
景奋斗까?	(.65)	비율	0.0	0.0	8.7	38.6	52.8	0.0	100.0

5개교과의 핵심역량평가도구프로토타입시범적용결과(계속)



학생성문경과

- 전반적인 시스템 이용 편의성, 기능,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기능 개선에 관한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음
- •내용 확인에는 화면 글자 다자인이 적절하였으나 글 편집에서는 불편함이 있었다는 의견이 제시됨

	#	48
	전반적 평가	처음 해보는 것인데도 이렇하기 쉽고 학습하기 위원로 전체하면 시스템이 굉장하 제있고 신선했음. 지료에는 여러를 첫 감성는데 제속하다 보니 뭡고 제미있었음. 시스템에서 사용 앱이 여러 가지 신기해서 새로웠은.
548	기동	복사나 불이기만으로 바로 물질 수 있어 좋았고, 사진도 물기기 변했은 사항으로 내용이 자장되고 오는 오늘권의 비간을 내 컴퓨터로 할 수 있어 관리했음 바로 보기나 검색 동물 할 수 있어 좋았음.
	• 화판의 디자인이 알끔하고 보기 전했음.	
개선점	ЛS	서비에 접속자가 많아도 먹이 안 걸리면 좋겠죠. 원장 참을 좀 크게 하면 좋겠요. 제출 후 취소하기 비른이 추가되면 좋겠요. 위로 가기 비른이 없어서 조금 불편됐음. 만급 폰트의 음부가 좀 많았으면 좋겠요. 네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 진행이 어려워요. 25.
	디자인	• 편찮시 글자 크기가 자에서 취대할 필요 있음,
	219	• 태풍당 PC를 두 시간 정도 사용하니 눈과 머리가 아콰트

5개교과의 핵심역량평가도구프로토타입시범적용결과(교사)



구부	Q1/4
	•개별 컴퓨터 기반으로 평가하여 학생 개인의 삼황과 속도에 맞춰 평가 활동물 진행할 수 있음.
	·학생의 이해 및 잘하는 정도를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지면상으로는 한계가 있는 핵심역량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음 .
평가 시행	·영상, 소리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평가가 가능함.
	·학습자의 데이터를 수짐 , 보관 , 정렬 , 확인이 용이함 .
	• 평가의 부분적 자동화가 가능합.
	·학생 학습에 대한 효율적인 제어 , 안내 기능 등을 제공할 수 있음 .
채검	·분항의 채점체계가 복잡할수록 시스템을 이용하는 궤점이 편리함
	·과정 중심 평가에서 학생 피드백물 할 때 용이할 것임 .
피드백	·축각적 , 상시적 피드백을 가능하게 해줌 .
	·학생 개개인의 결과 분석이 용이하여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음.
	- 개인의 컴퓨터 조작 농숙도가 검수에 영향을 마칠 가능성이 있음.
유의 사항	·핵심역량과 관련 없는 개인의 컴퓨터 활용 능력의 영향으로 부정확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
	- 기기 , 상황에 따른 돌발변수 때문에 평가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학생의 주의분산, 컴퓨터의 사양 차이 등이 평가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평가 프로그램이 학교의 수준과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 같음.

영어의사소통역량평가도구프로토타입시범적용결과



문항	평균 (요준 원자)	구분	권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1.질문듣고말하는평가과제를수행하기에편리하였습니	4.40	빈도	0	-1	31	- 5	10	17
71?	(0.87)	비율	0.0	5.9	5.9	29.4	58.8	100.0
	4.35	빈도	0	0	2	7	8	17
2.읽기평가과제돌수행하기에편리하였습니까?	(0.70)	비율	0.0	0.0	11.8	41.2	47.1	100.0
5 - 1 - 10 - 10 - 10 - 10 - 10 - 10 - 10	4.47	빈도	0	0	2	5	10	17
3.이메일(e-mail)쓰기과제를수행하기에편리하였습니까?	(0.72)	비율	0.0	0.0	11.8	29.4	58.8	100.0
4.자신이쓴글(이메일)을모품친구와함체검토하기위한		변도	0	0	5	4	8	17
대화방은사용하기에편리하였습니까?	(88.0)	비율	0.0	0.0	29.4	23.5	47.1	100.0
5.발하기,쓰기과제수행중예평가기준,Self-checklist등은 평가활동에도움이되었습니까?		변도	0	0	3	7	7	17
		明音	0.0	0.0	17.6	41.2	41.2	100.0
6.본시스템을사용한수행평가수업이기존의수행평가수	3.47	빈도	1	3	3	.7	3	17
얼과유사하였습니까?	(1.18)	비율	5.9	17.6	17.6	41.2	17.6	100.0
	4.18	빈도	0	0	3	8	6	17
7.모든평가는수업에서배운내용으로이루어졌습니까?	(0.73)	비율	0.0	0.0	17.6	47.1	35.3	100.0
8.듣기,말하기,읽기,쓰기를서로연계하여동시에평가하는	170.545.7	빈도	0	0	3	273	11:	17
는것이실제적인영어능력항상에도움이되었다고생각하 심나까?	(0.80)	비율	0.0	0.0	17.6	17.6	64.7	100.0

영어의사소통역량평가도구프로토타입시범적용결과(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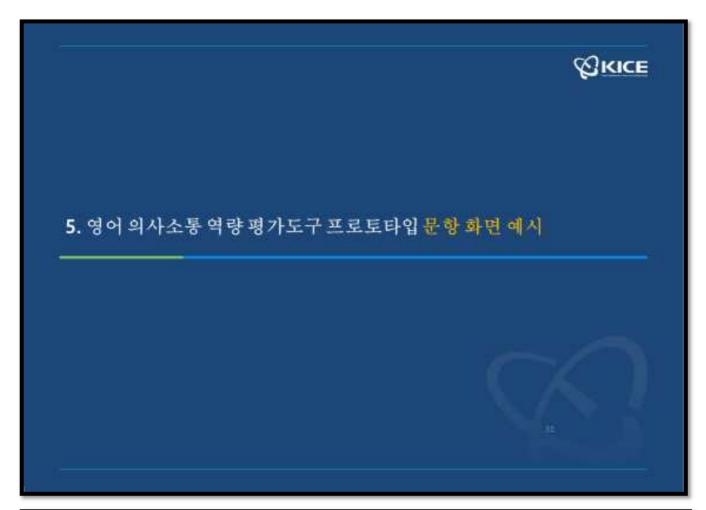
- 다양한 평가 안내 자료 활용
- 평가기준, 채점 기준, self-checklist 등이 말하기, 쓰기 평가 과제 수행에 실제적으로 도움
- 학생들은 '녹음 다시 듣고 말하기 수정하기', '동료나 교사 피드백을 통해 자신이 쓴 글 수정하기', '자기 평가'등
- 기존 지필 수행평가와의 차별점
- '컴퓨터를 사용한 새로운 방식 ', '기존에는 없는 self- checklist',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 제공 ' 등
- 컴퓨터 활용 평가 선호
- '컴퓨터 활용 수업 평가 좋았음 ', '선생님의 피드백이 편리했음 ', '컴퓨터 수행이라 듣기 편리하고, 자기 평가할 수 있어 좋았음.'

결론 **WKICE** Performance Self-directed 4 language Assessment skillsconnected Somputer Aligning English -bared Communicative Teaching Competency learning, & Assessment Motivation Confidence

제언



- ➤ eAssessment 시스템 고도화 및 확산
- ▶ 컴퓨터 기반 핵심역량평가 교사의 전문성 강화
- ▶ 컴퓨터 활용한 수업 기반 핵심역량평가 도구의 개발보급
- ▶ 컴퓨터 기반 핵심역량평가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인식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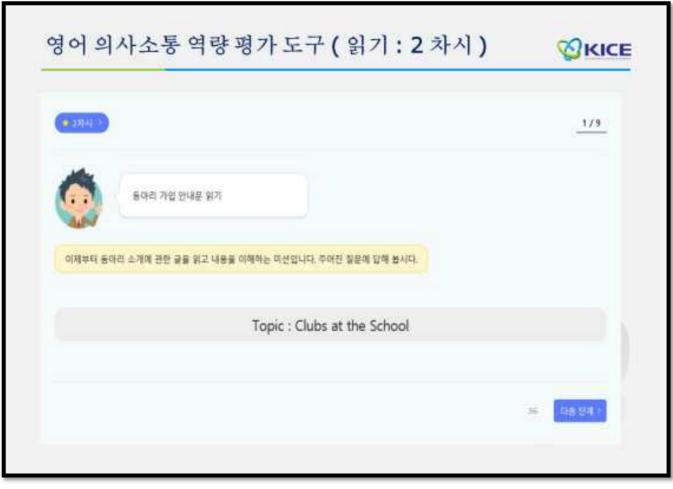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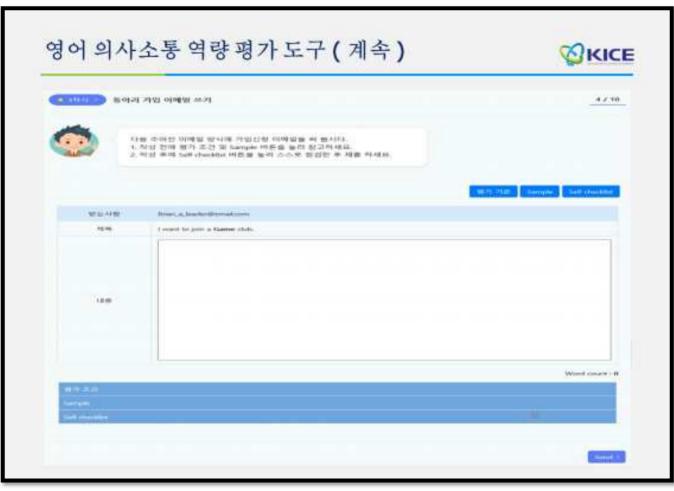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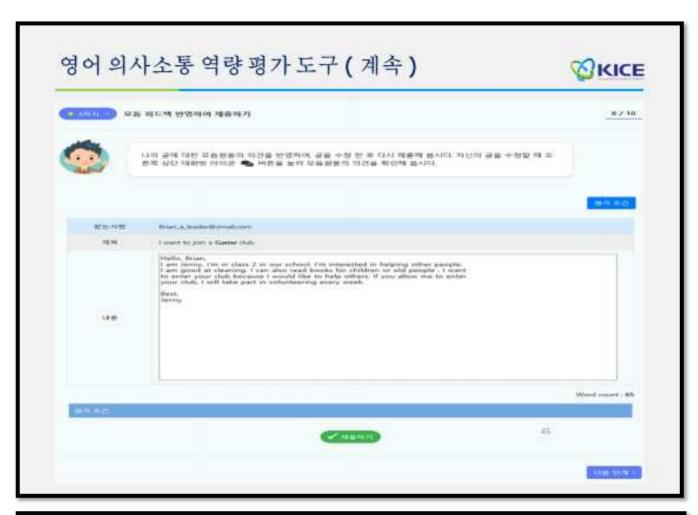
















감사합니다.

BIODATA

Moon-Bok Lee is a researcher at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Email: himon@kice.re.kr

Phone: (043) 931-0387

27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실행

모니터링 및 영어과 결과 분석

배주경(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1, 1, 4-1, 9,

목차

- 1.연구 배경 Ⅱ.모니터링 시행 Ⅲ.모니터링 결과 Ⅳ.결론
 - 1. 연구의 필요성
- 1, 모니터링도구 1, 설문 조사 결과
- 2. 연구 목적
- 2. 모니터링 도구별 참여자 2. 수업 관찰 및 성찰 결과
- 3. 모니터링 체제



1. 연구 배경



연구의 필요성

- ❖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실 수업의 실적 개선을 목적으로 핵심역량의 설정, 핵심 개념 원리를 중심으로 한 학습량 적정화, 학생참여중심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을 기본 방향으로 개 정되었음(교육부, 2015)
- ◆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17년에 초등학교 1~2학년군을 시작으로, 2020년에 초·중·고 모든 학년에 적용됨
- ◆ 교육과정의 개정 취지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학교 현장에서 개정 교육과정을 실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등 그 실행상의 문제나 어려움을 파악하고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 제7차 교육과정기에는 전체 교과를 대상으로 교과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실태를 분석하는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박순경 외, 2001, 2004), 그 이후의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교과 교육과정이 실행되고 있는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은 부족한 편임

1. 연구 배경



연구목적

- ◆ 초·중학교의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실행을 모니터링하여 교과 교육과정의 실행 실태 및 지원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현장에서의 성공적인 교육과정 실행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2개년 연구로 설계됨
- ◆ 1차년도 연구(2018년):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개정 취지를 담아낼 수 있는 교과 교육과정 실행 모니터링 체제를 설계함
- ❖ 2차년도 연구(2019년): 1차년도 연구에서 설계된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실행 모니터링 체제를 적용하여 국가, 시도교육청, 학교의 교육과정 실행 및 지원 실태와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실행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분석함



1. 연구 배경



모니터링 제제

◆ 교과 교육과정 실행 모니터링의 범위

교육과정 개발 및 고시

교육과정의 실행

넓은 의미의 교과 교육과정 실행

고 기

- 국가 교육과정 지원 점책 추진
- 국가 교육과정 실행 역량 강화
- 국가 교육과정 실행 지원
- 정책 소통 및 의견 수렴

시도

- 시도 교육과정 지원 정책 추진
- 교원 역량 강화
- 교육과정 실행 지원
- 정책 소등 및 의견 수렴

학교

- 학교 교육과청 계획 및 운영
- 교원 연수 및 교사협의체 지원
- 수업 및 평가 실행

좁은 의미의 교과 교육과정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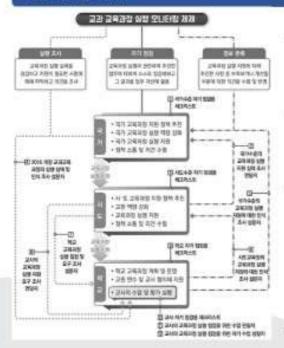


즐처: 김해숙 의(2018), p. 30

1. 연구 배경



모나터링 제제



- 국가, 시도, 학교 단위 모두가 주제적으로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것을 고려하여 모니 터링 체제를 개발함
- ❖ 복수의 정보 출처로부터 모니터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제를 개발 함
- 필요한 모듈만 선택하여 모니터링 하거나 모듈 단위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 도록 모듈화를 추구하여 모니터링 체제를 개발함

즐처: 김해숙 외(2018), p. 143

11. 모니터링시행



모니터링 도구

◆ 국가, 시도교육청, 학교 수준의 교과 교육과정 실행 및 실행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자기점검 제크리스트, 설문지, 면담지, 수업 관찰지 및 성찰지 등 총 12종의 모니터링 도구를 개발함

- ♦ 교사 수준의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실행에 대해 다음의 도구를 활용함
- 도구 ④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실행 실태 및 인식 조사 설문지(초등학교 10종, 중학교 11종) 중 초등학교 영어 및 중학교 영어 설문지
- 도구 ① 교사의 수업 관찰지
- 도구 ⑫ 교사의 자기 수업 성찰지



11. 모니터링시행



모니터링 도구별 참여자

- ◆ 도구 ④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실행 실태 및 인식 조사 설문지(초등학교 10종, 중 학교 11종) 중 초등학교 영어 및 중학교 영어 설문지
- 초등학교 400개교 표집. 초등학교 교사 260명 응답
- 중학교 300개교 표집. 중학교 영어 교사 229명 응답
- 설문 응답 기간: 2019년 4월 17일(수)~ 4월 28일(일)
- 설문 응답 결과에 대해 초등학교 교사 2명, 중학교 영어 교사 2명 심층면단
- ◆ 도구 □ 교사의 수업 관찰지 및 도구 ◎ 교사의 자기 수업 성찰지
- 시교육청의 초등학교 1개교 및 중학교 1개교, 도교육청의 초등학교 1개교 및 중학교 1 개교 임의 선정
 - 초등학교 2개 학교, 중학교 2개 학교의 영어 수업 관찰 및 면담, 교사의 자기

III. 모니터링결과



설문 조사 결과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강조 사항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영어 수업에서의 실천, 2015 개정 교육과정 강조 사항으로 영어 수업에 나타난 변화,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실행 시 어려운 점과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한 결과 발표 예정

수업 관찰 및 성찰 결과

❖ 수업 공개 교사가 관찰해주기 바라는 초점이나 강조 사항, 수업 관찰 결과, 수업 공개 교사가 스스로 성찰하고자 하는 주제, 수업 성찰 결과, 수업 관찰 후 면담 결과 등 발표 예정



IV. 결론



❖ 2015 개정 교육과장에서 강조하는 역량 함양,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등으로 인해 영어 수업에 나타난 변화, 영어 수업 운영의 어려움 및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요약하고, 모 나타링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 교육과정 실행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 제안 예정



참고문헌



교육부(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법책 1].

박순경, 강창동, 김정희, 이광우, 이미숙, 손민호(2003).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평가 연구 (III): 중학교 교육과정의 편성·문영·평가와 초·중학교급간 교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중심 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3-2.

박순정, 소정희, 유승연, 정미정(2001). 제7차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평가 연구(I): 교육과정 문서 및 적용 지원 체제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1-7.

박순경, 이광우, 김정희, 손민호, 소경희, 이승미, 황정희(2002).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평 가연구(Ⅱ):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평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 고 RRC 2002-1.

배주경, 박소영, 김종윤, 김혜숙, 도종훈, 박윤경, 조진형, 라채주(2019a), 2015 개정 교과 교육 과정 실행 모니터링 연구(五): 초·중학교 모니터링 및 결과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 보고 RRC 2019~4~1.

배주경, 박소영, 김종윤, 김혜숙, 도종훈, 박윤경, 조진형, 라재주(2019b). 2015 개정 교과 교육 과정 실행 모나타행 도구 모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9-4-2.

성경희, 김평국, 박정, 정구향, 차우규, 강대현, 최승현, 곽영순, 유정애, 이경먼, 박소영, 최진황 (2003). 제7차 교육과정의 현장 운영 실태 분석(D): 초등학교 교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총 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3-3-1.

성경희, 조용기, 이명준, 최승현, 정문영, 유정애, 이경언, 박소영, 임찬빈, 설규주, 박흥준(2004). 제7차 교육과정의 현장 문영 실태 분석(E): 충등학교 국민공통기본교과를 중심으로(충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4-3-1.





BIODATA

Jue-Kyoung Pae is a researcher at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She has conducted various research projects related to NAHA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Achievement), performance assessment, monatoring national curriculum, and others.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curriculum development and monatoring, language assessment, teaching witing, and CALL.

Email pee@Sicers.kr Phone: (043) 932-0373

영어 평가(English Testing)

분과장: 배정옥(경북대)

분과주제: 대학영어교육·영어평가 분야의 최근 변화 추이와 쟁점 - 수능영어 절대평가 도입 효과와 영 어시험 간 점수 환산을 중심으로

발표 제목	발표자
Session overview: Recent trends and issues in English education and testing in South Korea	Yong-Wo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Jungok Ba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수능영어 정책의 실패, 과연 해결방법은 있는가?	황종배(건국대)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 이후의 공대 신입생들의 영어능력 추이와 영어교육 상황 분석	윤도현(백석대) 이용원(서울대) 이종우(홍익대)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절대평가 전후의 대학영어교육의 변화 추이와 주요 특성: 대학(교양)영어 교원의 인식 설문 조사	이용원(서울대) 이종우(홍익대) 배현(목포대)
대학영어교육의 최근 동향: 그룹 인터뷰 참여자들의 관점	정한별(서울대) 이용원(서울대)
TOEIC-신 TEPS 점수 환산의 공정성: 예비 연구	임의진(진주교대) 전희성(서울대) 최지원(서울대)

Session Overview: Recent Trends and Issues in English Education and Testing in South Korea

Yong-Wo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Jungok Ba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years, English language testing in South Korea has undergone a series of significant changes, which include the adoption of the so-called "criterion-referenced testing" (CRT) or *jeoldaepyeongga* system for the English section of the Korean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CSAT), the required linkage between the contents of the Korean CSAT English Section and EBS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test prep books, and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associated with students' rights of course selection. Another important issue deserving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attention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is the fairness and validity of score conversion relationships among major English proficiency tests used in the South Korean context, which also seems to be closely related with the adequacy of minimum standards of English ability/proficiency established for college admission and college-level study. In retrospect, such important changes and issues probably should have been discussed and debated in more depth much earlier among researchers, scholars, practitioners, and policy makers in the fields of English education and testing.

As suggested by the saying "Better late than never," however, perhaps now is the perfect time for confronting both positive and negative consequences caus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jeoldaepyeongga* to the Korean CSAT so far and starting a serious discussion/debate on the impact of the *jeoldaepyeongga* implementation to the Korean CSAT on English education based on empirical data and collective experiences of major stake-holders of the test accumulated over recent years. With this as a backdrop, the purpose of this session is to give an overview of the current state of college English education and testing in relation to these newly-introduced changes and issues, with a focus on (a) the major concerns and issues raised about the Korean CSAT English along with suggestions for improvement, (b) the impact of the *jeoldaepyeongga* system on college English education, and (c) score conversion relationships among two English proficiency tests. Each of the presenters will prepare and give a short presentation about the results of research studies conducted to investigate a range of issues related with college English education and testing in South Korea.

In the first paper, which is entitled "Failure of Korean CSAT English Policy: Could there be a Solution?", Jongbai Hwang lists four major example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s English education policies that turned out to be unsuccessful, discusses the problems of the Korean CSAT English, along with the nature of the crisis of English education exacerbated by the current assessment system,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jeoldaepyeongga and CSAT-EBS linkage systems, and provides important suggestions for dealing with these ongoing challenges.

In the second paper, which has the title of "Analysis of Changes in English Language Ability of Freshman in the Engineering Colleges and English Education Situations in Korea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Jeoldaepyeongga System to the English Section of Korean CSAT," Dohyun Yun, Yong-Won Lee, and Jong-Woo Lee examine the trend of changes in the average English test scores of freshmen of the engineering college at two universities and look into the perceptions of the college English professors and instructors about the trends of changes in the English language ability of freshman entering the engineering colleges and in the environments surrounding English education in South Korea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jeoldaepyeongga* system to the English section of Korean CSAT.

In the third paper, which is entitled "Trend of Changes in English Language Education in Korea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Jeoldaepyeongga System to the English Section of Korean CSAT: A Survey of College/General English Instructors' Perceptions," Yong-Won Lee, Jong-Woo, and Hyun Pae investigate whether there are any noteworthy patterns observed in the perceptions of college English instructors not only about changes in college English education in pre- and post *jeoldaepyeongga* years of Korean CSAT but also the future prospect of English education in South Korea, through a nationwide survey study of 171 professors and instructors at various universities.

In the fourth paper, which is entitled "Recent Trends of Changes in College English Education: Participants' Perspectives," Hanbyul Jeong and Yong-Won Lee investigate the perceptions of college English instructors about college English education in pre- and post-*jeoldaepyeongga* years of Korean CSAT and the future prospect of English

education in South Korea, through a focused group interview. A total of 8 college English instructors including cochairs, who represented different regions of South Korean, participated in the interview. The focus group interview not only confirmed some of the findings from the instructor survey analyses but also provided some new insights.

In the fifth paper, which has the title of "Examining Fairness in TOEIC-New TEPS Score Conversion: A Preliminary Study," Euijin Lim, Heesung Jun, and Jiwon Choi examine the adequacy and validity of the existing score conversion table between the TOEIC and New TEPS and the passing scores established for different ranks and categories of government employees by the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by collecting and analyzing score data from a total of about 500 participants who took both tests in recent months.

All of these five papers address important issues of English language testing that deserve careful scrutiny and deep thought of English language testers and teachers. It should probably be mentioned here that the third and fourth papers are derived from a larger study carried out to investigate trends of changes in college English education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jeoldaepyeongga* to the English section of Korean CSAT (Lee et al, 2020). The second paper is also related with the larger study partially in terms of research theme and data source, but focuses on the students of engineering colleges. It is our sincere hope that the collection of papers presented in this English testing SIG session will create an important momentum for triggering and inspiring productive discussion/debate on major issues of English language testing in the South Korean context, including the impact of the *jeoldaepyeongga* implementation and the validity of score conversion among English tests, deepening our collective understanding of how to deal with these issues effectively, and facilitating solidarity and cross-fertilization of ideas among sister associations of English literature, linguistics, and education in confronting common challenges and problems facing English, English language education, and English-related studies in Korean society.

References

이용원, 정한별, 양영유, 이종우, 배현 (2020).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 전후의 국내 영어교육 변화 추세에 대한 연구: 대학영어 교육을 중심으로. 2020 한국영어영문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서울대학교, 2020년 12월 17-19일.

BIODATA

Yong-Won Lee is a professor of English linguistics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currently serving as TEPS Center Director and Executive Director of the TEPS Council. His area of concentration is language testing and assessment.

Email: <u>ylee01@snu.ac.kr</u> Phone: (02) 880-2536

Jungok Bae is a professor of English linguistics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er area of concentration is language testing and assessment.

Email: jungokbae@knu.ac.kr Phone: (053) 950-5833

수능영어 정책의 실패, 과연 해결방법은 있는가?

황종배 (건국대학교)

영어교육 정책의 헛발질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집단은 영어교육 전문가 집단인 영어영문학과와 영어교육과의 교수나 중·고등학교의 영어교사가 결코 아니다. 이론적으로나 현장의 경험적인 측면에서 그 누구보다도 영어교육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을 제치고 한국의 영어교육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몇몇 안되는 교육부 혹은 청와대의 정책 입안자들이다. 이들은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를 잘 한다는 소리를 들었고, 개인적으로 영어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영어교육의 이론과 원리, 현장의 경험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먼저 앞세우고 걱정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관련되어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 입시와 관련한 정책에 있어서 이들은 특히 백년지대계로서의 교육보다는 당장 다가오는 눈앞의 표심 향방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이들이 그동안 헛발질했던 수많은 정책들 가운데 가장 최근의, 대학 입학 수능시험과 관련하여 실패한 정책을 몇 가지만 봐도 가히 그 무모함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정책	취지	결과
수준별 수능 (A/B형)	 과도한 시험 준비 부담 없는 수능 (쉬운 A형/ 보통 B형) 희망하는 대학의 수준에 맞춘 수능 준비 	· 영어는 1년 만에 폐지(국어, 수학은 3년 만에) · 현실성 없는 계열별 수능으로 전락
NEAT 개발 및 수능 대체	· 말하기·쓰기 능력 평가 · 수능 및 TOEIC 대체하는 공신력 있는 평가 제 도 구축	· 4번의 시험 후 폐지 · 수능 대체 실패 · 수백 억 예산 낭비
수능 영어 절대(?) 평가	· 상대평가로 인한 무한경쟁 지양 · 과도한 수험준비와 사교육비 경감	· 절대평가의 원리에 맞지 않는 평가 방식 · 영어만 절대평가로 인한 부작용 · 영어의 상대적 경시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
EBS-수능 연계 정책	· 사교육비 감소, 지역이나 계층 간 교육 불평등 해소	· 공교육 황폐화: 문제풀이 영어교실 · 사교육 감소 효과 미미

여기에서는 위에서 실패라고 부르는 네 가지 정책 가운데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정책 두 가지(수능 영어절대 평가, EBS-수능 연계)에 대하여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수능 영어 시험과 관련된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수능영어의 문제점, 그리고 영어교육의 위기

수능영어 절대평가

수능영어의 절대평가는 위의 표에서 보듯이, 상대평가로 인한 학생들 간의 무한경쟁을 지양하고, 과도한 수험 준비와 사교육비를 경감한다는 취지를 표방하며 2018학년도 수능 시험부터 시행되었다. 절대평가는 상대평가와 달리 서열에 대한 집착이 아닌 지적인 성취를 유발할 수 있고, 언어 학습에 꼭 필요한 협동 학습 및 창

의 인성 교육과도 부합되며, 정책의 취지인 수험생의 영어 시험 준비 부담의 완화와 영어 사교육비에 대한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능영어 시험의 절대평가는 우리가 이상적으로 기대했던 절대평가와는 거리가 있는 것도 역시 사실이다. 평가 원리에 따르면 절대평가란 절대적 기준을 미리 설정하고, 그 기준을 성취하면 다른 학생들의 성취 수준에 관계없이 설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재의 수능영어 절대평가는 그러한 절대적인 기준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심지어 상대평가 시절과 비교하여 전혀 달라지지 않은 성취수준을 바탕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출제된 시험문제에 의하여, 단지 학생들이 받은 점수를, 그것이 어떤 수준의 점수이든 그 점수를 그대로 인정하는 '절대적 점수제'(이병민, 2014) 혹은 '고정 점수 분할 방식에 의한 상대 평가'(신상근, 2014)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매년 시험의 난이도가 그나마 일정 수준으로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또 외국의 유수한 시험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의 '절대평가'는 절대 아니다. 현재의 수능영어 절대평가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전보다 비교적 1등급을 많이 받도록 난이도를 상당히 낮춘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의 큰 불만을 야기하지 않는) 변형된 형태의 상대평가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2014년 교육부가 수능 영어시험의 절대평가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했을 때, 영어교육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평가 방식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지적한 바 있다. 그 중의 몇 가지를 보면, 우선 학교, 특히 고 등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의 '편중 효과'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잘 짜여진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최근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것에 의해 개발된 교과용 도서에 의해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 운영을 보면, 넓은 범위에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따르고는 있으나 재량의 범위 내에서는 철저하게 대입, 혹은 내신 시험을 위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구입하게 되어 있는 영어 교과서는 거의 형식적으로 잠깐 사용되고, 영어 수업 시간의 대부분은 EBS 교재 혹은 다른 시험 대비용 자료를 가지고 채워지고 있는 것이 국가 교육과정과 배치되는 가장 최악의 현실이고, 국가 교육과정을 지킨다 고 하더라도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주어진 대부분의 시간은 절대평가가 시행되는 영어가 아닌 국어와 수 학 과목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고등학교 영어교육의 현실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현실은 수능 영어의 절대평가 시행을 예고했을 때 이미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부는 입으로 는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교육과정의 왜곡을 초래하는 제도를 시해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의 한 연구(이경남, 2020)에 따르면 서울 소재 일반 고등학교 76개교의 국어, 영어, 수학의 기초 과목군 과목 개설 현황을 비교한 결과, 영어 과목의 개설 수와 영어 과목을 선택한 학생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새롭게 선발되는 영어 교사의 수도 다른 교과목에 비해 그 감소폭이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결국 학생들의 영어 능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국가 경쟁력 제고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 영어시험의 절대평가에서 내세우고 있는 사교육의 경감 혹은 학생의 과도한 시험 준비 경감 역시 예상과 다르게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2018년도 사교육비 조사에서도 전체 사교육비는 물론 영어 사교육비 비용이 전년도보다 7.2% 늘어났으며,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영어 절대평가의 도입으로 사교육비가 경감됐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는 10명 중 1명되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KEDI, 2019). 2019년 사교육비 조사에서도 초·중·고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처음으로 30만원을 돌파하여 32만 1천원으로 나타났고, 영어 과목의 전체 사교육비는 6조 1천억원으로 수학의 5조 9천억원, 국어의 1조 5천억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영어 사교육비 규모는 2018년 이후 다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분명히 수능 영어의 절대평가 제도는 또 다른 실패임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대입 전형에 있어서도 역시 예상했던 문제점들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서울대 입시에서 "영어 4등

급을 받은 학생이 정시 일반 전형에 합격"했다는 뉴스는 놀랍기보다는 서울대 입시에서 영어가 얼마나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영어 절대평가에 의해 변별력이 낮아졌다고 판단한 대학들이 영어 점수의 비중을 더욱 낮춤으로써 영어는 대학 입시에서 거의 설자리가 없어진 것이고, 이는 수능 영어 시험이 절대평가로 바뀌어 높은 등급을 받은 학생수가 조금 늘어났다는 것을 핑계로 과목의 변별력을 논하며 영어 과목의 중요성에 눈을 감아버린 대학 입학 관계자들의 단견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들로 비추어볼 때, 수능영어의 절대평가 전환은 애초에 교육부가 의도했던 정책적 목표를 하나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비극적인 결과가 아니다. 이러한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고, 대다수 영어교육 전문가들이 반대 의견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밀어붙인 정책 당국자들과 일부 위정자들의 무책임과 무지함이 더 큰 문제이다. 앞으로 과연 우리는 얼마동안 이렇게 영어교육 정책의 무책임한 헛발질을 참아야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다.

EBS 연계정책

다음은 2018년 한국영어영문학회의 세미나에서 필자가 인용한 한 신문 기사의 일부분이다.

전북 전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생인 정모(19)군은 학교 수업 시간에 거의 잠을 잔다. 이군은 "선생님들이 주로 EBS 교 재에 나오는 문제를 풀이해주는데, 수업을 듣지 않아도 인강만 들으면 (수업 내용을)따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강'은 인터넷 강의의 줄임말이다. 그는 "밤에 인강을 제대로 들으려면 학교에선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며 "EBS 인강은 내신 시험용, 사설 인강은 수능 시험용으로 공부한다"고 덧붙였다.

'수능 대비'를 이유로 EBS 교재가 교과서를 대신하면서 일선 학교에서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이 늘고 있다. 교단 위 선생님의 수업은 외면하고, EBS 인터넷 강의만 찾아 듣는 것이다. 교사들은 "학교 수업이 EBS 교재 문제풀이를 위한 '보강' 정도로 인식되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정부의 EBS 수능 연계 정책이 '공부하는 교실'을 사라지게 하고,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해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EBS 동영상 강의는 대부분 현직 교사들이 진행한다. 그러나 EBS에 대한 학생들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학교 선생님들을 외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 관악구의 한 고등학교 3학년생 이모(18)군은 "EBS 동영상 강의와 학교 수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모든 과목에서 EBS를 선택할 것"이라며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선생님들도 수업에 열의가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군은 "고3들이 주로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사설 인강' 강사와 EBS 강사에 대한 평가나 정보가 쏟아지지만, 학교 선생님 수업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사교육 강사들도 모자라 이젠 EBS한테까지 밀려났다"고 한탄하는 분위기다. 서울시 동작구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사는 "4~5년 전에도 수업을 듣는 학생이 절반 정도였는데, EBS 연계 정책이 시작되고 난 뒤에는 내 수업을 듣는 학생이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의 한 고3 담임교사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기보다 진학 상담이나 해주는 '상담사'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물론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지만, 비교적 우리의 고등학교 교육 현장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평이다. EBS 교재 연계 70% 정책의 폐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영어교육 현장을 황폐화시켜 왔다. 이것 역시 사교육비의 경감과 교육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시행되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사교육비 경감의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일부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 수험생의 수능 부담을 줄여줬다는 확인되지 않은 믿음 속에 우리의 교육부와 교육정책 입안자들은 대부분의 영어교사, 영어교육 전문가들의 뜨거운 반대 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계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정책이다. 처음에 약 30% 정도의 연계에서 시작할 때만 해도 어느 정도 참아줄

수는 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교육을 잘 안다고 주장하는 교육부 장관이 이 연계율을 70%로 올려버 렸다. 도대체 30%는 어떻게 나온 숫자이며, 또 70%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을까? 필자가 아는 바 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30%를 연계했을 때 사교육 경감 효과가 얼마가 나타나며,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감 은 어느 정도 경감이 되는지, 또 그것을 70%로 확대할 때는 또 사교육비가 얼마나 더 떨어지고, 교육 기회의 균등은 어느 정도의 정책적 효과를 볼 수 있다든지 하는 그 흔한 정책 연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누구 말 대로 "납득이 가지 않는" 정책의 추진이요, 변경이다. 그러던 교육부가 또 갑자기 2022학년도 대입부터 연계 비율을 50%로 낮추겠다고 한다. 이건 정말 코미디 수준이다. 70%는 너무 많고, 30%는 너무 적으니까, 딱 중간 50%로 맞추면 되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그 중요한 한 국가의 대입제도 개선안이라고 아무런 근거 자료 없이 제시하고 있다. 70% 연계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 사교육비가 줄어들었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또 학생들 의 학습 부담이 어느 정도 어떻게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없었는데, 또 농산어촌 학생들은 30% 때와 비교해서 70% 때는 어느 정도로 사교육 걱정 없이 수능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연구도 없이 또 갑자기 50% 를 제시하면서 우리 보고 이 정도면 만족하라고 요구한다. 참으로 답답한 영어교육 정책이요, 대학입시 정책이 다. 일부 학원가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EBS 연계율을 50%로 낮추는 것은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부 담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예측을 한다. 또한 간접연계 방식에 의한 수능 출제 역시 수험생의 부담을 늘려 사교육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일부 언론에서는 진단하고 있다. 이런 중구난방식의 예측과 그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은 바로 교육부가 자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부 역시 자신들의 정책 방향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만일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 인지 제시를 해야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영어교육 당사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의 교육 현장은 이미 EBS 교재가 최고의 교육과정이요, 가장 훌륭한 교과용 도서가 된지 오래이다. 도대체 국가의 교육과정은 왜 존재하는가? 혹자들은 EBS 교재 역시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구성되고 개발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EBS 연계 교재의 개발 과정을 전혀 모르는 문외한들의 변명에 불과하다. 한번이라도 EBS 연계 교재의 개발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EBS 연계 정책, 그것도 70% 혹은 50% 연계 정책의 문제점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고등학교의 일정 시기가 되면 학생들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교과서를 버리고, EBS 연계교재만을 반복해서 공부하고, 교사의 수업은 무시하고 EBS 강의에 더 집중을 한다. EBS 교재의 이러한 사용은 우리의 교육이 평가에 의해 왜곡되는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이 이루어지고, 평가는 그 교육의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일진대, 우리의 교육 현장은 평가가 교육을 지배하고, 교육의 방법과 내용을 결정하고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시험 대비용 참고 도서로 개발된 EBS 연계 교재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개발된 교과서보다 우선시되는 우리의 교육 현장의 모습은 참으로 애처롭기만 한다.

영어교육의 미래, 해답은 원칙 있는 정책의 추구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시는 그 무엇에도 우선하는 모든 이들의 초미의 관심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만족할만한 정책의 도출은 그만큼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아니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교육부가 영어교육에 관한 그 어떤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그답은 자명하다.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교육의 원리, 평가의 원리에 바탕을 둔, 설명할 수 있고 근거가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절대평가가 평가의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라고 한다면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 왜 하나의 시험에 어떤 과목은 절대평가, 어떤 과목은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혼란을 자초하는 것일까? 또 이왕 절대평가를

실시하려면 절대평가의 원리에 입각한 진정한 절대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무늬만 절대평가인 평가를 시행하면서 국민들을 오도하고 교육 현장과 입시제도를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현재의 절대평가인듯 절대평가 아닌, 절대평가의 탈을 쓴 "절대점수식" 절대평가를 빨리 버리고, "유럽이나 미국의 방식처럼 학교 영어교육과 학생의 자기주도적 노력과 내적 호기심에 의해서 성취할 수 있는 성취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진정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이병민, 2014).

또한 영어교육 전문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육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EBS 연계 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폐지해야 한다. 당장의 수험 준비에 바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EBS 교재만 공부하면 된다"는 달콤한 유혹을 제시하면서 표를 얻을 생각을 하지 말고,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우리의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교육을 내실화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교육보다 정치를 앞세우는 당국자들은 제발 근시안적인 사고를 버리고 백년대계의 국가 교육,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주기 바란다.

참고 문헌

이경남. (2020). 고등학교 기초교과목군 (국어, 영어, 수학) 선택 현황에 기초한 교육적 논의. 한국영어영문학회학술대회 발표 논문.

이병민. (2014). 수능 영어 과목 평가 방식, 이대로 좋은가? 2014 수능영어 절대평가 토론회 주제발표 논문.

"밤에 EBS 인터넷 강의 들을 거에요" ... 수면실로 변한 고3 교실. 조선일보 입력 2016.03.29 13:55 | 수정 2016.03.29 15:13

황종배. (2018). 한국 학교 영어교육의 현실과 미래. 2018년 한국영어학학회 발표 논문.

BIODATA

Jong-Bae Hwang is a professor of English linguistics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at Konkuk University. His areas of concentration are English teaching methodology, SLA, and English grammar instruction.

Email: jongbai@konkuk.ac.kr Phone: (02) 880-2536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 이후의 공대 신입생들의 영어실력 추이와 영어교육 상황 분석

윤도현 (백석대학교) 이용원 (서울대학교) 이종우 (홍익대학교)

서론

요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전환된 뒤 입학한 공과대학 신입생들의 영어 실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대학 교원들의 문제제기가 영어 관련 학회 발표나 워크숍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가경쟁력 확보에 일조한다는 대학 교육 정책에 큰 불안요인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방식이 적용된 2018학년, 2019학년, 2020학년 수능 영어영역 점수 변화 상황과 2015학년에서 2020학년까지의 국립대학 2곳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공대 신입생들의 기초영어능력 점수를 분석해보고 아울러 2020학년도 수능과 대학 입시 전형이 마무리된 현재의 시점에서 대학 현장에 있는 교·강사들을 중심으로 하여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이 공대 신입생의 영어능력과 대학 영어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참고로 대학 입학과 동시에 신입생들의 기초영어능력을 진단하는 시험을 치루는 2개 대학을 표본으로 5년 치 영어 성적 자료를 절대평가 전과 후로 비교 분석해 공대생들의 영어실력의 추이를 조사한 연구는 본 논문 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절대평가와 관련해 나온 일부 선행연구들은 주로 고교 학습자, 교사, 학부형들을 대상 으로 한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단순한 인식조사와 앞으로의 현상에 대한 예측 정도였다.

2020년 학술단체협의회 정책연구의 파일럿 연구의 성격으로 수행된 본 연구는 2018학년도에 처음 도입된수 등 영어영역의 절대평가 전환 이후에 공대 신입생들의 성적 추이에 대한 교·강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고 해당정책의 취지와 현실과의 부합 정도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함께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찰해 보고자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전환 후 공대생들의 영어실력 추이에 대해 교·강사들은 어떤 인식을 가졌는가?

연구문제 2.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공대생들의 대학에서의 영어 학습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연구문제 3.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전환 후 공대생의 영어교육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이번 장에서는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배경, 도입 후 변화된 영어 교육의 상황, 그리고 다른 나라의 국가영어시험 현황을 탐색해 보고 그 결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배경

교육부는 "상대평가 체제의 수능은 학습자 간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키며 기존의 교과 과정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학습을 요구하여 결국 학습자들의 과잉학습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래서 "2018학년 도부터 영어과목부터 절대평가 도입을 통해 기존의 상대평가 체제의 문제점이었던 문제풀이 중심의 수업 및 과잉 학습으로 인한 학습자의 부담감을 낮춰 실질적으로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데 제 도 시행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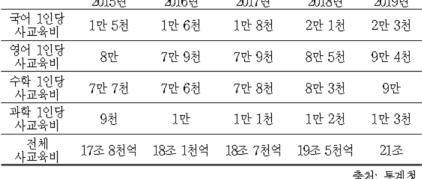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 후 영어교육상황

2018학년도부터 수능에서 영어를 기존의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한 대의명분 중 하나는 가계에 지 나친 부담을 주는 영어 사교육비 감소 목적이었다. 절대평가 시행 전까지 사교육비 중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 은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영어가 가장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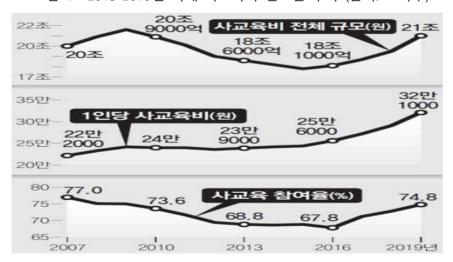
	. 2015 201	3	- 1— 1 1	L 0 (L 1):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국어 1인당 사교육비	1만 5천	1만 6천	1만 8천	2만 1천	2만 3천
영어 1인당 사교육비	8만	7만 9천	7만 9천	8만 5천	9만 4천
수학 1인당 사교육비	7만 7천	7만 6천	7만 8천	8만 3천	9만
과학 1인당 사교육비	9천	1만	1만 1천	1만 2천	1만 3천
 전체	177 05164	107 1516	107 75164	107 55164	01.7

<표 1> 2015-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현황 (단위: 원)

출처: 통계청



<그림 1> 2015-2019년 국내 사교육비 연도별 추이 (출처: 교육부)



교육부가 영어를 절대평가로 전환했기 때문에 영어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전체 사교육비는 감소하고 사교육 비 풍선효과가 없을 것이라 내다봤지만 통계청 자료에서 보듯이 전체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했으며 풍선 효 과도 없었고 주요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목 과목의 사교육비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른 나라들의 국가영어능력시험 현황

한국의 주변에 있는 동북아 나라들은 일찍부터 영어가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한 요소라는 것을 인식하고 영 어시험을 자체 개발하여 학생들의 영어성적 측정뿐만 아니라 학교 영어교육 강화에 활용하고 있다(안민석, 2006 국정감사 자료집). 일본의 실용영어능력시험(STEP, Society for Testing English Proficiency), 중국의 CET(College English Test), 대만의 GEPT(General English Proficiency Test) 시험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시행한지 3년 밖에 되지 않아 축척된 자료의 부족으로 섣불리 일반화를 할 수 없는 수능영어영역 절대평가 전환으로 인한 공대 신입생들의 영어성적 추이와 그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혼합연구의 방법으로 설계하였다. 선행연구가 전무하고 처음 시도해 보는 분석연구이므로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해내기 위하여 개인 혹은 다수의 연구 참여자간의 대화를 기반으로 질적연구의 한 방법인 현상학적 연구를 논문의 주축 연구방법으로 하고 보조적으로 수집된 자료의 통계를 활용하는 혼합연구 방식을 채택하였다.

심층면담과 연구참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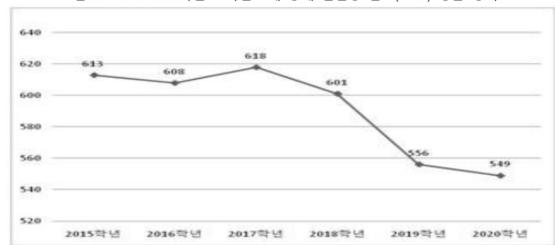
본 연구는 연구자와 피면담자(interviewee) 사이의 비용, 접근성, 소요 시간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해 대면 면 담(face-to-face interview)과 전화면담(telephone interview)을 활용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10명의 교·강사들에게 똑같이 사전에 설계된 질문을 하고 각각의 질문에 대한 피면담자의 반응과 답변에 따라 추가질문이나 심층질문을 하여 유의미한 시사점과 제언을 추출하였다.

연구결과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전환 후 공대생들의 영어실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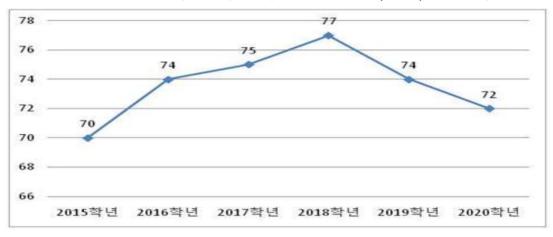


<그림 2> 2016-2020학년도 국립 A대 신입생 수능 영어 등급 분포



<그림 3> 2015-2020학년도 국립 A대 공대 신입생 텝스(TEPS) 평균 성적

<그림 4> 2016-2020학년도 국립 B대 신입생 iBT 토플(TOEFL) 평균 성적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로의 전환 후 공대생들의 영어 학습 환경의 변화

참여자 전원은 공대 신입생들이 들어야 하는 교양영어 시수가 근무하는 대학에서 다 감소하였다는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자신들이 가르치는 공대생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패턴화된 EBS연계 교재류의 강의식 수업에 익숙해져서 대학에서 한국어 해설과 해답이 제시되지 않는 원서 교재로 진행되는 심도있는 활동위주의 수업에 상대평가로 들어온 과거 공대생보다 학습 동기나 수업 태도가 더 좋아졌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전환 후 공대생의 영어교육 개선 방안

학생, 학부모, 일선 고교 교사들에게 수능의 전 과목 절대평가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전 과목 절대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이와 상반된 결론을 제기했다. 10인 중 2명만 일정시간 영어만 절대평가해 사교육 추이와 학생들의 실력 추이를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었고 나머지 8명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 학생들의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선 전 과목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논의 및 결론

첫째,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전환 후 공대생들의 영어실력 추이와 관련한 질문에선 모든 참여자들이 공대

생들의 실력이 상대평가 때보다 향상되고 있다는 데에는 부정적이었으며 2명의 참여자는 학생들의 실력이 상대평가를 실시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실력이 비슷하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나머지 8명은 대체적으로 저하 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해외에서 성공한 국가영어능력시험을 벤치마킹해 우리 현실에 맞게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다수의 참여자가 개진하였다. 또한 최소한의 법률적 보호장치를 만들어 정권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게 입법화를 통한 영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전제해야 한다고 참여자들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참여자전원은 평가가 교육과정에 환류를 주기 때문에 의사소통중심의 평가도구를 최소한의 법률적 보호와 재정 지원하에서 만들고 조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일정 시간을 두고 먼저 성인부터 시작해 초등, 중등, 고등으로 의사소통중심 국가영어능력 시험을 확장시켜 영어 실력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공대생들의 영어 학습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모든 응답자들이 공대생들이 영어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교과목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늘었다고 답했다. 심층면접을 했던 참여자 전원이 공대 신입생들이 학습 의욕 저하와 문제 풀이 중심의 고교 시절의 영어 공부 습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강한 영어학습 동기를 일으키기 위해선 교실 내·외적인 곳에서의 자극이 필요하다는 데 참여자들이 인식을 공유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학 당국의 수업환경 개선과 정부의 교육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모든 참여자들은 정책 집행자의 재정지원 없이는 자기 주도 학습과 공교육 정상화라는 영어 내외적 지원 환경이 만들어지기는 힘들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정부의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지원 하에 교사 교육 강화, 온라인 오프라인 영어 환경을 조성해야 공대생들의 영어 학습 환경 개선이라는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셋째,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전환 후 공대생의 영어교육 개선 방안에 대한 교·강사의 대안은 다음과 같다. 사교육비 감소라는 국가적 목표아래 2018학년도부터 수능의 영어 영역을 절대평가화 한 것은 통계청 자료에서 보듯이 오히려 더 전체 사교육비와 영어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심층면접을 한 교·강사들은 입시정책과 관련해선 수능 영어를 상대평가로 다시 되돌리기보다 아직 시행한지 3년 밖에 안 됐으므로 성급히 결론을 내기보다 더 결과를 지켜보면서 점차적으로 수능의 전과목을 절대평가화 해서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줄어 주면서 일선 고교 교육현장에서 학생종합생활기록부(학종)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수능을 최소 자격화의 위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래야만 일선 공교육 현장에서 의사소통 중심이 강화된 영어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용문헌

- 강효은. (2016).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절대평가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 교, 서울.
- 교육부. (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보도자료. (2016.2.26.) 교육부.
- 교육부. (2017).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 발표. 보도자료. (2017. 10.2) 교육부.
- 권형진. (2020. 2. 16). 중고생 영어·수학 학업성취도 점수 계속하락... 기초학력 미달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21607058212706 (검색일: 2020년 3월 15일)
- 신영수. (2019).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절대평가 전환 후 영어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안민석. (2006). *초중고교 영어평가 현황 및 발전방향*. 200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이슬기. (2017). 2018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 석사학위 논문, 공주대학 교 대학원.

- 이우중. (2020). UAE 원전 직원 파견, 영어 능력 논란.. 한수원 '뒷말' 무성. http://news.v.daum.net/v/20200304205000850URL (검색일: 2020년 4월 21일)
- 이윤정. (2018).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절대평가에 대한 질적 연구: 2018학년도 수능 수험생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 이지현. (2016).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영어영역 절대평가 시행에 대한 학생 인식 조사. 석사학위논문, 인천 대학교, 서울.
- 이혜원. (2015). 수능 영어영역의 절대평가로의 전환에 대한 중등교사 인식조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서울.
- 임성현. (2019). UAE원전 정비사업 일괄수주 무산. http://file.mk.co.kr/meet/neds/20
- 19/06/image_readtop_2019_451527_15613863673800525.jpg (검색일: 2020년 2월 20일)
- 전민희. (2019). 수능영어 4등급이 서울대 합격...불거진 '영어 공부 무용론'. http://news.joins.com/article/23349890 (검색일: 2020년 1월 23일)
- 허만섭. (2018). "한수원 영어 부족·일탈 물의...수십조 계약 탈락설 무성". http://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181218/93349677/1 (검색일: 2020년 1월 17일)
- 홍지유. (2019). 영어실력 갈수록 느는 中, 떨어지는 日...문제는 대학 입시?. https://news.joins.com/article/23629240 (검색일: 2020년 3월 5일)
- Creswell, W. J. (2002). The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2nd ed.). Thousands Oaks, CA: Sage Publication, Inc.

BIODATA

Dohyun Yun is an assistant professor in the Division of Language and Literature at Baekseok University

Email: ydohyun@bu.ac.kr Phone: Phone: 041-550-2888

Yong-Won Lee is a professor of English linguistics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currently serving as TEPS Center Director and Executive Director of the TEPS Council. His area of concentration is language testing and assessment.

Email: <u>ylee01@snu.ac.kr</u> Phone: (02) 880-2536

Jong-Woo Lee is a professor of English literature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at Hongik University.

Email: jwlee@hongik.ac.kr Phone: (02) 320-1776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절대평가 전후의 대학영어교육의 변화 추이와 주요 특성: 대학(교양)영어 교원의 인식 설문 조사

이용원 (서울대학교) 이종우 (홍익대학교) 배현 (목포대학교)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많은 영어 관련 학회와 영어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영어교육이 처해 있는 위기의 징후와 그 근거를 언급하고 있다(이용원, 2017; 이용원 외, 2020). 제일 먼저 언급되는 징후 중의 하나가 아마도 급격한 출생률 저하와 학령인구 감소 추세일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제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로 언급되곤 하는 사물 인터넷, 빅데이타, 자연언어처리, 인공지능, 다양한 자동화 기술이 교육분야에 활용되기 시작할 때에도 교사의 수요와역할 및 교실 수업의 양상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러한 국내외의 최근 첨단 기술발전과 교육적 변화의 추세와는 별도로, 역사적, 문화적으로 시험에 민감한 한국적 상황에서 꼭 심층적인 논의와 토론이 필요한 주제가 있다. 그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본 질적 특성과 변화된 특징이 영어의 위상과 영어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특히, 영어교육과 연관하여 최근 수년간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던 사안은, 2018년 실시된 수능 영어 영역의 절대평가 실시가 아닐까 한다. 수능 영어 절대평가 실시를 포함한 입시 정책 변화가 영어교육 분야에 어떠한 변화를 촉발하거나 영향을 끼쳐 왔고, 그 변화와 영향의 구체적 내용과 성격은 어떤 것이며, 또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여러 우려가 되는 추세와 수능 영어 절대평가를 둘러싼 비판과 우려가 나오는 시점이기에, 이러한 비판과 우려에 대한 실증적 연구와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영어영문학, 영어학, 영어교육 전문 학회들과 교육부간의 긴밀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이러한 이슈들이 공론의 장에 올려져 논의될 때 영어교육 관련 종사자들이나 단체들의 이익 옹호를 위한 논리라는 오해를 받지 않고 가급적 객관성을 확보한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방법을 통해서 검증하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최근 5~6 년간 전국의 대학 교양 영어 담당 교수나 강사들이 대학수준의 영어교육의 다양한 측면에 어떤 변화를 감지하고 어떠한 우려와 제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2018 년 수능 영어 영역 절대평가제 실시 이후 대학영어교육에는 어떠한 변화의 추세가 일고 있는지 알아보고 고찰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이러한 자료·데이터 수집 및 분석과정을 통해 교육부의 수능 관련 정책의 효과와 우려에 대한 가설들을 검증하고, 이러한 정책이 본래 의도한 효과들을 얼마나 거두고 있는지 부정적인효과들은 없는지, 부정적인효과가 있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탐색하고 개선방안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및 사전연구

수능영어 절대평가 도입과 대학영어교육

수능 영어영역에 대한 절대평가 도입의 핵심 배경은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 탈피 및 과잉 학습으로 인한학생의 수업 부담 경감과 사교육비 증가의 완화 그리고 문제 풀이 중심의 수업에서 의사소통 중심으로의 수업전환유도를 그 목표로 한다. 물론 좀 더 근본적인 측면에서 보면 절대평가의 핵심은 그 무엇보다도 시험이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 혹은 성취의 절대 기준을 정확히 기술하고 이를 평가하는 데 있다. 절대평가 시험으로서

의 수능 영어 영역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공부하기에 충분한 영어능력은 어떠한 지식(knowledge), 기능(skills) 및 능력(competencies)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그러한 하위 영역에서 어떤 수준의 지식과 숙달도에 도달해야 하는 지에 명확한 정의와 규명이 필요하다. 더욱이 수능문항 출제를 EBS 영어교 재와 연계하여 출제하게 하는 원칙은 영어 사교육 억제라는 원래 의도와는 별개로 수학능력 평가라는 수능 시험의 본래 목적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수능 영어 영역에의 절대평가 실시가 대학영어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대학영어교육을 어떠한 측면으로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가 하는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영어의 5 가지 측면에서 대학영어 담당 교수 강사들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들 영역에는 대학생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대학생들의 영어학습 동기부여 및 태도, 대학 차원의 관심과 지원, 대학(교양) 영어 프로그램의 자체의 변화, 대학 영어교육의 미래 전망 및 제안 사항이 포함된다.

연구의 주요 질문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2018 년 수능 영어 영역 절대평가 도입을 기점으로 최근 5~6 년간 일어난 대학영어 교육의 변화 추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보고, 전국의 대학 교양 영어 담당 교수나 강사들이 대학수준의 영어교육의 다양한 측면에 어떤 변화를 감지하고 어떠한 우려와 제안을 가지고 있는지 고찰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답하려고 하는 주요한 질문을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의 대학 교양 영어 담당 교수나 강사들은 최근 수년간 교양 영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영어능력 관련해서 어떤 변화 추세를 감지하고 있는가? 둘째로, 국의 대학 교양 영어 담당 교수나 강사들은 최근 수년간 교양 영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영어학습 동기 부여 및 태도 관련해서 어떤 변화 추세를 감지하고 있는가? 셋째, 전국의 대학 교양 영어 담당 교수나 강사들은 최근 수년간 교양 영어에 대한 대학 차원의 관심과 지원 관련해서 어떤 변화 추세를 감지하고 있는가? 넷째, 전국의 대학 교양 영어 담당 교수나 강사들은 최근 수년간 교양 영어 대학(교양) 영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 추세를 감지하고 있는가? 다섯째, 전국의 대학 교양 영어 담당 교수나 강사들은 미래의 영어교육에 대해 어떤 전망과 제안 사항을 가지고 있는가?

연구방법

분석 데이터

설문조사는 전국 대학의 교양(대학) 영어 프로그램 주임 교수나 강의 교수·강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본 연구에 취지에 대한 기술문, 참가 동의서, 참여자들의 인적사항 및 배경 정보에 대한 질문 외에,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설문지는 영어원어민 교수·강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영 이중 언어로 병용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구글 설문조사(Google Survey) 시스템에 올려서, 설문참가자들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학영어 변화 추세에 대한 본격적으로 묻는 총 45 설문 문항들은 대부분리커트(Likert) 형식의 선택형 문항이고, 일부 비리커트형 다지선다형 문항과 서답형 문항이 포함되었다.

자료 분석 방법

교수·강사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결과는 문항별로 응답자의 각 답지 선택 비율을 파이 그래프 형태로 제시하였고, 서답형 문항에 대한 응답은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및 토론

설문조사 데이터 분석은 기본적으로 대학(교양)영어 담당 교수·강사들의 각 문항 답지에 대한 선택 비율 중심으로 보았다. 설문분석 결과를 주목할 만한 몇 개의 주요 양상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양)영어 담당 교수·강사들의 대학생들의 영어능력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인식은, 학생들의 전반적 인 영어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언어적 지식과 기능별로 좀 세분화 해 서 보면, 듣기나 말하기 발표, 발음이나 억양 등 구화능력에서 있어서는 향상된 것처럼 보이나, 어휘나 문법 그리고 독해 능력에 있어서는 예전보다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들의 영어 능력과 관련해서 주목을 끄는 대목은, 대학(교양)영어 담당 교수·강사들이 교양영어과목을 수강하는 수강 생들 간의 영어능력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대학생들의 영어학습 동기부 여 및 태도 측면에서는, 학생들의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나 의욕, 흥미 측면에서는 지난 수년 간 큰 변화가 감지되지는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의사소통 중심의 강의나 수업방식에 는 매우 긍정적이거나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대학 차원의 관심과 지원 면에 서는 대학 본부차원에서 국제화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으나, 실제로 교양교육(기초교육) 프로그 램 내에서의 영어교육이 차지하는 위상이나 관심과 지원은 축소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설문참여자들이 대학(교양) 영어 프로그램 자체의 변화 추이에 대해 설문참여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기해 주 었는데,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요약해 볼 수 있다. 먼저 대학에서 교양영어를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수 에는 큰 변화가 없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최근 시간 강사법 제정에 따른 변화일 수도 있 겠으나, 시간 강사의 숫자는 감소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대학 교양영어 개설 강좌의 총수나 필수과목 지정 된 영어과목 총수 면에서는 모두 감소했다는 있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설문참여자들은 대학에서 매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교양영어 과목의 수도 정도는 조금 덜하지만, 감 소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학 교 영어의 특수목적 별, 혹은 수준 별 맟춤형 교과 목을 제공하는 형태로의 다양화 하는 다양성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미래 전망과 제언을 묻는 질문들에도 참가자들이 여러 의미 있는 답변을 제공해 주었다. 우선, 대학영어교육의 미래에 대해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거의 과반에 육박하는 참여자들이 비관적 혹은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대부분의 설문참여자들이 영어와 영어공부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약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최근에 영어와 영어공부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약화된 이유를 2개씩만 고르라고 했을 때, 171명의 참여자 중 132명(77.2%)이 '교육부의 수능 영역 절대 평가제 실시'를 언급했고, 106명 (62%)이 '수능 영어영역 점수 대입 반영률의 하향조정', 37명(21,6%)이 '교육부의 수능-EBS 연계정책 실시', 32명 (18.7%)이 '출산율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꼽았다(<그림 1a> 참조). 반면, <그림 1b>가 보여주듯이, 현재의 절대 평가제를 어떻게 개선하고 보완할 것이냐 하는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설문참여자들의 응답 분포가 다양하게 분산이 되었다. '상대평가방식으로 회귀 해야 된다'(34.7%), '영어숙달도 시험으로 수능영어영역을 대체해야 한다'(24%), '상대평가 방식을 수능의 전체과목으로 확대해야 된다'(23.4%), '국어와 수학 두 주요 과목으로확대 실시해야 한다'(7.6%) 등의 선호도를 보였다.

<그림 1> 영어의 사회적 중요성에 영향을 끼쳐 온 주요 요인

(a) 사회적 인식 약화 요인

39. 귀하의 최근 수년간의 관찰과 교수 경험에 비추어 불 때, 우리 사회에서 영어와 영어공부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막화되어 온 측면이 있다면,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두 요인을 고르세요. 응답 171개 국가영어시험의 제지 Scrapolno of National Englis. 교육부의 수는 영어영역 경대명가 제 설시 Implementation of IM-과 설시 Implementation of IM-수는 영어영역 결구 다양 인정을 의 항품조를 Reduced weight. 교괴 의교계원 학문에 대한 ND. -11 (6.4%) -37 (21.6%) -105 (62%) -38 (18.7%) -39 (18.7%)

(b) 절대평가제 개선 방안



결언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수능 영어 영역 절대평가 방식이 적용이 검토되고 시행되어 온 최근 수년간 대학수준에서의 영어교육의 전반적 추세에 대한 대학영어 담당 교원들이 체감하는 대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영어학습 동기부여 및 태도, 대학 차원의 관심과 지원, 대학(교양) 영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어떠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이들 설문 참가들이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미래 전망, 지금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 볼 수가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교육부의 수능 관련 정책의 효과에 대해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우려와 가설들이 얼마나 실체가 있는 것인지 제한적으로나마 살펴 볼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대학영어 담당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진행하였는데, 고등학교 교사들, 고등학교 신입생 및 대학 신입생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도 추가적으로 진행되어 데이터를 확보하고 추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의 유지의 핵심적 구성 요소가 되는 영어구사능력을 초중고대학의 공교육 체제를 통해 학생들에게 어떻게 효율적이고 균형적으로 교육시키고 향상시킬 가의 과제는 정부나 대학 영어관련 학술 단체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꾸준히 최상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References

이용원. (2017). *실제적 영어의 필요성과 국내의 영어 현실.* 2017 한국영어영문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서울대학교, 2017년 12월 13-15일.

이용원, 정한별, 양영유, 이종우, 배현 (2020).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 전후의 국내 영어교육 변화 추세에 대한 연구: 대학영어 교육을 중심으로. 2020 한국영어영문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서울대학교, 2020년 12월 17-19일.

BIODATA

Yong-Won Lee is a professor of English linguistics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currently serving as TEPS Center Director and Executive Director of the TEPS Council. His area of concentration is language testing and assessment.

Email: <u>ylee01@snu.ac.kr</u> Phone: (02) 880-2536

Jong-Woo Lee is a professor of English literature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at Hongik University.

Email: jwlee@hongik.ac.kr Phone: (02) 320-1776 Hyun Pae is a professor of English literature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at Mokpo National University.

Email: paehyun@mokpo.ac.kr Phone: 061-450-2121

대학영어교육의 최근 동향: 그룹 인터뷰 참여자들의 관점

정한별 (서울대학교) 이용원 (서울대학교)

배경 및 선행연구

지난 2018년 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영어 영역의 평가 방식이 절대평가로 전환된 이후 이와 관련한 여러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영어교육을 둘러싼 여러 논의에는 기본적으로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물론이고, 교육의 주체가 되는 교수자의 경험과 의견이 함께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앞서 발표된 설문조사 연구와 함께, 둘 다 모두 한국영어영문학회 정책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수능 절대 평가 실시 전후의 대학영어교육의 변화 추이에 대한 연구(이용원 외, 2020)를 위해 수집된 대학 영어 담당 교수자들의 설문 및 인터뷰 데이터에 대한 심층분석 논문들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한 주요 연구 질문들을 미리 참여자들에게 보내고, 줌(zoom)을 활용해서 비대면 초점집단인터뷰 (focused group interview)의 심층적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라는 연구 방법을 통해 이미 확인한 대학 교양영어 담당 교수·강사들의 생각과 의견을, 집단인터뷰라는 좀 더 열려있고 심층적인 의견수렴 방법을 통해 재검증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18 학년도부터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수능 영어 영역에 대한 절대평가가 실시되었다. 이런 변화된 평가방식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부정적인 효과는 없는지, 개선이 필요한 측면은 없는지 살펴보고 검증하는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절대 평가로의 전환 이후 상황에 대한 연구가 전반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고(윤도현 외, 2021; 이용원 외, 2021), 더욱이 대학수준에서 영어교육 담당 교수들의 수능 절대 평가의 효과에 대한 입장이나 평가 의견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점집단면접이라는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지역적대표성을 고려하여, 전국에서 선발된 교양영어 담당 교수자들과 함께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녹화된 인터뷰 내용을 전사하고 질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참여자들의 대학영어교육의 변화 추이에 대한 여러 체감하는 경험과 인식이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 방법은 초점 집단 인터뷰로써, 앞서 진행된 설문 조사 이후 전국에서 대학의 대학 영어 강의를 담당하고 있거나 영어관련 학과에 근무하는 교수·강사들을 총 7명을 선발하여 초점 집단 인터뷰를 추가로 진행하였다. 좌장 역할을 맡은 책임연구자까지 포함하면, 총 8인이 인터뷰에 참여하게 되었다. 초점 집단 인터뷰 (Focus Group)를 이용한 질적연구방법은 비교적 최근 도입된 연구 방법으로 기존의 일대일 인터뷰 형식의 단점을 보완할 뿐더러, 본 연구처럼 지면으로 이뤄지는 설문 조사 내용을 질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연구 방법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Jung, 2018; Jung & Ro, 2019).

본 연구를 위한 인터뷰의 진행은 2020년 9월 중, 약 2시간에 걸쳐 줌(zoom)을 통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사회는 연구자 2 인(좌장+공동 좌장)이 공동 사회를 맡았으며, 미리 작성된 몇 가지 질문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첫 한 시간은 책임연구자를 포함하여 8 인에 함께 참여하는 토론을 진행하였고, 그 이후 30분은 4인씩 2조로 나누어 토론하고, 마지막 30분은 다시 합반하여 전체 함께 토론하고 마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토론 순서로 보면, 1부에서는 사회자를 포함해서 참여자 본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근무하고 있는 대학에

서 그동안 맡아 영어과목,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주목할 변화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하여, 2 부에는 현재 한국의 대학영어 교육이 처한 실정, 그리고 이러한 현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각종 요인들을 집중적으로 토론하였다. 2부 중간지점에서 4명씩(공동 사회자 1인 +3인의 조원) 2개조로 조를 나누어 토론이 이루어졌다. 마지막 남은 30분은 나뉘었던 2 개의 조를 다시 합하여 다 함께, 대학영어교육에 대해 본인이 꼭 하고 싶었던 사항이나 제언을 한두 가지 말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다.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초점 집단 인터뷰에 참여한 참여자들과의 토론과 대화 내용은 모두 영상 녹화 되었으며, 녹화된 내용은 전사가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에게 제시되었던 질문들을 기점으로 전사된 내용을 나눠서 분류했으며, 분류된 전사자료는 내용분석 (content analysis)과 주제분석 (thematic analysis)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 분류되었다. 본 논문에 언급한 가치가 있는 주요한 내용은 요약 형태로 제시가 되고 필요한 발언 내용을 부분적으로 발췌하고 기술하였다.

분석 결과 및 토론

약 2시간 정도 진행된 인터뷰에서는 참여자들의 대학수준에서의 교육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었던 일부 영상들을 인터뷰 참여자들의 좀 더 구체적인 발언과 주장을 통해서 재확인한 경우도 있었고, 설문조사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들도 일부 확인이 되었다. 인터뷰 참가들의 의견제시와 주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주목할 만한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최근 대학생들의 영어 능력에는 주요한 변화 양상이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영어 듣기, 말하기 등의 구화 능력이나 영어로 이루어진 대화에 임하는 자신감은 예전에 비해 매우 향상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어휘, 문법, 독해와 같은 기초적인 능력은 전반적으로 저하된 것 같다는 의견들을 피력하였다. 아울러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한 두드러진 추세로는 학생들 간의 영어능력의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점이다. 영어능력이 뛰어난 상위 학생들과 하위 학생들 사이의 영어능력 수준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점은, 사실 교육부의 절대평가 시행 이전부터 교육당국에서 우려해 왔던 부분인데, 그러한 추세는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어민에 가까운 영어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에 참여하고 영어 토론이나 발표에 참여하는데 전혀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또 한 편으로는 대학 수준에서의 영어 텍스와 원서를 읽고 이해하는 기초적인 영어능력에도 미달하는 학생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듯 하다.

두번째로 주목할 만한 의견으로는, 대학의 교육이 학생들이 졸업 후 진출해서 활동 해야할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는 충분한 영어능력을 갖추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다. 사회적으로 여러 분야에서는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을 졸업생들로부터 요구하고 있고, 그에 대한 필요를 학생들도 느끼고 있다. 예를 들어, 항공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대학의 경우, 졸업생들이 담당하게 될 기장, 부조종사, 컨트롤 타워 인력, 승무원, 체크인 카운터 요원 등 국제선 공항이나 여객기 내에서의 만나게 되는 승객과 어려움 없이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할 수도 있다. 대학의 영어교육이 이러한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항공분야뿐만 아니라 공학, 자연과학 대학원, 연구소에 진출하는 경우에도 국제학술대회에서의 영어 연구논문 발표나 국제적인 학술지에 영어 논문 게재와 같은 일들이 취업이나 직업적 생존에 너무 중요한데 현 대학교육이 이러한 요구들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여기에 국제통상, 무역, 경영같은 분야에서도 국가의 경제발전을 대외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구조 하에서는 특성상 모국어처럼 유창한수준의 영어구사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원어민에 가까운 영어능력을 요구하

는 직업 분야나 영역은 점점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학생들도 그러한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는 영어 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강의 수와 종류와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시대적인 사회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세번째로는, 대학영어교육의 학생들의 학습능력과 요구에 맞춰 영어교육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 주장은 위 내용과 비슷한 주장으로, 많은 대학들이 기본 영어 과목들을 많이 줄이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도 줄어 들뿐만 아니라 강의 당 배치되는 학생 숫자가 늘어나면서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강의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상적인 영어 강의 내 학생 숫자가 말하기 듣기는 15-20명, 글쓰기는 8-15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은 대학들이 현재 제공하는 영어 강의는 적게는 한 강좌에 40명, 어떤 경우에는 100명씩 한 강의실에서 진행하고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어떤 경우에는 교육부의 지침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는 새로의 선출된 대학 총장의정책때문에, 사회적 요구나 학생들의 필요와 상관없이, 대학영어강의 프로그램의 성격이나, 강좌 수, 강좌 당학생 수, 강사 수 등의 여건과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각 학교와 학과별로 요구되는 필요에 따라, 대학영어 교육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보장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결론

설문조사에 이어서 진행된 본 초점집단면접 연구를 통해, 대학 영어 담당 교수자의 의견을 보다 더 심층적 으로 수집해 분석할 수 있었고,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 검증해 볼 수 있었다. 집단인터뷰를 통해 설문조사 결과 가 재확인 되기도 했고, 설문조사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일부 확인 되기도 했다. 우선, 이미 설문 조사 결과가 보여주었듯이, 최근 대학생들은 영어 듣기, 말하기 등의 구화 능력이나 영어로 이루어진 대 화에 임하는 자신감은 예전에 비해 매우 향상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어휘, 문법, 독해와 같은 기초적인 능력은 전반적으로 저하된 것 같다는 의견들을 피력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학생들 간 의 영어능력의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 주었다. 대학의 영어교육이 학생들이 졸업 후 진출해서 활동 해야할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는 충분한 영어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대 한 지적이다. 특히, 세계화 혹은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원어민에 가까운 영어능력을 요구하는 직업 분야나 영역 은 점점 점차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포함한 우리 나라의 영어교육 방향은 이러한 시대적인 요 구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특히, 초점집단면접을 통해서 새롭게 확인한 내용에는 대학 영어교육의 학생들의 학습능력과 요구에 맞춰 영어교육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도록 교육과 정 편성의 자율성과 대학 차원의 지속적 지원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많은 대학들이 기본 영어 과 목들을 많이 줄이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도 줄어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의 당 배치되는 학생 숫자가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강의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고, 많은 대학들에서 교양 영어 강의는 적게는 한 강좌에 40명, 어떤 경우에는 100명씩 한 강의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형 강의도 있다 한다. 아울러, 새로이 선출된 대학 총장의 정책때문에, 교육부의 지침때문에, 사회적 요구나 학생들의 필 요와 상관없이 대학영어강의 프로그램의 성격이나, 강좌 수, 강좌 당 학생 수, 강사 수 등의 여건과 상황이 변 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으로, 각 대학교와 학과별로 요구되는 필요에 맞게 교육과정과 교과목을 편성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앞서서 진행된 수능 절대평가 이후 대학 내 영어교육의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모으고 관찰 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 동안의 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교육자의 경험과 입장을 직접적으로 듣고 자료로 수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에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윤도현, 이용원, 이종우 (2021). 시험 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 이후의 공대 신입생들의 영어실력 추이와 영어교육 상황 분석.
- 이용원, 이종우, 배현 (2021).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절대평가 전후의 대학영어교육의 변화 추이와 주요 특성: 대학(교양)영어 교원의 인식 설문 조사.
- 이용원, 정한별, 양영유, 이종우, 배현 (2020).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 전후의 국내 영어교육 변화에 대한 연구: 대학영어교육을 중심으로. 2020 한국영어영문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서울대학교, 2020년 12월 17-19일.
- Jung, H. (2018). Focus group interaction in evaluation research. Applied Linguistics Review, 9(4), 563-587.
- Jung, H., & Ro, E. (2019). Validating common experiences through focus group interaction. *Journal of Pragmatics*, 143, 169-184.

BIODATA

Han Byul Jeong is an assistant teaching professor in the College English Program of the Faculty of Liberal Educat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r area of concentration is conversational analysis and English language teaching.

Email: jhb82@snu.ac.kr Phone: 880-9583

Yong-Won Lee is a professor of English linguistics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currently serving as TEPS Center Director and Executive Director of the TEPS Council. His area of concentration is language testing and assessment.

Email: <u>ylee01@snu.ac.kr</u> Phone: (02) 880-2536

TOEIC-신TEPS 점수 환산의 공정성: 예비 연구

임의진 (진주교육대학교) 전희성 (서울대학교) 최지원 (서울대학교)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상이한 점수 체계를 가진 복수의 영어능력검정시험을 동일한 채용 및 선발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경우, 이러한 시험 각각의 합격기준점수를 정확하고 타당하게 설정하고 기준점수 사이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기준점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이한 시험 간의 정확한 점수 대응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점수환산연구가 우선 수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시험 간 공정한 점수환산표가 제작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시험 간 점수환산표나 합격 기준점수가 공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특정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자 집단에 지나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 전체 채용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해치게 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공정경쟁과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특정 시험에 지나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점수 환산표나 이에 근거한 합격기준점수가 사용되어 고착화 될 경우,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영어능력검정시험들 간의 공정한 생태 환경을 조성하기 어렵게 된다.

오랜 기간 동안 공무원 임용시험의 대부분의 과목들은 인사혁신처에서 문제를 직접 출제하여 시행하는 방식을 채택해 왔다. 영어 과목의 경우에도 종래에는 인사혁신처에서 직접 출제하는 방식을 유지해 오다가, 최근에는 점차적으로 국내외의 다양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2005년 이후로는 5급 공무원 임용시험에 적용되었고, 2017년부터는 국가직 7급 시험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지방직 7급 시험에도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은 종래 인사혁신처에서 직접 출제하던 공무원 임용시험 영어 과목 시험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별표 3]에는 TOEFL, TOEIC, TEPS, G-TELP, FLEX 등 총 5개의 국내외 영어능력검정들이 대체 시험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각 시험들의 5급 및 7급 공무원, 7급에 상당하는 외무 영사직렬 외무공무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응시자 등 총 3개 직군에 대한 별도의 합격기준점수가 제시되어 있다.

TEPS의 기준점수는 5급 및 7급 공무원 TOEIC 합격기준점수 700점을 기준으로 구TEPS 625점으로 설정되어 지난 20여년 동안 사용되었다. 다른 두 직군의 경우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합격 기준점수가 설정되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를 포함한 여러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TEPS-TOEIC 간 환산 점수 혹은 환산기준의 정확성과 형평성의 문제는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왔다. TEPS사업본부는 TEPS 출시 이후 환산표의 부정확함을 인식하고 몇 차례에 걸쳐 환산표 개정 연구를 진행하였고,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연구 결과를 합격 기준점수 개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미 최초의 환산표가 널리 받아들여져 사용되고 있었기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특히 2011년 서울통계연구소에 의뢰해서 수행한 연구에서는 TOEIC 700점이 구TEPS 555점(신TEPS 300점)과 같다는 결과가 나와서, 새로운 점수 환산표를 배포하고 관련 정부 부처를 설득하여 반영시키고자 했으나 이 역시 성공하지 못하였다. 2018년에는 구TEPS보다 문항 수를 대폭 줄이고(200→135문항)시험시간을 단축하여(140분→105분) 개정한 신TEPS로 구TEPS를 대체하였는데, 신TEPS의 출시를 계기로 신TEPS-TOEIC 환산 관계를 직접 산출하여 TEPS-TOEIC 간 환산표 불공정성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TEPS 출시를 앞두고 서둘러 환산표를 제공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에 따라 신TEPS와 TOEIC 간

의 직접적인 환산 연구보다는 좀 더 신속하고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신TEPS-구TEPS 환산 연구를 먼저 수행하여 그 결과를 기존의 구TEPS-TOEIC 환산 체계에 대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로 인 해, TOEIC에 비해 불리했던 구TEPS의 점수 환산 체계가 신TEPS-TOEIC 환산관계에서도 개선되지 않고 이어지 게 되었다.

이러한 TEPS-TOEIC 간의 불공정한 환산 체계가 지속되면, TEPS 시험을 선택한 공무원 시험 응시자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지속되어 공무워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하게 된다. 이럴 경우 수험자들은 비교적 합 격 기준점수를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는 시험으로 몰리게 되고 그렇지 않은 시험은 피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현상이 다른 시험들과 비교했을 때 불합리한 방식으로 하향 혹은 상향 조정된 특정 시험의 합격 기준점수 때 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이는 불공정하고 비윤리적인 사업행태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국내외 영어인증시험들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 시험들이 정부가 수립한 공인시험 지침을 준수하도록 감독해야 하는 정 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몰림 현상 혹은 특정 시험의 독과점 현상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 닐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내 시험과 외국 영어능력검정시험이 국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시험 간 공정한 환산표를 제작하고 검증하여 각종 채용・선발과정에 적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제기나 가설은 모두 경험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에 의해 검증되고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EPS-TOEIC 환산표 개정을 위한 예비 연구의 일환으로 TEPS-TOEIC 연계화 점수 자료를 수집하고 그 점수 자료를 분석하여 기존의 TEPS-TOEIC 간 환산표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고, 현재 사용 되고 있는 합격기준점수를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탐색하고자 한다.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TEPS-TOEIC 연계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2020년 6월 11일부터 약 2주간 자료를 수집하였다. TEPS 수험자 를 대상으로 6개월 이내의 유효한 TOEIC 성적을 제출할 경우 TEPS 응시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 하였고, 성적을 제출한 수험자의 TOEIC 응시 날짜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날에 응시한 TEPS 성적을 추출하 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총 501명의 수험자로 구성된 연계화 자료를 확보하였다. 연계화 자료에서 수험자들의 TEPS 응시일자는 2020년 1월 18일부터 2020년 6월 6일 사이에 분포하였고, TOEIC 응시일자는 2019년 12월 22일부터 2020년 6월 7일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일자 간격은 최소 1일에서 최대 167일이었 고, 평균적으로 TEPS 응시일이 TOEIC 응시일보다 9.6일 앞섰다. 수험자들의 TEPS-TOEIC 점수 간 상관계수는 0.76이었고, 두 검사 점수의 기초통계량은 <표 1>과 같다.

표 2. TEPS와 TOEIC 표본 기소동계당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TEPS	346.51	91.46	105	598			
TOEIC	831.15	146.42	97	990			

본 연구에 사용된 연계화 자료는 동일한 수험자가 신TEPS와 TOEIC 모두 응시한 수험자들로부터 수집된 것 임으로 단일집단설계(single group design) 방식에 따라 모아진 점수 연계화 점수 데이터로 간주할 수 있다. 수 험자의 수가 501명으로 표본 크기가 작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안정적인 연계화를 실시하기 위하여 동백분 위 연계화(equipercentile linking) 함수를 사용하여 연계화 결과를 산출하였다. 동백분위 연계화의 목적은 검사 점수 X와 동일한 백분위(percentile rank)를 가지는 검사점수 Y를 찾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동백분위 연계화 함수는 다음과 같다(Kolen & Brennan, 2014).

$$e_Y(x) = \frac{P(x)/100 - G(y_U^* - 1)}{G(y_U^*) - G(y_U^* - 1)} + G(y_U^* - 0.5), \quad 0 \le P(x) < 100,$$

= $K_Y + 0.5$, $P(x) = 100$.

위의 식에서 P(x)와 G(y)는 각각 검사점수 X와 Y의 백분위 함수를 가리킨다. y_U^* 는 누적확률 100G(y)가 P(x)를 넘지 않는 정수 중 가장 작은 값, K_Y 는 검사점수 Y의 최댓값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수집된 단일집단 자료에서 TEPS와 TOEIC의 백분위가 같도록 하는 동백분위 연계화 관계를 산출할 수 있다.

또한 수집된 자료의 표본 크기가 작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완곡화(presmoothing)를 적용한 동백분위 연계화 결과를 산출하였다. 사전완곡화는 동백분위 연계화를 적용할 때 표집오차에 의해 연계화가 부정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계적 방법이다. 사전완곡화를 통해 연계하고자 하는 검사 점수의 분포를 완곡하게 만든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완곡화의 방법 중 하나인 이변량 로그선형(bivariate log-linear) 함수를 이용하였고, 완곡화 정도는 각 분포의 여섯 번째 모멘트와 이변량 분포의 첫 번째 모멘트까지 보존하였다. 연계하고자 하는 두 검사의 점수 분포가 이변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변량 로그선형 함수를 이용하여 다항함수에 로그를 취한 형태로 관찰점수의 분포를 추정한다. 이변량 로그선형 함수는 다음과 같다(Moses, von Davier, & Casabianca, 2004).

$$\log(p_k) = \alpha + \sum_{i=1}^{I} \beta_{xi}(x_j)^i + \sum_{h=1}^{H} \beta_{yh}(y_k)^h + \sum_{g=1}^{G} \sum_{f=1}^{F} \beta_{gf}(x_j)^g(y_k)^f$$

위의 식에서 x_j 와 y_k 는 검사 X 와 Y에 대한 점수를 의미하며, p_k 는 점수 (x_j,y_k) 에 대한 결합 분포를 의미한다. 위의 식에서 X 분포의 주변분포에서 이변량 분포를 I 모멘트까지 보존하고, Y 분포의 주변분포에서 이변량 분포를 H 모멘트까지 보존하며, 이변량 X-Y 분포에 대하여 결합 모멘트 $(G \le I,F \le H)$ 의 수에 적합한 분포를 찾는다.

분석 결과

연계화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은 TEPS 점수가 연계화 결과에 따라 어떤 TOEIC 점수로 연결되는지 나타낸다. 파란색 선은 본 연구에서 사전완곡화를 적용한 동백분위 연계화로 산출한 TEPS-TOEIC 환산 결과를 가리키고, 초록색 선은 2011년 환산 연구 결과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수 집된 자료의 범위를 고려하여 TEPS 105점부터 600점까지의 결과를 산출하였고, 2011년 환산 연구는 당시 표본 크기와 점수 범위가 제한되어 TEPS 150점 미만으로는 TOEIC 환산 점수가 산출되지 않았다. 사전완곡화를 하지 않은 동백분위 연계화 결과는 사전완곡화를 한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을 보여 그래프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1>은 TOEIC 700점에 해당하는 세 가지 환산 점수를 나타낸다(TEPS 255점, TEPS 300점, TEPS 340점).
본 연구에서는 TEPS 255점이 TOEIC 700점과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파란색 화살표), 이는 2011년에 연구된 환산표 기준인 TEPS 300점과도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된 현행 인사혁신처 환산 기준인 TEPS 340점과도 다소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TEPS 520점 이상의 고득점 구간에서는 TOEIC이 수험자의 능력 차이를 거의 변별하지 못하고 990점 만점으로 환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영어능력이 매우 우수한 수험자들을 변별하기에 TEPS가 TOEIC보다 더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TOEIC TOEIC(Smoothing) -TOEIC(2011) TEPS

그림 1. TEPS-TOEIC 환산 결과 비교

본 연구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도출한 신TEPS-TOEIC 간 상세한 환산 결과를 이미 존재하는 기존 신구 TEPS 간 환산표(https://www.teps.or.kr/InfoBoard/ConversionTable)에 적용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 3]의 TEPS 시험의 직군별 합격 기준점수를 수정할 수 있다. 아래의 <표 2>는 각 직군별 TOEIC 합격 기준점수(700, 790, 870)를 고정한 상태에서, 본 연구 결과에 의거해서 개정한 TEPS의 새로운 합격 기준점수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5급 및 7급 공무원 시험의 TOEIC 700점에 상응하는 신TEPS의 기준점수는 340점에서 255~256점으로 하향 조정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해당하는 구TEPS 점수도 625점에서 478~476점으로 하향 조정해야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직군의 기준점수 역시 유사한 추세로 하향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2. 분석 결과와 기존 신구 TEPS 환산표에 의거한 새로운 기준점수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5급 및 7급 공무원 공개 경쟁채용시험 (7급 상당 하는 외무 영사 직렬 외 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은 제외한다)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 사직렬 외무공무원 공 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토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 (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 에서 시행하는 시 험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790점 이상	870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 험 (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625점 이상 → 476~478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 된 시험) 340점 이상 → 255~256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700점 이상 → 549~550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385점 이상 → 295~296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800점 이상 → 625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 된 시험) 452점 이상 → 340~343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 시된 시험)			

결론 및 후속 연구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정부부처에서 사용되고 있는 TEPS-TOEIC 간 점수 환산 기준이 매우 부정확하고 TEPS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2011년에 TEPS 사업본부에서 추진했던 환산 연구의 결과 또한 본 연구의 결과와 크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했을 때 TEPS-TOEIC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대표성이 있는 대규모 표본 자료를 추가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검증하고, 더욱 정확한 환산표를 산출하여 적용해 나가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본 연구에서는 TEPS 수험자 집단을 중심으로 하여 TOEIC 점수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연계화 표본의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TOEIC 수험자를 중심으로 두 시험 점수를 수집하여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확하고 타당한 환산표 산출을 위해 후속 연구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무원임용시험에 영어과목시험 대체시험으로 인정되고 있는 TEPS나 TOEIC 등을 포함한 주요 영어검정시험의 합격 기준점수가 실제로 영어 의사소통 능력 측면에서 어떠한 수준의 실제적 수행능력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기 위한준거설정(standard setting) 연구도 필요하다.

References

Kolen, M. J., & Brennan, R. L. (2014). *Test equating, scaling, and linking: Methods and practices* (3rd ed.). New York: Springer-Verlag.

Moses, T., von Davies, A., & Casabianca, J. (2004). *Loglinear smoothing: An alternative numerical approach using SAS* (Research Report RR-04-27). Princeton, NJ: Educational Testing Service.

BIODATA

Euijin Lim is an assistant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lementary Education at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er research interests are equating, item response theory, and generalizability theory.

Email: ejlim.mail@gmail.com

Heesung Jun is a senior researcher and Head of the Test Research and Development Department at the TEPS Center, Language Education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where she works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nglish proficiency tests, including the TEPS and its family of tests.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integrated writing assessment and computer-assisted language testing.

Email: hsjun@snu.ac.kr

Jiwon Choi is a senior researcher and Head of the Measurement and Statistical Research Department at the TEPS Center, Language Education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where she works on scoring and quantitative research for the TEPS and its family of tests. Her research interests are test equating, scoring, and item response theory.

Email: jwchoi12@snu.ac.kr

비판적 교수법(Critical Pedagogy)

분과장: 안성호(한양대)

분과주제: 트랜스링궐리즘 이론과 실천의 가능성

발표 제목	발표자
"멀티링궐 행아웃": 중국 출생 탈북청소년과 함께 한 트랜스랭귀징 프로그램	장은영(서울교대) 김은영(한국성서대)
트랜스링구얼 관점에서의 NEST/NNEST 담론 고찰	이정아(대구경북과학기술원) 오경애(한국외대)
트랜스랭귀징 기반 영어 학습 지원 프로그램 과제와 방향	강현주(수원 천천초)
Li Wei 의 트랜스랭귀징 이론과 적용	장인철(건국대)

"멀티링궐 행아웃": 중국 출생 탈북청소년과 함께 한 트랜스랭귀징 프로그램

Multilingual Hangout: A pedagogical translanguaging program with Chinese-born North Korean youth refugees*

장은영(서울교육대학교) & 김은영(한국성서대학) KATE SIG CONFERENCE (JANUARY 9, 2021)

1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제단의 지원을 받아 수정된 연구일
 (NRF-20178 145 A8020655)

MULTICINGUAL HANGOUT

4

Contents

- 1. 연구목적
-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문제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결론

MULTICINGUAL HANGOUT

Multilingual Hangout I. 연구 목적

남한에 거주하는 중국출생 탈북학생의 다중언어능력과 건강한 정체성 형성을 위해 효과적인 교육방법은 무엇일까?

본 연구에서 개발한 멀티링궐 행아웃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제한점을 파악하여 다중인 어 잠재력을 가진 이주배경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모델의 도출

MULTICINGUAL HANGOUT

- 4

Multilingual Hangout

Educational goals

1. Literacy

- English literacy
- multiliteracies
- critical literacy

2. Multilingual Identity

- holistic identity in a third-space

MULTICINGUAL HANGOUT

ä

present study

Why pedagogical translanguaging?

- 트랜스랭귀징 교수법이 다양한 언어경험을 가진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 탐구
- 트랜스랭귀징의 현장 적용 방법 및 의미 탐구

MULTICINGUAL HANGOUT

4

Multilingual Hangout

Ⅱ. 이론적 배경

- Homi Bhabha(1994), 3rd space, hybridity
- Multilingual Education
- refugee education
- Critical literacy
- Translanguaging

MULTICINGUAL HANGOUT

what is Trans-languaging?

Our communication

- transcends named languages (Li, 2018; Mori & Sanuth 2018),
- transcends "language" (Hawkins, 2018)
- transcends our semiotic resources (Canagarajah, 2018)
- transforms our time-space (Canagarajah, 2018)
- and transgresses norms (Mori & Sanuth, 2018).

MULTICINGUAL HANGOUT

ä

Pedagogical translanguaging

- spontaneous vs. pedagogical translanguaging (Cenoz & Gorter, 2020)
- positive feedback of students (Galante, 2020; Wu & Lin. 2019)
- challenges of pedagogical translanguaging
 - √ lack of familiarity (Galante, 2020)
- √how to materialize it (Viegen, 2020)
- ✓ educational goals: English? or what? (Li, 2018)
- √ criticality? (Kramsch, 2018)
- → need for long-term teacher-initiated pedagogical translanguaging

MULTICINGUAL HANGOUT

á

Research Questions

연구 문제

RQ 1 Pedagogical Translanguaging은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RQ 2 Pedagogical Translanguaging을 경험한 학생들의 변화는 무엇이며,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는가?

MULTICINGUAL HANGOUT

4

Multilingual Hangout

Ⅲ. 연구방법

- Research Methods: Qualitative research (Action research)
- Research site: out-of-school context (at SNUE)
- Participants: Five Chinese-born North Korean refugee youths living in South Korea
 Four teachers (one North-Korean teacher)
- Components of the study (combination of research and teaching)
 - 1) Developing a Mulitlingual Hangout Program
 - 2) Conducting seminar style classes (9 occasions) & Summer camp (2days)
 - 3) Continuous monitoring & revising of the program
 - 4) Data collection & analysis
- Data collection: videotaping, audiotaping, observations,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pre- & post-program surveys, Focused group interviews, researchers' fieldnotes & meeting minutes, students' artifacts, online culture and language exchanges(google classroom postings)

MULTICINGUAL HANGOUT

Multilingual Hangout

Participants

	ME		물생 연도		현국민국 연도			音楽の名			대가 발공 이는 언어(모두)	용력이 사용	용되어 사용시간
1	22	H	2000	중국	2015	함부인	즐국인	#2	중국·>한국중학교->대안학교 ->대학교	중국어	1.등곡여 2.한국어	진구&아 바	무용말
52	얼마	Ot	1999	중국	2013	함복단	중국인	# £	증국·한국중학교 · 증국교 등을 ·한국대안학교	중국어	1.중국어 2.한국어 3. 일어	친구	6-7시간
33	성등	В	1999	9=	2012	할루틴	용곡민	(알수 얼음)	중국·한국중학교-한국목설 학교-대만학교-대학교	중국어	1.중국어 2.한국어	진구랑눌 대/가족과 이야기	2시간청도
643	분양	В	2000	중국	2007	함복원	중국민	얼마와 이 북동생	조2~등1 정규학교 여명에서 중 검정고시 현재 고5	중국어	1.중국어 2.한국어	즐국친구 와	5美
	89	oq	2001	8-4	2034	함부턴	조선육(생 부)/중국 인(제부)	명마와 엄 마의 날한 날자친구	한국등1년~등등검정고시~ 대한학교~대학교	중국어	1.등국어 2.한국어 3. 엄어	친구합대 화	14시간행5

MULTICINGUAL HANGOUT

11

Multilingual Hangout

The Framework of Analysis



MULTILINGOM, HW450UT

Coding Table 예시

W1: English

학생	How or	민 변화	w	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before H1	after H2	학생 관련 Ws	멀티링궐행아웃 프로그램 Wp	Evidence: quotes/voice
민섭(51)					
영미(52)					
성동(53)					
문양(54)					
흥리 (55)					

Saldaña, J. (2013). The coding manual for qualitative researchers,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MULTILINGUAL HANGOUT

1

Chinese-born North Korean refugee youths

a growing population within North Korean refugee

- 1. transnationally "uprooted"
- needs
- 한국어 및 영어 학습
- linguistic, social isolation
- confused, narrowed, defensive identity

MULTILINGUAL HANGOU

탈북민 선생님

Chinese-born North Korean refugee youths

"어떤 엄마와 아빠가 아 이제 정확하게 이 아이들한테 어 어떤 패밀리 히스토리에 대해서 자세히 어려서부터 이야기해주고 이 아이가 커 가면서 스스로 그 가운데에서 아 나는 누구다 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쭉 커왔거든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내가 뭘할건지 뭘하고 싶은지 그 다음에 정해지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뭘 쌓이니까 그 모래위에 쌓은 성 같은 거 ..."

MULTILINGUAL HANGOUT

-

The "MH" Program

1本: introduction, board game

25: talking about friendship, songs

3大: New year's resolution

4片: 'What I can teach' images & scripts (online communications with JMU students)

57: Critical Media Literacy (ads of racism)

6井: JMU English lessons, visualization, & role-playing

7片: shooting of 'what I can teach'

8片: identity portrait

9大: Summer camp with JMU students (2019 July - 2days)

- multiple perspective activity (윤봉길 활동), buddy hangout

10村: Farewell & Christmas party (2019 Dece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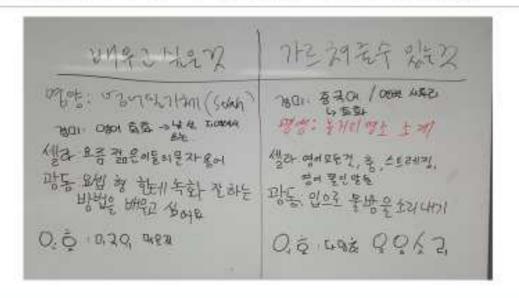
MULTICINGUAL HANGOUT

-10

Session 2 & 3: "friendship" & "new year"



Session 4: "What I can teach"



MULTILINGOM, HARAGO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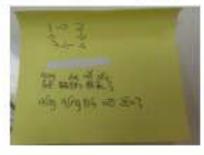
Session 7: What I can teach to American students











- 1. 물방울소리내기
- 2. 변검
- 3. 서울놀거리명소
- 4. 연변말
- 5. 하난성사투리

MULTILINGSIA HARASOUT

15

Session 9: summer workshop with JMU students







MULTILINGON, WASOUT

Ⅳ. 연구 결과

RQ 1 Pedagogical Translanguaging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transgressing norms" of English classes

- 1. multilingual policy
- dialogic relations
- role-reversing

MULTILINGUAL HANGOUT

34

1. multilingual policy

MULTICINGUAL HANGOUT

Finding 1-1. multilingual policy

그래도 써봐

기존수업

쓰지 마라" (광동)

만 몰아 하니까 그런적 있어여 비속어 중국어 사용하지 않기 (문양)

MH수업

"캠프 하는 한달동안 중국어 "중국어 좀 해봐, 그래도 써봐, 중 국어로 얘기해봐"

쉬는 시간만 되면 애들이 중국말 "니들 영어로 기죽지 마, 한국어, 막 중국어 써"

Finding 1-1. multilingual policy

인섭 meaningless

면담자: 어 그 다음에 그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계속 중국어를 써라 ~ 말로도 해라~머 이거는 중국어로 적어 봐라~ 막 이러잖아. 그건 어때?

인섭: 아싫었어요.

면담자: 어 진짜? 왜 어떤 점이?

인섭: 쌤이 못 알아 못 알아보잖아요. 쌤이.

Finding 1-1. multilingual policy

<mark>ल्रण</mark> grateful

고맙다는 생각이 .. 못 알아들으시고 우리끼리만 알쟎아요. 그런데 우리 위해서 그러는데, 막 그렇게 말하면 고마운 마음이니까... 이렇 게 양보해줬으니까

MULTICINGUAL HANGOUT

25

Finding 1-1. multilingual policy

광동

given voice

중국어 쓰지 말라고 저 그거 듣고 약간 좀 어이없다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한국어랑 중국말 쓰지 말라고 하면 저 아마 이를 동안 그냥 말을 못할 거예요. 중국어 못하게 하면 진짜 말을 못해요.

그냥 영어만 배우면 제가 머리 아팠을텐데 여기 와서 너무 자연스럽 고 제가 너무 좋았어요.

MULTICINGUAL HANGOUT

2. dialogic

Finding 1-2. dialogic

만나는 모임

기존수업

좀 그만 떠라고 조용히 하라 고 그런 거였쟎아요

MH수업

쌤들이 항상 하는 말이 수다 여기서는 얘들끼리 편하게 대화 하다 가요. 여기서는 아주 활발하 게 할말 다할 수 있어요.

> 올 때마다 그냥 친한 선생님 친구 들 만나는 모임 가짐이라고 생각 하고 오면 쫌 뭔가 얘기하고 뭔가 재밌는데...

Finding 1-2. dialogic

영미

Not typical

영미: 그 영어캠프는 원어민이 막 머랑머랑해요 번역해요. 번역해 논 사람이 있어요... 책 펴 놓고 아니면 그분들이 뭘 가르칠지 배 갖고 와 가지고 저희한테 가르치면 우리 따라 배우고 읽고 쓰고 단어 익히공 그리고 쉴 쉬는 타임이고... 쉬는 타임이면 물어보고 거의 근데 수업 빼고 대화를 안 나누죠.

면담자: 어... 선생님하고?

영미: 네 만나도 대화하기 어렵고 하니까 만나면 그냥 그냥 고개만 흐흐 면담자: 그래서 적어도 우리 수업할 때는 약간 학교수업보다는 인원도 적고

영미: 좀 네 그러고 또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면담자: 대화를 많이 하는 거는 괜찮아? 좋은? 좋은 거 같아? 영미: 아 네 이거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 점이 전 좋았어요.

3. role reversal

Finding 1-3, role reversal

가르치는 역할

기존수업 MH 수업

탈북학생은 받는 입장 탈북학생이 가르치는 활동

미국 사람은 영어 사용 미국 학생들이 한글을 쓰고

한글로 발표하는 활동

MULTILINGUAL HANGOUT

31

Finding 1-3, role reversal

영미 a different position

근데 쌤들이 항상 우리한테 얘기하잖아요. 굳이 걔들한테 맞춰주지 말고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언어도 사용하고 그러라고 했을 때, 아! 맞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가도 또 영어로 가고 근데 쌤들이 말해 주실 때마다 아 맞네! 뭔가 계속 맞춰가는 기분이었거든요.

anners anno anno anno anno

Finding 1-3, role reversal

Jenna (문양's partner) a different position

They were a little difficult, I don't have any experience with hangul or Korean prior to this so it was tricky to write and speak a new language in front of people for the first time.

MULTICINGUAL HANGOUT

3

Finding 1-3, role reversal

문양

peer-teaching

문양: 윤봉길이 괜찮았던 것 같애요... 약간 소재는 별로였는데 공부를 안좋아하 공부하는 느낌인데 그게 대신 그 활동을 통해서 이제 짝꿍 이 알려주고 하는 그게 좋았던 거예여.

면담자: 어 그래 맞어. 짝꿍이랑 말 대화 대사쓸 때 그지?

문양: 네, 이제 멋 이제 서로 알려줘야 되고 이게 좋았던 것 같애여.

anne mention disease

RQ 2 Pedagogical Translanguaging을 경험한 학생들의 변화는 무엇이며,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는가?

- engagement
- learning
- confidence
- enlargement of self
 - through transgressions

MULTILINGUAL HANGOUT

35

Finding 2-1, engagement

영미

engagement

영미: 수업이다보니까 아 긍까 <mark>압박감</mark>부터 들고 들어가기 전에 긴 한숨을 쉬고 들어가고 음 아마 재미를 못 느끼니까 그렇게 잘 참여 못하게 되잖아요.

면담자: 맞아

영미: 뭔 재민지도 모르겠고 집중도 안되고 빨리 시간만 갔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었는데 근데 여기 쌤 초대로 여기와서 했는데 음 좀 <mark>재미있</mark> 었어요. 학교할 때랑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면담자 : 어.

영미 : 어 재밌으니까 적극 참여하고 학교 때는 안 잘했는데 헤헤헤

MULTICINGUAL HANGOU

Finding 2-2. learning

홍리

learning

면담자: 계속 세 개 언어를 쓰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 다 써도 돼, 중국어로도 얘기해봐.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

흥리: 아 공부에 오히려 도움이 되죠.

면담자: 공부에 오히려 도움 된다

흥리: 네, 이렇게 세 개 언어니까 의미 있었어요.

면담자: 만약에 그냥 영어를 가르치는데 한국어로 영어만 가르쳤다면?

흥리: 아아아 그냥 영어를 가르치면 그냥 까먹어요.

면담자: 어어어 까먹어.

흥리: 근데 중국어, 한국어 있으니까 되게 인상이 머리 속에 이케이케

MULTICINGUAL HANGOUT

37

Finding 2-3, multilingual

문양

multilingual identity - confidence

문양: 긍까 좀 자신감 살짝 느꼈던 게

문양: 영어만 쪼금 알면 언어는 세 개 아는 거고 .. 그게 약간 제가 좀 대단하

다고

면담자: 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 어

문양: 네. 그런 생각 확실이 들었어여. 중간중간에

면담자: 어

문양: 어느새 제가 언어를 세 개를 알고 있더라고여

MULTICINGUAL HANGOU

Finding 2-4. enlargement of self

<mark>ल्रण</mark> enlargement of self

면담자: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뭔가 바뀐게 있다면?

영미: 있어요! 제가 원래 여행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 작정 세웠거든요. 저는 유럽 아주 이 여행 생각도 안했어요, 영어가 엄청 딸린다고 생각도 안 해보 고 그냥 생각도 안해 일도 없었어요. 아예 모 오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면담자: 어,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

영미: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거 하면서 꼭 한 번 유럽여행 가보고 싶고. 마 근데 한달 두달 있는게 아니라 좀 길게 오래 있다가 있었다가 막 오면 또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저 그런 거 있었어요.

MULTICINGUAL HANGOUT

3

present study

V. 결론

For some of the uprooted and isolated refugee students,

RQ 1 Pedagogical translanguaging materialized through transgressing norms of "English class".

RQ 2 This made them engaged in learning and have more holistic identities.

MULTICINGUAL HANGOUT

Implication

· difficulty of implementing pedagogical translanguaging

Present study

- out-of-school context
- Various initiatives offered to the participants (compensations, English, advice, etc.)

MULTILINGUAL HANGOUT

21

Significance

Translanguaging as critical practice

- as norm-transgressing in pedagogical terms
- as Bahktinian dialogic pedagogy
- as Freirian "pedagogy of the oppressed"

MULTICINGUAL HANGOU

Thank you!!

BIODATA

Eun-Young Jang is an Associate Professor in the Graduate School of Multicultural Educat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outh Korea. She has received a Ph.D. in Language, Literacy, and Culture from Vanderbilt University, USA. Her academic interests are critical pedagogy, multiculturalism and multilingualism, and critical media literacy. Topics covered in her recent scholarly work include media literacy for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and pedagogical translanguaging for CLD students in Korea. E-mail: eyiang@snue.ac.kr

Eun-Yong Kirnis a lecturer in the Department of Liberal Studies in Korean Bible University, South Korea. She has received a PhD in Language, Literacies and Education from University of Toronto, Canada. She is mainly interested in critical pedagogy and critical sociolinguistics of English in Korean context, Her research interests also include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North Korean Studies, and Christianity in Applied Linguistics. Email: eunyongkim@bible.ac.kr

MULTICINGUAL HANGOUS

트랜스링구얼 관점에서의 NEST/NNEST 담론 고찰

이정아(대구경북과학기술원) 오경애(한국외국어대학교)

1990년대 시작된 비원어민영어교수자 운동NNEST movement은 영어교육 현장에 널리 퍼져있는 '원어민이 좋은 외국어교수자라는 잘못된 믿음Native speaker fallacy'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에 성공했다. 원어민의 정의(Davis, 1991; Medgyes, 1992; Phillipson, 1992), 고용/경력 측면에서의 차별(Amin & Kubota, 2004; Nayar, 1994; Wang & Lin, 2013), 원어민과 비원어민교수자의 강점과 약점(Braine, 2010; Mahboob, 2004; Medgyes, 1992, 1994; Kim, 2012; Zhang & Elder, 2014)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비원어민영어교수자 운동과 더불어 언어학습자로서의 경험, 언어에 대한 지식(문법) 교수에서의 강점, 학습자와 제1언어 공유 등으로대표되는 비원어민교수자의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적어도 학계에서는) 효과적인 언어교수를 위해서는 (비)원어민성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훌륭한 교수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예: 학생에 대한 이해, 목표어에 대한 지식, 외국어학습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이해 등)이 중요하다는 어쩌면 당연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인 면에서도 성과를 거두었는데, 일례로 비원어민영어교수자 운동의 초기 핵심 멤버였던 George Braine, Jun Liu, Suresh Canagarajah 등은 인터내셔널 테솔TESOL International을 비롯한 잘 알려진 여러 학술조직의 리더십을 지낸 바 있다. 최근에는 Asia TEFL같은 비내부권non-Inner Circle 주도의 다양한 국제 테솔 관련 학회도 생겨났다.

비원어민교수자운동의 이와 같은 학문적, 정치적 성과는 분명 환영해야 할 일이지만, 후기구조주의 관점을 지닌 학자들은 비원어민/원어민교사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개념화를 비판해 왔다(Ahn, Kim, and Lee, 2020; Aneja, 2016; Bonfiglio, 2013; Ellis, 2016; Yazan, B., & Rudolph, 2018). 이들이 보기에 원어민교수자와 비원어민교수자의 차이점과 각각의 장점을 강조하는 시도가 '원어민 우월성Native speaker superiority)' 이데올로기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비원어민교수자의 효능감을 상승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원어민과 비원어민은 원래부터 다르다는 이분법적 틀을 더욱 고착화시킨다는 것이다. 후기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정체성은 변화하고, 역동적이며, 사회적, 담론적으로 구성된다. 언어적, 민족적, 인종적 지표 등으로 나타나는 '원래부터 타고나는 그 무엇'으로서의 '보편적' 정체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Aneja(2016)가 지적하듯이 개개인은 원래부터 원어민과 비원어민인 것이 아니라 담론적으로 구성되며, 원어민과 비원어민은 서로에 대한 반대개념으로만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기존 원어민/비원어민 담론에 대한 이와 같은 후기구조주의적 비판에 동의하며,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서는 역동적이면서 사회적, 담론적으로 구성되는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교사의 정체성이 재개념화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실제로 교사정체성 분야의 최근 연구들에서는 원어민/비원어민성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맥락을 교차하면서 변화하며 다층적으로 구성되는지, 그리고 교수행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한다 (Aneja, 2016; Ellis, 2016; Lee & Canagarajah, 2019). 그러나 이와 같은 학계의 노력은 안타깝게도 현장 차원으로 널리 퍼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한국인 영어교사들에 대한최근 연구에서도 그들이 '원어민 우월성' 이데올로기를 체화하고 있음이 드러난다(Ahn et al., 2020; Kim, 2017; Song, 2016).

관련하여 본 발표는 트랜스랭귀얼 이론이 이론적인 차원을 넘어 현장에서 원어민/비원어민의 이분법적 구분의 힘을 약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한다. 트랜스랭귀징은 다양한 방식과 개념을 포함하지만(Poza, 2017), 우리는 Canagarajah(2018)를 따라 개별언어named language 간 경계 해체와 혼종사용 뿐 아니라 다양한 기호 체계semiotic modes를 포함하고 텍스트/컨텍스트의 구별을 초월하며 다양한 기호

자원semiotic resources 사용으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혁 가능성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 많은 한국인 영어교수자들은 이미 영어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어를 비롯한 자원들을 사용해왔다. 그와 같은 교수적 실천은 단일언어 이데올로기monolingual ideology 틀에서 목표어인 영어만 사용해야 학생들이 더 잘 배울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되면서 영어수업에서 한국어는 '영어가 안되는 능력이 부족한 교사의 선택'정도로 평가절하되었다. 비원어민교사의 장점이 학습자와 모국어를 공유하고 해당 목표어 학습 경험자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한국어 사용은 학생이 필요할 때만 제공해야 하는 보조적 수단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트랜스 랭귀얼 관점에서 모국어와 목표어 (혹은 제 3의 다른 언어들, 물적 자원들)는 의사소통을 위해 가용되는 동일하게 중요한 자원으로 이해된다. 언어 교수학습에서 다중언어, 다중모드가 '디폴트'가 되며, 이런 환경에서 원어민/비원어민의 이분법적 구분은 의미를 별로 갖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이와 같은 우리의 생각을 나누기 위해서, 발표에서는 첫째, 원어민 우월성 이데올로기와 비원어민교수자 운동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비원어민교수자 운동 맥락 속에서 원어민/비원어민 이분법적 구분이 어떤 식으로 고착화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그 다음 후기구조주의적 시각에서 (비)원어민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Aneja(2016)의 "비(원어민) 화자화하기(non)native speakering" 개념을 중심으로 살핀다. 셋째, 트랜스랭귀징의정의, 역사, 예시를 소개한 후 Lee와 Canagarajah(2019)의 트랜스링구얼 성향translingual disposition 개념을 중심으로 원어민/비원어민 이분법적 구분을 초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본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을 제시한다.

References

- Amin, N. & Kubota, R. (2004). Native speaker discourses: power and resistance in postcolonial Teaching of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In P. Ninnes & S. Mehta (Ed.), *Re-Imagining comparative education: Postfoundational ideas and Applications for Critical Times* (pp. 107-128). New York: Routledge Falmer.
- Aneja, G. (2016). (Non)native speakered: Rethinking (non)nativeness and teacher identity in TESOL teacher education. *TESOL Quarterly*, 50, 572–596. doi:10.1002/tesq.315
- Braine, G. (2010). Nonnative speaker English teachers: Research, pedagogy, and professional growth. Routledge: New York.
- Brutt-Griffler, J., & Samimy, K. K. (2001). Transcending the nativeness paradigm. *World Englishes*, 20(1), 99–106. Bonfiglio, T. P. (2013). Inventing the native-speaker. *Critical Multilingualism Studies*, 1(2), 29–58.
- Canagarajah (2018) Translingual practice as spatial repertoires: Expanding the paradigm beyond structuralist orientations. *Applied Linguistics* 39(1), 31-54
- Cook, V. J. (1999). Going beyond the native speaker in language teaching. TESOL Quarterly, 33(2), 185-209.
- Davies, A. (1991). The native speaker in applied linguistics.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Kim, E. (2012). Analytic profiling of speech acts between NNESTs and NESTs.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27(4) 627-647.
- Kim, H.-K. (2017). Demystifying native speaker ideology: The critical role of critical practice in language teacher education. *The Journal of Asia TEFL*, *14*(1), 81-97.
- Kubota, M. (2004). Native speaker: A unitary fantasy of a diverse reality. The Language Teacher, 28(1), 3-30.
- Llurda, E. (2005). Non-native language teachers: Perceptions, Challenges and contributions to the profession. New York: Springer.
- Mahboob, A. (2004). Native or Non-native: What do the students think? In L. Kamhi-Stein (Ed.), *Learning and teaching from experience: Perspectives on non-native English-speaking professionals* (pp.121-148).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Mahboob, A. (2005). Beyond the native speaker in TESOL. In S. Zafar (Ed.), *Culture, Context, & Communication*. Abu Dhabi: Center of Excellence for Applied Research and Training & The Military Language Institute.
- Medgyes, P. (1994). The non-native teacher. London: Macmillan.
- Medgyes, P. (1992). Native or non-native: Who's worth more? ELT Journal, 46(4), 340-349.
- Nayar, P. B. (1994). Whose English is it? TESL-EJ, I(1), F-1. Retrieved November, 2020,
- Phillipson, R. (1992). Linguistic imperi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ee, E., & Canagarajah, A. S. (2019). Beyond Native and Nonnative: Translingual Dispositions for More Inclusive Teacher Identity in Language and Literacy Education. *Journal of Language, Identity & Education, 18* (6), 352-363, DOI: 10.1080/15348458.2019.1674148

- Poza, L. (2017). Translanguaging: Definitions, implication, and further needs in burgeoning inquiry. *Berkeley Review of Education*, 6(2), 101-128.
- Song, J. (2016). Emotions and language teacher identity: Conflicts, vulnerability, and transformation. *TESOL Quarterly*, 50(3), 631-654.
- Wang L-Y., & Lin, T-B. (2013). The representation of professionalism in native English-speaking teachers recruitment policies: A comparative study of Hong Kong, Japan, Korea and Taiwan. *English Teaching: Practice and Critique 12*(3):5-22.
- Yazan, B., & Rudolph, N. (Eds.). (2018). *Criticality, teacher identity, and (in)equity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Issues and implications*. Cham, Switzerland: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BIODATA

Jeong-Ah Lee, Ph.D. is an associate professor at School of Undergraduate Studies, College of Trans-disciplinary Studies, Daegu Gyeongbuk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DGIST).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ESP, EMI, study abroad, and critical pedagogy.

Email: jalee@dgist.ac.kr Phone: (053) 785-6623

Kyung-Ae Oh, Ph. D. is a lecturer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ollege of Education, Dept. of English Education.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NESTs/NNESTs, EMI, identity in language education and critical pedagogy. Email: kyungaeo@gmail.com

트랜스랭귀징 기반 영어 학습 지원 프로그램 과제와 방향

강현주 (수원 천천초등학교)

서론

UNESCO에서 설정한 지속가능한 발전교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은 학습자들의 인권과 생태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환경을 지향한다. '언어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면 배울 수 있는 교육의 권리도 차단'(신동일, 2020)된다는 입장은 언어로 중재되는 교육적 실현 가치를 중시하며, 학습자들의 접근이 용이한 교육환경의 디자인을 요구한다. 따라서 '글로벌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좀더 peaceful, tolerant, inclusive, secure, sustainable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적인 promoter'(장경숙, 2019)가 되기 위한 민주적인 교실은 영어 교육의 출발점에서부터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어교육에의 트랜스랭귀징(translanguaing)이라는 화두는 교실수업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개개의 정체성의 발로가 되는 폭넓은 언어자원의 사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한다.

Vaish(2019)의 연구는 복합적 언어생태를 갖고 있는 싱가포르의 당면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active research의 일환이며, 특히 읽기학습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트랜스랭 귀징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의 언어 인식, 담화 분석 등 현장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에 대하여 CP 분과에서의 논의를 거쳐 그 함의를 보태고자 한다.

연구 배경 및 목적

다인종 이민자 국가인 싱가포르는 언어문제로 야기되는 사회 갈등을 통합하고 국가 정체성 확립을 위해 자치 정부 출범시부터 교육에 높은 예산에 배정하였다. 그러나 4개의 공식 언어(타밀어, 말레이어, 중국어, 영어)를 지정하고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구사력에 따른 사회 경제적 불평 등이 심화되자 영어공용화 정책과 이중언어정책을 시행한다. 독립 당시 동남 아시아 최빈국이었던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 연방과 식민 종주국이었던 영국보다 높은 GDP를 형성하게 된 배경에는 국민 대다수가 두 개의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게 되면서 아시아의 물류 허브로서의 인프라를 구축하였기 때문이다(강승문, 2017).

싱가포르의 학교 시스템에서 영어는 교수학습의 주요 매개 수단이며, 학생들은 인종그룹에 따라 중국어와 말레이어, 타밀어 중 한 언어를 L2로서 선택한다. 그러나 Vaish는 인종그룹과 L2를 단순히 일치시켜 구획하는 학제 시스템은 다음 도표를 통해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즉 가정 내에서의 비중이 급격히 향상하는 언어는 영어이나, 여전히 다수가 점유하지 않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차이를 포착하여 모어가 영어인 경우와 반대인 두 가지 유형의 학생들에 주목한다.

Table 1. Resident population aged 5 years and over by language most frequently spoken at home.

Ethnic Group/Language	2000 (% of speakers)	2010 (% of speakers)
CHINESE		
English	23.9	32.6
Mandarin	45.1	47.7
Chinese Dialects	30.7	19.2
Others	0.4	0.4
MALAYS		
English	7.9	17.0
Malay	91.6	82.7
Others	0.5	0.3
INDIANS		
English	35.6	41.6
Malay	11.6	7.9
Tamil	42.9	36.7
Others	9.9	13.8

싱가포르의 언어 생태는 다문화 가정의 증가, 교사들의 언어 소속감과 능숙도의 상이함, L2언어(타밀어, 말레

이어) 자체의 변이형 등이 혼재되어 매우 다양하고(superdiverse) 독특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연구자는 영어 읽기 학습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돕는 학습지원프로그램(LSP, Learning Support Program)에 트랜스랭귀징을 도입하기 위한 첫 단계로 W학교를 파일럿으로 삼았다. 다양한 언어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로 구성된 LSP 내에서 교사의 언어에 초점을 두고 담화분석을 하였으며, 학생과 교사의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트랜스랭귀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이론적 검토

본 연구는 Li (2011)에 이론적 근거를 두며, 트랜스랭귀징이 벌어지는 상황에서의 순간 분석(Moment Analysis) 방법을 사용한다. Vaish는 두 언어들이 자연스럽게 섞이며 사용되는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일상의 대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목격되나 교사의 언어에서는 충분히 강조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교사가 트랜스랭귀 징을 하는 동안 의도한 바대로 성공하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연구와 관련하여 참조한 논문 대부분이 스페인어와 영어 이중언어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을 골자로 하며 (Martinez-Roldan & Sayer 2006; Jiménez, Garcia & Pearson, 1995; Hopewell 2017; Worthy et al. 2013; Pontier & Gort 2016), Spanglish를 활용할 때 텍스트 이해력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두 언어 중 어떤 언어가 얼마나 지배적인지 정밀하게 규정할 수 없다는 문제(Martinez-Roldan & Sayer 2006; Pontier & Gort 2016)를 안고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같은 딜레마를 갖고 있음을 토로한다.

일기 능숙도는 어휘력과 높은 연계를 맺고 있고, 어휘력 부족은 이중언어학생들에게 특히 문제가 된다(Jimez, Garcia & Perason, 1995).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메타언어인식 향상을 위한 시범(Worthy et al, 2013), 코티칭(Pointer & Gort, 2016), 가정연계전략(Hopewell, 2017) 두 언어 비교 활동(Hopewell, 2011)을 트랜스랭귀징교육법의 구체적인 실천전략으로 검토하였다.

한편 Cenoz & Gorter(2011)는 영어 능숙도가 낮은 학생들일지라도 L1(Spanish)에서 L2(Basque)뿐만 아니라 L3(English)에서 L2(Basque)로의 언이가 전이됨을 밝히며, 언어교차의 다각적 현상은 L1에서 L2 로의 단 방향에 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연구 설계 및 결과

연구자는 말라이 민족이 대다수인 지역에 위치한 W 학교에서 30분씩 8회에 걸쳐 실시한 2학년 대상 LSP 프로그램에서 3.5시간의 비디오 자료와 3건의 학생, 교사 인터뷰를 수집하였다. 말레이어와 영어가 유창한 이중언어자인 교사 Mdm Y 외에 타밀어와 중국어를 도울 연구보조교사 2명이 투입되었으며, 모어가 영어인지를 기준으로 유형화한 말레이, 중국어, 인도 학생 총 8명이 참여하였다. 트랜스랭귀징의 기능에 대한 교사 Mdm Y 의 의견을 반영하여 비구조화된 교실 상황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교사와 연구보조교사의 행위자성에 의존하여 트랜스랭귀징의 사용 시점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의 핵심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 여러 언어그룹이 상존한 상태에서 교사가 영어 어휘를 각 언어별로 번갈아 번역하는 방법은 시간 소비적이며 비능률적이다.
- 언어들 간 유의어, 동의어를 연결 짓는 교수 방법은 학생들의 메타언어인식을 높이며, 영어 어휘의의미를 강화시킨다. (e.g. snug/comfortable = selsa(말레이 어휘))
- LSP 학생들에게 (유사) 동음이의어 발음은 이해에 혼란을 야기함으로 교사의 시범, 번역하기 전략이 유효하다.
- 영어 읽기 학습 지원을 위하여 교사가 각 학생의 모어를 바탕으로 스캐폴딩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아닌 모어에 대한 학생의 부정적 태도가 관찰되었다.

- 민족 그룹과 관계없이 학생이 강점을 갖는 언어를 활용하여 목표어 교육을 할 때 트랜스랭귀징의 교육적 효과가 발생한다.
- 교사와 학생이 공유하는 언어를 활용하여 영어학습에 임할 때, 학생들이 자신을 보다 잘 드러내었다.

다양한 언어적 배경을 갖고 있는 싱가포르의 교실 상황을 고려할 때, 가정에서의 언어와 교실에서의 언어가다를 경우 교실이 각 언어별로 분리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모어가 영어라 할지라도 영어 읽기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언어적 배경이 다른 학생들과 교사 모두 자유로운 상호작용에 익숙하지않았다. 이에 연구자는 교사와 학생이 발언을 공유하며 함께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트랜스랭귀징이 민주적인 교실 문화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모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싱가포르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만연한 현상이며, 모어 활용을 통한 영어학습시 장애 요소가 됨으로 트랜스랭귀징을 도입하기 앞서 모어에 대한 부정적 태도 극복을 과제로 남겼다.

결론

2018년 통계청의 다문화 인구동태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문화 혼인 건수는 국내 전체 혼인 건수의 9.2%를 차지할 만큼 한국의 인구 지형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인적, 물적 교류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다인종 국가 싱가포르의 교육 사례는 교사, 교사교육자, 교육 정책입안자에게 여러 시사점을 남긴다.

첫째, 영어공용화 및 이중언어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문화적 정체성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모어 에 대해학생들이 부정적 태도를 드러낸 문제는 교사가 대처해야 할 범위를 넘어, 각 언어가 갖는 사회경제정치적 힘의 불평등이 드러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문화 경쟁력은 생태적 다양성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자국어를 포함한 언어 정책은 각계 전문가의 숙론을 거쳐 신중하게 수립하되,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싱가포르의 LSP 프로그램은 대상 학생들이 주류 교실 현장에서 분리되어 참여하는 방식이기에, 낙인 효과에 따른 학생들의 심리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정 배경이 다양한 학생들의 특성을 배려하지 못한 교육제도와 매개 언어가 언어적 배경이 상이한 학생들의 잠재성을 열등요소로 인식하게 하지 않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LSP는 개별화교육이라는 교육 취지의 큰 틀 안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여야 한다. 또한 영어과의 기초학력 및 문해력 실태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트랜스랭귀징은 각 학생의 언어적 자원을 존중하며, 창의적인 언어 사용을 촉진하고, 메타언어인식 향상 및 목표어로의 스캐폴딩을 가능케하는 교육적 가능성이 크다. 기존 교수법과의 모호성을 극복하고 학생들의 화용적, 담화적 능력을 향상시키며 평가와 피드백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전략 수립을 위해 보다 높은 교사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참고문헌

강승문. (2017). 싱가포르역사 다이제스트. 서울: 가람기획

신동일. (2020). *앵무새 살리기*. 서울: 박이정.

장경숙. (2019). 'Global Citizenship in the 2015 Primary English Curriculum' 2019년 한국초등영어교육 학회 워크숍 및 연례학술대회, 51-56.

장은영 외. (역). (2019) 리터러시와 권력.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정숙경 외. (201). 비판적 영어교수법과 영어교육. 서울: 한국문화사

Hopewell, S. (2011). Leveraging Bilingualism to Accelerate English Reading Comprehen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14(5): 603–620.

Hopewell, S. (2017). "Pedagogies to Challenge Monolingual Orientations." In New Perspectives on Translanguaging and Education, edited by B. Paulsrud, 72–88.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Jiménez, R. T., G. E. García, and D. P. Pearson. 1995.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2(1): 590 67–97. (Spring, 1995).
- Martinez-Roldan, C. M., and P. Sayer. (2006). Reading through Linguistic Borderlands: Latino Students' transactions with Narrative Texts. *Journal of Early Childhood Literacy* 6(3): 293–322.
- Pontier, R., and M. Gort. (2016). Coordinated Translanguaging Pedagogy as Distributed Cognition: A Case Study of Two Dual Language Bilingual Education Preschool Coteachers. Languaging Practices during Shared Book Readings. *International Multilingual Research Journal*.
- Vaish, V. (2019). Challenges and directions in implementing translanguaging pedagogy for low achieving students. *Classroom Discourse*, 2019, 10(3–4), 274–289.
- Wei, L. (2011). Moment Analysis and Translanguaging Space: Discursive Construction of Identities by Multilingual Chinese Youth in Britain. *Journal of Pragmatics* 43(2011): 1222–1235. 615
- Worthy, J., L. Duran, M. Hikida, A. Pruitt, and K. Peterson. (2013). Spaces for Dynamic Bilingualism in Read-Aloud Discussions: Developing and Strengthening Bilingual and Academic Skills. *Bilingual Research Journal* 36(3): 311–328.

BIODATA

강현주는 수원 천천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며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이수하였다. 관심분야는 이중언어교육과 영어 아동 문학이다.

Email: <u>khj8511@naver.com</u> Phone: (010) 5403-4364

Li Wei의 트랜스랭귀징 이론과 적용

장인철 (건국대학교)

들어가며

해외 응용언어학 주요 저널 중 하나인 *Applied Linguistics*는 2018년 2월 "Considering 'Trans-' perspectives in language theories and practices"라는 주제의 특별호를 발간한다 (Hawkins & Mori, 2018).¹³ 이 특별호는 그간 응용언어학계에서 제기된 다양한 '횡단-(trans-)' 이론을 언어적, 인지적, 사회문화적, 교육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실제 연구와 현장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한다. 트랜스랭귀징(translanguaging)¹⁴은 특별호에 실린 논문들을 관통하는 주제 중 하나이다. 이 글은 2010년 초반부터 트랜스랭귀징 개념을 제안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리웨이(Li Wei)¹⁵가 특별호에 게재한 논문인 "Translanguaging as a practical theory of language"(Li, 2018)를 바탕으로 그의 트랜스랭귀징 이론을 살펴보고 언어교육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본다.

왜 트랜스랭귀징인가?

최근 서구 응용언어학계에서는 다중언어주의(multilingualism), 복수언어주의(plurilingualism), 횡단언어주의 (translingualism), 도시언어주의(metrolingualism) 등 지금까지 응용언어학과 언어교육을 지배했던 단일언어주의 (monolingualism)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흐름이 존재한다(Blackledge & Creese, 2010; Canagarajah, 2013; Heller, 2007; Makoni & Pennycook, 2006; Pennycook & Otsuji, 2015). 이들 용어의 정확한 개념적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잠시 접어 두더라도 2000년대 후반 유사한 개념이 제안된 배경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그 배경에는 이민, 여행, 유학, 망명 등 다양한 형태의 이주 혹은 초국가적 실천으로 과거와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다문화된 사회의 출현이 있다. 이와 같이 '초다양화(superdiversity)'된 사회 (Vertovec, 2007)에는 기존의 언어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중언어사용자들이 등장하여 다양한 사회적 공간에서 복수의 언어 간 경계를 넘나들며 창발적인 언어 실천을 보여준다. 트랜스랭귀징과 같은 다중언어 연구들이 국가간 이동이 원활한 유럽, 전통적으로 다양한 이민자들을 받아왔던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서구 주요 선진국, 또한 이주의 '허브'(Ramirez, 2007)가 되는 주요 국가들의 대도시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

이중언어사용자의 언어 선택과 코드 스위칭을 연구해온 리웨이는 초국가적 주체들의 창의적이며 혼종적인 언어 실천이 기존의 코드 스위칭, 이중/다중언어주의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현상이라고 지적하며, '기술적

¹³ 한국영어교육학회 비판적 페다고지(Critical Pedagogy) SIG는 2020년 1학기동안 해당 특별호에 실린 논문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2020년 2학기에는 트랜스랭귀징을 교육 현장에 적용한 연구 논문을 함께 공부하였다. 본 졸고는 모임에서 함께 나눈 의견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¹⁴ Translanguaging을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미진하다. 비슷한 용어인 translanguage의 경우 '횡단적 언어'로 번역되기도 하며, languaging의 경우 언어 사용을 결과가 아닌 과정과 행위로 본다는 점에서 '언어하기'로 번역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리웨이의 이론으로서 translanguaging은 원어 발음 그대로 사용하며, 일반적인 혼종적이며 교차적인 복수의 언어사용 실천을 나타낼 때는 '횡단적 언어'라는 용어를 준용한다.

¹⁵ 리웨이는 현재 University College London (UCL) 교육연구소 (Institute of Education) 응용언어학센터장 (Director of Centre for Applied Linguistics)이다. 그의 초기 연구는 영국 내 중국인 이민자들의 언어 선택과 코드 스위칭 문제를 사회네트워크분석법(Social Network Analysis)을 이용하여 살펴보는 것이었다. 2000년대 초에 다양한 초국가적 주체들의 언어 사용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 트랜스랭귀징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국제 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ism 편집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와 Applied Linguistics Review 편집장이다.

적합성(description adequacy)'을 가진 새로운 이론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리웨이는 자신의 트랜스랭귀징 이론을 하나의 실천이라고 주장하는 데, 그에게 실천이란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같이 구조와 주체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기보다 이론과 현상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를 의미한다. 즉, 새로운 현상이 발견되었을 때 기존 이론의 틀에서 이해하기보다 정교하지 않더라도 현상을 포착할 수 있는 새로운 해석의 틀을 마련하고, 현상의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제안된 이론을 정교화해 나가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리웨이의 트랜스랭귀징이라는 개념은 이론적 완결성을 지향하기보다 새로운 언어 현상을 이해하는 역동적이고 열려진 이론 체계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리웨이의 이론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트랜스랭귀징 관련 초기 연구이며 많이 인용되고 있는 Li(2011)에서 보다 자세히 나타난다. 리웨이는 해당 논문에서 트랜스랭귀징을 정의하면서 이를 실증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순간 분석(Moment Analysis)'을 제안한다. 순간 분석은 다중언어사용자의 횡단적 언어 사용과 정체성 형성에 결정적이었던 순간을 두텁게 분석하는 방식으로 언어 사용의 반복되는 패턴을 찾는 기존 연구 방법과 다르다. 순간 분석은 일시적이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횡단적 언어 사용과 정체성 형성 과정을 분석하기에는 적합하며, 트랜스랭귀징을 통해 창출되고 변화하는 '트랜스링궐 공간(translingual space)'으로 분석의 관심이 옮겨 가기를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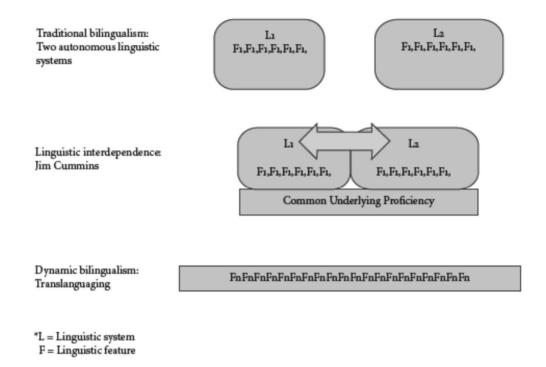
또한, 리웨이는 그의 연구에서 기존 사회언어학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언어 사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며 트랜스랭귀징이 일상적이며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Li (2011) 에서는 영국 대학의 중국인 학생들의 영어와 중국어를 사용한 말장난 사례를, Li(2018) 에서는 New Chinglish 사례와 싱가포르 중국인들의 트랜스랭귀징 대화를 제시한다. 특히 후자의 사례는 짧은 대화에 영어, 싱글리시, 광둥어, 말레이어 등 7개의 언어가 동시다발적으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트랜스랭귀징의 혼종성과 복잡성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언어 사용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리웨이는 새로운 이론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역설한다.

We are facing serious Post-Multilingualism challenges (Li 2016a) where simply having many different languages is no longer sufficient either for the individual or for society as a whole, but multiple ownerships and more complex interweaving of languages and language varieties, and where boundaries between languages, between languages and other communicative mean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and the nation-state are being constantly reassessed, broken, or adjusted by speakers on the ground. (Li, 2018, pp. 15-16)

즉, 리웨이에게 트랜스랭귀징이란 명명된 언어 사이, 언어와 비언어 의사소통도구 사이의 경계를 넘어서 인간의 의사소통능력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리웨이의 트랜스랭귀징에 대한 관심이 다양한 언어들의 혼종적, 창발적인 사용에서 출발된 만큼 초기 연구는 명명된 언어 사이의 경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11년 논문에서 그는 트랜스랭귀징이란 "서로 다른 언어 구조와 체계 사이를 이동하는 것은 물론 이를 넘어서는 것"(both going between different linguistic structures and systems and going beyond them)이라고 주장한다(Li, 2011). 2014년에는 트랜스랭귀징의 교육적 가능성을 탐색한 오펠리아 가르시아(Ofelia Garcia)와의 공저(Garcia & Li, 2014)에서 전통적이중언어주의와 언어상호의존이론, 트랜스랭귀징을 아래 그림과 같이 비교한다.

그림 1. 전통적 이중언어주의, 언어상호이론, 트랜스랭귀징의 차이 (Garcia & Li, 2014, p. 14)



전통적으로 이중언어주의는 서로 다른 (혹은 명명된) 언어 사이 독립된 체계를 가정한다. 언어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단일언어주의와 언어에 대한 표상을 공유하므로 이중언어라기보다 '두 개의 단일언어(dual monolingualism)'로 비판받는다(Heller, 2006). 이러한 이중언어주의에 근거한 이중언어교육은 학생의 모국어와 목표어를 서로 대립시키며, 가장 효율적인 교육 방법은 목표어의 배타적 사용이라고 주장하곤 한다. 반면, 집 커민스(Jim Cummins)가 주창한 언어상호주의(linguistic interdependence)는 이러한 단일언어중심주의와 목표어의 배타적 언어사용을 비판한다(Cummins, 2000). 커민스는 우리가 보는 두 개의 언어는 표면적으로는 독립되고 분리되어 보이지만 그 심층 구조에는 언어적, 인지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요소가 많다고 주장한다. 따라서,보다 효과적인 이중언어교육은 교실 현장에서 학생의 모국어와 목표어가 공유하는 요소를 중요한 교육적 자원으로 사용해야한다고 본다. 특히, 학생의 기존 언어 능력(가령, 모국어 등)을 활용하게 되면 학생들은 자신의정체성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며 이는 기존 언어능력 유지뿐만 아니라 목표어에 대한 능동적인 투자로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트랜스랭귀징은 우리가 명명하는 언어 체계는 인간의 정치적, 담론적 결과물로 보고 그 존재와 경계를 허물어 사고하기를 권한다. 리웨이는 인간의 언어능력은 경계 지어진 언어 체계로 수렴될 수 없는 다양한 언어적 자질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 간 경계 허물기에 대한 노력은 이후 심리학, 인류학, 담론 연구 등 인접학문의 영향을 받아 언어와 준언어(paralanguage) 혹은 비언어 간의 경계를 허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트랜스랭귀징의 주요 개념들

트랜스랭귀징은 무엇보다 혼종적인 언어 사용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요구한다. 언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구획되고(bounded) 명명된(named) 언어, 언어 중심의 의사소통, 습득으로서의 언어 학습이라는 세 가지 언어 인식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우리가 언어로 인식하는 것은 민족-국가라는 정치 체계의 산물로 실제 다중언어사용자는 정치적, 제도적, 담론적으로 나누어져 명명된 언어로 구획하여 언어를 이해, 습득,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의사소통이란 언어를 통한 정보 교환을 넘어, 신체, 경험, 감정, 정체성, 문화,

더 나아가 사회적 권력까지 포함하는 총제적이며 체화된 형태의 행위이다. 따라서, 의사소통에는 언어적, 인지적 자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양식(mode)을 가진 기호학적 자원들이 동원된다. 리웨이는 이러한 인식에 근거해다중언어사용자의 언어 사용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 1 Multilinguals do not think unilingually in a politically named linguistic entity, even when they are in a 'monolingual mode' and producing one namable language only for a specific stretch of speech or text.
- 2 Human beings think beyond language, and thinking requires the use of a variety of cognitive, semiotic, and modal resources of which language in its conventional sense of speech and writing is only one. (Li, 2018, p. 18)

리웨이의 트랜스랭귀징에서 언어는 "확인 가능하지만 분리될 수 없는 인지 체계와 상호 연관된 다양한 감각과 방식으로 구성된 의미 체계(a multisensory and multimodal semiotic system interconnected with other identifiable but inseparable cognitive systems)"이다(Li, 2018, p. 20). 이러한 대안적인 언어관에 근거했을 때 언어 학습은 복잡한 사회문화적 행위로 리웨이는 언어 학습을 '체화된 참여와 재기호화의 과정'(a process of embodied participation and resemiotization)(Li, 2018, p. 17)이라고 주장한다. 다양한 사회문화적 관계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소통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언어적/비언어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해가는 과정 속에서 언어를 배우게 된다는 이러한 언어학습 개념은 언어학습의 사회문화적 관점과 조응한다.

언어, 의사소통, 언어학습에 대한 리웨이의 생각은 다양한 사회학, 심리학, 담론연구, 언어교육 연구에 근거해 있다. 근대적 언어관에 대한 비판은 사회언어학, 언어인류학자들에 의해 줄곧 제기되었던 문제이며(Bauman & Briggs, 2003; Heller, 2007; Makoni & Pennycook, 2006), 체화된 형태의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논 의는 '분산된 인지(distributed cognition)' 이론을 참고한다.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 자원의 사용과 전환은 담론 연구의 다중양식(multimodality) (Kress, 2010)과 재의미화(resemiotization)(ledema, 2001)에 바탕을 두고 있다. 언어 학습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참여의 중요성은 언어사회화 연구(Duff, 2007)와 이중언어습득에 관한 학제간들을 마련하고자 한 The Douglas Fir Group (2016)의 기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학문적 연관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트랜스랭귀징은 언어, 의사소통, 언어학습에 대한 최근의 진보한 논의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트랜스랭귀징 이론의 개념적 확장성은 이론적 신어주의(neologism)이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Li (2018)은 이러한 비판에 대한 대응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물론 이 또한 다른 이론에서 차용한 측면이 있지만) 트랜스링궐 공간과 트랜스링궐 본능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론적 차별성을 부각시킨다. 트랜스링궐 공간은 리웨이가 트랜스랭귀징 이론을 구상할 때부터 등장하는 개념으로 그의 이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한다. 리웨이는 트랜스랭귀징을 "본질적으로 변혁적(transformative in nature)" 행위로 보는데, 새로운 언어 사용과 정체성 형성의 공간, 즉, 트랜스링궐 공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The act of translanguaging then is transformative in nature; it creates a social space for the multilingual language user by bringing together different dimensions of their personal history, experience and environment, their attitude, belief and ideology, their cognitive and physical capacity into one coordinated and meaningful performance, and making it into a lived experience. I call this space "translanguaging space", a space for the act of translanguaging as well as a space created through translanguaging.

Li(2010) 연구는 트랜스랭귀징에 있어서 트랜스링궐 공간의 중요성을 런던 소재 대학에서 수학하는 중국 학생들의 횡단적 언어 사용과 이에 대한 인식, 초국가적 정체성을 통해 보여준다. 이 연구는 중국 학생들이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언어적 배경을 가진 중국 학생들을 만나면서 횡단적 언어 실천을 시도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학에서의 트랜스랭귀징 경험은 지난 시절 전통적인 이중언어교육 패러다임 아래서 규범적인 중국어

를 배워야했던 중국어 주말학교의 경험과 대비된다. 대학에서 만난 친구 관계로 열려진 트랜스링궐 공간에서 그들은 기존 언어관습을 위반해가며 재미를 추구한다. 더 나아가 새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의 다양한 언어 적, 문화적 자원과 가치들을 인정하며 어느 한쪽의 민족성에도 수렴되지 않는 코즈머폴리턴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를 통해 리웨이는 트랜스링궐 공간은 두 가지 능력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기존 언어와 행동 관습에 질문을 제기하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언어적, 문화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비판성'(criticality)이며, 다른하나는 기존 언어 및 행동 관습의 수용과 위반을 자유롭게 구할 수 있는 '창의성'(creativity)이다.

트랜스링궐 공간이 언어 사용의 상황과 환경에 초점을 맞춘다면 트랜스링궐 본능(translingual instinct)은 언 어 사용자 개인의 언어적, 인지적 능력에 관심을 둔다. Li(2011)에서 밝히듯, 리웨이는 비판적 사회/응용언어학 자가 주장하는 다양한 언어 능력에 대한 구조적, 제도적 차별에 동의하면서도, 개인의 언어사용에 초점을 맞출 때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언어 사용의 양태를 발견하기가 더 용이하다고 주장한다. 언어 사용의 인지적 능력에 대한 관심은 언어 사용을 통해 생각을 정리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메릴 스웨인(Merrill Swain)의 '랭귀징 (languaging)' 개념을 빌려 횡단적 언어 실천을 '트랜스링궐리즘'이 아닌 '트랜스랭귀징'이라 지칭한데서도 드러 난다. 즉, 다양한 언어적 자질을 사용하는 트랜스랭귀징도 중요한 인지적 과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트랜스링궐 본능은 Li(2011)에서는 소개되지 않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트랜스랭귀징이 언어적 자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준언어적, 비언어적 자원들까지 포함하면서 새롭게 제기된 개념이다. 스티븐 핑커의 언어본능을 떠올리 게 하는 이 개념은 무엇보다 인간은 기존의 협소한 의미의 언어적 문화적 능력을 넘어서 다양한 기호학적 자 원들을 풍부히 동원해서 의사소통하려는 본능이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언어 사용자 혹은 학습자에게 필요 한 것은 다양한 자원들을 상황에 맞게 동원, 배치, 조정하는 능력이며, 살아가며 지속적으로 이질적인 언어적, 문화적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일생동안 이러한 트랜스링궐 본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 다. 물론, 이질적인 언어적, 문화적 경험이 쌓일수록 트랜스랭귀징을 위한 기호학적 자원의 폭과 깊이는 더해 질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여러모로 '우리 모두는 이미 혹은 항상 복수언어사용자였다'라는 '복수언어주의 (plurilingualism)'의 명제를 생각나게 한다(Piccardo, 2020).

나가며: 트랜스랭귀징의 가능성

리웨이의 트랜스랭귀징 이론은 다양한 경험과 언어적 자원을 가진 초국가적 주체들의 즉흥적, 창의적, 유희적인 언어 사용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언어 사용은 기존 명명된 언어라는 경계로 구획 되어진 언어 관념에 문제 제기하며 인간 의사소통을 언어 간의 경계, 더 나아가 언어와 비언어 간의 경계를 넘어서 사고하기를 요구한다. 더 나아가 리웨이는 트랜스랭귀징 실천이 인정되는 공간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환기하고, 트랜스랭귀징은 몇몇 언어 사용자의 특별한 능력이 아닌 인간이 가진 본능이라고 가정한다. 이미 도래했고 앞으로 더 발견될 다양한 문화, 생각, 자원이 교환될 사회에서 다양한 유형의 트랜스랭귀징 공간이 열릴 것이고, 그 속에서 트랜스링궐 본능에 충실한 우리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트랜스랭귀징을 실천하며 자신의 언어 사용, 감각, 정체성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미 다양한 학술 공간에서 대중문화, 언어경관, 온라인 공간 등 다양한 사회적 공간에서 실천되는 트랜스랭 귀징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Dovchin & Lee, 2019). 더불어 트랜스랭귀징의 교육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시작되고 있다(Cenoz & Gorter, 2020). Garcia와Li(2014)에서 리웨이는 트랜스랭귀징 페다고지가 새로운 형태의 이중언어교육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Li(2018)에서는 트랜스랭귀징 공간의 창출과 트랜스링궐 본능에 기반한 다양한 언어적, 비언어적 자원을 의사소통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언어교육을 강조한다. 특히, 이중언어교육이 주로 언어적, 문화적으로 소외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트랜스랭귀징 페다고지는 비판적 언어교육에 중요한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생성되는 경향이 있는 트랜스링궐 공간을 학교라는 제도권적 공간으로 가져오는 것에서 갈등과 도전이 생길 수 있으며, 여전히 명명된 혹은 민족-국가 단위로 경계 지어진 언어 관념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의 목표와 성취 기준 속에서 트랜스랭

귀징 기반 과업과 교수학습방법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트랜스랭귀징이 지금까지 언어교육에서 간과되어왔던 다양한 언어적, 비언어적 자원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트랜스랭귀징 페다고지가 가져올 교사, 학생, 교실환경, 교육과정의 혁신적인 변화가 기대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References

- Bauman, R., & Briggs, C. L. (2003). *Voices of modernity: Language ideologies and the politics of inequalit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lackledge, A., & Creese, A. (2010). Multilingualism: A critical perspective. New York: Continuum.
- Canagarajah, S. (2013). Translingual practice: Global Englishes and cosmopolitan Relations. New York: Routledge.
- Cenoz, J., & Gorter, D. (2020). Pedagogical translanguaging [Special issue]. System, 92.
- Cummins, J. (2000). *Language, power, and pedagogy: Bilingual children in the crossfire*. Clevedon, UK: Multilingual Matters.
- Dovchin, S., & Lee, J. W. (2019). The ordinariness of translinguistics [Special issue].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lingualism*, 16(2), 105–111.
- Duff, P. A. (2007). Second language socialization as sociocultural theory: Insights and issues. *Language Teaching*, 40(4), 309-319.
- Garcia, O., & Li, W. (2014). *Translanguaging: Language, bilingualism and educa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Hawkins, M. R., & Mori, J. (2018). Considering 'Trans-' perspectives in language theories and practices [Special issue]. *Applied Linguistics*, 39(1), 1–8.
- Heller, Monica. (2006). Linguistic minorities and modernity: A sociolinguistic ethnography. New York: Continuum.
- Heller, Monica. (2007). Bilingualism: A social approach.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Iedema, R. (2001). Resemiotization. Semiotica, 137, 23-39.
- Kress, G. R. (2010). *Multimodality: A social semiotic approach to contemporary communication*. New York: Routledge.
- Li, W. (2011). Moment Analysis and translanguaging space: Discursive construction of identities by multilingual Chinese youth in Britain. *Journal of Pragmatics*, 43(5), 1222–1235.
- Li, W. (2018). Translanguaging as a practical theory of language. Applied Linguistics, 39(1), 9–30.
- Makoni, S., & Pennycook, A. (Eds.). (2006). *Disinventing and reconstituting languages*. Clevedon, UK: Multilingual Matters.
- Pennycook, A., & Otsuji, E. (2015). Metrolingualism: Language in the city. New York: Routledge.
- Piccardo, E. (2020). "We are all (potential) plurilinguals": Plurilingualism as an overarching, holistic concept. *OLBI Working Papers*, 10, 183-204.
- Ramirez, R. K. (2007). *Native hubs: Culture, community, and belonging in Silicon Valley and beyond*.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The Douglas Fir Group. (2016). A Transdisciplinary Framework for SLA in a Multilingual World. *The Modern Language Journal*, 100(S1), 19–47.
- Vertovec, S. (2007). Super-diversity and its implications. Ethnic and Racial Studies, 30(6), 1024–1054.

BIODATA

장인철은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영어문화학전공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세계화와 이주, 언어 이데올로기, 문화기술지 연구에 관심이 많으며, 현재 대학 국제화와 다중언어사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Email: icjang@kku.ac.kr

Phone: (043) 840-3332

영상 영어(Screen English)

분과장: 정한기(육군3사관학교)

분과주제: Digital literacy & media

발표 제목	발표자
Postmortem review on gamification in education: Creating a cognitive and language development tool	Joo-Hyun Park (NeuroLanguageLab Inc., Hanyang University) Hongoak Yun (Jeju National University)
게이미피케이션을 접목한 블렌디드러닝 설계	최정혜(한국사이버대)
영어교육분야 VR 기술 활용방안 및 적용	박성만(단국대)
온라인수업에서 교수자 인식 및 수업전략: 교양대학을 중심으로	임희주(단국대)
Examining the Effects of Online Class for Middle School Students	Yurim Han (Godeok Middle School) Leah Anderson (Jinjeop Middle School)

Postmortem Review on Gamification in Education: Creating a Cognitive and Language Development Tool

Joo-Hyun Park (NeuroLanguageLab Inc., Hanyang University) Hongoak Yun (Jeju National University)

Introduction

This study aims to record and analyze the procedure of a gamification app development project in psychology and language education for the betterment in subsequent development. The project is a part of a study on cognitive and language development first initiated by a university researcher and conducted by an academic community group. Through opening a postmortem review of a development project to the researchers and educators in ELT, divergent perspectives in e-learning development could be acquired. Also, the information of mobile learning materials development is to encourage and motivate educators or researchers who want to develop and apply digital materials to their language courses or research projects.

Postmortem, defined as an analysis or a discussion of an event after it is over, is a term initially used in medical fields for a way to improve the quality of medication. Postmortem reviews are widely adapted to various fields, such as engineering and the game industry, to improve the collective learning within the group. In software development, most projects are conducted in a large group, and it is necessary for the team to share the experience of each part for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development process after the project is completed. Project reviews are helpful for the group members in understanding the whole process, and the shared perspectives are constructive for the production of better outcomes in the future. Most software postmortem reviews of a project are shared within the project group. Still, in the game field, it is often encouraged to present postmortem reviews in public, e.g., in annual game developers conferences. With the practice and belief of enhancing knowledge of the big community, the members in the software development field can understand, learn, and grow up on the foundation of other groups' experience.

Background

Educational technology, edtech in short, became a requirement of every teaching-learning since COVID-19 changed everyday life. Educators need to play a crucial role in improving online learning, but not many educators or language specialists are familiar with using learning tools and materials, not to mention developing learning software. This project is an attempt before COVID-19, but the record of the project to be familiarizing in a new way of digital world could help understand and broaden the interests of educators and researchers.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started from the interest of developing a new type of gamified e-learning for research related to the prior linguistic study. The plan included software development of psychological cognition training tools combined with language learning materials expecting to achieve both cognitive and language development goals for the participants. However, this is the first attempt to develop these kinds of brain-language training applications, so the research group needed to consider the purpose, use, and effects of the outcome from the very beginning. In doing so, the team attempted to utilize a new development methodology. The report can be valuable for those in academia who want to develop their own learning materials without any prior knowledge in software development.

In developing software for learning, most projects in the academic field do not have enough resources or prior knowledge for software development. If an educator or a researcher has to be in the project not as a subject matter expert (SME) or content writer but as learning designer, the lack of experience or knowledge in development may produce unsatisfactory outcome. A capable and well-equipped e-learning development team usually has one or more instructional designers trained in the educational technology domain. Still, gamification in education adds another challenge that educators need to consider – the game-like design. Applying effective gamification in developing a learning app is a new approach even to the experienced instructional designers or web designers. Even though gamification is defined as the application of game-design elements and game principles in non-game contexts and a gamified app is considered as an e-learning software, the development approach of gamified interactive media or games differs from developing e-learning materials.

Project Description

It was a group project initiated from Jeju National University, and community members who are experienced in

language learning software development joined in designing and developing the software for the research. The group went through basic research: linguistic analysis and effectiveness research and market and product research for narrowing down the scope of the software. After ideation for gamifying cognitive games, the first sample game development was investigated and attempted by the research members – not by a programmer – by learning a block-coding tool for educational purposes. The second trial of prototyping was planned and designed to focus on five different cognitive and language development mobile games for Korean students and adults who know basic English vocabulary.

The software for cognitive tests is web-based programs, generally accompanied by a researcher who gives instructions and records the participants' response while they operate the program. Through the prototyping process, we concluded that the gamified software should be a standalone mobile app for better usability. Recording data, playing logs and scores of the users, and viewing admin pages for research purpose were minimal development requirements. The app itself needs to make users feel like playing games spontaneously. Instant feedback, scores, and other game-like elements need to be added. The research prototype outcome was not a game-based learning website, but a gamified brain-language training mobile app.

The word gamification received business's attention of the around the year 2010, and the use of this cross-discipline term expanded beyond the business sector as a strategy to enhance engagement and participation of the users. Though research and application of gamification in education followed after the recognizing the role of gamification, the history of applying games and game rules in teaching-learning settings is much longer than the term itself. In language education field, the gamification approach is applied in two areas: teaching-learning methods mainly in class settings, and English Language Teaching (ELT) materials for both paper-based and online. The focus of this review is in regard to the latter, online ELT materials.

Postmortem Analysis

There are various approaches in conducting the postmortem analysis, such as evaluating the concluded projects or reviewing and analyzing the unsuccessful outcome. The collaborative knowledge is going to be helpful to take action for the next projects. This review addresses three features: underlying theoretical approach, app design methodology, and prototyping for research purpose.

First, we focused on a code-switching phenomenon in bilingual and the task's underlying cognitive and linguistic processes and adopted tests to assess the cognitive domain in app design. The brain training games are one of the popular genres in educational game apps. In many cases, however,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app design is unclear, and the psychological effects are hardly known. Meanwhile, vocabulary memory game is a preferred genre for developers due to open access to the vocabulary content. Both approaches of apps in the mobile application markets are covering the memory domain and vocabulary of other languages. Our research question is to find a combination based on language and learning theory known to be effective when realized into a self-learning app.

Second, our research was initiated from the linguistic and psychological interest. This game's prototype was not from a learning model but from revising the training tests already used in the field. This background can be a solid foundation for designing an app, differentiating the features and interaction between the users. This process can finally create a unique and theory-based app.

Third, even though this is a prototype and only realizing a core interaction of the plan, we can successfully minimize the features and completed in functions. The value of prototyping is that it reveals the flaws in ideas and reduce the time spent on completing ideas. Prototyping in the early stage is considered to be iterative, and in consequence incomplete. But in research design, flawlessness realization of the software is crucial. Even for a prototype, an app developed for research purposes needs to be in a complete form. Errors or malfunctioning of the app during the treatment will affect the result.

Conclusion

This postmortem analysis on the cognitive and language development game project provides insight into developing research-based gamification for education project under software development procedures. Further research and iteration process will be followed to improve the mobile application after conducting focus group tests (FGTs) and experiments. Software development is groupwork, and the process of development has a series of decision making. Educators or researchers are the ones who can change for better online learning, but understanding the production system is necessary to make better decisions in software development. This study will inspire new ideas to educators who want to prepare themselves for the next stage of education.

BIODATA

Joo-Hyun Park is an independent researcher and learning designer currently co-working with Jeju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groups. She taught at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and IGSE as an adjunct professor. As Founder & CEO of NeuroLanguageLab Inc., she pursues edtech on the foundation of SLA and literacy development. Her academic interests are integrating technology into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teaching-learning model development, and curriculum development. Her expertise lies in AI and gamification in language education.

Email: park.joohyun@gmail.com
Phone: +82-10-2205-9415

Hongoak Yun is an assistant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at Jeju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She is interested in examining the interface between language and cognition including second-language learning, cognition, and education. The ultimate goal of her research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whether language-based activities including functional games attributes to users' cognitive enhancement and brain plasticity.

Email: <u>oaktreepark@gmail.com</u> Phone: +82-64-754-2722

게이미피케이션을 접목한 블렌디드러닝 설계

최정혜(고려사이버대학교)

서론

사상 초유의 COVID-19 대유행 속에서 치열하게 보낸 2020년을 되돌아 본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했던 두 학기를 보낸 현 시점에서 상황의 호전을 기대하기 보다 효과적인 블렌디드러닝 설계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교수자 입장에서 보다 현실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학습자로 하여금 즐거운 배움 경험 (Learning eXperience: LX)을 갖게 하면서 학습에 고관여(engagement)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학습에 몰입하게 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설계를 현 시점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설계의 핵심은 개인 차가 존재하는 외국어 수업에서 다수의 학생에게 어떻게 하면 학습 경험의 개인화를 촉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한다. 무엇보다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외국어 학습자에게 배움 경험을 보다 입체적으로 제공하고 교수자의 역할을 재정비하는 작업은 앞으로 어떠한 교수-학습 상황이 변하여도 유동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블렌디드러닝

블렌디드러닝(blended learning)은 대면학습과 온라인 학습 경험을 결합한 학습 이다(Graham, 2006). 이러한 학습은 온라인 기술을 이용하여 학습 과정을 보완하면서 학습자를 변화시키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 일조한다는 측면에서 블렌디드러닝의 장점과 잠재력을 찾을 수 있다(Graham, Allen, & Ure, 2005). 성공적인 블렌디드러닝은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가진 학생들에게 기술을 활용하여 지식과 정보가 학생들에게 전달되면 학습은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의 온라인 교육은 대면학습의 보완이 아니라 'game changer'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동안 실제 교육 현장에서 블렌디드러닝은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으로 활용되어 왔다. 강의 내용을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하는 과제로 수행하고 교실에서는 교수자가 선수 학습을 점검하며 이를 기반으로 토론과 토의가 이루어지면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게 한다. 이 때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고려해 과제가 주어지고 이를 수행한 후 대면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교수자의 피드백으로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다. 바이러스 대유행 전에는 대면 수업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져 유기적인 학습 지속성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현상황은 간헐적으로 오프라인 수업이 가능하고 안전을 위해 온라인수업을 주로 진행하다 보니, 과연 어떤 것이뒤집어진(flipped) 학습인지 모호하며 교수자의 피드백 항상성 장치를 자칫 잃기 쉽다.

그동안의 대면 수업에서 충분히 시도하기 쉽지 않았던 비대면 수업의 장점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도 실시간, 비실시간 수업으로 분류되어 학습자의 성향과 가르치는 내용의 특성사이에 시너지 효과를 염두하며 블렌디드러닝을 보다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게임 체인저로서의 블렌디드러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게이미피케이션

학습자의 참여도를 높이면서 흥미와 몰입감을 제공할 수 있는 'gamification'을 우리는 현 시점에서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블렌디드러닝에서 학습자가 만나는 가상과 현실의 공간을 게임상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게이미피케이션의 개념부터 살펴 보자. 게이미피케이션이란 게임이 아닌 분야에 게임의 매카닉스와 다이나믹스를 적용해 게임처럼 느끼는 공간을 만들고 게임 플레이 경험을 구축하는 것이다(Kim et al., 2018). 그동안 영어 교실에서는 언어적 스킬 향상을 위해 다양한 게임 활동을 제공해 왔다. 따라서 게임으로 영어를 배우는 것이 익숙한 영어 학습자들에게는 단편적인 게임 활동과 게이미피케이션의 차이를 크게 체감하지 못할 수 있다. 이는 잘 구현된 게임화 수업에서 학습자가 마치 게임 캐릭터처럼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으며 게임 플레이와 같은 몰입감을 받는다. 이는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단편적인 게임 활동과는 확연하게 다르다. 이를 구분짓는 가장 확연한 키워드는 게임처럼 느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는지, 그리고 일회성이 아니라 일정 시간을 지속하여 플레이하는 상황을 만들고 그 속에서 배울 수 있게 하였는지, 그리하여 긍정적인 학습 효과뿐만 아니라 재미 요소도 충분히 느끼게 하는 수업이 되었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Choi, 2018).

게이미피케이션을 교수-학습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의 단계로 설계할 수 있다. '4F 8Steps in Educational Game'에 따르면(김상균, 2014; Choi & Kim, 2017), 'Figure out, Focus, Fun Design, Finalize'의 과정으로 설계할 수 있다. 세부적인 단계로 살펴보면, 'Figure out' 단계에서는 가르치는 내용과 가르치는 방법, 그리고 교수자와 학습자의 감정을 몰입이론 기반으로 분석한다. 이와 더불어 게임 플레이의 팀원 구성을 위하여 학습자의 게임 플레이어로서의 성향도 분석한다. 'Focus' 단계에서는 모든 영역에 게임화 기법을 적용할 수도, 적용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교수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교육 콘텐츠가 선언적, 절차적, 조건적 지식, 가치에 소구하는 지식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재미 요소 중에 어떠한 재미 요소에 집중할 것인지를 선택한다. 'Fun Design' 단계에서는 보다 실감나는 게임화 수업을 위하여 스토리 요소를 디자인하고, 게임 메카닉스와 규칙을 설계한다. 마지막으로 'Finalize' 단계에서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수업에 적용하면서 학습자의 피드백과 학습 효과 등을 확인하며 지속적인 수정을 거친다. 이 단계는 교육 게임을 제작하는 단계에서도 활용할수 있지만 수업에서 게임화를 적용할 때 사용한다면 작은 부분부터 게임화를 적용하면서 학습자들의 반응과교육 효과를 살피면서 점차 확대해 가는 'agile 방식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최정혜, 2020).

특히 'Fun Design' 단계에서는 게임화 수업의 '스토리'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수업 내용과 학습자에 따라서 적절히 적용하면 게임 플레이를 하는 것과 같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게이미피케이션의 매카닉스'는 크게 플레이어, 퀘스트, 보상과 회피, 그리고 지급 방식으로 나뉜다. '플레이어 메카닉스'는 아바타, 소셜 그래프, 리더보드, 직접/ 간접 경쟁을 포함하고, '퀘스트 메카닉스'는 비밀코드를 푸는 것과 같은 'unlocking', 운의 요소에 좌우되도록 하는 복권, 상호 발견, 어려운 퀘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도움닫기 역할을 하는 'scaffolding'이 있다. '보상과 회피 메카닉스'는 포인트, 레벨, 진행상황, 뱃지, 가상/실물의 물건들, 선물/무료점심, 가상의 동전, 권위, 소멸, 패널티, 새는 바가지를 포함한다. 포인트 등을 모으게 하거나 보상을 지급하는 시점을 고려해야 하는 '지급 방식 메카닉스'는 고정/비고정 기간과 비율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게이미피케이션 매카닉스와 함께 게임 규칙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게임 규칙은 경쟁, 누적, 수집, 선물, 경매, 복권, 퀘스트, 보물찾기, 양육, 거래, 영웅, 'unlocking'이 있다. 게이미피케이션 수업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환경과 학습 내용, 그리고학습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이 중 효과적이라 생각하는 것을 취사선택하여야 한다(박성진, 김상균, 2017).

마지막으로 'Finalize' 단계에서는 수업 전에 플레이테스트를 다른 그룹에 해보고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으면 미리 예상되는 분위기나 수정할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서 가장 이상적이지만 모든 수업에서 수업 전에 플레이테스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에 학습자들에게 가장 작은 부분을 게임화한 수업으로 적용하면서 수정, 보완의 단계를 지속적으로 거쳐 게임화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agile 방식'을 취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최정혜, 2020).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자의 피드백과 더불어 재미와 교육 효과의 균형이다.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인 흥미, 성취감, 자신감, 자기효능감, 학습 동기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교육 효과면에서도 긍정적이라면 가장 이상적인 게이미피케이션 수업이 될 것이다(이선영, 박주현, 최정혜, 2019).

게이미피케이션 접목 블렌디드러닝 설계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해야하는 블렌디드러닝에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한 설계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블렌디드러닝을 설계할 때, 가르쳐야 하는 학습 내용과 교수-학습 환경에 따라 게임화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와 매카닉스 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수업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에서 다루면 효과적인 것을 계획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 전(Pre-class), 중(During-class), 후(Post-class) 작업을 나눈다('PDP framework'; 최정혜, 2020). 이때, 학습자들이 수업 전, 중, 후 과정에서 수행 작업과 게임화 부분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수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학습자들에게 강력한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보다 자발적인 학습 참여가 가능하도록 구상해야 한다. 블렌디드러닝에 게임화를 접목한 수업 설계 중 몇 가지를 제안하자면 다음과 같다.

수업 전(Pre-class) 단계에서 학습자는 교수자가 제공하는 영상물이나 읽기 자료를 본 후 관련 내용을 요약하고 이에 대한 질문을 생성하여 가장 공감가는 질문에 투표를 하거나 이러한 영상물에 비밀코드를 숨겨 놓고 발견하여 실시간 면대면 수업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특별권을 부여받거나 혜택을 획득하게 한다. 학습자는 보물찾기처럼 느낄 수도 있고 비밀코드를 푸는 unlocking 기법을 체험하면서 본 수업에 대하여 학습자의 고관여(engagement)를 이끌어낼 수 있다.

수업 시간 중(During-class)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언어 활동에서도 퀘스트, 미션 등을 수행하게 한다. 도전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NPC(Non-player Character)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해당 퀘스트와 미션을 수행하고 포인트 누적하기, 가상/실제의 물건 수집하기, 특권 획득하기 등 게임화의 메카닉스와 규칙 중 학습 내용과 학습자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혹은 학습자들이 다양한 퀘스트를 통해 비밀코드를 풀고 그 공간에서 나가는 '방탈출 게임'처럼 수업을 구상할 수도 있다. 이 때의 공간은 현실 공간일 수도 있지만 가상의 공간을 탈출하는 방법으로도 구현할 수 있다.

수업 후(Post-class) 단계에서 수업 시간에서 제공된 퀘스트를 수행하고 획득한 포인트 등으로 다른 보상과 교환하게 하면서 전체적인 레벨이 올라가도록 한다. 이러한 진행방식이 한 눈에 들어오도록 학습자에게 'progress bar'나 'leaderboard'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특별히 좋아하는 작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학습자의 피드백을 받고 어느 부분을 수정, 보완할 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특히 게임화 수업을 운영하는 교수자의 관찰 일지나 'reflection note'는 다음 수업을 계획하는데 큰 자산이 된다. 특히 게임화 수업에서의 핵심은 피드백과 긴밀한 상호작용이다. 교수자-학습자, 학습자간, 학습자와 학습 콘텐츠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것이 게이미피케이션 수업의 핵심이다. 이 때 교수자는 'teaching'을 넘어 학습을 'coaching'하고 촉진하는 'facilitator'의 역할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결론

그동안 교육 분야에서는 '스마트러닝'이라는 근사한 학습 방법을 교육 실험 연구로 줄곧 접해왔다(최정혜, 2016).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바이러스 대유행 상황 속에서 이제 그동안 연구되어 왔던 '스마트러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절호의 기회를 만났다. 비록 교수자들에게 앞으로 어떠한 도전이 주어질지 섣불리 예상하기 힘들다. 하지만, 그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온 내공과 수많은 연구들, 교수-학습 경험들이 잘 'blending'되어 풍미 좋은 'blended learning'을 구현해보자. 여기에 게이미피케이션을 가미한 수업은 학습자들의 즐겁고 의미있는 배움 경험(Learning eXperience: LX)을 선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새로운 학기에는 'game changer'로서의 'blended learning'을 호기롭게 디자인해보자.

REFERENCES

- 김상균. (2014). 교육, 게임처럼 즐겨라. 서울: 홍릉과학출판사.
- 박성진, 김상균. (2017). 교육 게이미피케이션 환경에서 바틀의 플레이어 유형간 학업 성취도 차이 검증. 한국 게임학회 논문지, 17(4), 25-36.
- 이선영, 박주현, 최정혜. (2019). 기능성게임을 활용한 게이미피케이션 영어 발음 학습이 초등학생의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19(2), 111-122.
- 최정혜. (2016). 초등 학습자의 영어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게이미피케이션 접목 스마트러닝 설계. *한* 국게임학회 논문지, 16(3), 7-16.
- 최정혜. (2020). 게이미피케이션을 접목한 영어 어휘 학습이 초등학생의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클래스카 드 배틀 게임' 활용을 중심으로. *2020 춘계 한국게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 167-168).
- Choi, J., & Kim, S. (2017) Gamification in Teaching & Learning. Udemy. Retrieved from https://www.udemy.com/gamification-in-teaching-and-learning/learn/v4/overview
- Choi, J. (2018). Gamification Workshop for English Teachers. *Proceedings of 2018 TEEM International Conference*. pp. 87-89.
- Graham, C. R. (2006). Blended learning systems. *The handbook of blended learning: Global perspectives, local designs*, 3-21.
- Graham, C. R., Allen, S., & Ure, D. (2005). Benefits and challenges of blended learning environments. In *Encyclopedia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First Edition* (pp. 253-259). IGI Global.
- Kim, S., Song, K., Lockee, B., & Burton, J. (2018). Students' perception of gamification in learning and education. *Gamification in Learning and Education* (pp. 49-57). Springer, Cham.

BIODATA

최정혜 Junghye Fran CHOI [Gameful Language Learning eXperience (LLX) Designer]

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English, Cyber University of Korea

Ed. D. candidate, Reading & Literacy Leadership, Walden University

Founder & instructor, Choi's English School & Library

MOOC Instructor, Massive Open Online Course (MOOC) platform, Udemy

Instructor, Professional development of English education and game literacy

Chairperson, The Serious Games and Gamification Division of the Korea Game Society

Director of Seoul Chapter, The Society of Teaching English through Media

Director, Neuronetism (AI-based Language R&D Center)

Email: franchoi37@cuk.edu Phone: (010) 8998-8167

2021 KATE SIG Conference

영어교육분야 VR 기술 활용방안 및 적용

Applications of VR technology in the field of English education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박성만

5

- ·영어 발음 교육 목표(정현성, 2017)
- 이해가능성 (Intelligibility principle) or 원어민과 같은 발음 (Nativeness principle)
 - 원어민과 같은 발음을 하기 보다는 청자가 이해 가능한 발음을 발화하는 것
 - 이해 가능한 발음: English as a lingua franca & EFL환경에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영어 원어민의 발음과 같지는 않더라도 서로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발음

- •영어 발음 교육 목표
- 교수방법별 발음에 대한 입장(박은명, 2016)
 - 20세기 이전 Grammar Translation Method: X
 - 1960년대 Cognitive/Nativist Approach: X
 - 1970~80년대 Total Physical Response/Natural Approach: O
 - 1980년대 이후: Communicative Approach: O

- •한국의 영어 발음 교육_(정현성, 2017)
 - 수업 활동 중 발음 교육에 대해서는 부정적
 - •의미 중심의 의사소통 과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 주류
- •교실에서 사용되는 의사소통 활동
 - 의사소통 표현 학습능력과 자신감의 향상은 기대할 수 있음
 - •하지만, 영어 발음 능력의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움
 - 일상에서 영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 의사소통 활동을 통해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발음이 학습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발음이 과업 중심의 의사소통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될 수 있는가?
 - 우리나라의 교실 상황: 다언어 환경이 아니고 동일 언어 환경
 - 단순히 과업과 의미 중심의 의사소통 활동을 통해 이해가능한 발음의 수용과 수렴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발음 교육에 대한 시간과 활동의 다양성이 필요
-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시수의 제한과 학습의 효율성 측면에서 발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이에 영어 학습의 효율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발음 요소가 의사소통 활동에 정교하게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

5

- 효과적인 영어 발음 학습을 위해서 명확하고 분석적인 교육이 필요
- 일정기간을 필요로 하는 교정적인 피드백이 필요
- •시간과 공간 그리고 원어민 교사의 지도 없이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발음을 확인하고 연습하며 그에 대한 직접적인 교정까지 가능한 방법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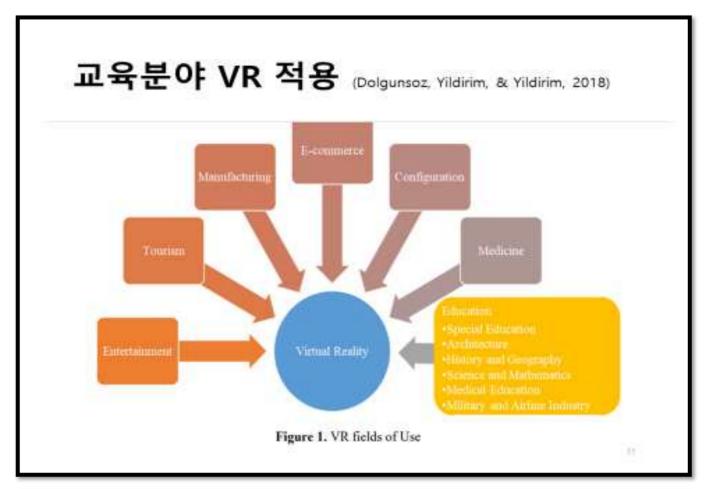
- •현 영어 발음 교육 프로그램
- 2D기법을 이용한 것이 대부분 (한경임 외, 2015)
 - 정확한 발음을 위한 조음기관의 실제적인 움직임 확인 불가능
 - 주로 들리는 발음을 따라서 발음하는 것에 그침
 - 영어 학습 초보자와 청력 손실이 있는 학습자에게는 적절하지 못함
 - 동시적, 능동적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
 - •실시간 및 다양한 피드백 제공 등의 상호작용이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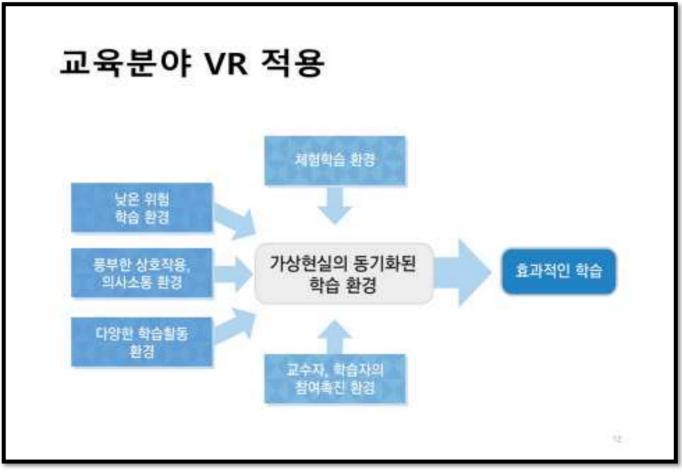
-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많은 외국어 교육용 VR 프로그램은 새로운 방식의 시스템으로 변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최승연, 박재완, 2017)
- •이에 3D 모델링 및 VR 기술을 활용하여 조음기관의 실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음성 파형 비교를 통한 즉각적인 실시간 피드백 제공을 받을 수 있는 학습자 자기주도적, 능동적 영어 발음 학습용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9

우리나라 교육산업 환경 변화







교육분야 VR 적용

- VR/AR 산업의 기술력은 증가
- •하지만, 아직까지 교육 콘텐츠 부분의 개발은 미흡
-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콘텐츠 개발 필요
- •VR/AR 학습이 적용될 수 있는 교육 분야
 - 체험학습
 - 상황학습
 - 탐구학습 등 다양
- 단순한 흥미유발에 그치지 않고 학습자들의 비판적, 자발적, 융합적, 종합적 사고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이 필요

13

영어교육분야 VR 적용

- VR기반 영어 발음 교육: E-edu System
 - 구강: 입술, 턱, 치아, 구개(입천장), 혀 등의 구조물로 구성
 - 구강의 형태는 발음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짐
 - 3D VR 기반 구강 내 생체공학을 적용하여 E-edu 시스템 구축
- · VR을 활용한 영어 발음 교육의 필요성
 - 발음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나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인 학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
 - 발음 교육에는 체계적이고 명시적인 학습이 필요
 - 실제 조음 모습을 확인하고 본인의 발음을 스스로 교정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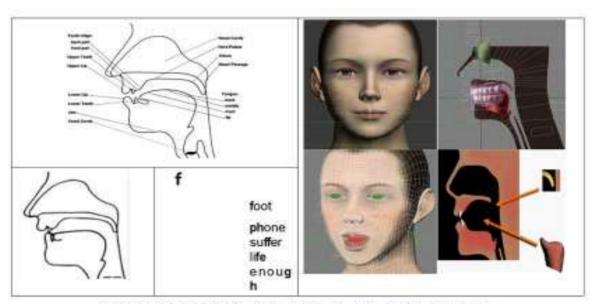
이 연구는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고 있는 연구임 (NRF-2019S1A5A2A03044056)

E-edu system

- •VR을 통한 조음 시 내부 구강구조 구현
- •원어민 발음과 본인의 발음 비교
- •학습한 발음을 포함한 실생활 대화 상황 구현
- •다양한 상황(도서관, 카페, 관광지, 공연장 등)을 VR로 구현
-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를 이한 발음 및 대화 상황 수준별 구별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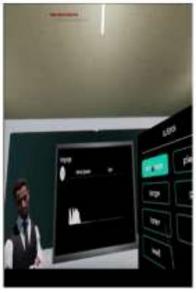
E-edu system: Sample (in progress)



< 영어발음에 따른 2차원 자료 및 입술, 히, 치아 등 3D 구현 에시 >

E-edu system: Sample (in progress)







...

E-edu system: Sample (in progress)



1.8

VR기반 E-edu system 교육적 활용

- •영어교육학, 언어학, 생체공학, 전자공학, 치-의학 등 다학제간 연구를 통한 학문 영역 확장
- •실제이고 직접적인 정보 시각화 가능
- •흥미유발 및 학습효과의 고도화 가능
- •가상현실 공간에서 학습자가 시간, 공간적 제약없이 수준에 맞춰 능동적 학습 가능
- •영어 발음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

19

참고문헌

박은영, (2016). 교육학: 대학생 학습자의 세계영어발음 교수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 조사. 인문학연구, 51, 619-642.

정현성. (2017).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과 현 교과서를 통해 본 영어 발음 교육에 대한 진단, 현대문법연구, 96, 191-212.

최승연, & 박재완. (2017). 몰입형 VR 기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언어학습용 콘텐츠 시스템 개발을 위한 프토로타이핑.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9), 589-598.

한경임, 박혜정, 이근민, 최봉근, & 나대영 (2015). UNITY 3D 기법을 활용한 영어학습 보조도구 개발.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3(2), 230-231.

BIODATA

Seong Man Park is an assistant professor of Dankook University. He received his PhD in Second Language Education from McGill University in Canada. He is interested in Korean students' effective English learning as a major foreign language in Korea. He is also interested in applications of VR technology in the field of English education. In addition, his research has also focused on the preservation of heritage language and culture. He is interested in the facilitation of multilingualism in the next generation of the Korean immigrant youth in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societies.

Email: seongmanpark@dankook.ac.kr

Phone: (041) 550- 13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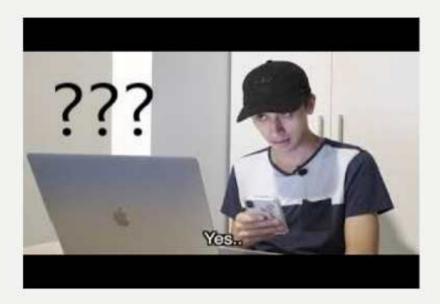
INSTRUCTORS' PERSPECTIVE AND TEACHING STRATEGIES OF ONLINE CLASSES : FOCUSED ON COLLEGE OF LIBERAL ARTS

IM, HEEJOO

HOW TO MANAGE YOUR SCHOOL DURING COVID-19?

- How will the pandemic affect teachers and teaching?
- How to overcome challenges of online classes due to COVID-19?
 - : Technical issues? Distraction and time management? Staying motivated? Understanding course expectations? Lack of in-person interaction? Adapting to unfamiliar technology? Uncertainty about the future? (U.S. NEWS, 2020)

THE PROBLEM WITH ONLINE CLASSES



\$**: https://youtu.be/LdgSxdOu4Qg

> ONLINE TEACHING IS NO MORE AN OPTION, IT IS A NECESSITY!!

About their experience with learning online teachers say: "Most of
the students are attending the classes and fulfil their homework
but now we can't tell whether they completed the tasks
independently or if it was a group effort. As teachers, we found
ourselves unprepared. It is really challenging since we never had
any training on distance learning."

養料: https://www.unicef.org/northmacedonia/stories/learning-online-problems-and-solutions

LITERATURE REVIEW

	저자 (년도)	연구 참여자	연구결과
	배철웅 (2020)	중학생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온라인 수업은 오프라민 수업과 비교하여 효과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학습자	박혜경 (2020)	통번역 대학원생	학생들은 대면수업을 선호하고 학업성취도가 항상 되었고 교수자와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대면 소통이 의욕을 항상시켰다고 언급함.
만족도 및 선호도	장미경 (2018)	인문계 고등학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시스템, 교과교사와의 상호작용 각 요인 간의 영향력 및 이용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과 콘텐츠의 개발, 시스템 개선, 학생과 교과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이 나타남.
	이보경 (2020)	대학생	영상의 소 리 크기와 불 균형 과제제 , 출과 관련한 부 담 감 및 불안함, 빠른 강의 진행 속도 자기 주도학습의 어려움 소통의 부재 등이었으며 긍정적 평가 부분은 반복재생학습을 통한 학습 효과의 중 대, , 효율적 강의 구성의 장점 활용 다양한 교재 및 자료 의 효율 적 제시를 통한 학습 효 과 중대 등이 있 다
교사 인식	오지수 심창용 (2020)	초등교사	초등교사들은 영어과 원격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초상권, 저자권과 관련한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하고 학습관리시스템의 기능 개선 상호작용 기능 강화를 언급함

PARTICIPANTS

	성별	담당 교과목	교육경력(년)	강의 형태	온라인 수업 형태	활용 프로그램
A.	여	교양영어	15	강의기반	동영상	Ppt, zoom
В	여	교양영어	8	강의기반	동영상	Ppt
C	남	교양영어	8	강의기반	동영상	Everlec
D	남	교양영어	7	강의/팀토론/ 발표기반	동영상/ 실시간 병행	Ppt
E	남	교양역사	10	강의기반	동영상	Ppt, obs studio
F	남	교양스포츠	20	강의기반	동영상	Ppt
G	남	일반수학	10	강의기반	동영상	핸드폰
Н	남	대학글쓰기	22	강의기반	동영상	Google meet, youtube
1	q	진로설계와 자기계발	7	강의/팀토론/ 발표기반	동영상/ 실시간 병행	Everlec, google meet

SURVEY QUESTIONS

항 목	문 항 수
기본정보	4
비대면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2
온라인 수업 기술 측면	2
온라인 수업 운영 측면	3
온라인 수업 교수 측면	2
온라인 수업 개선점 및 제언	3

7

Result

A) - 촬영 전: 수업 진도 확인, 수업내용 점검, 녹음 환경 확인

B) 교재의 내용을 먼저 살피고, ppt에 싣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 스스로 학습해야 하는 부분과 과제로 수행할 부분을 알려줄 수 있도록 준비

사전 준비

- C) 교재 정독 및 정리, 분량에 따른 강의 준비(온라인 분량에 맞춰), 교재 및 참고자료 준비 및 정리 (업로드 용)
- D) 파워포인트 준비하기, 실시간 수업을 위한 팀 활동 미리 계획하기
- F) 온라인 강의인 경우 주차에 맞는 강의 동영상 촬영. 실시간 강의에서는 100이 넘어서 유튜브를 사용함.
- I) 온라인 수업 촬영을 위해 에버렉 프로그램, 아이캔 노트, 파워포인트 녹화, 마이크 및 전자칠판 등의 기기를 구입하고 유투브를 통해 학습하였음 실시간 수업을 위해 구글미트 시스템 활용 방법을 CTL 자료로 익히고 팀활동을 위한 수업설계를 하였음

B

Result

A) 3인 조를 이뤄서 동료평가를 하고 싶지만 어렵습니다. 과제 제출한 영작에 대한 동료평가를 받고 영작을 수정하는 작업을 해봤으나 대면 수업 시간에 비해 긴 시간이 필요해 자주 하기 어렵습니다. 수업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표정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B) 아무래도 학생들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볼 수가 없어서, 강의가 얼마나 잘 전달되며, 얼마나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

C) 학생들과의 소통 부재, 온라인 업로드 수업이라 학생들의 반응 수업참여 상태(열정, 진지함 등)를 확인하기 어려움 – 이로 인한 즉각적인 피드백 제공 등이 어려움, 평가의 공정성 확보가 어려움, 과제의 경우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타인의 도움을 받은 것인지 확인이 어려움

D) 기존 대면 강의에서 이루어지는 팀별 영어 활동이 온라인에서는 진행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기존 교과서는 대면 강의 위주로 활동이 구성되어 있어 온라인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동영상을 제작하고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진행하면서 대면수업보다 준비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 E)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
- F) 실시간 강의에 학생들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음, 온라인으로 시험 보기가 어려움,
-) 학생 과제에 대한 피드백/학생들의 질문과 문의 등이 수업시간 외에 계속 이어져 응답 해줘야 하는 문제가 때때로 피곤하게 느껴짐

y.

Result

- A) 올려둔 동영상을 학생들이 편한 시간에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입니다. 동영상 시청 기록이 있어서 몇 시에 들어와서 공부했고 분량을 어느 정도 마쳤는지 확인이 가능한 점이 편합니다. 학생 개개인의 출석과 과제 제출이 부족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독려할 수 있습니다.
- B) 학습내용을 전달함에 있어서 시간에 덜 쫓기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동영상 수업의 경우 학습내용을 집약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

- C) 교수자 개인 일정의 조정이 용이함, 연구 및 다른 업무에 집중함 시간적 여유가 생김, 코로나 시대에 혹시 모를 전파 등을 막을 수 있음
- D) 동영상 강의일 경우 각 분반 별 차이 없이 동일한 수업 내용을 전달함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E) 다양한 매제를 활용하여 강의를 진행하여 원활한 이해를 도모한 점
- F) 학생들과 이메일로 과제 피드백을 해주며 개인적 질의 응답이 더 자유로웠음.
- I) 온라인 문제해결학습을 진행한 결과 일방향 수업이 아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자로 성장한 것 같음
- 팀활동을 하는데 있어 실시간 화상회의 시스템은 학생들의 조별활동에 시간, 공간, 횟수 등의 제한없이 할 수 있었으며 웹상에서 즉각적인 자료탐색 및 공유가 용이하였음

INTERACTION

A) 개강 첫주에 이러닝 공지로 이메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러닝 메시지함 이용을 하라고 공지했습니다. 매 주차 수업시간에 맞춰 공지 알람을 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공지글을 올립니다. 이메일 어플, 이러닝 어플로 실시간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합니다. 보통 밤 10시 이후는 익일 답장을 하고 있지만 그 외 시간은 질문 확인 후 바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과 관련된 문의일 경우는 이러닝 공지에 문의 글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서 O&A 형식으로 올려둡니다.

B) 저는 매주 제출하는 과제를 통해서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소통방식은 주로 이메일이고, 그 외에 공지사항의 댓글이나 메시지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 1. 주로 학교 이러닝 캠퍼스 메시지 란을 활용 2. 급한 공지의 경우 개별 문자 메시지 및 이메일 전송을 통한 소통 3. 학교 이메일을 통해 들어오는 문의사항 접수 4. 이러닝 캠퍼스 토론 항목을 활용하여 소통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실시간 소통이 아닌 의견을 접수한 후 개별적으로 답변을 제공) 5. 하지만 실시간 소통이 아니기 때문에 과제 일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에 그침 6. 대학영어2 수업의 경우 영어골쓰기가 주로인데 제출한 과제에 대한 첨삭 정도에 그침

D) 이메일: 기존 방식이라 간편하였습니다. 다만 학생만을 위한 전용 이메일 계좌가 아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이메일 내용과 섞여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학교 이캠퍼스 메시지: 담당 학생만이 사용할 수 있어 다른 용무의 메시지와 섞이지 않아 좋았습니다. 다만 학교 시스템을 통해서만 확인해 볼 수 있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실시간 상담: 비디오 콜을 통해 직접적으로 궁금증을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반 학생 수로 인해 모든 학생들이 실시간 상담을 받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1

INTERACTION

E) 이메일과 이러닝 메시지함을 활용하여 학생과의 소통을 진전시킴

F) 저는 이메일로 학생들과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해줌, 이 때 피드백은 5번 이상을 해야 함. 어떤 학생은 교수 피드백에 대한 재질문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음, 재 질문일 경우 질문의 목이 넓고 좋은 질문을 함.

 이러닝 캠퍼스: 학습관리시스템은 대체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다고 생각함, 하지만 퀴즈나 설문을 올리는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고 매뉴얼을 보고도 익히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해서 퀴즈나 설문은 다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구글미트: 구글미트는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가 많은 경우 모든 학생의 얼굴을 한꺼번에 확인할수 없어 학습자가 수업에 어느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하지만 소집단의 활동을 하는데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편이며 집단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녹음기능으로 공유가 가능한 장점 등이 있음. 수업시간에 판서나 ppt가 뒷자석에 앉아 있는 학생들이 잘 안보일 수 있는데 컴퓨터 앞에서 바로 자료를 보고 실시간 채팅방에 잘문을 할 수 있어 상호작용에 있어 큰 문제는 없었음. 그러나 인터넷 연결 등의 이유로 학습자가 회의방을 나갔다가 들어갔다를 반복하는 경우 교수자가 수업 중간에 계속해서 허락을 해줘야 하는 문제로 수업의 흐름이 끊길 수 있음

CONCLUSION

- Advantages: 1) Time & place flexibility 2) Studentdirected learning 3) reinforcement leaning
- Limitations: 1) Inefficiency 2) technical difficulties 3) lack of personal/physical attention
- Recommendation: 1) Teaching and assessment 2) Quality of education 3) lack of interaction

13

REFERENCE

- 방인자(2020). 대학 교수자의 온라인 수업 운영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8(2), 204-232.
- 배철용(2020), 원어만 영어교사의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에 대한 한국 중학생들의 인식조사, 한국교육, 47(3), 91-118.
- 박해경(2020), 온라인 수업에 대한 통번역대학원생들의 인식 및 선호도 사례연구, 통번역학연구, 24(3), 43-66.
- 이보경(2020),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교양영어 수업의 학습자 반응에 관한 연구, 교양교육연구, 14(4), 97-112.
- 오지수, 심창용(2020). 초등명어 온라인 수업: 도전과 극복, 남은 과제. Primary English Education, 26(3), 203-228.
- 장미경(2018), 인문계 고등학생의 온라인 수업 이용에 관한 만족도 조사,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 Dhawan, S. (2020). Online learning: A panacea in the time of Covid-19 crisis,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49(1), 5-22.
- https://youtu.be/LdgSxdOu4Qg
- · https://www.unicef.org/northmacedonia/stories/learning-online-problems-and-solutions

1414BIODATA

Heejoo Im is an assistant professor of Dankook University. My academic interests are task-based curriculum development and multimedia English education.

Email: heejooim@dankook.ac.kr

Phone: (041) -550-1389

Examining the Effects of Online Class for Middle School Students

Yurim Han (Godeok Middle School) Leah Anderson (Jinjeop Middle School)

Purposes of the Research

The COVID-19 pandemic has forcefully introduced online and remote learning to all levels of classrooms. Unlike tertiary institutions, most of the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had to learn how to run online classes from scratch. Both teachers and students have made trial-errors, getting used to online teaching and learning. Now that 'transmodal' learning (where online and classroom learners can coexist within one learning environment) is expected to continue, it is considered meaningful to explore the blended class experiences of the teachers and students for better preparing for the next year. For this exploration, the teachers and students of two middle schools were asked to participate in surveys; this paper explains the results of the surveys, which will provide information to better prepare educators for E-learning and teaching in the future.

Details of Case Study Participants

Teachers

Ms. Han, who is a Korean English teacher, works at Godeok Middle School in Seoul, and uses EBS Online Class for an online learning platform. She enjoys learning new teaching methodologies and being challenged by the methodologies.

Ms. Anderson, who is a native English teacher, works at Jinjeop Middle School in Namyangju, and uses Google Classroom for an online learning platform. She is active and enjoys new experiences, and she provides her students with immersive cultural lessons and special holiday events.

Students

Godeok Middle School students' online class attendance is high, and they prefer game-based lessons rather than lectures. They have been provided with Classcard, Kahoot, and PPT Games to review both online and offline classes. Their English academic achievement is also high, as their average score reached 80 out of 100. Fifty-seven students took part in the surveys among whom 22 are in the upper level of English, 23 are in the intermediate level, and 12 are in the low level.

Jinjeop Middle School students are more enthusiastic in the classroom than online, and some of them struggle with comprehending online worksheets and tasks. They do listening dictation and speaking activities in the classroom, joining PPT games to review both online and offline classes. Seventy-seven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urveys; 11 of them are in the upper level of English, forty-six students are in the intermediate level, and 20 students are in the low level.

Types of Online Class Content & Feedback on Online Class

Godeok Middle School students have studied by watching videos produced by teachers or EBS online, and by joining live stream classes. They interact with teachers through text messages, telephones, or cyber posts like Kakao Chatting Room. They get feedback on their online learning and attendance.

Jinjeop Middle School students have also studied watching videos or listening to audio recordings produced by teachers with google documents online. They have gotten feedbacks through the google classroom comment section, announcement board, and meeting room.

The main type of online class content for both the schools is videos produced by teachers, which assumes that the students have had difficulty enhancing online learning based on Edgar Dale's Cone of Experience. His model states that "people generally remember 30% of what they see" (Janoska, 2017).

The students have been provided feedback from their teachers, but have not joined interaction between student and teacher, and student and student.

Research Questions

Since April of this year, both teachers and students have gotten used to not only offline but also online classes. Unlike the first semester, the second semester started with a plan, which enabled teachers to provide students with more organized online classes. More and more teachers have joined together, sharing better ways of helping students learn from online classes with their new innovative teaching methodologies, which had not been imagined one year before.

The adaptation to online teaching has also brought the question, "What has students' online learning experience been?"

Everyone agrees that when it comes to learning, we have to be an <u>active participant</u> in the <u>process</u> of learning, and if we are not engaged with learning, we cannot say we are learning. This makes us assume that it is hard for secondary school students to be active participants in the process of online learning at home where they usually rest. Thus, this paper is focusing on the following four research questions:

- Have students learned from online classes?
- How satisfied are students with their online learning?
- What is needed to help students better learn from online class?
- Why have students had troubles with online learning?

Methods

This paper conducted two quantitative surveys with eleven multiple choice questions; one survey was for the third graders of two middle schools, and the other survey was for the English teachers who are teaching them. Two qualitative surveys were also conducted to the same groups, asking them five essay questions, respective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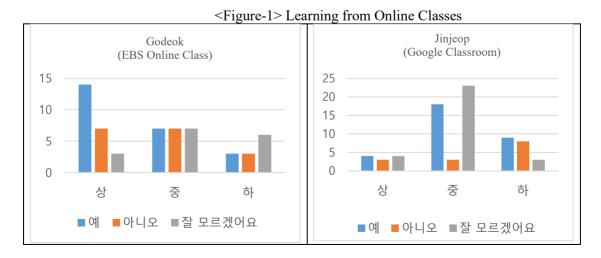
Results

For the first research question, the two questions were given to both middle schools' students. One of them was "Do you think you are learning from online classes?".

<Figure-1> shows that the answers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ir English levels. From Godeok Middle School, more than half the students with an upper range English level answered "Yes", while less than a third of the lower range students said "Yes."

Jinjeop students in the upper range answered "Yes" and "No idea" in equal proportion, while those in the intermediate range mostly answered "No idea". The low level students answered "Yes" slightly more than "No."

<Figure-1> indicates that the groups from both schools (with the exception of the upper level Godeok students) collectively answered "No," and "No idea" more than "Yes," which means that most of them have had problems with online learning.



The other question was "How much can you understand online classes?"

<Figure-2> indicates that the higher their English level is, the more they can understand their online classes. More than the half of Godeok students whose English level is in the low range answered that they understood online classes

less than 50 % of the time, while more than two thirds of the students in the upper level answered they understood more than 80% of the time.

A considerable number from both intermediate and upper level Jinjeop students answered that they can comprehend online classes more than 80% of the time, but no one from the low level students could do so. Some of the intermediate and low level students from both schools answered that they can understand online classes less than 5% of the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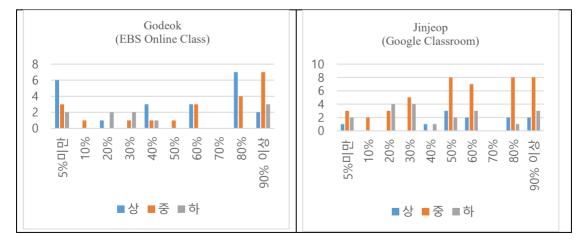
This implies that most of the low level students and some of the intermediate level students have had difficulties understanding online classes.



<Figure-2> Online Classes Comprehension

For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the students were asked to answer the question "How satisfied are students with their online learning?"

<Figure-3> shows that the intermediate level students from both of the schools account for the largest number of respondents who answered more than 80%, which supports the teachers' answers that their online classes are targeted toward the intermediate level students. While most of the Jinjeop students are satisfied with online classes, a considerable number of Godeok students answered their satisfaction level is less than 5%, and their answers to ¹⁶the second essay question help us assume that their lack of satisfaction comes from their difficulty with focusing on their online classes.



<Figure-3> Student Satisfaction

For the third research question, the students were asked about what they needed to better learn from online class, and the question had five choices: Providing complementary classes offline, Providing complementary classes offline in a live stream, Differentiating classes depending on their levels, Providing direct answers to their questions, and Other.

¹⁶ Write about how much you are satisfied with online classes and the reas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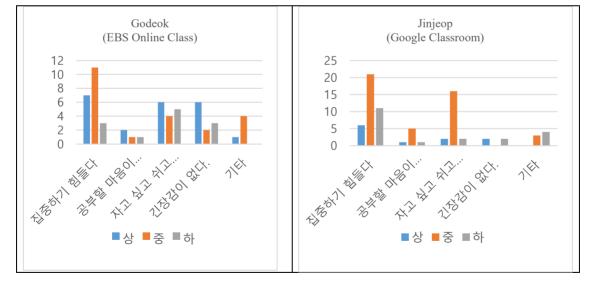
<Figure-4> shows that most of the students from both the schools selected "providing complementary classes offline". The answers of the students to the fifth essay question¹⁷ also demonstrate that they want to review their online learning in the classroom with their teachers.



<Figure-4> How to Help Students Better Understand

The last research question is about why students have troubles with online learning, and it has five choices: Hard to concentrate, Don't feel like studying, Feel like sleeping and resting, No positive tension, and Other.

<Figure-5> illustrates that the majority of the two schools' students said that they have had difficulty concentrating on online classes. Their answers to the second essay question also support that they have had troubles concentrating. The choice "I don't feel like studying" was selected by the smallest number of Godeok students, which is opposite to the teacher's answer that the lack of motivation is the biggest reason for them having problems with online classes.



<Figure-5> Why it's Hard to Focus on Online Learning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first and second research questions indicate that many intermediate and low level students from both schools do not think they are learning from online classes, which means they struggle with online learning. Even though most of the upper level students think they are learning from online classes, and they have fewer problems comprehending the classes, about 40% of them do not feel satisfied with the online classes because of their concentration problem.

Most of the three different levels of students from both the schools prefer to review in the classroom for better

¹⁷ In case you have difficulty with online class, how can teachers help you out?

understanding of online class content.

For most of the students, regardless of their English level, the biggest problem they have with online learning is that they cannot concentrate on studying.

Recommendation

Based on the conclusion, three recommendations can be made as follows:

First, online lessons should be tailored to help all the different levels of students comprehend. For this, the segmenting principle can be applied, meaning that "deeper learning occurs when content is broken into small chunks" (McKinney, 2018). Exam schedules sometimes push school teachers to make a tight lesson plan, providing students with too much workload at a time. A proper amount of workload can contribute to promoting students' understanding.

Second, an online platform has limited interaction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It is the interaction between student and teacher, and student and student, in the online environment that enhances learning" (Mayes and de Freitas, 2004). This idea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make interaction between student and teacher and student and student increase, an online platform should be upgraded; a 'teacher-level sub-platform' can be one of the solutions. With enough interaction, students do not need to review online class in the classroom because enough online interaction will be able to enhance their online learning.

Finally, students should be trained to become not only self-regulated learners but also become expert learners, preparing themselves for ongoing online learning. It is said that self-regulated learners turn out to be successful because they can control their learning environment, and expert learners can develop such a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y as they can develop and ask questions, expanding on what they learned, and allowing them to test whether they can understand what they are learning (Anonymous, 2020)

References

Basic Knowledge 101 [Website] (2020). Retrieved from https://www.basicknowledge101_.com/subjects/learningstyles.html Janoska, Lubos (2017). Elearning industry. Retrieved from https://elearningindustry.com/cone-of-experience-what-really-is

Mayes, T. and de Freitas, S. (2004) *E-learning theories, frameworks and models*. <u>London: 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u> McKinney, Sage (2018). *Educational technologies and methodology*. Ed-Tech Press

BIODATA

Yurim Han has been working as a public school teacher in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since 2009.

Email: gaeahan@sen.go.kr Phone: (02) 2045-6000

Leah Anderson has been working as a public school teacher in Gyeonggi Office of Education since 2017.

Email: l.anderson.pwc@gmail.com

Phone: (031) 529-6107

북한 영어교육(English Education in North Korea)

분과장: 김정렬(한국교원대)

분과주제: 북한의 영어교육 현황 및 분석

발표 제목	발표자
A diachronic look at North Korean English education	Jeong-ryeol, Kim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북한 영어 교과서 어휘의 통시적 분석	Education) 김지영(인천 도담초) 이제영(전주대) 김정렬(한국교원대)
북한 2013 개정 전 [·] 후 고급중학교 영어교과서의 어휘 비교	황서연(서울 미동초)
북한 중학교 6학년 영어교과서에 나타난 교과 통합 어휘 분석	박선인(전주 신성초)

A Diachronic Look at North Korean English Education

Kim, Jeong-ryeol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choice of foreign language in a country is for the most part influenced by the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in the country. Since the division of South and North Korea back in 1945, the south has emphasized English education while the north has put Russian in the primary foreign language for students to learn. This division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minds of Kehoe's statement that what the role of English may be in Asia will depend on the outcome of the war in the region (1968). In post Korean War era, American occupation in the south led English as the primary foreign language while Russian occupation in the north made Russian the foreign language.

The Russian as a primary foreign language has persisted until the early 1960s when the gradual rift distanced between China and the USSR. It caused North Korea to pursue a delicate balancing act between the two communist giants. By 1963, this balance clearly tipped towards Beijing. North Korea joined the Chinese in criticizing Khrushchev for "revisionism" and for being too soft on the United States. Official proclamations stated that North Korea and China were in "complete agreement" on all major issues. Russian was gradually displaced by Chinese and English as first foreign language. The supreme leader of North Korea, Jong-il Kim, stated that English is an essential language to learn and use to earn foreign notes (Man-gil Han, 2001). By 1995, English has completely replaced other foreign languages to be the most important foreign language. Most recent policy action on English education is that starting English education is lowered to grade 4 in elementary schools in 2008 (Institute of Unification Education, 2013).

Foreign language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six year Foreign Language School in Pyeongyang and every province in North Korea. Major universities have a foreign language college and/or international relations college such as Kim Ilseong University. In addition, Kim Hyeongjik Teachers College in Pyengyang and teachers colleges in the provinces also have foreign language teacher education departments to train secondary school foreign language teachers.

For example, Pyeongyang Foreign Language Institute, the epitome of such institution, covers the training of eight foreign languages such as English, Russian, German, French, Japanese, Spanish, Arabic and Chinese. The entrance exam to this institution is highly competitive comparable to the best universities such as Kim Il-sung University and Pyeongya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North Korea. Only selected few sons and daughters of dedicated revolutionaries, honored military seniors and hero medal awardees are allowed to enter if they are graduated from elementary school and gifted with the foreign language ability. These foreign language institutes in each province recommend students to further their language education in advanced schools such as foreign language studies of Kim Il-sung University,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ollege of International Studies, Amnokgang University and foreign language education departments of Teachers' College. The recommendations are only for students to take the highly competitive entrance exam and without such recommendations students from general high schools are kept from taking the entrance exam itself.

Since 1990s the primary foreign language people want to learn is English followed by Chinese and Russian. With the collapse of communist bloc in Eastern Europe and dismembered Soviet Union, English is designated as the primary foreign language to teach in North Korea. The country needs to improve the international relationship with western countries, and English is the language for information and computer technology which is emphasized in the North Korean curriculum.

Special revolutionary schools such as Mangyeongdae, Kang Ban-seok, Haeju Revolutionary Institutes are for anti Japanese and Korean war heros' remaining decendants. These schools are to train these decendants to succeed and continue their ancestors' revolutionary achievements. Mangyeongdae Revolutionary Institute, in particular, is the most important political and military school which is regarded as the elite school and reserved only for the sons and daughters of the high officials of the party, government and military. The graduates take a fast track for the success in life with the privilege by continuing their education in Kim Il-sung University or entry level officers of the party, government or military.

BIODATA

Jeong-ryeol Kim has a Ph.D. in applied linguistics from University of Hawaii and has been a professor of English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NUE) teaching methodology, integrated content and language teaching, English linguistics. He is currently serving as the president of Korea Association of Corpus Linguistics and Korea Extensive Reading Association and a member of MOE English curriculum board. He served as the president of Korea Association of Foreign Languages Education for 2013-2014 and was the president of Korea Association of Primary English Education for 2010-2011 and the

president of KOTESOL back in 1996-1997. He was involved in different government projects in curriculum, textbooks and English education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He has published books on classroom English, teaching methodology, English curriculum, English classroom observation and analysis to name a few. He has published numerous articles in the area of elementary English education and technology enhanced English teaching. <a href="mailto:Ema

북한 영어 교과서 어휘의 통시적 분석*

김지영(인천도담초등학교) 이제영(전주대학교) 김정렬(한국교원대학교)

서론

교과서는 국가의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목표와 취지가 구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윤현진, 주형미, 문영주, 추병완, 석두영, 2010). 특히 북한처럼 특정한 이데올로기가 국가 전반을 지배하고 있을 경우, 관련 이념이 지향하는 목표가 곧 학교교육의 내용이 되고, 교과서는 그 가치와 정책을 반영하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권이종, 최운실, 권두승, 이상오, 2004). 따라서 북한 교과서는 북한의 학습자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지식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북한의 교육 정책과 그 이면의 사회적 문화 수준을 고찰하기 위한 주요 연구 자료가 될 수 있다.

김정은 시대의 교육체제, 교육과정, 교과서를 연구한 통일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조정아, 이교덕, 강호제, 정채관, 2015), 영어 과목은 북한에서 그 동안 가장 많이 강조하여 다뤄졌던 사상교육 교과목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그 위상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 사회에서 폐쇄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북한이 학교 교육을 통해 영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면, 영어 교과서의 어휘 분석을 통해 북한 사회의 변화 양상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1996년 교육과정 개편을 기준으로 김일성 집권기와 김정일 집권기에 사용된 각각의 북한 영어 교과서 어휘를 비교 분석하여 북한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가 어떤 어휘를 학습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시대적 변화에 따른 북한의 영어 교과서의 어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 및 절차

북한은 김정일 시대인 1996년에 교육과정을 개편하였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개편된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새로운 교과서를 편찬하였다. 이는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체제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서 교육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코퍼스 구축에 활용한 교육과정 개편 전과 후의 동일학년 북한 영어 교과서 목록은 다음 <표 1>과 같다.

1 1 E 1 1 0 E 1 1						
구분	학교급	학년	출판 연도			
1996년 교육과정 개편 이전 고등 중학교		2	1996			
		3	1994			
		6	1995			
1996년 교육과정 개편 이후	고등 중학교	2	2001			
		3	2002			
	중학교	6	2008			

<표 1> 분석 대상 교과서

^{*} 본 연구는 김지영, 이제영, 김정렬(2017)의 연구 결과를 재구성하였음.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교과서의 모든 텍스트를 코퍼스로 구축한 후에, 코퍼스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어휘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코퍼스 분석 프로그램으로는 워드스미스 툴스(WordSmith Tools) 7.0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북한의 영어 교과서 분석에 따른 코퍼스 자료 구축을 위해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북한 영어 교과서 내의 모든 영어로 된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한 후 텍스트 파일(.txt)로 저장하였다.
- (2) 워드스미스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어휘 원형 리스트(lemma list)를 다운받아 분석대상 코퍼스 어휘를 원형(lemma) 작업하여 대표 어휘형으로 수정하였다.
- (3) 워드스미스의 워드리스트(WordList) 기능을 활용하여 북한 영어 교과서의 어휘 규모, 어휘 출현형(token), 어휘 유형(type), 어휘 다양성(TTR, Type/Token Ratio), STTR(Standardized TTR), 빈도(frequency), 문장 평균 길이 (Mean in sentence length)와 같은 코퍼스를 통하여 분석할 수 있는 전반적인 특성을 도출하였다.
 - (4) 워드스미스의 워드리스트 기능을 사용하여 북한 영어 교과서의 어휘 목록을 추출하였다.
- (5) 워드스미스의 키워드(KeyWord) 기능을 사용하여 동일 학년, 시대별 다빈도 어휘 및 핵심어성(keyness) 분석을 통해 북한 영어 교과서의 통시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및 논의

북한의 교육과정 개편 이전/이후에 사용된 학년별 교과서 각각의 어휘 수를 파악하기 위해 어휘의 출현형과 어휘 유형의 수치를 통하여 어휘 규모를 확인하였다. 북한의 중학교 2, 3, 6학년 영어 교과서의 어휘 규모와 어 휘 다양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각 교과서의 1996년 교육과정 개편 이전과 이후의 어휘 정보 를 [표 2]에 나타내었다

구분	어휘 규도	면 (Token)	어휘 유형 (Type)		
2학년	17,865 22,344		937	990	
3학년	13,581	15,899	1,259	1,215	
6학년	19,943	17,539	2,188	2,051	
전체	51,399	55,782	2,937	2,797	

<표 2> 교육과정 개편 전-후 어휘 규모

<표 2>를 살펴보면, 교육과정 개편 전에는 6학년의 어휘 출현형이 19,943개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17,875 개인 2학년, 그리고 3학년의 어휘 출현형이 13,581개로 가장 적었다. 그러나 교육과정 개편 후에는 2학년의 어휘 출현형이 22,344개로 가장 많고, 6학년은 19,943개, 3학년은 15,899개의 어휘 출현형을 나타났다. 연구 대상 학년이 3개 학년으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과서가 보통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문이 길어지고 제시되는 어휘의 개수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는 것과 달리, 북한의 영어 교과서에서는 학년 별 어휘 출현형에 뚜렷한 위계가 발견되지 않는다. 어휘 유형에 있어서는 교육과정 개편 전.후에 학년별로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데, 6학년의 어휘 유형이 제일 많고, 2학년의 어휘 유형의 수가 가장 적어서 학년별 위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과서에 사용된 어휘의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수치인 어휘 다양성(TTR, Type/Token Ratio)과 표준 화된 어휘 다양성(STTR, Standardized TTR) 값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2 37 2 14 3 41 E E 1 411 10 3							
구분	어휘 다양	냥성 (TTR)	표준화된 어휘	다양성 (STTR)			
2학년	5.24 4.43		15.77	15.15			
3학년	9.27 7.64		26.81	22.10			
6학년	10.97	11.69	22.63	23.26			
전체	5.71	5.01	20.49	18.10			

<표 3> 교육과정 개편 전-후 어휘 다양성

교육과정 개편 이전/이후의 북한 영어 교과서의 어휘 규모는 거의 비슷하지만, 보다 객관적으로 어휘 다양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STTR 수치를 확인한 결과, 교육과정 개편 이전에는 3학년의 STTR이 26.81로 가장 크고, 6학년과 2학년의 순서로 수치가 높았다. 따라서 교육과정 개편 이전에는 중학교 2학년 교과서의 어휘가 가장다양하게 쓰이고, 같은 어휘의 반복이 적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 개편 이후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STTR 수치가 15.15에서 22.10, 그리고 23.26으로 늘어났으며, 따라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다양한 어휘가사용되고 반복적인 어휘 등장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 개편 이후 2, 3, 6학년의 교과서 전체 코퍼스를 대상으로 하여 교육과정 개편 전의 동일학년 교과서를 참조로 추출한 핵심어휘는 다음과 같다.

	/TF 4/ TF 41	43 개편 이후의 핵심어취	
핵심어휘	개편 이전 빈도	개편 이후 빈도	ρ
apartment	30	1	.000
*leader	70	17	.000
*Juche	63	14	.000
*marshall	44	6	.000
sheep	63	15	.000
student	78	23	.000
bike	29	2	.000
everyday	34	4	.000
*Jongil	41	7	.000
certainly	23	1	.000
goat	27	3	.000
Pyongyang	37	7	.000
pig	28	4	.000
sure	59	19	.000
solve	25	3	.000
store	18	1	.000
excuse	18	1	.000
sir	17	1	.000
picture	44	13	.000
problem	34	8	.000
sorry	19	2	.000
fat	23	5	.000

<표 4> 교육과정 개편 이후의 핵심어휘

북한의 중학교 2, 3, 6학년 영어 교과서를 통틀어서 교육과정 개편 전과 후의 각 어휘목록을 비교한 결과,

^{*} 이념 어휘

'leader', 'Juche', 'marshal', 'Jongll' 등의 김정일과 관련된 어휘들이 핵심어로 검색되었다. 또한 북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어휘인 'apartment', 'bike', 'store'의 빈도수가 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의 교과서에서 유난히 빈도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시기를 전후로 해서 북한에, 혹은 적어도 평양에는 아파트 형태의 주거 문화가 새로 등장했거나 계속해서 정착하고 있는 과정이 교과서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워드스미스 툴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apartment'의 용례를 검색한 결과, 실제로 북한의 2008년 중학교 교과서에 "In Pyongyang there has been many apartment houses newly built." 나 "There is a river from which we can see apartment houses which has been newly built."와 같은 문장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교육과정 개편 전에는 빈도수가 2에 불과했던 'bike'는 개편 후 29로 상승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 시기에 북한에 자전거가 주요 이동 수단이 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하고 있는 북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상징중 하나인 'store'라는 어휘가 교과서에 나타나고, 그 빈도수가 1에서 18로 증가했다는 것은 북한에서도 시장화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핵심 어휘와 관련하여 영어 교육적인 측면에서 고려해보면, 'certainly', 'sure', 'excuse', 'sorry' 등과 같은 어휘들의 빈도수가 늘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어휘들을 콘코던스 기능으로 용례 검색을 하면 주로 "Certainly!", "Sure!", "Excuse me.", "Sorry, but..." 처럼 주로 담화표지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해당 교과서들의 다빈도 어휘 목록에서 회화형에 더 많이 쓰이는 축약형 어휘들이 상당 부분 사용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북한의 영어 교과서가 그 변화 속도는 느리지만 조금씩 읽기, 쓰기 및 문법과 문어체 텍스트 위주의 교육 내용에 실질적인 의사소통과 관련된 구어체 내용을 조금씩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북한 교과서의 통시적 분석을 통해 살펴본 핵심 어휘에 대한 양상은 김정은 시대에 개편한 교육제도와 관련하여 새로 발간되어 사용되는 교과서를 구하여 분석하면, 3대째 세습을 이어오고 있는 것과 관련된 이념적 어휘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 모습에 있어서도 가장 최근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핵심 어휘를 발견하고, 영어교육과 관련한 내용 및 어휘의 변화도 파악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이종, 최운실, 권두승, 이상오. (2004). 신 교육사회학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김지영, 이제영, 김정렬., (2017). 북한 영어 교과서 어휘의 통시적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4), 331-341. 윤현진, 주형미, 문영주, 추병완, 석두영. (2010). *국가교육과정개정 체제변화에 따른 교과서 정책개선 방안 연구* (연구보고 RRC 2010-16).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정아, 이교덕, 강호제, 정채관. (2015). *김정은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 서울: 통일연구원.

BIODATA

김지영은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영어교육학과 석사 과정을 마치고, 현재 박사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관심 분야는 영어 교과서, 어휘 교육, 코퍼스 분석 등이다.

Email: xerasia@hanmail.net

이제영은 전주대학교 영어교육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관심분야는 MALL, 코퍼스언어학, 연구종합 등이다.

Email: jylee@jj.ac.kr

김정렬은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관심분야는 컴퓨터 활용 영어교육, 초등영어교육, 영어교수법 등이다.

Email: jrkim@knue.ac.kr

북한 2013 개정 전·후 고급증학교 영어교과서의 어휘 비교

황서연(서울미동초등학교)

서론

북한은 2012년 학제 개편을 발표하고 그 후 북한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 이에따라 최근 북한의 영어교육은 2000년대와 다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의 선행 연구들과 북한의 잡지를 통해 살펴본 북한 중등 영어교육의 변화 모습의 특징을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보다 개정을 통해 영어교육 시수가 증대되고 영어교육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영어교육의 시수가 증대되어 소학교 4,5학년에서는 영어가 주당 2시간씩 편성되었고, 초급중학교에서는 주당 4시간, 고급중학교에서는 주당 3시간으로 중요 과목에 해당한다(정 채관,조정아,2017).

둘째, 북한 중등교육 단계의 영어교육은 통합교과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북한 교육관련 정기 간행물인 「인민교육」에서는 북한의 새 교육강령의 특징으로 세계적인 추세인 통합교육으로 종합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오명수, 2017). 북한의 교육신문에서도 새로 집필된 영어교과서에서는 다른 과목과 내용 중심통합 수업이 도입되어 있음을 분석하였다(배제이, 2015). 이렇게 북한의 교육관련 기사에서 밝히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따르려는 통합교과의 성격을 북한 고급중학교 영어교과서 어휘분석을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셋째, 최근 영어교육 내용에서는 학습자 활동 중심의 구성이 제시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과거 여러 선행 연구에서는 2000년대까지의 북한 영어교육의 특징으로 문법과 읽기 중심의 교육이었음을 밝혀왔다. 하지만 북한의 「인민교육」에서는 새로운 교육강령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새로운 교육강령에서는 대부분의 과목에서 관찰, 실험, 생각하고 토론하기, 해보기와 결과분석, 결과 이끌어내기와 같은 교수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서, 참고서 집필 원칙을 세웠다고 하였다(오명수, 2017). 따라서 북한 고급중학교 영어교과서에서도 학습자들이 생각하고 토론하며 참여하는 교육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지 그 변화 모습을 어휘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처럼 변화되고 있는 북한의 새로운 영어교육을 영어교과서 코퍼스를 활용하여 전반적인 변화 양상을 살펴 보고자 한다. 위에서 제시한 특징 외에도 북한 고급중학교 영어교과서의 어휘 분석을 통해 개정 이전과 이후 의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13 개정 북한 고급중학교 영어교과서이다. 이 북한 고급중학교 영어교과서들의 어휘 특징을 비교하기 위해 참조 코퍼스로 사용한 대상은 2013 개정 이전 구축된 가장 최근의 중학교 4~6학년 교과서이다. 코퍼스로 구축한 분석 교과서는 북한 자료센터에 소장되어 있는 영어교과서와 DVD자료이다.

<丑 1>

학년	2013 개정 전 북한 중학교 영어교과서	2013 개정 후 북한 고급중 영어교과서	남한 학제와 비교
1	중학교 4학년(2008)	고급중학교 1(2013)	고1
2	중학교 5학년(2008)	고급중학교 2(2014)	고2
3	중학교 6학년(2008)	고급중학교 3(2015)	고3

표 1과 같이, 본 연구의 대상인 2013 개정 후 북한 고급중학교 1~3학년은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1~3학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분석 대상은 개정이후 고급중학교 1~3학년 영어교과서로 2013~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발간된 것이다. 북한 고급중학교1학년(2013), 고급중학교 2학년(2014), 고급중학교 3학년(2015)은 개정 이전의 북한 중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에 대응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3개정 이후 고급중학교 1~3학년 영어교과서의 코퍼스와 개정 이전 2008년 출판된 중학교 4~6학년 영어교과서를 비교하여 개정 전후의 북한 영어교육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및 논의

개정 이전과 이후의 북한 고급중학교 영어교과서의 어휘 정보를 분석해 본 결과, 개정 이후에는 이전보다 어휘 출현형은 약간 줄었으나, 어휘 유형과 어휘 다양성이 증가하였다. 개정 이후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 기, 문법, 발음으로 단원의 활동이 구분이 되며 개정 이전의 읽기와 문법 중심의 영어교과서 구성과는 달라지 며 어휘 구성이 다양화되었다고 판단된다.

개정 전·후의 다빈도 내용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 구성 체제와 관련된 어휘들이 상위 빈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북한 개정 이후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에서 use, word, sentence, read, complete, say, ask, look, question, think, write 등의 어휘가 상위 20위 내외로 나타나 있었다. 이러한 어휘들은 개정 이후 북한 영어교과서에서 반복적으로 단원에서 활동지시문으로 제시된 어휘들이었다. 반면 개정 이전의 북한 영어교과서에는 그에 비해 일상적인 어휘들이 상위 20위 안에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개정 이전보다이후에 영어교과서에서는 다양하게 반복되는 영어교과서 단원 구성 체제와 활동지시문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둘째, 개정 이후에는 사상과 관련된 어휘의 사용이 줄었다. 개정 이전에는 leader, master, Jongil, marshal, Juche와 같은 북한의 사상을 나타내는 어휘가 상위 빈도에 포함되어 있었다. 반면 개정 이후에 영어교과서에서는 개정 이전에 사용되었던 이러한 어휘가 상위 빈도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개정 이후에는 북한 고급중학교 영어교과서 내에서 이념과 관련한 어휘의 출현이 줄었고 그에 따라 영어교육 내용에서는 사상과 관련한 교육을 축소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개정 전·후의 핵심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 구성과 활동 지시문 관련 어휘가 개정 이후 증가하였다. 개정 이후 단원명이 unit으로, 복습 단원은 revision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빈도수가 크게 증가하여 핵심어로 나타났다. 개정 이후 교과서 활동 지시문과 관련한 어휘의 출현 빈도도 늘어나 complete, listen, conversation, partner등이 핵심어로 선정되었다. 이것은 개정 이후 에는 영어교과서 활동 지시문에서도 'Complete the table', 'Discuss with your partner', 'Listen again and practise' 등이 제시되어 있어, 과거에 비하여 학습자들이 토론하고, 듣고 연습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즉, 이전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자들의 참여를 높이는 영어교육 활동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개정 이후 과학 기술 관련한 어휘가 증가하였다. 과거 개정 이전보다 정보통신, 환경과 관련된 어휘들의 빈도가 증가하여 computer, satellite, phone, environment, pollution 등이 핵심어로 선정되었다. 이에 최신 기술의 발달과 환경문제에 관하여 개정 이전보다 개정 이후에 북한 고급중학교 영어교과서에는 자세히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북한 고급중학교 영어교육에서 개정 이후 내용중심통합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배제이. (2015). 북한 영어교육 연구: 2000년대의 변화를 중심으로. 미출간박사학위논문. 북한대학원대학교, 서울.

오명수. (2017).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 강령의 특징. 인민교육, (2), 20-21.

정채관, 조정아. (2017). 김정은 체제 북한 중학교 교육과정 연구: 총론과 영어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외국 학연구, (39), 147-166.

BIODATA

Seoyeon Hwang is working as an elementary teacher. She is a Ph. D. Candidate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at Korea National Univ. of Education. Her research is mainly interested in the North Korean English Education and Corpus Linguistics.

Email: <u>kyong80@sen.go.kr</u> Phone: (02) 364-6524

북한 중학교 6학년 영어교과서에 나타난 교과 통합 어휘 분석

박선인(전주신성초등학교)

서론

현 정부 들어 한동안 단절됐던 남북 관계에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북한은 베일에 싸인 나라이며 우리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도 제한적이다. 이대로는 통일이 되어도 북한 주민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언어의 문제 뿐 아닌 정서적,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된다. 더욱이 교육적 교류가 전무한 상황에서 통일부를 통해서도 북한 교육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다는 것은 남북한 통일 시 미래 세대에게 전달할 교육에 대한 고민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국제어로서 기능하는 영어이기에 남한에서 북한과 교육적 교류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과목은 영어라고 보며, 현재 제한된 자료를 기반으로도 통일 이후의 교육과정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더욱이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학에 편입해도 기초 학습 내용과 방법의 차이로 인해 대학 생활 적응을 힘들어하며, 특히 영어를 어려워한다는 연구 결과는 통일시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선 북한의 영어교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정새론, 임현우, 2009). 북한 영어교과서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북한 영어교과서의어휘 난이도가 남한과 유사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분명히 차이는 존재하므로 북한의 영어교과서 어휘를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 파악해야 한다(김지영, 이제영, 김정렬, 2017). Nation(2001)에 의하면 전문 어휘는 특정 학문 분야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어휘로 일반어휘와 달리 특정 분포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area가 일반어휘로 사용되면 '지역, 영역'을 뜻하지만 수학 교과의 전문 어휘로 사용될 경우 '면적'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 영어교과서에 나타난 어휘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용례를 분석한다면 어휘난이도가 통제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3학년과 대응되는 북한의 중학교 6학년 영어교과서를 코퍼스 기반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일반어휘(general vocabulary)와 학술어휘의 분포 양상을 파악하고 빈출 학술어휘 목록을 작성하려 한다. 그리고 기본어휘와 학술어휘를 제외한 어휘를 교과별로 분류하여 통합교육 측면의 전문 어휘로 선정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 중학교 6학년 영어교과서에 나타난 어휘목록의 특징을 파악하여 북한의 영어 교육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구체적인 연구 문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어휘와 학술어휘의 분포 양상은 어떠한가? 둘째, 빈출 학술어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셋째, 전문 어휘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통합교육 측면에서 어떤 관련이 있는가?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08년에 출판된 김정일 정권의 중학교 6학년 영어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통합교육 측면의 전문 어휘를 살펴보려는 연구 목적이기에 중등교육의 마지막 학년인 중학교 6학년 영어교과서에 대학교 입학을 위한 학문적 어휘들이 다수 등장할 것으로 사료되어 선정하였다. 교과서에 영어로 제시된 모든 내용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고 이에 따라 17708개 단어 수준의 코퍼스가 구축되었다.

코퍼스 자료는 AntConc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어휘 원형 리스트(lemma list)로 레마처리를 하여 대표 어휘 형태로 수정하였다. 레마화 된 코퍼스는 AntConc의 어휘 목록(word list) 기능과 Range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코퍼스의 전반적인 특성을 도출하고 일반어휘, 학술어휘, 전문 어휘로 분석하였다. Coxhead(2000)의 학술어휘 선정 기준에 따르면 전체 학술 코퍼스에서 100회 이상의 빈도수를 기록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상 코퍼스 규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Nation(2001)의 학술어휘와 전문 어휘 구분 기준인 특별한 영역에 대한 의존성

을 참고하였다. 이에 따르면 특정 학문 분야에 의존도가 높은 학술어휘는 전문 어휘로 분류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AWL과 일치하는 어휘를 학술어휘로, GSL과 AWL을 제외한 내용어(content word) 중 교과와 관련 있는 어휘를 전문 어휘로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1) 일반어휘와 학술어휘

타입과 토큰의 계산은 레마화(lemmatization) 이전의 코퍼스 자료를 사용하였고, 전체 어휘 목록에서 GSL 1000, GSL 2000, AWL에 해당하는 어휘,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어휘를 Not in the lists로 분류해 각각 차지하는 수와 그 비율을 나타내었다. 북한 중학교 6학년 영어교과서 어휘 규모의 통계 결과는 다음 <표 1>에 나타나 있다.

	GSL 1000	GSL 2000	AWL	Not in the lists	합계	
토큰 수	14636(82.65%)	1181(6.67%)	273(1.54%)	1618(9.14%)	17708	
타입 수	1204(60.56%)	355(17.86%)	70(3.52%)	359(18.06%)	1988	
TTR	8.23	30.06	25.64	22.19	-	

<표 1> 북한 중학교 6학년 영어교과서의 어휘 규모

2) 빈출 학술어휘

Coxhead(2000)의 AWL과 일치하는 북한 중학교 6학년 영어교과서의 학술어휘는 51개이며 등장 횟수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횟수	개수	핵심어
10 회 이상 출현	7	revolution(38 회), philosophy(17 회), liberate(16 회), principle(15 회), sum(14 회), resolve(11 회), role(11 회)
4 회 이상 10 회 미만 출현	17	code(7 회), grade(7 회), text(7 회), extract(6 회), medical(6 회), whereas(6 회), bulk(5 회), culture(5 회), displace(5 회), random(5 회), establish(4 회), institute(4 회), objective(4 회), occupy(4 회), prohibit(4 회), task(4 회), transform(4 회)
3 회 출현	16	achieve(3 회), adapt(3 회), approach(3 회), emerge(3 회), factor(3 회), fundamental(3 회), labour(3 회), ladder(3 회), maintain(3 회), method(3 회), neutral(3 회), policy(3 회), specific(3 회), subordinate(3 회), target(3 회), theory(3 회)
3회 미만 출현	11	classic(2 회), evolve(2 회), unify(2 회), source(2 회), team(2 회), finally(1 회), ideology(1 회), military(1 회), occur(1 회), period(1 회), principal(1 회)

<표 2> 북한 중학교 6학년 영어교과서의 빈출 학술어휘

3) 통합교육 측면의 전문 어휘

본 연구는 기본어휘와 학술어휘를 제외한 어휘를 교과별로 분류하고 이를 통합교육 측면의 전문 어휘로 선정하였다. 다만 전문 어휘를 통합교육 측면에서 알아보려는 연구 목적에 따라 고유명사 중 교과와 관련이 깊은 Newton, Korean과 같은 어휘는 제거하지 않았다. 절차에 따라 구축된 북한 중학교 6학년 영어교과서에서 통합교육 측면의 전문 어휘 목록은 <표 3>과 같다.

<표 3> 북한 중학교 6학년 영어교과서에서 통합교육 측면의 전문 어휘

교과	핵심어	횟수	교과	핵심어	횟수
체육과	Olympic	39	사회과	Pyongyang	36
	medal	16		fatherland	29
	sportsman	14		Korean	26
	hockey	8		generalissimo	16
	ski	7		Korea	15
	league	6		Japanese	13
	playground	6		democratic	9
	rink	5		imperialist	6
	athlete	4		socialist	6
	gymnastic	4		aggressor	5
	marathon	4		geography	5
	stadium	4		Greece	5
	wrestle	4		invade	5
	basketball	3		Scotland	5
	skate	3		Cambridge	4
	score	1		Ohio	4
	tennis	1		peasant	4
	volleyballs	1		emperor	3
과학과	wolf	23		Manchuria	3
	Newton	18		yankee	3
	laboratory	10		Badagou	2
	hare	9		Chinese	2
	bat	8		negro	2
	chemistry	8		Russian	2
	lion	8		Africa	1
	biology	7		communist	1
	bronze	7		England	1
	Archimedes	6		Europe	1
	chestnut	6		Japan	1
	gravitation	5		seashore	1
	gravity	5	수학과	arithmetic	5
	physics	5		mathematician	3

planet	4		triangle	3
Archimedean	3		math	1
astronomy	3		mathematics	1
apricot	3	국어과	Sambo	19
flowerpot	3		Jane	16
plum	3		Eliza	14
twig	3		Crusoe	13
twin	3	기술가정과	yolk	4
dimple	2		delicious	3
grape	1		carpentry	3
ore	1		edifice	3
peach	1	예술과	concert	5
pear	1		tone	3
			sketch	5

결론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종합적으로 바라본 북한 중학교 6학년 영어교과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텍스트가 김정일 중심에서 파생되었다고 느낄 정도로 이념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으며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우상화와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영어교과서에도 일상적인 소재나 연령대에 알맞은 흥미 위주의 글이 아닌 사상과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텍스트를 의도적으로 선정하고 있다.

둘째, 교과서의 학술어휘와 전문 어휘 모두에 도덕적 성격을 띤 어휘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교내 과학실을 물리실, 화학실, 생명과학실로 세분화하였는데 교과서가 편찬된 2008년의 북한 현실을 생각하면 당시 얼마나 과학기술을 중시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셋째, 영국식 어휘로 교과서가 편찬되었다. 따라서 남북한 공통 영어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발할 때에는 이러한 차이점에 유의하여 *centre/center*처럼 두 가지 표현 모두를 수록하는 방법을 택해야겠다.

참고문헌

김정렬 (2020). 남북한 영어교과서 어휘의 차이. 한국콘텐츠학회, 20(1), 107-116.

김정렬, 김지영 (2017). 북한 영어교과서 특성 파악을 위한 코퍼스 구축. 영어영문학, 22(2), 207-232.

김정원, 김지수, 한승대 (2015). 북한 초·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 변화 방향. 한국교육, 42(4), 29-55.

김지영, 이제영, 김정렬 (2017). 코퍼스 기반 남북한 영어교과서 어휘의 공시적 분석. 언어과학, 24(2), 25-56.

신동광, 주헌우 (2008). 영어과 교과서 검정용 어휘 목록 개발: 어휘 검색 프로그램 및 기본 어휘 목록에 대한 고찰. 멀티미디어 언어교육, 11(3), 93-111.

외교부. 영국 개황 (2013.10 월). http://www.mofa.go.kr/www/index.do

- 유희연, 김정렬 (2018). 북한의 2013 교육과정 개정 전·후 영어교과서 구성 체제 비교. 한국콘텐츠학회, 18(7), 412-422.
- 유희연, 김정렬 (2019). 북한 2013 교육과정 개정 전·후 영어교과서 코퍼스 기반 비교: 고급 중학교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 603-622.
- 정새론, 임현우 (2009). 북한이탈주민들의 관점에서 본 남북한에서의 영어 학습. 중등교육연구, 57(3), 85-111.
- 조정아 (2014), 김정은시대 북한 교육정책 방향과 중등교육과정 개편, 통일정책연구, 23(2), 177-206.
- 통일부. 2008 년 북한이해 (2008). https://unibook.unikorea.go.kr
- 황서연, 김정렬 (2017). 북한 제 1 중학교 영어교과서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17(11), 242-251.
- Anthony, L. (2007). AntConc 3.2.4. Retrieved October 4, 2011, from http://www.antlab.sci.waseda.ac.jp/antconc index.html.
- Coxhead, A. (2000). A new academic word list. Retrieved July 15, 2019, from https://www.victoria.ac.nz/ data/assets/pdf file/0020/1626131/Coxhead-2000.pdf.
- Coxhead, A. & P. Nation. (2001). The Specialized Vocabulary of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In J. Flowerdew and M. Peacock (Eds.), Research perspectives on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pp. 252-267).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atley, A., Nation, I. S. P., & Coxhead, A. (2002). RANGE and FREQUENCY programs. Retrieved from https://people.wgtn.ac.nz/paul.nation
- Nation, I. S. P. (2001).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zzo, C. (2010). Getting on with Corpus Compilation: From theory to practice. ESP World 1(9), 1-23.
- West, M. (1953). A General Service List of English words. London: Longman.

BIODATA

Sunin Park is an elementary school teacher. She is a master's degree candidate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NUE). Her research is mainly interested in the area of elementary English education, corpus, and technology enhanced English teaching.

Email: hylsi0208@naver.com

2021 KATE SIG Conference

연구 윤리 교육

허 근 (한남대학교)

2021 KATE SIG Conference

연구 윤리 교육

- 1. 표절의 유형
- 2. 표절을 피하는 인용방법
- 3. 논문 심사를 수락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표절의 유형

연구윤리정보센터(Center for Research Ethics Information)

- 아이디어 표절 (Plagiarism of Idea)
- ▶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주장, 논리의 전개 등을 출처 밝히지 않고 사용
- ② 텍스트 표절 (Plagiarism of Text)
- ▶ 타인의 독창적인 텍스트에 대하여 출처 밝히지 않고 사용

표절의 유형

- ③ 말 바꿔 쓰기 표절 (Paraphrasing Plagiarism)
- ▶ 타인의 글을 출처 밝히지 않고 paraphrasing, summarizing
- ◀ 번역물에 대한 표절 (Plagiarism of Translation)
- ▶ 외국어로 쓰인 글을 그대로 번역하여 출처 밝히지 않고 사용

표절의 유형

- ⑤ 2차 문헌 표절 (Plagiarism of Secondary Sources)
- ▶ 재인용 표시를 정확히 하지 않고 사용
- ◎ 모자이크 표절 (Mosaic Plagiarism)
- ▶ 타인의 글과 자신의 글을 섞어 활용하면서 출처 정확히 밝히지 않고 사용

표절의 유형

- 😰 포괄적 개괄적 출처표시에 의한 표절
- ▶ 두루뭉술하고 불명확한 출처 표시
- ③ 정확하지 않은 출처 표시에 의한 표절
- ▶ 사실과 다른 정보, 왜곡된 자료, 분석, 주장 등을 제시

표절을 피하는 인용방법

연구윤리정보센터(CRE

- 1. 인용된 저작물의 서지정보 표기 정확히 하기
- 2.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분량 지키기: 나의 저작물이 주가 되도록 과도한 인용 지양
 - 3.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베끼지 않기: 나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바꾸어 쓰기
 - 4. 타인이 기여하는 부분 명확히 표기
 - 5. 직접인용은 반드시 " " 인용부호 사용하기
 - 6. 원전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재인용 표기하기
 - 7. 비공개 자료 출처표기: "OO기관의 비공개 자료" 등 개괄적 표기

연구 윤리 퀴즈

- ▶ 다음 중 틀린 내용을 고르세요.
 - ① 비의도적인 표절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 ② 일반적인 지식은 출처표기가 없어도 된다.
 - ③ 타 연구에서 발췌한 내용은 모두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
 - ④ 지도교수는 학생논문을 출처표기 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연구 윤리 퀴즈

▶ 다음 중 틀린 내용을 고르세요.



- ① 비의도적인 표절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 ② 일반적인 지식은 출처표기가 없어도 된다.
- ③ 타 연구에서 발췌한 내용은 모두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
- ④ 지도교수는 학생논문을 출처표기 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ELSEVIER

10 reasons to accept your (next) invitation to review

By Christopher Tancock(February 26, 2019)

- 1.Quid pro quo(보답)
- 2. Stay at the forefront (최신 연구동향 유지)
- 3. Mentoring new talent (멘토링 능력 개발)
- 4. Engage with the literature even before authoring yourself (출판경험 이전 참여)
- 5. Evolve and develop critical thinking (and criticism) skills (비판적 사고능력 향상 및 개발)
- 6. Network (with editors and journals) (네트웍 형성)
- 7. Helping to steer science (연구 내용의 방향 및 심사 판정 조언)
- 8. Help prevent bad science and uphold standards(잘못된 연구방지 및 표준유지)
- 9. See the experience from the other side(심사자의 입장 경험)
- 10. It's fun! (즐거움)



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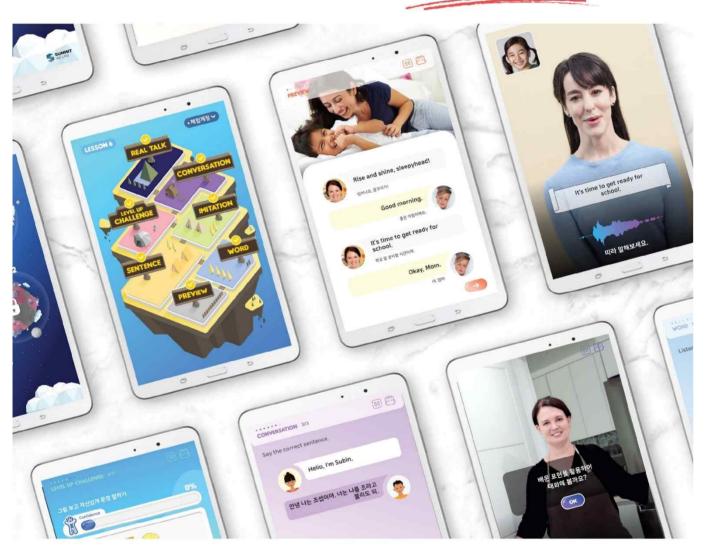
연구윤리정보센터(Center for Research Ethics Information). https://www.cre.or.kr/

이인재 (2015).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Tancock, C. (2019). Ten reasons to accept your (next) invitation to review. *Elsevier Connect* Retrieved on February 26, 2019, from



KATE도 인정한 영어말하기 자신감의 시작, 써밋 스피킹



음성, 감성 모방학습 분석! AI 기반 리얼 톡 (REAL TA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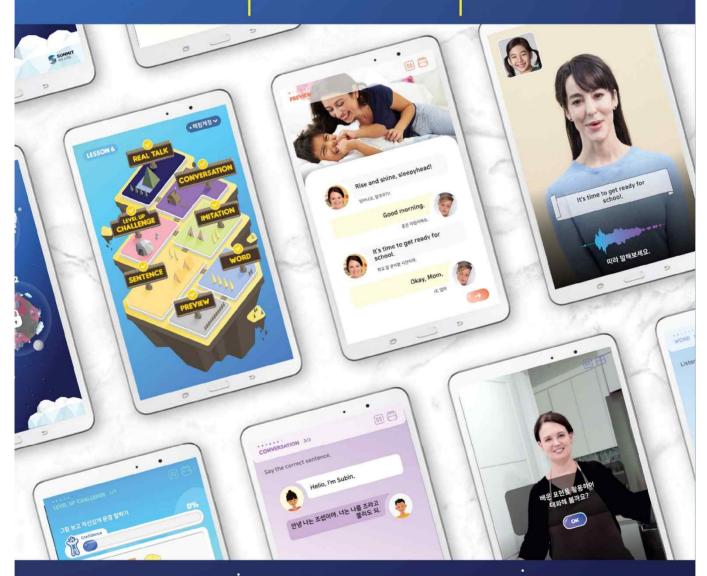
summit.daekyo.com

영어 지식 습득과 말하기 훈련을 동시에!



KATE도 인정한 영어말하기 자신감의 시작, 써밋 스피킹

음성, 감성 모방학습 분석! AI 기반 리얼 톡 (REAL TALK) 영어 지식 습득과 말하기 훈련을 동시에!





summit.daekyo.com



Smart CHOICE FOURTH

NEW



Smart learning - your way, every day 매일 매일 내 방식대로, 스마트 러닝!













Oxford University Press





- · Student Book with Online Practice
 - Workbook
 - · Multi-Pack: Student Book / Workbook A
 - · Multi-Pack: Student Book / Workbook B
 - · Teacher's Guide with Teacher Resource Center
 - Classroom Presentation Tool Access C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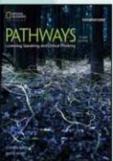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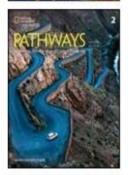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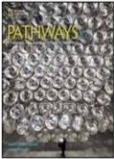


- 전 세계의 선생님들이 극찬한 '원페이지 원레슨' 구성
- 더 많은 참여와 동기 부여 방법 제공
 - 1. Student Book의 매 유닛마다 수록된 새로운 Over to You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대화를 이끌어내 줄 수 있고, 잘짜여진 구조와 대화 모델로 모든 수준의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습니다.
 - 2. 새로운 다큐멘터리 비디오로 실생활 주제를 탐구할 수 있으며, 보너스 유닛의 비디오 활동을 통해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외 모든 비디오 파일이 신규 제작 되었습니다.
 - 3. 퀴즈, 설문 조사, 게임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 4. Online Practice가 새롭게 모바일용으로 최적화되었습니다.











Pathways [2nd Edition]

Listening, Speaking and Critical Thinking

High Beginner - Advanced

Becky Tarver Chase | Kristin L. Johannsen | Paul MacIntyre | Kathy Najafi | Cyndy Fettig

National Geographic의 컨텐츠로 학습하는 Skill 통합 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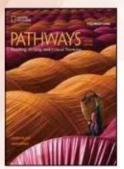
Pathways는 신중하게 계획된 Lesson을 제공하고, 학업에서의 성공을 위한 언어 능력, 비판적 사고력, 학습 전략 등을 개발하도록 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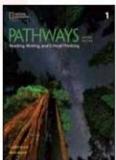
- 2nd Edition에서는 National Geographic의 팟캐스트, 강면, 인터뷰, 대화 등 다양한 형식의 듣기가 포함되었고, 많은 지문들이 업데이트되었다.
- 명쾌한 설명과 듣기, 필기, 말하기, 문법, 어휘 및 발음의 연습을 통해 영어 구사력을 높이고 학습 능력을 길러 주다
- Speaking 섹션에서는 세심하게 조정된 문제를 통해 문법적 요소부터 발음까지 학습할 수 있다.
- 강의와 프리젠테이션의 슬라이드 쇼는 듣기 활동을 강화하고 프레젠테이션 Skill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듣기와 말하기의 통합 학습을 비탕으로 TOEFL®과 IELTS 등 다양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다.
- Listening passages have been extensively updated and incorporate a variety of listening types such as podcasts, lectures, interviews, and conversations.
- Explicit instruction and practice of note-taking, listening, speaking, grammar, vocabulary, and pronunciation develop language proficiency and build academic skills.
- Speaking lessons guide learners from controlled practice to final speaking task while reinforcing speaking skills, grammar for speaking, and key pronunciation points.
- Slide shows of lectures and presentations enhance listening activities and develop presentation
 stille.
- Integrated listening and speaking activities help prepare students for standardized tests like TOEFL® and IEL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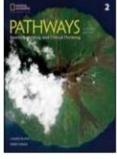
Pathways: Listening, Speaking and Critical Thinking Foundations-1-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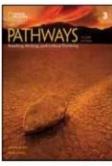
- Student Book with Online Workbook
- Teacher's Guide

- Student Book A-B with Online Workbook
- Classroom DVD / Audio CD Pack











Pathways [2nd Edition]

Reading, Writing and Critical Thinking

High Beginner - Advanced

Laurie Blass | Mari Vargo

Academic Literacy Skill 향상을 위한 최적의 교재

Pathways는 체계적으로 계획된 Lesson을 제공하고, 학업에서의 성공을 위한 언어 능력, 비판적 사고력, 학습 전략 등을 개발하도록 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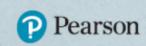
- National Geographic의 비디오, 차트, 인포그래픽 등의 현실적이고 유의미한 컨텐츠를 통해 효과적으로 확습할 수 있다.
- Explore the Theme 섹션에서는 매 Unit의 주제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시각 정보 해석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
- 명확한 Writing 모델과 온라인에서의 Guided Writing 연습은 좀 더 자신감 있고, 탁월한 Writing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 어형, 연어, 접미사, 접사, 동사구 등을 포함한 Vocabulary Extension 섹션을 통해 독해와 작문의 유창성을 향상시켜 준다.
- MyELT의 온라인 워크북에서는 레벨별 문제를 자동으로 제공하며, 교재에서 학습한 Skill을 연습할 수 있다.

Pathways offers carefully-guided lessons and help learners develop the language skills, critical thinking, and learning strategies required for academic success.

- Authentic and meaningful content from National Geographic, including video, charts, and other info-graphics, prepares students to study effectively.
- Explore the Theme asks learners to engage with the unit's topic immediately, and develops their interpretation skills of visible information.
- Clear student writing models and guided online writing practice train students to become stronger and more confident writers.
- Vocabulary Extension activities, including word forms, collocations, affixes, phrasal verbs, and more, boosts reading and writing fluency.
- Online Workbook, powered by MyELT, include automatically graded activities for learners to practice the skills taught in the Student Book.

Pathways: Reading, Writing and Critical Thinking Foundations-1-2-3-4

- · Student Book with Online Workbook
- Teacher's Guide
- Presentation Tool CD-ROM
- Assessment CD-ROM with ExamView
- Student Book A-B with Online Workbook
- Audio CDs
- Classroom DVD



21st century students learn in a new way













Today's learners are used to getting the content they need fast, on the go, and through all the different media they can get their hands on.

English for 21st century learners

StartUp helps students learn English for the 21st century.

Personalized, flexible teaching

StartUp gives you the flexibility to teach the way you want.

· Motivating and relevant learning

The rich, integrated digital content draws students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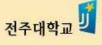






전주대학교 입학처

입학사정팀 Tel 063 220 3233-7 Fax 063 220 3238 입학자원실 Tel 063 220 2700 Fax 063 220 2658 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입학처 입학홈페이지 www.jj.ac.kr/iphak * 자세한 사항은 전주대학교 입학홈페이지를 참조.



2021 KATE SIG (Special Interest Groups) Conference

'English Language Teaching Beyond the Classroom'

발행인: 강후동

발행처: 한국영어교육학회(KATE)

학회 홈페이지: http://www.kate.or.kr

[비매품]